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부처님 오신날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5월 3일(음력 4월 6일) 수요일 (주간) 제 576 호

어린이 포교 '놀토'에 답 있다

본지 설문조사, "레크리에이션 좋아" 56%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동심잡기' 열쇠

어린이포교가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주5일제와 월2회 '놀토'(토요휴업일) 시행이후 사찰만이 실시가능한 다양한 자연체험학습과놀이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어린이 법회 참여인원이 대폭 늘고 있다.

부산 금천선원의 경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10명밖에 안되던 어린이 법회 참가 인원이 최근 100여명으로 늘었다.

학부모들의 경우도 어린이 프로그램 실시사찰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종국에 가서는 어린이 프로그램 실시 유무에 따라 신도들이 많고 적게 되는 사찰 양극화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6월 29~30일부터 7월 27일~28일까지 전국 4개 권역별로 실시하는 2550(06)년도 본·말사주지연수에서 '노는 토요일, 동심을 잡아라!'라는 주제의 교육시간을 잡아놓고 있다. 이 강의시간에는 (사)동련의 어린이 교육연구소가 최근 사찰에서 응용가능한 프로그램 200여개중 곧바로 실시할 수 있는 100여개를 소개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어린이 포교가 활성화의 활로를 찾은 것은 놀토시행등 제도적인 요인도 있지만 변화되고 있는 어린이 불자들의 신행에서 찾을 수 있다.

본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996년(564명)과 2006년(637명) 실시한 어린이 불자들의 설문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신행의식이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이 96년의 경우 80%가 부모에게 이끌려 절에 간다고 응답한 반면 올해 조사에서는 17.6%만이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절에 간다고 응답했다. 81.6%는 어린이법회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답했다.

또 96년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을 묻는 질문에 염불 33.8%, 절(108배) 26.2%, 법문 16% 등의 순으로 꼽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오히려 집에서도 절이나 기도, 참선 등을 스스로 해 본적이 있다는 대답이 63%나 됐다.

어린이 불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시행이 주효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 올해 조사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레크리에이션 및 놀이(56%), 법문(9.6%), 스님과의 대화(7.3%), 찬불가배우기(6.8%), 불교구연동화(5.5%)등을 들었다. 96년 응답자의 32.2%가 프로그램 자체에 흥미가 없으며, 68.4%는 불교게임이나 오락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같은 현상에 대해 (사)동련 정일훈 기획팀장은 "지난 10년간 어린이법회 운영이 다양해지고, 새싹포교도 부모를 통한 간접포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포교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6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4월 30일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는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한마당 잔치였다. 사진=박재완 기자

"넘치는 기쁨 행복한 세상"

4월 30일 서울·대구 등서 연등축제…'세계적 축제' 자리매김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4월 30일 서울을 비롯해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연등법회에서 봉축위원장 지관(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지혜와 자비로 무장한 보살행이 넘쳐나면 반목과 갈등의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며 "인류의 하나뿐인 별, 늘 푸른 지구촌이 오래도록 아름답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각성하는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발원하자"라며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 낭독을 통해 "이 끝없이 기쁜날 남과 북을 비롯한 해외의 불자들은 민족의 온전한 통일을 발원하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따라 쉼 없는 실천행에 함께 힘 모으기를 서원한다"라고 발원했다.

오후 7시부터 동대문야구장-탑골공원-종각-조계사로 이어진 제등행진에서는 학등, 용등, 탑등, 어린이등을 위시해 수백 가지의 화려한 장엄물과 15만여 개의 등불이 서울 종로 밤거리를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어 오후 9시 30분부터는 종각 사거리에서 안치환 거북이 정수라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연등음악회와 대동마당이 열려 축제의 흥을 한 것 돋우웠다.

이에 앞서 정오부터 서울 조계사 앞 사거리에서 펼쳐진 불교문화마당에서는 7개국의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국제불교마당과 자원봉사, 자선바자, 문화체험, 사회복지한마당 등 행사가 열려 불자들은 물론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

서울 지역만 연인원 30여만 명이 참석한 이번 연등축제는 명실공히 세계인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났다. 한편 부산은 4월 29일 광주는 28일 각각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관련화보 16·17면

김주일·조용수 기자

교황청 봉축메시지 발표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인 마이클 피츠제럴드 대주교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25일 "전세계의 모든 불자 여러분과 불교 공동체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는 내용의 경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편, 가톨릭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도 부처님오신날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조용수 기자

부처님오신날 buddhanews.com 클릭하세요!
영상특집 '부처님의 32상'이 뜹니다

지면안내

봉축특집 64면 발행

A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어린이 신행의식 설문조사 3면
통계로 본 어린이 법회 실태 4면
어린이 포교 선택아닌 필수 5면
나는야 어린이 포교사 6면
초파일날 절에 가면 선물 '한아름' 7면
동국대 건학 100주년 특집
06학번 새내기들 홍기삼 총장 만나다 13면
각종단 대표 봉축법어 14~15면
양극화 극복 불교에서 찾는다
프롤로그/좌담 21~23면
현장을 뛰는 사람들 24면

B
불교의 경쟁력 진단
1+1=3이 되는 효과 1면
'SER-M' 분석으로 본 불교의 경쟁력 2~3면
어린이날 웰빙 음식 만들기 13면
큰스님 편안하십니까-천운 스님 16~17면
특별정담, 명상과 정신과학 14~15면
만화로 보는 부처님의 하루 20면
한국 고승들의 탄생 이야기 21면

우리도 부처님같이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 오신 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 오신 뜻을 가리며

개인은 더욱 행복해지고 가정은 더욱 평화롭고
국가는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종정 도림 법전

원로의장 종산 총무원장 지관
중앙종회의장 법등 교육원장 청화
호계원장 월서 포교원장 도영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오늘 맞잡은 손에 국민 감동

지관 스님 · 정진석 추기경, 성가정입양원서 첫 만남

"불교에서는 어린이를 '천진불'이라며 부처님과 같다고 말하는데, 마침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어린이날과 겹쳐 더욱 뜻이 깊습니다."(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5월 5일(음력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27일 가톨릭계서 운영하는 서울 성북동 성가정입양원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지난 3월 추기경에 서임된 정진석 추기경과 첫 만남을 가졌다.


지관 스님(왼쪽)과 정진석 추기경이 어린이를 안고 자비로운 세상이 되길 기원했다.

오후 3시 지관 스님과 총무원 부 · 실장 스님들이 입양원 마당에 들어서자 마중 나온 시설 관계자와 자원봉사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정진석 추기경은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해 우리 입양원을 방문해 주신 지관 스님과 같이 수행해온 스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조계종 스님들을 맞았다. 지관 스님과 정진석 추기경은 이날 첫 만남이었지만, 오랜 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맞잡은 두 손을 놓을 줄 몰랐다. 이어 지관 스님 일행은 서울대교구 허영엽 신부의 사회로 간단한 시설소개와 환영인사를 받고 입양원장 윤영수 수녀에게 총무원이 마련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지관 스님과 정진석 추기경은 입양원 2층의 신생아실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환담도 나눴다. 이곳에서 원장 수녀로부터 아기를 받아 안고 어르던 지관 스님이 "지금까지 우리 종단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계 복지시설만 들렀는데 올해는 특히 이곳을 제일먼저 들렀다"고 말하자, 정진석 추기경은 "5월 5일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쳐 더욱 의미가 깊다"고 화답했다.

입양원 마당에서 기념 촬영을 끝낸 지관 스님이 다음일정을 위해 차에 오르기 직전까지 두 사람은 손을 놓지 못했다. 정진석 추기경은 "오늘 불교와 천주교가 손을 맞잡은 모습을 방송과 신문을 통해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의 이날 방문은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두 종교간의 화합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다.

한편, 지관 스님은 이날 오후 5시 도선사에서 운영하는 혜명보육원,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연합회, 신당1동 어린이집 등 불교계 복지시설을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비구니 원로 '명사' 법계 품서

조계종, 혜운 · 광우 · 묘엄 · 명성 스님 등 6명

혜운 광우 묘엄 지원 명성 정훈 스님 등 조계종 원로 비구니스님들이 종단 최고 법계인 명사에 품서된다. 2004년 비구원로 27명에게 대종사 법계가 품서된 이후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부는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2차 법계위원회(위원장 혜정) 회의를 열고, 단일계단의 니화상을 지낸 비구니 원로스님 6명에 대한 '명사' 법계 품서와 '법계법 시행령' 제정을 결의했다.

이번 품서되는 '명사' 법계는 승랍 40년 이상에 21조 가사(비구는 25조)를 수할 수 있으며, 비구스님들의 대종사와 같은 법계다.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종정 법전 스님으로부터 정식 법계를 인정받는다.

법계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비구 견덕(비구니 계덕)부터 대종사(명사)까지 6단계로 이뤄진 법계구분이 명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총무원에 법계법 시행령을 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법계위 위원장 혜정 스님은 회의에 앞서 종정 법전 스님을 대신해 해인사 율원 율주 종진 스님에게 법계 제도 정착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포상했다. 조용수 기자

"황 박사 무혐의 선처를"

조계종 원로스님 9명 청와대에 청원

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9명 스님 이름으로 '황우석 박사의 무혐의 선처와 연구재개'를 바라는 청원서를 4월 2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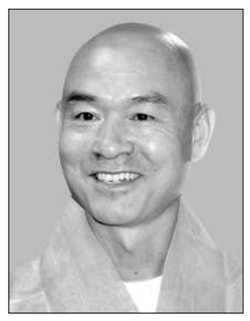
탄원서는 "줄기세포 연구는 종교나 이념을 떠나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수억 창생을 위한 고귀한 연구이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여론 대립은 하루빨리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스님은 이날 원로의원 스님들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공개하고 오후에 청와대와 검찰청에 문건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탄원에는 원로회의 의장 종산, 전계대화상 성수, 혜정, 원명, 초우, 진제, 동춘, 이두 스님 등이 동참했다.

진관 스님은 "황우석 박사 문제에 종단이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원로의원 스님들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이사회 갈등 풀고 종단과 유기적 관계 모색"

동국대 새 이사장 영배 스님



"학교 구성원들간 화합을 위한 방향점을 모색하겠다."

4월 27일 동국대 본관에서 열린 제218차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새 이사장에 만장일치 선출된 영배 스님(사진)은 "학교 갈등의 원인은 바로 이사회"라며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인 조계종 소속 스님들과 그 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월 18일부터 제35대 이사장 임기가 시작되는 영배 스님은 "교육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하겠다"며 "총무원장스님이 종단 원로이자 선배님이여서 그런 점에서는 자유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이사가 된 후 상임이사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동안 학교 실상을 잘 알 수 있었다"는 영배 스님은 "이를 바탕으로 법인과 학교 관리감독을 충실히 할 생각"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영배 스님은 "현재 각 대학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학교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질 것인가를 모색하겠다"며 일산불교병원의 예를 든 뒤 "2천만 불자의 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설립취지가 무색할 수도 있다"며 재정적 어려움 등에 대해 종단의 협조를 구할 뜻을 나타냈다.

영배 스님은 "이제부터는 학교와 종단이 분리돼 갈등과 대립을 하지 않고 동국대라고 하면 조계종 대학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장 취임식과 관련 "과거 취임식과는 다른 형태로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영배 스님은 1966년 경하 스님을 은사로 수계한 후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제11 · 12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13대 중앙종회의원이다.

남동우 기자

CBS 등 경인방송 새 사업자로

"종교방송化 우려"

조계종 등 불교계의 우려속에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로 기독교방송(CBS) 등이 참여하는 '가칭 (주)경인TV컨소시엄(대표 신현덕)'으로 최종 결정됐다.

현 방송위원들의 임기만료 1개월도 남지 않은 방송위원회가 4월 28일 경인민방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위원장 성유보)를 열고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와 미디어윌, 경기고속, 매일유업, 기독교방송 등이 참여하는 (주)경인TV컨소시엄을 새 사업자로 선정한 것. 지난 3월 초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종교편향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권영기 대장 · 김용림씨 '불자 대상'

2군 사령관 권영기 대장과 방송인 김용림씨가 올해 불자대상을 수상했다.


권영기 대장


김용림씨

권영기 대장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2군 사령관으로 재직중이다. 1994년 육군본부 불교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3월까지는 국군불교총신도회장으로 군불교진흥에 진력을 다해왔다.

김용림씨는 남편 남일우씨와 함께 조계종 신도증 홍보모델, 해인사 동판 팔만대장경 홍보대사 등으로 활약, 방송 등을 통해서도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해온 불자로 잘 알려져 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5월 5일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서 두 사람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조용수 기자

진각종 종의회 의장 혜인 정사 선출



진각종은 4월 26일 서울 총인원 내 종의회 회의실에서 재적의원 37명 중 36명이 출석한 가운데 제347회 정기 종의회를 열고 혜인 정사(행원심인당 주교 · 사진)를 제12대 종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혜인 정사는 1986년 신덕심인당에서 교화를 시작, 득도심민당 주교, 사감위원, 통리원 재무부장, 진각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종의회 부의장에는 의현(의밀심인당 주교) 정사와 지명혜(밀엄심인당 주교) 전수가 선출됐다.

김주일 기자

국보 56% · 보물 65%가 '성보'

조계종 문화부, 불교문화재 현황목록 발간

국보 가운데 성보문화재가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물의 경우는 3분의 2 정도가 성보문화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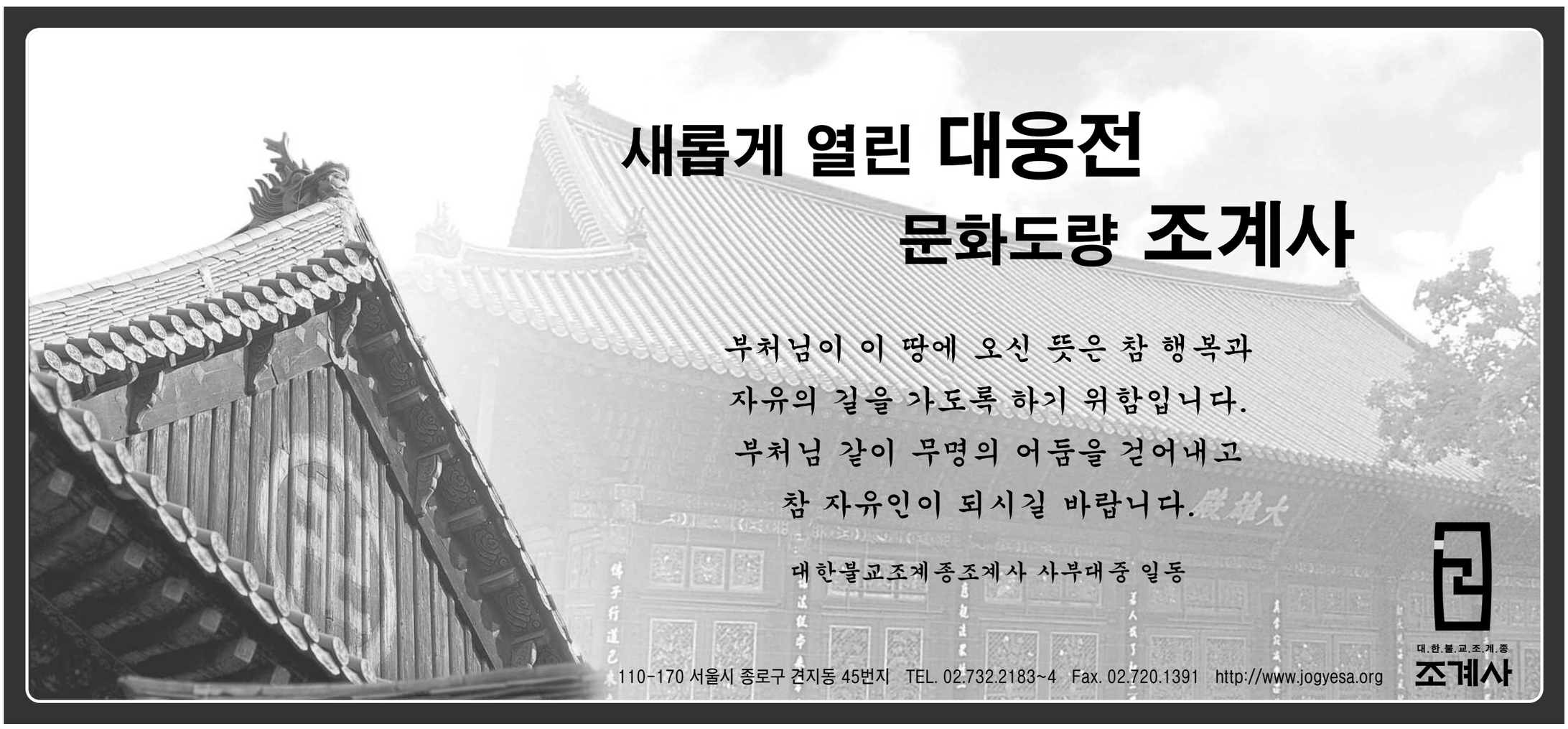
조계종 문화부(부장 탁연)가 최근 발간한 2006년도 불교문화재 현황목록집에 의하면, 국보 308점 가운데 성보문화재는 173점으로 전체의 56.4%이며 이 중 71건은 국가 소유, 62건은 조계종, 38건은 개인소유, 2건은 조계종 이외 종단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물의 경우 전체 1457점 가운데 935점, 65.3%가 성보문화재이며 소유자는 조계종이 422점, 국가 339점, 개인 152점, 조계종 이외 종단 21점, 기타 1점으로 밝혀졌다.

시도유형문화재는 전체 2219점의 시도유형문화재 가운데 52.9%인 1173점이 성보 문화재이며 그 가운데 65%가 조계종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목록집은 문화재청이 2006년 1월 31일 현재 지정 고시한 문화재를 조사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국가지정문화재 불교문화재 목록과 시도지정문화재 불교문화재 목록, 불교문화재 현황 통계 등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김두식 기자



“재미있어서 어린이법회 나가요” 81.6%

좋아하는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법문’ 順
스님 · 법사와 친하다 69%, 법문 이해 66%
37% ‘집에서 기도 않는다’ … 신행연계 부족

어린이 기초신행생활 설문

44개 사찰 637명 응답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본지는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전국 300여 곳 어린이법회 운영사찰을 대상으로 ‘어린이마음 부처님마음’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설문에 응한 전국의 44곳 사찰 어린이법회 회원 637명의 대답을 중심으로 어린이법회 현황과 운영실태, 어린이 불자 신행등을 파악했다.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불자들의 대부분은 절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어린이 법회에 얼마나 참석하나요



불자어린이 10중 8명(81.6%)은 사찰 어린이법회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응답했다. 그저 그렇다(15.4, 98명) 지루하다(3%, 19명)는 대답은 많지 않았다.

어린이 법회에 나가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재미있어서(39.3%, 250명), 부처님이 좋아서(20.4%, 130명),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17.6%, 112명), 친구 만나러(11.4%, 73명), 스님이나 법사님이 좋아서(11.3%, 72명)등의 순이었다.

스님 혹은 지도교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법회에 나가는 즐거움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스님 혹은 지도법사와 ‘친하다’는 응답이 69%(437명)였으며, 별로 친하지 않다 24%(155명) 전혀 친하지 않다 7%(45명)순이었다.

절에 가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있었으며(98.1%, 625명), 그런만큼 참석 빈도도 높았다. 68.7%(438명)의 어린이들은 1주일에 한번이상, 26.7%(170명)는 한달에 2~3번, 3.7%(23명)는 1달에 1번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법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는 레크이에이션 및 놀이(56%, 358명), 스님의 법문(9.6%, 61명), 스님과의 대화(7.3%, 46명), 찬불가배우기(6.8%, 43명), 불교구연동화(5.5%, 35명) 등을 꼽았다.

또한 어린이의 66.4%(423명)가 스님이나 지도선생님이 해주는 법문을 이해하며, 26.5%(169명)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가끔있고, 7.1%(45명)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기초교리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부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3%인 468명이 ‘알고 있다’, 27%인 169명은 ‘모른다’고 답해 교리공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을 반증했다.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어린이의 63%(404명)는 혼자 집에서 절이나 기도, 참선을 해봤다고 밝혔다. 37%인 233명은 집에서 기도나 참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들의 경우 생활속에서 신행과 연계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들의 포교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친구에게 절에 가자고 말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1%인 450명이 친구에게 절에 함께 가자고 권한적이 있다고 말해 적극적인 신행행태가 돋보였다.

이밖에도 스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는 39명이 ‘부처님의 일생등 불교이야기’, 25명은 ‘공부와 기도를 잘한다’는 칭찬, 16명은 ‘착하고 똑똑하고 예쁘다’, 15명은 ‘법회 잘나오고 불교를 잘 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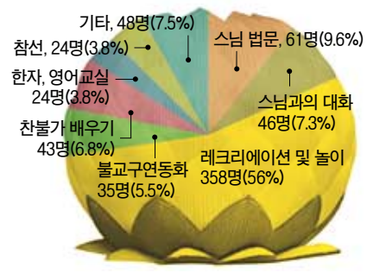
또 사찰에서나 어린이법회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68명이 게임과 놀이프로그램을, 26명이 절하고 참선하며 스님과 대화하는 것을, 15명이 마술 태권도 등 취미를, 10명이 놀이공원 수영장, 소풍등의 프로그램을 원했다. 이는 어린이불자들이 과도한 학원수업 등으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놀이 및 취미, 체험프로그램 등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어린이 법회 나오는 이유



■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 스님 · 지도법사와 친한가요


본지 설문에 응한 어린이 불자들의 대부분은 법회 참석이 재미있고 지도법사와도 친하다고 말한다. 사진은부산 금화사 초등불교학교의 법회모습.

■ 기본 분류 문항

1. 성별 ① 남자 281명(44%) ② 여자 356명(56%)
2. 나이 ① 7~10세 248명(39%) ② 11~13세 386명(60.5%)
3. 지역 ① 서울 120명(19%) ② 경기도 33명(5%) ③ 충청도 63명(10%) ④ 경상도 345명(54%) ⑤ 전라도 20명(3%) ⑥ 강원도 36명(6%) ⑦ 제주도 20명(3%)

■ 불자 어린이 기초신행생활 설문 내용

1. 나는 어린이법회에 ① 1주일에 1번 이상 ② 1달에 2~3번 ③ 1달에 1번 ④ 1년에 1~2번 참석해요
2. 내가 어린이 법회에 나오는 이유는 ① 재미있어요 ② 친구들을 만나러 와요 ③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요 ④ 부처님을 좋아해요 ⑤ 스님이나 법사님이 좋아요
3. 내가 어린이 법회에 나가는 것을 엄마나 아빠가 ① 알고 계세요 ② 알지 못 하세요
4. 나는 어린이법회에 나오는 것이 ① 매우 즐거워요 ② 재미있어요 ③ 그저 그래요 ④ 지루해요
5. 나는 스님이나 지도 선생님이 해주시는 법문을 ① 들으면 거의 이해해요 ②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③ 거의 이해하기 힘들어요
6. 어린이법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① 스님의 법문 ② 스님과의 대화 ③ 레크리에이션 및 놀이시간 ④ 불교구연동화 ⑤ 찬불가 배우기 ⑥ 한자나 영어교실 ⑦ 참선 ⑧ 기타
7. 나는 부처님이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살았는지 ① 잘 알고 있어요 ②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③ 거의 몰라요 ④ 전혀 몰라요
8. 나는 스님(혹은 법사님)과 ① 매우 친해요 ② 친한 편이에요 ③ 별로 친하지 않아요 ④ 전혀 친하지 않아요
9. 나는 내 친구에게 함께 절에 가자고 말한 적이 ① 있어요 ② 없어요
10. 나는 집에서도 기도/참선 등을 해 본적이 ① 있어요 ② 없어요
11. 스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12. 사찰에서나 어린이법회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돈만 든다’ 인식 버리고 중장기적 플랜 짜야



어린이법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단과 사찰의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 ‘돈 안되는 포교’라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지금 뛰어들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는 없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통계로 본 어린이법회 실태

어린이 포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인 어린이불자 양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전국 어린이 포교현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사)동련의 2002~2005년 ‘어린이법회 운영실태’ 통계자료를 통해 어린이포교의 실태를 살펴본다.

지난해 사단법인 동련(前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은 어린이법회를 열고 있는 전국의 사찰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해 ‘어린이법회 운영 실태’ 통계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05년 전국에서 어린이법회를 실시하고 있는 사찰 수는 295개, 어린이 지도자는 1084명, 어린이 불자는 98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2년 조사 결과였던 총 329개 사찰에 지도자 1092명, 어린이 불자 1만1972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동련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불교계는 1988년까지만 해도 전국 600여개 사찰에서 5~6만 여명의 어린이들이 법회에 동참하는 등 어린이포교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뒤인 2005년 어린이법회를 실시하고 있는 사찰은 전국 3100여개 사찰 중 9.4%(329곳)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초 5~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던 불자 어린이는 2002년 1만1927명에서 2003년 1만173명으로 줄어들었고 2005년 9819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전국 295사찰서 어린이법회 실시
법회 참가 인원 20년 전보다 크게 줄어
전문가들 “스님들 외면이 가장 큰 요인”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증감 추이가 눈에 들어온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 중 12지역의 운영사찰 및 참석자 수가 줄어들었다.

2002년 당시 서울에서만 62개 사찰 2185명이 참석했으나 2003년 1995명, 2004년 1877명으로 줄어 2005년에는 56개 사찰 1834명만이 참석하고 있다.

2002년 38개 사찰 2160명이 참석하던 부산의 경우 2003년에는 2개 사찰이 더 늘어난 총 40곳의 사찰이 어린이법회를 운영했으나 참석자 수는 오히려 735명이 줄어들었다. 1년 뒤에는 다시 이들 사찰의 절반 이상이 운영을 중단했다.

참석자가 많은 곳이든 적은 곳이든 이 같은 감소율은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전국에서 어린이법회 참석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이었던 경상남도 지역은 3년 사이 900명이 줄어들어, 가장 많이 줄어든 경우에 속했다. 충청도는 455명, 전라도는 325명이 감소했다.

특히 충남지역은 2002년 조사 당시 17개 사찰에서 518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법회를 열었지만 2005년 조사에서는 7개 사찰 195명 어린이만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법회가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현장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종단과 사찰의 무관심을 꼽는다. 스님들이 ‘어린이법회는 돈만 들어간다’는 인식 탓에 어린이포교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동련의 최미선 사무국장은 “종단에서는 어린이포교를 위해 생색내기형의 단기행사를 기획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도자양성기관 설립, 어린이법회 운영 사찰 인센티브제 도입, 유관기관과의 연계포교방안 등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 2002년과 2005년의 전국 어린이법회 운영실태(사단법인 동련 조사)

2002년				2005년			
지역	사찰 수	지도자 수	어린이 수	지역	사찰 수	지도자 수	어린이 수
서울	57	179	2,185	서울	56	176	1,834
부산	37	140	932	부산	31	137	953
대구	14	54	465	대구	13	59	500
인천	7	22	260	인천	6	27	145
광주	5	15	160	광주	7	23	190
대전	11	30	460	대전	11	51	425
울산	7	34	305	울산	7	35	355
강원	16	43	515	강원	18	46	409
경기	44	131	1,570	경기	43	140	1,493
경남	38	181	2,160	경남	30	148	1,280
경북	33	102	940	경북	31	109	970
전남	14	32	440	전남	11	25	250
전북	8	19	250	전북	6	24	195
제주	9	31	330	제주	6	25	320
충남	17	48	518	충남	7	27	195
충북	12	31	437	충북	12	32	305
계	329	1,092	11,927	총계	295	1,084	9,819

어린이법회 변천사

1928년 용성 스님 설립한 ‘대각 일요학교’가 최초
90년대말부터 감소… ‘토요휴업일’ 활력소돼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 어린이법회는 1928년 백용성 스님이 세운 대각일요학교를 일본 식민통치 시대 교육과 교화를 통해 온 겨레가 깨치지 못하면 조국의 광복과 불교의 중흥이 어렵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학교였다.

이어 1947년 손규상 대종사가 어린이 불교학교인 자성학교를 설립해 진각종 교당에 어린이 법회인 자성학교가 꽃 피울 기반을 마련했다.

1955년에는 조계종 감찰위원으로 활동하던 운문 스님이 기복신앙과 불교 몰이해를 극복하는 길이 어린이 포교에 있음을 절감하고 어린이 포교에 나서서 조계사 연화어린이합창단을 만들었다.

또 목포 정혜사에서 시작된 어린이법회는 점차 퍼져나가 대구 관음사, 진주 연등사, 의정부 약수암, 서울 대각사, 석불사, 칠보사, 개운사, 동국대 정각원 등 15곳의 어린이법회가 창립되기에 이르렀다. 1975년 화성 신흥사와 부산 법륜사도 어린이법회를 창립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 고등학생회와 대학생회 청년회 불자들을 주축으로 어린이포교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 전국적으로 약 600여개의 어린이법회가 창립됐다.

부산에서는 법륜사, 미룡사, 대각사, 옥련선원, 소림사, 금화사 등에서 어린이법회가 열렸다. 또 대전 자광사, 광주 원각사, 창원 구룡사, 진해 대광사, 수원 화성사, 경주 불국사, 부산 법륜사 등 전국에서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관음정사, 보덕사, 제석사, 정토사 등 12개 사찰이 어린이법회를 운영, 1985년 제주도불교어린이지도자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각 사찰 어린이법회에는 각각 100~400여명의 어린이불자들이 참석했으며, 이 시기 어린이법회 참석자 수는 약 5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90년대 초 전국적으로 600개 사찰에서 운영되던 어린이 법회는 90년대 말에 이르면서 감소가 가속화됐다.

최근들어 토요 격주 휴업제가 실시되면서 (사)동련을 비롯한 어린이 포교단체와 사찰들이 어린이 포교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본.말사 주지 연수에서 토요휴업일 체험학습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봉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축

봉축행사 일정

봉축대법회	5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욕 불 식	대불광장 오전 9시 대법당 ■ 12시 30분
예 술 제	대법당 오후 4시
제 등 행 렬	오후 6시 30분 능인선원 ↔ 제일생명 사거리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학교법인 한국불교학원
YOUNG BUDDHA ASSOCIATION

대 중 일 동

Nungin Sunwon 능인선원

Young Buddha Association YOUNG BUDDHA ASSOCIATION

조금만 신경쓰면 '가고 싶은 법회' 만들 수 있다

어린이 포교, 선택이 아닌 필수

그동안 어린이 법회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논의들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대안이 필요하다' 거나 '문제가 많다' 거나 하는 상투적인 진단은 하지 말자. 어디서부터 변화를 찾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로 부산 홍법사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어린이 포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대책을 모았다.

'놀토' 홍법사는 아이들 세상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아이들 세상이다. 매월 2회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 토요휴업일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홍법사를 찾는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가 내린 22일, 4월의 마지막 '놀토'에는 150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홍법사를 찾았다. 비 때문에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 어려워지자 활용 가능한 홍법사의 공간이 모두 아이들 차지가 됐다. 심산 스님의 방도 독서토론 활동을 위해 내놓았다. 염색교실, 영어연극, 종이접기, 선무도, 요리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모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의 지도를 받으며 진행됐다. 또한 둘째 주에는 생활 속 다양한 과학현상을 실험해보는 과학교실과 직접 식물을 키워보는 어린이 원예교실이 마련돼 인기가 높다. 특히 장전중학교 박향숙 교사의 지도로 진행되는 과학교실에는 박 교사의 제자들이 동생들의 과학교실 도우미로 나서 어린이 포교 뿐 아니라 중고등부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다.

엄밀히 말해 '놀토'는 어린이법회가 아니다. 그러나 홍법사의 '놀토'를 들여다보면 어린이법회의 '대안'이 될 만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홍법사의 '놀토' 현장은 재미있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설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홍법사는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따라 부모들도 홍법사를 찾고 있다.

둘째, 홍법사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다. 요리, 염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모 참여 수업으로 아이들이 직접 만든 것을 나눠 먹고 집으로 가져감으로써 활동에 대한 보람도 크다.

셋째 홍법사의 '놀토'에는 홍법사 어린이회 자모회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어린이법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엄마로 구성된 20~30명의 자모회는 어린이법회뿐 아니라 '놀토' 활동의 도우미로 적극 나서고 있다. 프로그램 도우미는 물론 공양과 간식준비, 배식 등에서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부모가 최고의 어린이 포교사요 후원자임을 잘 보여준다.

넷째 자원봉사자로 이뤄진 전문 강사진이 확보돼 있다. 정혜경 부산정보대 토익강사, 박향숙 장전중 과학교사, 모만호 동서대 사회교육원 강사, 박현주 한국종이접기 사범과 원통 스님 등이 재미있고 유익하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다섯째, 잘 가꿔진 드넓은 농원이 포교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다. 도심에서는 접할 수 없는 숲과 나무, 흙이 홍법사를 찾는 가족들에겐 휴식처가 된다. 건물 신축이 제한돼 공간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는 대부분의 사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공간이 없다는 것이 사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홍법사는 인근 학교 운동장을 빌리거나 기존의 공간을 짬짜기 활용함으로써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해가고 있다.

이처럼 홍법사의 '놀토'엔 재미, 전문성을 갖춘 지도교사, 자모회의 후원, 공간 등 침체돼가고 있는 어린이법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어린이포교에 대한 스님의 변함없는 의지가 가장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 홍법사가 토요휴업일에 진행하는 체험학습프로그램은 교육과 포교 효과가 높아 어린이들의 참여가 갈수록 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인기
전문강사 · 야외활동으로 수준 향상
지도교사 양성과 포교의지는 '과제'

■토요휴업일 사찰체험을 실시하고 있는 곳

지역	기관	대상	프로그램	전화번호
서울	법륜사	초등학생	축구교실	(02)733-5322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중,고등학생	참선, 사찰체험, 문화재담방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문화존을 매주 토요일 종로구 우정공원에서 개최	(02)723-6165~6
	목동청소년수련관	중,고등학생	세계민속문화체험	(02)2642-1318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초등학생	둘째주 토요일 공부와 오락, 넷째주 토요일 야외 활동. 5월 등산, 6월 롯데월드, 7월 야외수영, 8월 영화관람, 9월 어린이미술관, 10월 소풍, 11월 연극관람 및 눈썰매장 등. 무료	(02)421-6077
경기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중,고등학생	장애인과 여가활동 함께	(031)716-4215
대전	녹야원	초등학생	매달 마지막 주 주말에 1박2일로 템플스테이. 전래놀이, 찬불가 배우기, 야외활동 등 다양한 매월 달라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042)824-0801
부산	홍법사	초,중학생 및 학부모	선무도, 영어연극, 특서토론, 과학, 요리, 종이접기, 원예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학부모 모두 대상으로 한다.	(051)508-0345
	관음사	초등학생	고전무용, 국악, 댄스 스포츠, 사물놀이 등	(051)294-9300
	여여선원	초,중학생	선 체조	(051)853-5486
	삼광사	초,중학생	웰빙 다도교실	(051)808-7111
	통도사포교원	초등학생	합창 및 발성법 익히기	(051)816-2241
	금정포교원	초등학생	등 만들기, 숲 체험 활동, 전래놀이	(051)331-0607
	금천선원	초,중학생 및 학부모	마음 속 자연 물들이기, 가족영화, 등 만들기, 합장주 만들기, 뮤지컬 체험, 동화구연, 템플스테이 등	(051)516-6001
	미룡사	초등학생	다도예절 배우기	(051)404-4300
	내원정사	초등학생	내가 만드는 특별한 요리, 풍선아트 배워보기, 가족과 야외나들이, 액세서리 만들기, 칼라믹스 등	(051)264-9033
	감로사	초등학생	댄스 스포츠, 칼라믹스, 마술교실, 테마극장	(051)628-6739
	우곡선원	초,중학생	선 기공 체조, 명상실습, 집중력 기르기, 전통놀이, 창의력 기르기	(051)740-6288
	영주암	초등학생	명상을 통한 참다운 나 찾기	(051)754-2210
	안국선원	중,고등학생	창작 연극반, 요가와 명상	(051)513-4370
구미	불로사	초등학생	가야금, 음악, 영화보기 등	(054)453-7424
진해	대광사	초등학생	건강요가, 사물놀이, 주산, 서예, 명상, 생활다례, 독서지도, 숲 체험활동, 사찰체험, 문화유적 답사, 달마도 그리기	(055)545-9595~6

어린이 포교 '희망 만들기'

▶ 우리들 공간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는 악기를 배울 수 있다거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이다. 아이들을 위한 분리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교회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신앙심과는 별개로 아이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다.

이 점에서 홍법사의 '놀토'는 상당 부분 교회적 방식에 접근해 있다. 그러나 아직 공간 확보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대부분의 사찰들은 기도공간에 치중한 불사로 아이들, 학생, 신도들이 기도와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마음 편히 머물 공간이 드물다. 어린이 포교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불사의 개념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최근 50평 규모의 어린이문화회관을 건립한 천안 한암사를 눈여겨봐야 한다. 어린이문화회관은 어린이들이 뮤지컬공연을 펼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어머니들의 문화공간, 노인대학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사찰의 불사에서 어린이나 중고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은 포교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 선생님이 없어요!

"커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이런 꿈을 간직하며 자란다. 그것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존중하고 대우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어린이법회의 경우, 교사는 자주 바뀌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들마저 자신이 속한 개인 사찰의 법회에 연연해 전체적인 법회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사찰별이나 종단차원에서 지도자의 위상을 높이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어떻게 하면 커서 어린이법회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을지 사찰의 주지 스님이나 종단의 포교 관계자들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

▶ 법회 자료가 필요해요!

법회를 열고 싶은데 선생님은 없고, 스님이라도 한번 해보자하는 마음에 용기를 냈다. 그러나 막상 처음 법회를 열려고 하면 참고할만한 법회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20년 동안 어린이포교 현장에서 활동해온 사단법인 동련의 경우도 그간의 노하우를 모아 법회자료집을 만들고 싶어도 재정이 없어 만들지를 못하는 실정이다. 종단차원에서 10년째 동결된 어린이포교 예산을 증액하고, 사단법인 동련을 신도단체가 아니라 포교단체로 분류해 지원한다면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 종단의 어린이포교 의지, 보여주세요!

종단의 포교원내에 어린이포교 전담기구가 없다. 때문에 어린이포교 관련 프로그램 연구, 개발, 지도자 양성 등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담보할 만한 포교전문화 교육이 없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로 스님들은 모든 포교 분야에 전처후로 대응해야 한다. 이래서는 포교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원 차원에서 어린이포교의 전문성을 익히고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템플스테이사업단처럼 어린이포교를 위한 어린이포교전진사찰 지정 등 종단차원의 어린이포교 매뉴얼을 마련,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향상되는 사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힘들게 어린이포교를 이어온 사찰에 힘이 될 것이다.

본말사의 어린이법회 의무화도 종단차원에서 하루바삐 추진해야 한다.

'부처님 마음, 어린이 마음'이라는 표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하는 길, 종단의 의지에 달렸다.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포교·교육·사회복지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대중일동



■ 포교분야
주간 도선법보, 월간 여성불교, 홍은동 포교당, 봉천동 포교당, 성주 대흥사, 안동 세심사, 하와이 무량사
■ 교육분야
재단법인 청담장학문화재단, 학교법인 청담학원, 청담중고등학교, 도선불교 실달학원 교리반 경전반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혜명불교양로원, 혜명보육원, 각구 어린이집 11곳

142-871 서울 강북구 우이동 264 TEL 02)993-3161~3 / FAX 02)993-3164 / www.dosunsa.or.kr

전국 비구니회
회장 명성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 TEL 02)3411-8103-7 / FAX 02)3411-8108
www.kbiguni.org

“모든 친구들 부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최은하(서울 조계사 어린이회 회장)

“우리들이 읽을 불서 더 많았으면…”



“어린이 법회는 어른들 법회처럼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최근 유행하는 ‘꼭짓점 댄스’도 배울 수 있어요.”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 어린이회 회장 최은하(12 · 행남초 6)양. 학교 방송반 아나운서답게 똑 부러지는 말투가 인상적이다.

지난해 6월부터 조계사 어린이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은하는 일요일이면 새벽부터 분주하다. 동생 보문(8)이와 동훈(7)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조계사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저희 반에서 일요일에 절에 가는 친구는 딱 두 명 뿐이에요. 하지만 절이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알게 되면 더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을 거예요. 벌써 두 명이나 저랑 같이 어린이 법회에 다니고 있는걸요.”

법회를 진행하거나 동생들을 챙기는 데 남다른 책임감을 발휘하는 은하. 친구들도 은하의 이런 점을 좋아해 올해 3월에는 어린이법회 회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회장이 되고 보니 법회에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오고 싶고 좀 더 넓은 법당에서 법회를 보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은하의 더 큰 바람은 따로 있었다.

“저희들이 읽을 수 있는 어린이 불서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읽는 책은 한자도 많고 어렵거든요.”

장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아나운서나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은하의 꿈이 그리 멀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나는야 어린이 포교사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단순히 어린이 불자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이끌어갈 동력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가슴속에 깃든 불성(佛性)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발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유 · 청소년기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사찰 어린이 법회에서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어린이 포교사’들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김승룡(광주 원각사 어린이회)

“108배는 물론 1080배도 잘해요”



광주 충장로 도심 속에 자리한 원각사(주지 도제) 어린이 법회에 다니는 김승룡(10 · 대성초 3)군.

승룡이는 학교에서 ‘짱’으로 불린다. 장난은 물론 공부든 놀이든 누구에게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승룡이는 부모님 계시는 집이나 친구가 많은 학교보다 부처님 계시는 절을 더 좋아한다.

“부처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그냥 절에 오면 좋아요”

어려서부터 부모따라 절에 다녔기에 어색함은 없다. 부처님에게 절을 많이 하면 좋다기에 절하는 것을 좋아한다. 108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1080배도 몇 차례 했다.

그래서인지 원각사에서 절을 제일 잘한다고 정평이 났다. 승룡이가 절하는 것을 보면 어찌나 예쁘고 정성스러운지, 보는 이도 신심이 절로 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시험보기 전날 절에서 108배를 했다. 결과는 ‘전 과목 백점’이었다. 그날 이후, 승룡이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부처님은 확실히 승룡이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것이다.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어린이 법회는 아이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님 성품을 구김없이 드러내어 쓰도록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보다 손잡고 사찰을 찾아야 합니다.”

원각사 어린이법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요일마다 요가, 종이접기, 민요배우기,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야외법회가 돌아가면서 진행된다.

“처음엔 악동이었어요. 승룡이 옆에 가지 못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법회에 나오면서 의젓해졌어요.”

어린이법회 초대 지도교사 이대종 선생이 “장난꾸러기 승룡이가 친구들도 법회에 데리고 온다”며 귀띔한다.

승룡이는 ‘절에 가면 착한 아이가 된다’고 믿는다. 함께 착한 아이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었다. 얼마나 함께 절에 가자 얘기했는지 모른다. 때로는 절에까지 오는 버스비도 내준다.

“저는 뭐든지 너무 빨리 하려고 해요. 절을 하면서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하겠다’고 부처님과 약속해요.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에요. 부처님은 항상 제가 하는 부탁을 들어주시니까요.”

그렇게 승룡이는 부처님을 서서히 닮아가고 있다.

광주=이준엽 기자

김혜린(진해 대광사 어린이회 회장)

“훌륭한 말씀 친구들에게 전할래요”



“부처님 말씀은 다른 사람들 말씀보다 더 훌륭하니까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진해 대광사(주지 운성) 어린이회 회장인 김혜린(12 · 대야초 5)양. 혜린이는 친구들한테 부처님 얘기와 법회 얘기를 자주 한다. 혜린이의 이야기를 듣고 법회에 다니는 친구도 여럿이다.

“여러 친구들한테 법회에 가자고 얘기해보지만 안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왔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입정(入靜)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또 법회에서 재미있는 것도 많이 하니까 자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게 돼요.”

보통 6학년이 회장을 맡지만 혜린이는 회장이 되고 싶어 한해 일찍 회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일곱 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법회에 다니기 시작한 혜린이는 어린이회의 ‘왕고참’이어서 회장을 하기엔 무리가 없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부처님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평소 수줍음이 많은 혜린이지만, 법회가 시작되자 마이크를 잡고 법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당차다.

“법회 인원이 많지 않아 걱정”이라며 제법 어른스런 걱정을 하는 혜린이는 “부처님 말씀을 자랑하며 친구들을 많이 데려 오겠다”며 고운 두손으로 합장했다.

진해=천미희 기자

임수완(대구 삼보사 어린이회)

“여름수련회에 친구 10명 데려갔어요”



매주 일요일 대구 삼보사(주지 등운) 어린이 법회시간, 수완이의 집탁에 맞춰 어린이법회가 진행된다.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집탁을 맡게 된 임수완(10 · 구평남부초 3)양은 스님처럼 목탁을 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수완이는 6살 때부터 어린이법회에 참석했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지만 ‘매사 마음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뭇 생명들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간혹 친구들이 수완이에게 나쁜 마음을 내도 이해심을 발휘한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절에 다닌다고 ‘마귀’라고 부를 때조차도 침착하게 대처한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같이 나쁜 말을 했는데요, 친구들이 잘 몰라 그렇게 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화내지 않고 다시 차근히 설명을 해줘요. ‘내가 마귀냐, 다시 잘 봐라. 사람이다’라고요”

수완이는 학교친구들에게 같이 절에 가 보자는 권유를 자주한다. 지난해 여름에는 무려 10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간 적도 있다. 부처님의 지혜로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큰 보시라고 스님이 말했고, 같이 간 친구들도 무척 좋아했다.

구미로 이사갔지만 매주 대구 삼보사를 찾는 수완이는 “주위에 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많은 친구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대구=배지선 기자

강성민(대구 보현사 어린이회 회장)

“재밌는 행사도 많고 집처럼 편해요”



불교 어린이회 회장으로 동생들을 잘 돌보며 미래 어린이법회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는 강성민(13 · 용지초 6)양. 대구 반월당 보현사(주지 원일) 어린이회에 다니는 성민이는 5학년 때부터 6학년을 제치고 회장에 뽑힐 만큼 인기가 높고 동생들을 잘 돌보며 어린이회를 이끌어 스님과 선생님의 든든한 희망이다.

보현사 학생회와 청년회를 나온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절에 다녔다는 성민이는 아버지가 보현사 청년회장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아버지처럼 훌륭한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특히 입정시간에는 일주일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도움이 많이 돼요”. 어린이 법회도 다부지게 이끌고 있는 성민이는 법회를 모르는 친구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친구들이 보통 교회만 재밌고 절에는 어른들, 할머니들만 다니는 줄 아는데 그것은 옛말이예요. ‘공명조의 이야기’라는 어린이 찬불가가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또 어린이회에서는 게임도 하고 재밌는 행사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집처럼 편안해요. 언제든지 찾아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연등축제 때 가지고 나가기 위해 직접 만든 팔각등에는 성민이의 꿈과 희망이 적혀 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 팔각등도 곱고 성민이 마음도 곱다. **대구=배지선 기자**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조계종
화 계 사

조실 숭산 행원
주지 성광
국제선원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 1동 487번지 전화 02)902-2663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 홍련암
낙산노인전문요양원
낙산주간보호센터
낙산포교당
낙산유치원

낙산사 천재지변 화마에 아픔을 함께해 주시고
정성을 보내주신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부대중일동
홈페이지 www.naksansa.or.kr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전화 033)672-2447~8

일주문



재소자 수계 및 떡국 공양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 회장 현성 스님은 5월 1일 재소자 150여명에게 수계를 하고, 2500여명 전 재소자들에게 떡국 공양을 했다.



경승활동 활성화 기원법회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4월 26일 춘천 정법사 대웅전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국가사회안정과 경승활동 활성화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해인정사 범종 조성 타종식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4월 28일 지난해 낙성한 범종각에 새롭게 범종을 조성하고 기념 타종식을 가졌다.



국민훈장 모란장 받아

순천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옥 스님(여수 석천사 주지)은 4월 25일 제 43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WFB 집행위원·상임위원장 피선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진월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 사진 위)이 4월 18~22일 타이완 카오슝 불광산사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WFB,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총회에서 최고 집행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진각종 혜정 정사(유가심인당 주교)는 9개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인 Buddhist Pancasila Samadana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초파일 날 절에 가면 선물 '한아름'

그림자 연극 · 가훈 써주기 · 음악회 등… 어린이날 겹쳐 이벤트 다양

어린이날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공식 봉축표어인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에 맞춘 이벤트가 유난히 많다. (표 참조)

합천 해인사는 절을 찾는 모든 어린이에게 동자승이 새겨진 미니화이트보드를 선물로 증정한다. 그림자연극 '만석대사 놀이'와 오카리나 연주는 산사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날 볼거리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페이스페인팅, 종이컵등 만들기, 그림 색칠하기 등의 코너도 마련된다.

서울 조계사도 모든 어린이들에게 동자승이 새겨진 풍선과 냉음료 슬러시, 페이스페인팅을 제공하며, 연꽃등 · 단주 만들기, 반야심경 사경, 서원등 달기 등 다양한 체험마당을 준비했다.

화성 용주사는 효행본찰의 이미지를 살린 어린이날 풍경을 연출한다. 일주문에서 어린이날 기념풍선을 받아들고 경내에 들어서면 '엄마, 아빠와 함께 연등 만들기'와 부모은중경 탁본체험, 종이접기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무용단 축하공연을 비롯한 각종 문화공연, 거사회의 부처님일대기 연극 퍼포먼스, 전통무술 관람 등 다양한 볼거리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지역 서예가들의 가훈 및 부처님말씀 써주기 부스도 한켠에 설치된다.

해남 미황사도 페이스페인팅과 단주만들기 체험마당과 타인을 위한 등달기 코너를 준비했다. 특히 미황사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와 노래자랑, 윷놀이를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월곡동 탑주심인당은 종인원 잔디광장에서 아동극 '피터와 늑대'를 공연한다.

남해 망운암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부처님오신날 경내에서 개최하고, 성각 스님 선서화 초대전과 효사랑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 그림그리기대회는 부산방송 주최로 유치부, 초등부, 일반부로 나누어 당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공주 영평사는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기는 정진과 축제가 어우러진 행사를 마련한다. 법당에서는 봉축법회에 이어 일천배 사경으로 정진하고, 도량 곳곳에서 컵등 · 합장주 만들기, 백련꽃차 시음, 서원글 쓰기, 일천불 그리기 등의 축제가 열린다.

사찰 단위로 열리는 봉축음악회는 점점 확산돼 부처님오신날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서울 봉은사 · 화계사, 청주 관음사, 강릉 삼화사, 구례 불락사 등이 특색 있는 음악회를 준비했다. 관음사는 '트로트' 산사음악회와 불교영화 상영, 불교사진전 등 문화공연으로, 불락사는 평양민족예술단과 KBS 민속반주단, 중앙예술단 등 남과 북이 한데 어우러진 평화통일 기원 예술제로 불자들을 맞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각 사찰 주요행사

사찰	행사내용	연락처
서울 조계사	연꽃 · 컵등 만들기, 단주 만들기, 반야심경 사경, 서원등 달기, 사진 인화, 페이스페인팅, 슬러시, 풍선 증정	(02)732-2115
서울 화계사	김흥국 등 출연 산사음악회	(02)902-2663
서울 봉은사	작은음악회, 전통등 전시회, 등터널, 차 시음	(02)511-6071
서울 탑주심인당	아동극 '피터와 늑대' 공연	(02)912-0347
부산 범어사	3행시 짓기, 풍선날리기, 공기 · 고무줄 놀이, 딱지치기 , 서원 지달기, 재기차기, 탁본 등	(051)508-3122
남해 망운암	성각 스님 선서화 초대전, 효사랑 나들이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055)863-3095
합천 해인사	오카리나 연주, 그림자 연극, 종이컵등 만들기, 그림 색칠하기, 페이스페인팅, 미니화이트보드 증정	(055)931-1001
해남 미황사	경로잔치, 만발공양, 어르신 노래자랑, 타인을 위한 등달기, 단주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윷놀이	(061)533-3521
화성 용주사	가훈 및 부처님말씀 써주기, 팔성성도 및 부모은중경 함께 그리기, 탁본 체험, 전통조각 및 솟대 만들기, 바이올린 연주	(031)234-0040
공주 영평사	일천배 사경, 우리음악 연주회, 컵등 · 합장주 만들기, 백련꽃차 시음, 서원글 쓰기, 일천불 그리기	(041)857-1854
청주 관음사	봉축음악회, 불교영화상영, 봉축문화공연, 트로트 산사음악회	(043)256-6254
구례 불락사	불교문화예술제(평양민족예술단, KBS 민속반주단 공연 등)	(061)782-5995
강릉 삼화사	사물놀이, 합창단 공연 등	(033)534-7661

법산 스님 '아태불교문화연구원' 개원



왼쪽부터 화랑 · 법산 스님, 정승석 교수.

아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법산)은 4월 23일 개원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이 원장을 맡은 아태불교문화연구원 사무총장과 수석연구원에는 각각 前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화랑 스님과 동국대 정승석 교수가 임명됐다. 또 한국불교 분야는 차차석 한신대 연구교수, 일본불교는 동국대 일문과 김환기 교수, 중국불교는 동국대 중문과 박영환 교수, 인도불교는 동국대 인도철학과 황순일 교수가 각각 책임연구원으로서 각종 연구를 진행한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동국대 5월 축제로 '들썩'

100주년 관련 행사 다양… 각종 법회 · 전시 '눈길'

동국대가 건학 100주년 기념식(5월 8일)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다. 동국대 정각원(원장 진월)은 건학 100주년을 맞아 4월 28일 본관 중강당에서 '수계대법회 및 실천강령 선포식'을 개최했다.

정각원장 진월 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수계대법회에는 학생 · 교직원 · 일반인 등 800여명이 수계를 했으며, 불교의 오계에 동국대의 건학이념을 담은 '신 오계 실천강령'도 선포됐다.

'신세속오계(다섯 가지 마음 LEIPE Campaign)'는 첫째, 생명을 사랑한다(不殺生 Life & Love) 둘째, 살림을 절약한다(不偸盜 Economy) 셋째, 욕심을 자제한다(不邪淫 Integrity) 넷째, 말씀을 삼간다(不妄言 Praise) 다섯째, 마음을 맑게 한다(不飮酒 Enlightenment).

'세 가지 실천강령'은 깨어있자, 칭찬하자, 함께하자 등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재학생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회(회장 종성)도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불연꽃제 일환으로 '동국 한세기 대법회'를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했다.

법회 첫날에는 팔정도에서 남산의 기운을 살리는 '백두대간 남경 동국 산신제'가 열렸고, 마지막 날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는 동국인이 비상을 발원하는 천도재 '동국 백년 대제'가 봉행됐다. 특히 법회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매일 오전 10시 팔정도에서 타종, 법고공연, 육법공양 등 '불교 전통사찰 사시예불'이 올려졌고, 100장의 역대 큰스님 이름이 적힌 만장이 교내를 장엄했다.

이 외에도 동국대는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건학 100주년 기념 시화전' '백년의 만남전' 전을 서울 인사동 공평아트센터에서 연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BK21 2개 부문 선정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26일 92개 대학이 신청한 386개 대형 사업단과 586개 소형 사업팀 가운데 74개 대학 243개 대형 사업단과 325개 소형 사업팀을 2단계 BK21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동국대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조용길 교수를 단장으로 한 '세계화시대 불교학 교육연구단'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김현정 교수를 팀장으로 한 '차세대 나노반도체 원천핵심 과학기술인력양성팀'이 선정됐다.

남동우 기자



세계종교지도자대회 성공 기원 '한마음'

6월 7~15일 개최 예정인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법회가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 주관으로 4월 25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인류와 한반도의 평화, 화합'을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 불교계 지도자들과 각계인사 등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고영배 기자

사찰 경영기법 연구 '시동'

실천승가회 · 동국대사찰조경硏

사찰 운영도 탈(脫)아마추어 경영시대를 맞고 있다. 수행과 기도, 포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찰도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종교적 신앙 공간을 뛰어 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가 이 같은 시대적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4월 27일 보고회를 열고 사찰경영 연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찰의 관리운영과 경영, 재원확보 방안, 신도지향적 프로그램 개발, 차별화된 사찰의 역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분야별 사찰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또 첫 과정으로 5월 16~20일 일본 사찰의 선진사례를 견학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社團法人 曹溪淨土佛敎總院 任員公告

理 事 長 : 李 法 賢
理 事 : 慧 山
理 事 : 商 言
理 事 : 普 光 華
理 事 : 性 天
監 査 : 聖 岩
監 査 : 法 珍
事務局長 : 洪 大 成
事務課長 : 法 山
弘報課長 : 泰 奉

外 職員 一同

社團法人 曹溪淨土佛敎總院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4동 138-5호 2층 TEL 02-720-3661~2 FAX 02-720-3578

※ 미등록 된 전국 회원은 본 총원(총무원)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 선 사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설산 철안

연수원장 수월 재 무 혜종
총무국장 가산 사회국장 현봉 능엄학림 대중일동
기획국장 송묵 포교국장 화해 사 무 장 이희준(법운)
교무국장 경산 호법국장 연흠 회 계 권정태(묘성화)

나만의 법당 www.bongsunsa.net (한글도메인:봉선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TEL 031)527-1951~3 FAX 031)527-8568

‘앞산 살리기’ 종교인 뭉쳤다

대구 4대 종교계 인사, 22일 환경단체와 ‘촛불문화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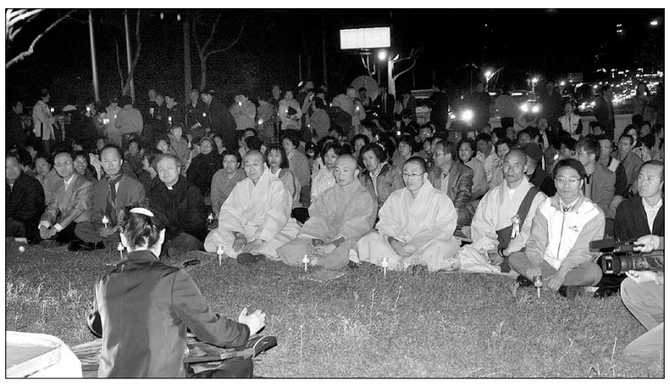
대구시가 상인동과 범물동을 잇는 10.5㎞의 도로를 내기 위해 앞산을 관통하는 4㎞의 터널을 뚫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대구의 4대 종교 성직자들이 대구 앞산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4월 27일 앞산 달비골에서 ‘생명파괴사회’에 대해 반성하고, 앞산 살리기를 기원하는 생명평화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생명평화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결의했다.

불교계에서는 동화사 주지 후보 허운 스님과 청도 적천사 주지 덕현 스님이 참석했다. 천주교에서는 도원성당 이성한 신부와 전 범어성당 주임 원유술 신부가, 개신교에서는 종교평화회의 의장 김낙현 목사와 이웃교회 오규섭 목사가 나섰다.

또, 앞산터널반대 범시민투쟁본부(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환경과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등)와 종교인평화회의, 맑고향기롭게 등 시민, 환경 종교단체와 시민 300여 명도 동참해 앞산을 관통하는 순환도로 건설을 반대했다.


대구지역 종교계 인사들이 앞산 살리기 생명평화촛불문화제를 27일 앞산 달비골에서 열었다.

오후 7시부터 열린 행사는 1부 생명평화 환경을 위한 문화공연으로 시작해 2부 종단별 기도회가 열리고, 앞산 생명평화를 위한 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3부에서는 앞산 살리기 청사초롱 등 달기 ‘살림과 모심’ 100배를 올리는 시간도 가졌다. 4부에는 생명평화환경에 대한 대화마당이 펼쳐졌다.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은 5월 2일부터 5일까지 앞산터널사업을 반대하는 농성장에서의 ‘옴’자 글씨 전시회를 준비하는 등 앞산터널반대운동이 범종교계로 확산되고 있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동심에 비친 부처님 ‘멋지네!’

불국사 · 해인사 어린이 그림 글짓기대회 성황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4월 23일 경주 불국사(주지 종상) 경내에는 1만여명의 어린이들이 가득 모였다. 제21회 어린이 글짓기 그리기 대회가 열린 것.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종회의장 법등 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을 비롯한 2만여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불국사 범영루 앞 광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불국사 그림 글짓기대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평생의 힘이 될 것”이라며 “부모님들은 마음을 아름답게하는 충과 효를 알리고, 어린이들의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도해 불국사를 창건한 김대성같이 훌륭한 인재로 길러주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올해의 글짓기 주제는 저학년 운문이 ‘거울’, 저학년 산문이 ‘옷’, 고학년 운문이 ‘소리’, 산문은 ‘그릇’으로 주어졌다. 그리기는 유치부와 저학년은 자유화, 고학년은 ‘불국사 풍경’이다. 심사발표는 추후 불국사 홈페이지(www.bulguksa.or.kr)에 공고한다.

한편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도 1천여 명의 어린이가 동참한 가운데 제1회 해인만다라 ‘부처님마음 우리마음 글, 그림 잔치’를 4월 22일 성황리에 개최한 후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했다. 합천 남정초등학교 1학년 이새봄 어린이와 거창여중 3학년 이유진양이 그리기부문 대상을, 합천 해인중학교 3학년 조은지 양과 거창 창동 초등학교 6학년 이예지 양이 글짓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합천지역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5월 5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리며, 거창지역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4월 28일 저녁 8시 거창로타리에서 열렸다. 배지선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대중포교도량 가꿀터”
한국사 임시법당 준공



충북 청원 한국사(주지 지원, 청주불교방송사장)는 4월 22일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법당 낙성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부지를 희사해 주신 불자들께 감사드리며 한국사를 대중 포교의 열린 도량으로 가꿔 나가겠다”며 “첫 삽을 뜨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맑고향기롭게 부산 모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사)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이 4월 27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회 전국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에서 모범 사회봉사단체로 선정돼 정부 표창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시상식에서 (사)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천한 사회봉사단체 중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모범 봉사단체로 선정됐다.

천미희 기자

지광스님 초청 법회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4월 24일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서울 능인선원 지광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당신은 부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을 비롯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천미희 기자

점안 법회 · 경로잔치 개최
울산 성불암

경남 울산의 성불암(주지 도신)은 4월21일 오전 삼성각 불사를 마치고 점안식과 함께 지역동민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다.

점안식엔 미륵종 원로원장 연봉, 총무원장 송정, 중앙종회의장 지은 스님등 종단스님과 신도 4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주지 도신 스님(미륵종 울산교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신도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삼성각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민을 위한 경로잔치를 매년 열어 불교발전을 위해 지역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영민 서부 경남 지사장

이시우 박사 초청강연
부경대 불교교수회

부경대학교 불교교수회(회장 박영병)와 부경대학교 불교동문회(회장 박동하)는 4월 21일 부경대학교 본부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前 서울대학교 교수 이시우 박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화엄세계와 우주심’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이시우 박사는 “우주 내 만물의 본성인 우주심은 무위성, 보편성, 평등성, 이완성 등으로 정의된다”며 “이 우주심이 바로 인간의 근본심이며 그 근본심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경대 불교교수회와 동문회는 2004년부터 매회 ‘초청강연회’를 열어왔다.

천미희 기자


고운사가 창건 1325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산사음악회가 지역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고운 선율에 봄꽃이 피다

고운사 ‘산사음악회’ 성료

조계종 제 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혜승)가 고운사 창건 1325주년을 맞아 호국영령들을 위한 위령제와 산사음악회를 4월 22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종회의장 법등, 대구불교방송사장 법조, 봉정사 주지 문인 스님과 정해걸 의성 군수 등 5천여 사부대중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고운사 산사음악회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개산대재 기념법회 위령제로 문을 열었다. 고운사가 처음으로 개최한 산사음악회에서는 장사익, 안치환, 한영애, 정경화, 정율 스님 등이 출연해 열창과 감미로운 선율을 선물했다.

일주문 입구에서는 자비의 연꽃달기 행사와 먹거리 행사가 열렸고, 길을 따라 들어가는 동안에는 도륜, 성공, 범종 스님의 사진전이 이어졌다.

가운루에서는 의성문화원(원장 김종우) 주관하에 의상과 고운 최치원의 만남 서예전도 개최됐다.

글 · 사진/의성=배지선 기자

“16 국사 정신 계승”
송광사 삼월불사 봉행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는 4월 23~24일 양일간 삼월불사를 봉행했다(사진).

보조국사 탄신 756주기를 맞아 24일 국사전에서 열린 종제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과 전국에서 모인 불자 10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보성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은 물론 개산조 보조국사를 비롯한 16국사의 가르침도 잊지말아야한다”고 강조하고 “과학발전으로 들뜨기 쉬운 시대를 살고있지만 걸음걸이 하나도 가벼이 하지 않고 정진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종제에 앞서 대중들은 보살계를 수지하고 대웅전 앞 뜰에서 화엄법계도를 따라 정진했다. 이준엽 기자

백련불교문화원 개원
초대원장에 경훈 스님



불교문화 발전과 전승보존을 위한 백련불교문화원이 4월 23일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원법회를 갖고 문을 열었다(사진).

이날 개원법회에는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 등 사암 스님과 박준영 전남지사, 서삼석 무안군수 등 지역기관장, 지역주민, 불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초대원장 경훈 스님(약사사 조실)은 인사말에서 “불교문화를 전국민에게 알리고 부처님의 자비실천이 구현되도록 하겠다”며 “먼저 무안의 자랑인 회산백련지의 의미를 살려 인류의 화합과 평화공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는 백련불교문화원 개원을 기념해 지역 예술인초청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이준엽 기자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한가지 소원성취
약사여래부처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선 본 사(갓바위)



대 중 일 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 www.seonbonsa.org
전화053)851-1868(선본사) / 053)851-1869(갓바위)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 종 정 : 법전 월하 ● 부 종 정 : 혜일
● 원로원장 : 법종,
● 원 로 원 : 월하, 성민, 혜일, 만공, 해공, 혜정, 백공, 천광, 해산, 정오, 일봉, 도일
● 율 원 장 : 성민 ● 유 나 : 봉선
■ 총 무 원
총무원장 : 혜인 종회의장 : 혜명
교육원장 : 일봉 포교원장 : 혜정
총무부장 : 동산 국장 : 설산 재무부장 : 법정 국장 : 대도
감찰부장 : 상산 국장 : 지호 사회부장 : 정덕 국장 : 용산
호법부장 : 보성 국장 : 도현,다정 규정부장 : 지오 국장 : 월성
교무부장 : 월곡 국장 : 한산 포교부장 : 정산 국장 : 효천
문화부장 : 원산 국장 : 법장 비구니회장 : 중비, 일경, 법련,덕산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남부교구종무원장 : 상산 강원교구종무원장 : 동각
서울서부교구종무원장 : 법선 충남교구종무원장 : 무광
서울동부교구종무원장 : 대도 충북교구종무원장 : 일봉
인천교구종무원장 : 혜원 경남교구종무원장 : 혜명
경기동부교구종무원장 : 도연 경기남부교구종무원장 : 법정
부산중부교구종무원장 : 정오 경북교구종무원장 : 혜관
부산서부교구종무원장 : 성각 전남교구종무원장 : 대성
부산동부교구종무원장 : 봉선 전북교구종무원장 : 정산
제주교구종무원장 : 덕산,남산 대구교구종무원장 : 도월
울산동부교구종무원장 : 운산 울산남부교구종무원장 : 수덕
미국뉴저지주종무원장 : 심일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북동부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설산
● 전국신도회 고문 : 김윤주 회장 : 서진수
● 삼화불교대학
학 장 : 법종
대학교수 : 법종, 혜정, 정산, 월곡, 봉선,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 삼화불교대학원
원 장 : 혜인
대학원교수 : 법종, 일봉, 정수, 효란
조 교 : 정금옥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맨화, 혜인 부 총 장 : 윤경석
학생처장 : 손영진 겸임교수 : 신병용
이 사 : 손정일
학생주임 : 이화목, 심원일
조 교 : 손정, 주소리
● 삼화불교신문사
사 장 : 백공 발 행 인 : 혜인
이 사 : 정오, 동산, 정산, 법련, 혜은, 각원, 덕산, 중비, 정금옥
부산지사장 : 최왕림
취 재 기 자 : 청산,법천,조백종,정호석, 김정길,배상근

■ 총무원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 511-2026, 2027, 2028 , 3445-7375, 7376 / FAX 02) 511-2028
인터넷주소 : 삼화불교대학 www. samhwade.com 남경중의약대학 www. 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찬탄·경배하는 그 마음도 '사리'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 '부처님과 10대 제자·불교 성인들' 사리 전시회 현장



석가모니부처님 사리를 친견하고 있는 불자들의 모습이 진지하기만 하다. 이들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깨끗하게 보존된 사리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❶ 석가모니부처님 ❷ 사리불 ❸ 아난 ❹ 밀라레빠의 사리들. 모두 라마 린포체 제자인 우 웬 위엔이 제공한 것.

세계 최대 미륵불 심장 사리 1000과 … 성철 스님 법골도 봉안키로

관욕-친견-마정수기 진행, "신심 기를 좋은 기회" … 15일까지

4월 27일 오후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 박물관 1층 전시실 앞 테이블에 놓인 작은 유리함 사이로 하얀 연꽃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종이로 만들어진 손바닥 크기의 연꽃들은 모두 가족 이름과 함께 소망과 발원을 담고 있다.

연꽃 가운데 작은 촛불을 올려놓은 불자들은 저마다 합장을 하고 유리함을 향해 예를 올린다. 이 유리함에는 5㎝ 크기에 흰색을 띤 성철 스님 법골(法骨)이 모셔져 있다.

석가모니부처님과 10대 제자를 비롯한 불교 성인들의 사리와 성철 스님의 법골을 볼 수 있는 '미륵불상 심장전(心臟殿) 사리 세계 순례 전시회'는 그렇게 성철 스님을 다시 친견하려는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한국전시의 막이 올랐다.

오후 1시 마침내 전시회 개막을 알리는 공식행사가 시작됐다. 개막식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해 한국전시회를 책임지고 있는 티벳박물관장 현장 스님,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무심 스님, 광주영산재 회장 혜령 스님, 광주불교방송 이상진 사장, 전남대 손광은 교수, 우즈베키스탄 압둘라 前 교육부장관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전시회 개막을 축하했다.

"지혜와 자비 상징, 친견하면 번뇌 소멸"

이 자리에서 보성 스님은 축하법문을 통해 "부처님 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부처님과의 좋은 인연을 짓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이나 다름없다"며 "사리를 친견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스님은 "대수롭지 않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지혜와 자비의 상징으로 사리를 대한다면 사리를 친견하면서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가 자라게 될 것"이라며 표현은 달랐지만 보성 스님 법문처럼 사리친견이 궁극이 아니라 사리친견을 통해 부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사리전시회는 티베트 '대승불교전통보존회'가 세계 최대의 불교성지 건립을 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마이트레야(Maitreya, 미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

마이트레야 프로젝트는 부처님 열반지이자 불교 4대 성지중 한 곳인 인도 쿠시나가르에 152m 높이의 세계 최대 미륵불상을 조성하고 주변에 불교유물 박물관, 도서관, 전시관, 시청각 극장 등의 부대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50층 높이의 불상 안에는 대웅전과 선방 등의 수행공간이 마련되며, 전시회에서 선보인 사리와 성철 스님의 법골은 이 불상 안에 안치된다.

이런 기회 또 있을까?

이날 오전 사리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과 동생과 함께 곧바로 전시회에 달려온 조화자 보살(52·서울 송파동)은 박물관 2층에 전시된 부처님과 10대 제자들의 사리를 보며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다.

아들 김상우(31)씨는 "사리 전시회는 거의 다 다녀봤는데, 이렇게 뜻 깊은 전시회는 처음"이라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물관 1층에서 성철 스님의 법골을 친견한 불자들이 2층에 전시된 부처님과 10대 제자, 그리고 불교 성인들의 사리를 친견하느라 여념이 없다. 진옥 스님 등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20여명의 스님들도 사리가 진열돼 있는 테이블 중앙에 위치한 부처님에게 관욕의식을 한 후 합장을 한 채 사리를 친견했다.

마곡사에서 왔다는 한 스님과 화순 쌍봉사에서 온 법진 스님은 관계자들에게 이것저것 궁금한 것에 대해 전시회 관계자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곁에서 덩달아 설명을 듣는 불자들의 표정은 자못 진지하기만 하다.

흰옥·작은 돌·갈색 실 모양 등을 한 다섯 종류의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 1mm 크기의 아주 작은 가섭불 사리, 좁쌀만한 크기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난존자와 목건련 존자의 사리, 미세한 고운 모래 같은 오백나한 사리. 이런 사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디 또 있을까.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요"

전시장인 2층 박물관에서 관욕을 시작으로 한바퀴 빙 돌며 사리를 친견한 불자들이 입구에 앉아 있는 스님을 향해 나란히 줄을 선다. 한국 사리 전시회 총책임자인 티베트 '대승불교전통보존회'의 쉐랍 스님이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종 모양의 사리함을 무릎을 꿇은 채 합창한 불자에게 머리와 손바닥을 차례로 짚으며 티베트어로 축원을 해주는 진언을 한다. 흔히 말하는 마정수기 의식이다.

"대자비를 이루어서 전생에 좋은 업을 지었든 나쁜 업을 지었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의 앞길이 나날이 발전하고 자비심이 더 커지길 기원합니다."

마정수기를 받고 난 이승훈(63·광주 송정동)씨에게 티베트 스님이 축원한 내용을 아는 지 물었다. 멋쩍게 웃으며 모른다고 답한 이씨는 "사리는 공덕의 결정체이며, 사리 친견을 하면서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발원을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진옥 스님의 축사를 되새기면서 "사리를 친견하고 마정수기 의식을 치르면서 나도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발원을 했다"고 말했다.

가톨릭 신자라는 정현경(42·전남 화순읍)씨는 "호기심으로 전시회에 왔는데, 불교에 이런 신앙대상이 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사리 전시회 총책임자인 티베트 '대승불교전통보존회'의 쉐랍 스님은 이번 사리 전시회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사리 친견을 통해 헌신하는 마음과 신앙심을 기르고, 부처님과의 영적 교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철 스님의 법골을 전시회에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법골 그 자체가 아니라 부처님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수행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이다. 사리와 법골을 친견한 불자들은 모두가 그 뜻을 깊이 새겼다.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는 부처님과 10대 제자 등 불교성인들의 사리처럼 불자들도 그렇게 '마음의 빛'을 가꿔가고 있었다.

티벳박물관(061)852-1755
hompy.buddhapia.com/homepy/relicshow

보성 대원사 /글=한명우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전시되고 있는 성철 스님의 법골과 영정. 스님의 법골은 2010년 완성될 쿠시나가르 미륵부처님 심장에 세계 성인들의 사리 1000과와 함께 봉안된다.



한 불자가 부처님 사리를 향해 합장예배하고 있다.



관람자들이 티베트스님으로부터 마정수기를 받고 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선물로도 최고!
건강의 氣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않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암을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新 興 寺



회 주 설악 무산

총무 우송 재무 일음
기획 홍진 포교 정현
교무 정묵 호법 일해

- 신흥사 향성선원
- 신흥사 신도회
- 신흥사 불교대학
- 재단법인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 재단법인 신흥사 성준장학 재단
-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원
- 반야노인요양원
- 반야어린이집
- 장사 룸비니어린이집
- 춘천실비노인요양원(연화마을)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전화 (033)636-7044,7393 / 팩스 636-7556
www.sinhungsa.or.kr

신흥사 대중일동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 날

온가족이 손잡고 해인사로 오세요!!!

부처님오신 날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에게는 종이컵 등 만들기,
그림 색칠하기, 페이스 페인팅 등의 행사에 무료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오신 날 방문하는 모든 어린이에게는 예쁜 동자승과 법보종찰
해인사가 새겨진 미니 화이트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부처님오신 날이자 어린이날! 가자 해인사로!!!!

◆ 봉축 시련 행렬
- 일시 : 2006년 5월 5일 8시 30분
- 장 소 : 구광루 앞마당 – 룸비니 동산

◆ 봉축 법요식
- 일시 : 2006년 5월 5일 10시 30분
- 장 소 : 대적광전 (관불의식과 함께 진행합니다.)

◆ 문화행사 (그림자 연극 – 만석대사 놀이)
- 일시 : 2006년 5월 5일 오후 8시
- 장 소 : 보경당

대표전화 055)934-3000

法寶宗刹海印寺 주지 현 응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 본사

금 산 사

회 주 태공 월주

주 지 벽산 원행
부주지 원광

총 무 원혜
기 획 덕산
교 무 대명
재 무 도안
사 회 석문
호 법 원성
포 교 덕림

신도회장 김백호 외 신도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E-mail geumsansa@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제 23교구 본사

觀 音 寺

회 주 중원
주 지 용주

부주지 진명 사 회 오성
총 무 승언 호 법 세광
기 획 세정 포 교 제량
교 무 유정 사 서 유방

신도회장 김신형 도화주 홍영선

한라산 관음사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387 전화 064)755-6830
팩스 064)756-2202
포교당 보현사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47-12 전화 064)722-2829
팩스 064)758-3367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회 주 성타 주지 종상



학 장 덕 민
선 원 장 종 우
부 주 지 관 우
총 무 장 주
기 획 종 근
교 무 종 천
재 무 정 문
사 서 신 행
포 교 성 요
교 육 보 명
문 화 기 형
신도회장 변영우

- 부설기관 -

불국사 문화회관
불국유치원
성림 어린이집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FAX 054)746-1476

대 중 일 동

SK telecom

"봉사 공연이 필요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 부평역 노인 음기 노래 공연 봉사 황인성 씨



"약국이 아니라 반찬가게냐고 묻곤 해요"
– 무료 반찬 급식 지원 봉사 노은생 씨



"깨끗하게 빈 도시락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소"
– 무료 도시락 배달 봉사 김영순 씨



"미소만큼 좋은 희망은 없다고 생각해요"
–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자원 봉사 안기순 씨



나누고 더하는 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베푼다는 맘으로 시작했는데 지나고 나니 받은 게 더 많은 거 같아요"
오랫동안 봉사를 펼쳐오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본받아 세상 곳곳에 나눔의 소중함을 퍼뜨리는 날개가 되겠습니다.

고객행복 OK! SK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대 한 불 교 조 동 종
영 남 교 구 종 무 원

종무원장 청 담(관음사)
종무부원장 무 산(삼백육십오일사)
총무주장 혜 오(용수사)
감 사 경 산(원각사) 법 명(구인사) 보 덕(수연사)

■ 울산 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879 관음사
TEL 052)262-6958 FAX 052)262-6327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 주석사찰
삼각산 청 련 사

주 지 지명 덕찬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1
TEL 02)379-3935 / FAX 02)379-6938

대한불교 조동종 승정위원 주석사찰
추읍산 금 강 사

회 주 달 제
주 지 해 능
사부대중일동

■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 2리 128-1
TEL 031)773-4747

대한불교 조동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수락산 도 선 사

주 지 대 은
신도회장 김진선
사부대중일동

■ 서울 노원구 상계 4동 산 154
TEL 02)938-1405

대 각 정 사

주 지 해 각

불교교양대학 무료강의
(1,3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서울 강서구 화곡2동 835-3 TEL 02)2699-6384

대한불교 조동종 포교원장 주석사찰
천마산 석 본 사

주 지 통원 행원
부주지 준일
사부대중일동

■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팔야리 240-1
TEL 031)573-4848

대한불교 조동종 부원장 주석사찰
봉제산 우 암 사

주 지 덕 성
사부대중일동

■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4-197
TEL 02)2698-6100 / FAX 02)2607-6155

대한불교 조계종
오봉산 양주 석 굴 암

주 지 오봉 도일
신도회 일동
중창 복원 및 사리탑 건립불사
www.sukgulam.com

■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번지
TEL 031)826-3573

(봉) 부처님 오시날 (축)
대한불교 대승종 부종정 주석사찰
봉화산 약사여래 영험도량 약왕사

주 지 법청 천광
신도회일동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185-4
TEL 054)338-0048,011-488-3339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부장 주석사찰
정광산 천 룡 사

주 지 벽암 지법
신도회 일동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웅1리 산4
TEL 031)769-4334 / FAX 031)761-1081

대한불교 조계종
용문산 용 문 사

사부대중일동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625
TEL 031)773-3797

대한불교 조계종
검단산 정 심 사

주 지 원 영
백중 보은기도(음4.1일)
대적광전 후불탱화불사
신도회 일동

■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9-7번지
TEL 031)791-7732

한국불교 태고종
성 보 사

주 지 휴 암
무료 조상천도전문도량
신도회 일동
www.seongbosa.org

■ 경기 성남시 태평동 3307-149
TEL 050)2123-3350 FAX 031)753-3354

대한불교 본원종

종정 강무구 사서실장 심지연
부종정 최대종 김동광

원로의장 유법용
원로의원 변정송 이송파 김용담
박보명 이관곤 이대봉

총무원장 이대화 사서실장 강정오
종회의장 김대운 종회부의장 방일봉 조혜원
감찰원장 김대원 복지원장 박대성
교육원장 김대천 연수원장 김현담
의전원장 이두산 문화원장 김우담
포교원장 정대련 부산경남종무원장 박지우
염불원장 최대황 경북종무원장 윤자광

총무부장 김만혁 교무부장 손혜원
교화부장 정대능 포교부장 한법성
규정부장 강만공 재무부장 정법성
전국신도회장 신대광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전화 02)391-4376 팩스 02)379-2746

대한불교 본원종 종정 주석사찰
양자산 서 림 사

주지 무 구
사부대중일동

■ 경기 양평군 강상면 송학3리 964-1
TEL 031)774-3538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삼각산 연화정사

주지 대 화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6
TEL 02)379-1965

대한불교 본원종 중앙종회의장 주석사찰
청수산 선 불 사

주 지 대 운
신도회장 신장호
사부대중일동

■ 경기 오산시 수청동 402
TEL 031)374-3413

대한불교 본원종 원로의원 주석사찰
관악산 화 승 사

주지 용 담
사부대중일동

■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73-51
TEL 02)883-7030

대한불교 본원종 복지원장 주석사찰
백운산 성 광 사

주 지 대 성
신도회장 대도운
신도회총무 오철근
사부대중일동

■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437
TEL 033)661-5308

대한불교 본원종 포교부장 주석사찰
삼천산 약 천 사

주 지 법 성
운영위원회회장 이영욱
운영위원회대표이사 김영욱
신도회일동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1185-2
TEL 063)324-3166, 324-3133

대한불교 조계종
흑응산 연 방 사

주 지 일 봉
신도회장 임금색신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08
TEL 054)655-1357

대한불교 본원종 경북종무원장 주석사찰
고 경 사

주지 자 광
사부대중일동

용암산자락에 위치한 고경사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비추는 납골당이 마련되어있으니
누구나 조상님을 명당터에 모시면 관운과 재물이 발복하는 고경사로 연락바랍니다.

•납골탑관리비 : 1년에 2만원 •영구봉안부부 : 3백만원 •오시는길 : 영주IC 15분거리, 서안동IC 20분거리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 TEL 054)637-8886~7

“새로운 동국 위해 두드리고 도전해 보세요”

올해 건학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학교. 동국대는 5월 8일 오전 10시 30분 만해광장에서 여는 100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동국백년사진 · 자료전, 동국인 한마당 대축제,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주제 국제학술대회, 타임캡슐 봉안식, 건학 100주년 기념 출판물 발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906년 명진학교로 설립허가가 난 후 꼭 100년이 된 해이기에 올해 입학한 06학번 새내기들의 감회는 남다르다. 신애솔(불교학부), 윤기림(법학과), 문서영(사회과학부), 이윤재(전기공학과), 육성우(건축공학부) 학생 등 06학번 5명이 총장실 문을 두드렸다. 4월 13일 이뤄진 만남은 총장과 학생이라는 신분과 60대와 20대라는 연령 차이에서 오는 어색함도 잠시. 같은 ‘동국인(東國人)’이라는 공통분모가 ‘건학 100주년’이라는 주제로 녹아들면서 자연스럽게 선후배간의 격의없는 대화로 이어졌다.


동국대 건학 100주년을 맞아, 올해 입학한 06학번 새내기들이 홍기삼 총장을 만나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다. 동국대 불교대학 1기 졸업생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만해 한용운 시비’ 앞에 선 홍기삼 총장과 06학번 새내기들. 왼쪽부터 육성우, 신애솔, 홍기삼 총장, 이윤재, 윤기림, 문서영 학생.

06학번 새내기들 홍기삼 총장 만나다

저명한 학자 · 예술가 · 정치인 배출, 후배들의 ‘거울’
학교는 노력하는 학생만 지원, 큰 목표 세우길
총장님이 06학번이라면? … “어학 · 교양 쌓을 것”

▲윤기림 : 총장님 안녕하세요. 올해 우리학교가 건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총장님으로서 또 선배님으로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총장 : 총각 때 연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군요. 지난겨울 ‘목련꽃과 개나리, 진달래가 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꽃이 피면 개교기념일인 5월 8일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뜻인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를 맞이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 학교 출신이자 살림을 맡은 사람으로서 다른 학교에 손색없는 100주년 행사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성우 : 우리학교는 저명한 학자와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동국인들을 꼽는다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총장 : 너무 많아서 꼽기가 쉽지 않군요. 예를 들면 우리학교 출신 문인들 사진에 간단한 이력만 넣어 주요 강의실에 붙이자고 했지만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었죠. 신석정, 서정주, 조지훈, 이형기 시인 등 수많은 문인들이 우리학교를 빛냈어요. 한때 정치가도 많이 배출해 동국대가 배출한 정치가들이 한국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이 외에도 재계, 군, 경찰, 의학 등 한국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동국대 출신 선후배님들이 큰 공헌을 했어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동국대에 입학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윤재 : 총장님도 우리학교 출신이죠? 총장님이 학교 다닐 때는 어떠셨어요? 또 공부하실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총장 : 국문과 62학번이에요. 내가 군대를 갔다와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 소설가 조정래 황석영씨 등이 있더군요. 나보다 3년 정도 후배들이죠. 나는 그때 문단에 데뷔한 상태여서 교수님이나 후배들이 나를 학생으로 보지 않고 기성 문인으로 대우했어요. 기억해보면 당시 학생들은 매우 치열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강했고…, 어떤 경우 수업이 웬만한 학술회의 수준이 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젊은 시절 치열하게 고민하다 남산에 올라가 마신 막걸리에 취해 고생하기도 했어요.(일동 웃음)

▲신애솔 : 우리학교가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불교정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총장 : 현재 기독교 사상은 서서히 퇴조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불교는 세계를 이끌어갈 중심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세계 도처에서 연구되고 수용되고 있는 불교의 모습은 대단히 진보적이고 진취적이죠. 외국에 나가보면 불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불교정신이란 낡고 진부한 사상이 아니라 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하고 깊이 있는 통찰이자 사상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문서영 : 향후 새로운 백년을 향한 슬로건이 ‘Do Dream!, Be the Newest!’죠? 새로운 100주년을 향해서 총장님께서 품고 계신 비전을 들려주세요.

–총장 : ‘Do Dream!, Be the Newest!’는 꿈을 위해 두드리자, 도전하자는 뜻입니다. 동국대라고 하면 어딘가 전통적인 가치에 매달린 정적인 대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세계적인 산악인인 박영석 동문이 어느 날 불쑥 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만해 스님 이후 온갖 도전정신이 박영석 동문을 통해 나온 것이죠. 역사 발전의 기본 원칙은 이전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정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할 몫을 찾아내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도전입니다.

▲육성우 : 총장님이 만약 06학번이라면 어떠한 것들을 해 보고 싶으세요?

–총장 : 늙어서 하기 힘들거나 이루기 힘든 일을 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나 스승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첫째 건강을 잘 돌보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그 건강을 바탕으로 자기가 선택한 전공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싶군요. 둘째, 어학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만국공용어인 영어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셋째, 인문적 교양을 풍부하게 갖춰야 합니다. 25세 이전에 무슨 책을 얼마나 읽었는가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윤기림 : 지난 3월초 총장님이 학부모님들께 간곡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셨죠? 이 중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공부 시키겠다’고 쓰셨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요?

–총장 : 나는 대학을 비롯해 모든 교육기관이 학생들의 미래를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교수님들을 보면 ‘우리 죄짓지 말자’고 말하곤 합니다. 만약 제자가 자기 자식이라면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대학은 학생들에게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서영 : 06학번 새내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총장 : 학교에 다닐 때만큼은 학업에 열중했으면 합니다. 젊은 시절 노력하면 그만큼 이후의 삶이 편안해지거든요. 물론 그것만으로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불행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내가 올해로 동국대 재직 30년입니다. 그 동안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지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학도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동국 100년이 장엄하게 펼쳐 지도록 여러분의 활약상을 지켜보겠습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목아박물관

그동안 저의 박물관을 찾아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는 마음이 부자인집 되시고 항상 건강하옵시고
주위에 웃음이 같이 하옵시기를 두손모아 발원하옵니다.

목아 박찬수 두손모음



박물관 위치/연락처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395-2번지
- TEL: (031)885-9952~4 FAX: (031)885-9951
  http://www.mok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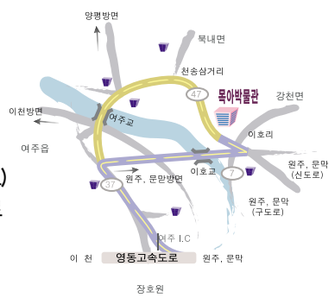
박물관소개

목아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목공예와 불교미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1990년 개관하여 전문사립 박물관의 문화사업을 시작한 본 박물관은 『예념미타도량참법(보물 제1144호)』, 『묘법연화경(보물 제1145호)』, 『정원본대방광불화엄경(보물 제1146호)』외에 15,000여 점의 역사유물을 소장하고 있어 매년 기획전시와 아울러 문화 함양을 위한 박물관 문화학교와 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나라의 불교관련 자료와 목공예분야의 소중한 자료들을 일반에 널리 알리고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전통미술의 복원과 계승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전시일정
- 5월 3일 ~ 5월 10일(8일간) : 소헌 성인호 선생님 초대전(선 달마전)
- 5월 12일 ~ 5월 18일(7일간) : 한주은 개인전
- 10월 9일 ~ 10월 31일(23일간) : 한글새김전

교통편
- ▲버 스 서울(강남, 동서울, 상봉터미널) → 여주 종합터미널 → 강천리/ 걸은리/가야리행 버스이용 박물관 도착 (90분 소요)
- ▲자가용 영동고속도로 → 여주 톨게이트 → 여주읍 → 원주방면 42번국도에서 7㎞ 또는 원주, 문막 방면 자동차 전용도로 (북내방면으로 진입후 좌회전)→ 박물관 (서울에서 출발시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진입 후 70분소요)



이웃이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오늘은 무생(無生)한
삶을 이룩한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온 누리에 찾아봐도 있는 곳이 없으나
두두물물(頭頭物物) 속에 본체가 드러나 있고
여러분 앞에 시종(始終)이 없는 빛을 놓고 있습니다.

우주 속에 가득하여 인연 따라 나타나니
보고 듣는 이의 근기 따라 이름을 지으면
곳곳에 보현이요 이른 곳마다 미륵입니다.
번뇌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이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 속에 구원을 깨닫는 이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본래 이루어져 잃지 않았으니
어린이 마음속에 천진불이 계시고
한마음 한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아님이 없으니
날마다 만나는 이웃이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미혹하면 야차와 보살의 길이 달라지고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대들이 부처입니다.

非凡非聖(비범비성)
一法不修(일법불수)
一塵一色(일진일색)
總是一佛(총시일불)

범부도 성인도 아니며 한 법도 닦을 것이 없으니
한 티끌 한빛깔이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도다.

마음 나누는 자리 빛으로 가득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마음 한 번 돌리면 그 자리가 곧 불국정토라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준동함령(蠢動含靈) 이고득락(離苦得樂)하고 일체중생이 공성불도(共成佛道)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하고 중생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당체(當體)로 이 땅에 몸을 나투셨습니다.

작금의 인간사회는 무명과 미혹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 합니다. 도덕성의 둔화로 말미암아 참된 성품은 찾아볼 수 없고 분별심이 기승하여 사람마다 사변(事辨)에는 밝으나 이변(理辨)은 무디어 진리는 외면한 채 실리만을 좇는 삶의 행태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삶의 가치기준을 물질에만 두는 서구문화에 천착되어 인간 본성을 위한 근본교육이 없이 물질을 위한 지말교육에 치중하는 사회일반의 현상이 만들어 낸 결과인 것입니다.

생존의 법칙은 공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아실현에 혼죔해 대아(大我)의 큰 생명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중략)

물질을 가진 자는 물질을 나누고, 지식을 가진 자는 지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자리에는 투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가 싹트며 희망과 환희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청심(淸心)이 시불(是佛)이며, 이순(理順)이 시법(是法)이요 공화(共和)가 시승(是僧)입니다. 이와 같은 삼보의 정신을 계합시키면 저절로 진리다운 부처님 세상이 됩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진리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삼계유심만법식(三界唯心萬法識)
몽환공화하로착(夢幻空華何勞着)
심법무형통시방(心法無形通十方)
일전회심시정토(一轉回心是淨土)

삼계는 오직 마음이고 만법은 다만 의식이라네
모두가 꿈이요 환상인 것을 어찌하여 수고로이 집착하는가
마음은 본래 형상이 없어 시방을 통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마음 한 번 돌리면 그 자리가 곧 불국정토라네 .

큰 도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온 세상에 쏟아지는 맑은 햇빛과 함께 부처님께서 오십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리고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푸르른 산 빛과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고통 속에 새살이 돋듯 아픔과 고뇌 속에서
빛나는 부처님을 만납니다.
등불을 높이 드니
아! 내 곁에 와계신 임이시여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菩提煩惱不二 (보리번뇌불이)
煩惱本來空寂 (번뇌본래공적)
大道曉在目前 (대도효재목전)
將道更欲覓道 (장도갱욕멱도)

깨달음과 번뇌가 둘이 아니어라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니
큰 도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는데
도를 쥐고 다시 도를 찾으려 하네.

천지만물이 내 존재 규명



진각종 총인
혜일 대종사

오늘 석가모니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사바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기쁨과 환희의 마음으로 봉축하는 바입니다. 부처님은 빛이 어둠을 거두어 내듯 사바의 어두운 세계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열반하신 지 2500여 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부처님을 기리는 것은 그의 삶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략)

진언행자, 그리고 불자 여러분!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오늘에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이 중생사회를 밝혀 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탐진치에 물들어 거짓에 가득차고 미혹으로 가득한 자기를 참회로 놓아버리고 참된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내 안의 본래 청정성을 되찾아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가정과 사회가 화목하고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모든 생명체와 산하 대지가 모두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에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존재가 나의 존재를 규정함을 자각하여 공존공생의 삶이 이룩되도록 바로 보고 바로 행하도록 합시다.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광명이 온 누리에 두루하니 온 만물이 불성을 드러냅니다. 따스한 햇살에 나무도 풀도 꽃과 냇물도 각자의 빛을 발하는 찬미의 봉축으로 부처님 오심을 맞이합시다.

삼라만상 모두가 미묘법



관음종 종정
남천 스님

佛來佛去 又來佛(불래불거 우래불)
花笑鳥歌 是亦佛(화소조가 시역불)
日光佛照 八千土 (일광불조 팔천토)
大地山河 如昊日(대지산하 여고일)
人人各持 眞燈火(인인각지 진등화)
萬象無非 微妙法(만상무비 미묘법)
聽說依此 如修行(청설의차 여수행)
天堂只在 余日前(천당지재 여일전)

부처님 오시고 가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꽃이 웃고 새들이 노래하며 이 땅에 오셨네
부처님 광명이 모든 나라에 비추니
대지 산하가 어두운 곳이 있으랴
사람들은 각각 스스로 진리의 등을 밝혀서
삼라만상 모두가 미묘법 이로다.
이 말 듣고 이대로만 닦아 나갈지면
좋은 세상 눈 앞에 있으리라.

살아있는 중생 모두가 부처

총지종 종령
효강대종사



(전략) 한없는 자비와 지혜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께서 일생토록 무명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원만 구족한 지혜를 몸소 깨달아 일깨워주시고, 동체대비의 크신 자비로 탐 · 진 · 치 삼독에 물든 중생을 제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중략)

이러한 부처님의 삶은 비록 역사적으로는 유한했지만 깨달음의 요체로서 법신은 시공을 초월하고 생멸에 들지 않는 영구불변한 존재로서 지금도 온 우주법계에 충만해 있습니다. (중략)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셔서 당신과 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용기를 일깨워 주십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참생명 모시는게 참 공덕

총화종 종정
동광 스님



세존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 대광명 이로다.
모든 중생이다 기뻐하도다.
산천초목도 좋다고 춤을 추네.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도다.

물질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략)

참 생명(법신체)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어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봉 축

2550 Buddha's Birthday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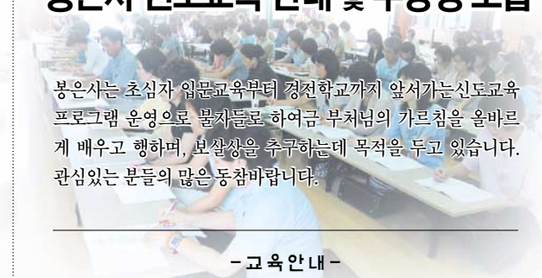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여름안거 수행 산림
각성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좌"

봉은사에서는 오는 5월 21일(일)부터 11회에 걸쳐 여름안거 수행산림 "각성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좌"를 봉행합니다. 모든 경(經)과 논(論)을 회통하고 있는 불교 논서의 백미인 대승기신론 강좌를 통해 불교인의 참다운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정안내-
■ 지도법사 : 각성스님
(부산 화엄사 회주,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 강의기간 : 5월 21일(일) ~ 7월 30일(일) 총11회
■ 시 간 :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 12시
■ 장 소 : 봉은사 법왕루
■ 강의교재 : 대승기신론 (선운사 , 강해)

봉은사 신도교육 안내 및 수강생 모집



봉은사는 초심자 입문교육부터 경전학교까지 앞서가는신도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불자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고 행하며, 보살상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교육안내-

구분	교육과정	수업일 및 교육시간
초심자 입문교육(주간)	사찰안내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10시
초심자 입문교육(야간)	법당예절	매월 첫째주 금요일 저녁 7시
기초학당(주간)	신도기본교육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기초학당(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불교대학(주간)	신도전문교육	주2회 강의(수/목) 오전 10시
불교대학(야간)		주2회 강의(수/목) 저녁 7시30분
경전학교(주간)	주지스님 경전강의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연화대학	노인대학	주2회 강의(수/금) 오후 2시

■문의 : 봉은사 포교교육팀 (02-3218-4822/4824)

봉은사 참살림 행복 프로그램
"아버지 학교"

봉은사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수행을 통해 마음의 행복을 찾기 위하여 21쌍의 부부와 함께 참살림 행복 프로그램 - '부부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가장으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가족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방법을 배우는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참다운 행복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6월초 (추후공지)부터 2개월간
■ 문 의 : 봉은사 포교교육팀 (02-3218-4822)

회 주 성암 종범 주지 설담 원혜
신도회장 대원 김경남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 02)3218-4801~5 / FAX 02)544-2141 홈페이지 www.bongeunsa.org

중생심 벗고 불성 찾자

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생의 어버이시며 이 우주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무명 속에 중생들의 무리를 이끄시고자 이 사바세계에 출현 하셨습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모든 불자들은 나를 중심으로 하여 이기적인 무명의 욕망에 사로 잡혀 참 나를 깨닫지 못하고 탐진치 삼독심에서 헤매는 중생심에서 벗어나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참나 불성의 자비심을 밝혀서 삼독을 없애고 가정이 화목하고 더 나아가 국민은 화합하여 나라안정에 힘쓰며 밝은 사회를 이룩하여 나라가 번영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도록 합시다.

마음 크게 열면 불국토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반야경>에 이르기를 일체의 모든 존재의 법은 꿈이요, 허깨비요, 물거품이요, 그림자, 이슬, 번개불과 같으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하였습니다. 본래마음 자리는 죄고 없고 복도 없는 것이다 하였는데, 그러나 어리석을 범부중생들의 욕심은 금, 은 보화가 하늘에서 소낙비 오듯 쏟아져도, 그것에 만족 할줄 모르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하였습니다. (중략)

탐욕과 일체의 사량분별심을 멈추고 탈체현성(脫體現成)하여 자성으로 돌아가, 본증자각(本證自覺)하여 청정심을 찾는다면 그 자리가 행복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미혹 중생에 참 삶의 길을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를 장엄하고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에서 내가 가장 높다.

삼계는 괴로운 것이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 주리라하는 진리의 합성이 사바세계 방방곡곡에 가득히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4월 8일 부처님 오심은 미혹한 중생들에게 참 삶의 길을 인도하고자 탄생하신 것입니다. (중략)

우리 다 같이 자유와 평등, 행복과 영광이 가득한 저 반야바라밀의 세계로 달려갑시다.

모든 것 마음으로 시작되네

일붕선교종 종정

붕해 스님



유관심일법(唯觀心一法)
총섭제행(摠攝諸行)
일체제법(一切諸法)
유심소생(唯心所生)
약능료심(若能了心)
만행구비(萬行俱備)

오직 마음닦은 명상속에
한가지 방법만이 모든 수행의 방법을 총괄함이요
이세상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나니,
우리먼저 깨달아 삼천대천에 불국정토가 되리라.

범부들 웃으니 세상의 주인

대승종 종정

천광 스님



오늘은 온 누리에 꽃들이 다투어 피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범부들이 함께 손에 손잡고 즐거워 웃으니 이세상의 주인이요,

진실한 마음으로 꽃을 피우니 온 세계가 삼라만상이라

마침내 이 땅의 모든 꽃들이 피어나니 시방세계가 평온 하리라.

시방세계에 꽃도 피고 새들이 노래하니 이 땅에 부처님이 오셨네. (후략)

처처가 화장세계이니

열반종 종정

해곡



구룡이 내리는 오색꽃비 속에 천지진동하고 대지 포효하네

한송이 한송이 일곱송이 연꽃속에 이땅에 나투신 부처님 부처님 이 사바세계에 오시었네

천상천하에 유아독존 인연윤회의 바다건너사 일류에 중생 구하시려고

삼독의 장막을 걷어내리려고 일체중생 실유불성(悉有佛性)인데

부처와 중생이 하나요 처처가 화장세계인데 중생이 본래 부처이니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나

연화산에 향기가 짙고나.

여래불 화신으로 보살행을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맑고 밝은 청정의 세상은

부처님께서 이루시고자하는 장엄도량 세상입니다.

미묘법을 보여주시고자 세사에 오셨으며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성취, 대자대비를 증명하시고자 출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모습, 여래불은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세상 모든 생명이 부처님 생명, 그 인연으로 부처님과 같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여래불의 화신으로 보살행을 실천 수행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됩시다

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보리수 아래 육년고행이 없었다면 어찌 금일여명(今日黎明)에 견명성(見明星) 하리오.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극단적인이기 주의에 더욱 더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자신과 집단을 서로 다투게 하여 이 사회를 병들어 가게 함으로써 인류문명은 바야흐로 물질의 풍요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걷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돌이켜 봄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부족하고 어려운 점을 추스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봅시다.

일자소식 광명으로 가득

미륵종 종정

연화 스님



본무출몰일출동(本無出沒日出東)

거래여일생사로(去來如一生死路)

만법귀일화두선(萬法歸一話頭禪)

일자소식광명천(一字消息光明天)

본래 뜨고 짐이 없는데 동쪽에서 해가 솟고
가고 옴이 하나인데 생사에 헤매도다.
만법이 하나로 가는 이치를 깨달으면
일자소식이 광명으로 가득하리.

이보다 더 기쁜날 있는가

불입종 종정

경조 스님



삼라만상의 진성(眞性)이 저마다 광명을 놓아 인연의 조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명업식에 가리운 중생들만이 오늘도 악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손수 지견(覺心)을 열어서(開) 보여주시고(示) 모두 깨달아(悟) 부처님의 경지로 들어가게(入)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략)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를 받아서 모두가 자성(自性)의 참모습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축복, 축복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없습니다.

모두 함께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시다.

연꽃 구름 운각을 짓네

삼계종 종정

법수 스님



청산은 높은데 봉우리에 연꽃 구름은 운각을 짓고

원효성사는 좌선삼매에 빙그레 웃고 무설설하니

염불청산에 선여기도(善女祈禱)는 해탈관문을 수지하고 평산에 법고 울림은 흰 구름이 너울거리며 진여불의 화장세계는 운화정토(運華淨土)를 이루며 (중략)

불구불정을 부처님의 정각으로 가려내니
우주법계는 적멸미풍이 회돌이 치는 이 마당에
소반위에 접시 물은 춤을 추누 나
모두다 삼독심을 던지고 정각을 이루어
본귀환처 합시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

법성종 종정

덕암 스님



모든 일에 인정을 담겨두라. 그리하면 뒷날 다시 볼 때 좋은 낯으로 서로 보게 되리라. 인간은 언제나 남을 돕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중략)

남을 돕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정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그 인정에 감복하여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이며 나눔의 정신이며 부처님 마음입니다.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든 불자들과 온 국민이 부처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과 이웃이 서로 나누는 마음이 퍼지고 또 퍼져서 불국토를 이루길 기원합니다.

집착 버리고 자유인 되자

대원종 종정

신풍 스님



벌이 꽃에서 꿀을 모으듯 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받아들여 어리석은 마음, 탐내는 마음 이것저것 얽혀 집착하고 고통 받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생사윤회를 뛰어넘어 대자유인의 길을 가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두려운 이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얽매인 이가 자유로워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후략)

십회향법의 진과 속을 융화

삼보조계종 종정

가산 스님



낙지족천이도솔(樂知足天是兜率)

부리욕계무염착(不離欲界無染着)

대비처세이생업(大悲處世利生業)

십회향법융진속(十回向法融眞俗)

낙지족천이 이 도솔천이니
욕계를 여의지 않았으되
대비로써 세상에 처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업
을 삼아 십회향법의 진과속을 융화하도다.

이 강 저 강이 한바다로다

무량종 종정대행

혜안 스님



부처님오신날 삼라만상이 봉축하는 소리 들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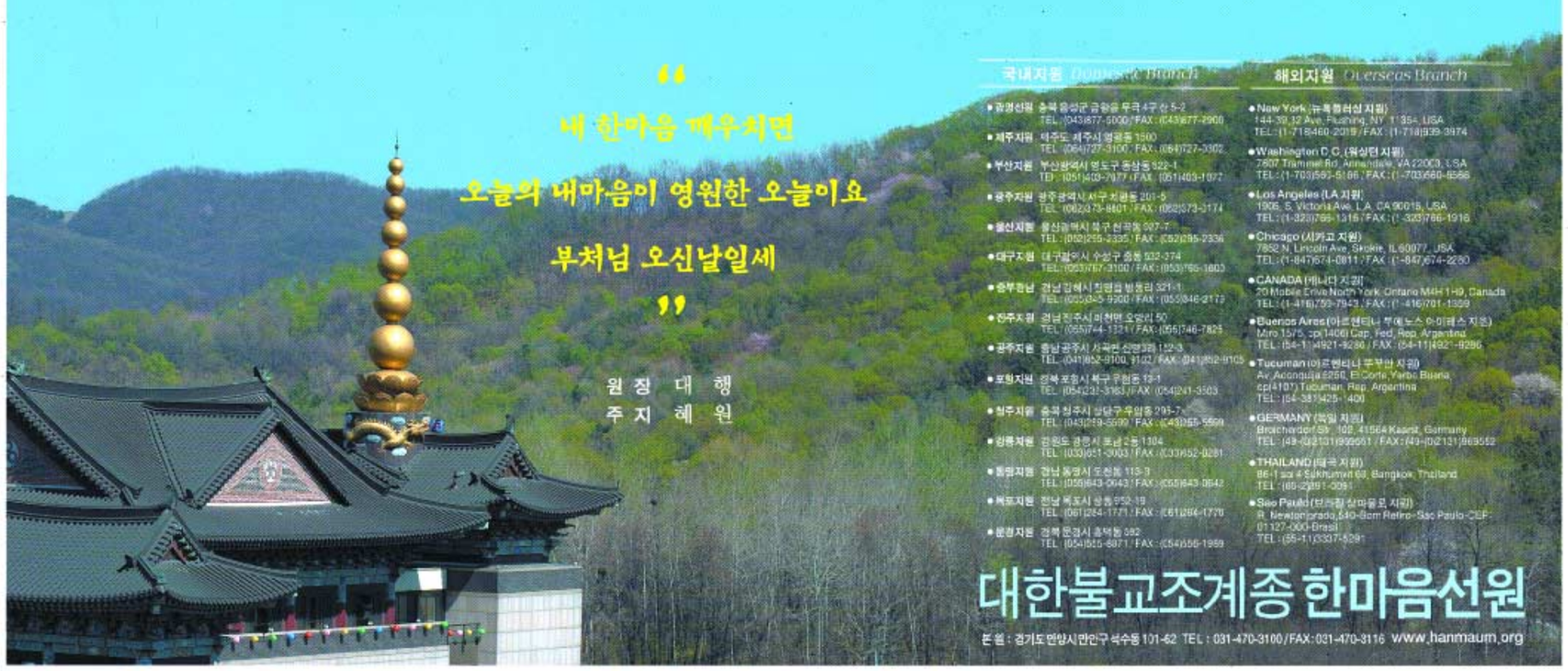
인연 따라 자연의 질서는 한치의 오차도 어긋남이 없도다.

불광이 솟구치니 무명은 사라지고 탐심에 가리어 질서를 잃은 중생 불광을 보소서. (중략)

이 강 저 강이 한 바다로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에 우리 모두 내면에 본성을 찾아 이웃과 온 세계 온 인류 모든 일체중생이 한 뿌리임을 알고 탐욕도 원망도 미움도 모든 가상들을 걷어치우고 서로 사랑하고 베풀면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시다.

법어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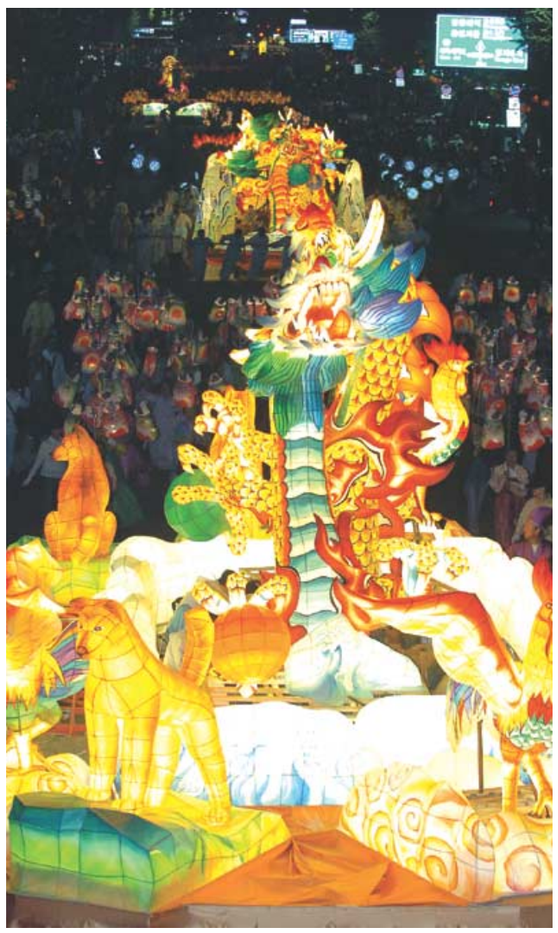
연등축제 화보 LotusLanternFestival

거리마다 연등 물결

4월 28~30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열린 불기 2550년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는 수많은 국내외 인파가 몰리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4월 30일 서울 동대문야구장과 종로 조계사 일대에서 펼쳐진 연등축제에는 연인원 30여만명이 몰려 신명나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올해는 가족단위의 참가객과 외국관광객들이 많아 연등축제는 단순히 불교 행사를 넘어 명실공히 국민적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종로 우정국 앞 불교문화마당에서는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 등 10여개국 동남아 외국인 불자들이 자국의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불교문화체험과 음식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했다. 또 '우리도 부처님같이-어린이마음, 부처님마음' 이란 주제에 맞춰 어린이 장엄물을 거리 행렬 선두에 배치해 부모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국적과 인종을 막론하고 현재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방세계가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모두 해소돼 불국토가 되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한마음선원이 새롭게 선보인 화려한 용등. 개와 닭이 함께 장엄된 올해는 상서로운 용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지관 스님(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들이 연등을 들고 제등행진에 동참했다.



복지마당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가운데)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맨 오른쪽)이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했다.



노보살들이 나란히 앉아 제등행렬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국제불교마당에서 연꽃등을 만들며 즐거워하는 외국인 불자들.

장엄물에 탄성 또 탄성

○…부처님의 광명을 서울 종로의 밤거리에 아름답게 수놓은 것은 단연 봉축 장엄물. 법당과 호법신장 등 도량 전체를 조형화해 제등행렬에 나서는가 하면, 오토바이를 탄 저팔계와 손오공이 등장하는 등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능인선원이 마련한 부처님과 탱화를 배경으로 만든 대형 법당은 장엄물은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여기에 30여 개로 구성된 호법신장 장엄물이 길게 늘어서 법당 조형물을 뒤따라, 마치 승전한 군대가 개선문에 들어오는 듯 했다.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

○…"세계불교가 다 모였습니다."

'태국, 네팔, 티베트, 인도, 대만, 스리랑카, 캄보디아…!'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이 열린 서울 종각 우정국로 일대는 불교권국가 7개국이 나라별 전통 불교문화를 선보였다. 이들 나라는 전통 의상과 음식 소개, 민속 행사 체험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우정국로 찾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이 가운데 압권은 스리랑카 불교 코너. 전통 의상을 입은 불자가 직접 스리랑카 불교문화를 소개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e불교 떴다' 관심 집중

○…불교문화마당에 'e불교'가 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3D 입체 사진으로 사찰의 사계를 감상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한 것. 또 컴퓨터 게임인 '부처님 공덕쌓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구름을 탄 동자승이 중앙에 올 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떨어지고, 구름 아래 꽃이 피어있는 단에 공덕돌을 쌓는 내용. 이 외에도 원력카드를 작성해 나무에 달면 추첨을 통해 마곡사 부근에 지어질 전통불교문화사업지원센터 기와불사에 이름을 넣어주는 행사도 마련됐다.



진각종이 선보인 '날아라 슈퍼보드(어린이 만화)' 장엄등은 이번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이 한날이라는 것을 상기 시키며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다.

연등축제 전과정 화보 · 동영상
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밀리언셀러 《화》의 저자 틱낫한 스님의 2006년 신작

prayer 기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당신이 우주 안의 모든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라

몸이 아플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살이 헝클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소망한다.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신에게 염원하게 된다. 이것을 '기도'라고 부른다. 침묵을 통해서든, 찬송가나 명상을 통해서든, 그것이 진정한 기도일 때 우리는 자신보다 위대한 어떤 존재와 만나게 된다. 이 책은 종교와 종파,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을 넘어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되짚게 한다. 그리고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탁낫한 지음 | 김은희 옮김 | 9,000원

화 100만 독자가 선택한 화제의 베스트셀러
세월이 흐를수록, 화가 날 때마다 다시 꺼내 읽게 되는 책!
탁낫한 지음 | 최수민 옮김 | 8,500원

힘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의 발견
2005년 한국 방문 기념으로 세계 최초 출간된 화제의 책
탁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8,900원

틱낫한 스님이 읽어주는 법화경
법화경 한 구절이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한다
탁낫한 지음 | 박윤정 옮김 | 10,300원

《기도》 블로그 blog.naver.com/myungjinpub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536-44 Tel. 02-3275-0126 출판의 名家 명진출판

활짝 핀 천진불심

LotusLanternFestival 연등축제 화보

어린이 체험 행사 다양

○…불기 2550년 불교문화마당은 '동심(童心) 한마당'이었다. 어린이날과 겹친 이번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은 어린이 불자의 손에 들린 색색의 풍선으로 수놓아졌다. 부모의 손을 잡고 참가한 어린이들은 연등 만들기, 부처님 그리기, 종이접기, 화전 만들기 등 다양한 참가 프로그램을 즐겼고 아이와 함께 공기놀이나 고무줄놀이를 즐기는 부모들도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웃음꽃이 만발했다.

'월드컵 축구공등' 눈길

○…서울 봉은사는 이번 제등행진에서 2006년 독일 월드컵의 승리를 기원하는 봉축 축구등을 선보여 인기를 모았다. 월드컵이 두달도 채 남지 않았기에 제등행진을 관람하던 시민들은 '월드컵 우승'을 외치며 축구공등에 열광했다.

동대문운동장을 출발한 제등행렬. 발우등, 짚신등, 소고등, 목탁등, 공작등, 닭등, 용등, 연꽃등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한 전통등을 접한 시민들은 엄청난 규모와 다양한 종류에 놀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종로거리를 찾은 시민들은 수군수군. "이런 등도 있었어요?"

휠체어 타고 제등행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은 장엄등을 앞세우고 휠체어에 탄 장애인들과 함께 선두그룹 제등행진에 나서 온 불자들이 하나 되는 연등축제의 뜻을 더욱 드높였다.

재단은 그간 제등행진에 참가해왔으나 장엄등을 선보인 것은 올해 처음 있는 일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선두에는 상임이사 지현 스님이 귀여운 두 동자승의 손을 잡고 등장해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재단의 마스코트로 인기를 독차지한 두 동자승은 각각 재단 산하 효지어린이집과 신당1동어린이집의 김진일(5), 김동일(6) 어린이.

특별취재반 · 사진=고영배 · 박재완 기자


우정국로 일대에서 펼쳐진 불교문화마당에서 불화그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어린이들.


이날 어린이 율동단과 연희단은 단연 봉축 어울림마당의 주인공이었다.

연등축제 전과정 화보 · 동영상
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신나는 '대중율동'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어른들 사이로, 율동단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부처님오신날의 공식표어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처럼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아름답다.


불교문화마당에서 한 외국인 어린이가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욕의식을 체험하고 있다.

지역 연등축제는



부산, 동자승 홍보대사 '짱'

○…4월 29일 부산 남포동에 나타난 15명의 동자승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부산 내원정사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마련한 자비의 탁발. 동자승을 휴대폰카메라로 찍는 시민들이 많아 부처님오신날 홍보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광주, 축제 참가자에 선물

○…4월 28일 광주공원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빛고을 연등 축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났다. 특히 이번 대동한마당에는 불자 기업 '청강월'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친환경 시장주머니를 선물로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대구, 도심 한복판 무대화

○…대구 연등축제 하이라이트는 시내 중심 반월당 네거리와 남문시장 네거리를 통제한 후 펼쳐진 제등행진 회향한마당. 대구 도심 한복판 도로에 무대가 마련된 것은 이례적인 일. 처음으로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 것이다.

두류공원에서부터 출발한 불자들이 등을 들고 2.4Km의 구간을 걸어서 들어서자 시민들의 환호로 회향한마당 열기가 더했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실전구성학
단기 속성 완성
● 운명 운세 방위학(개운 비법)
● 특별한 암기법
● 알기쉽게 풀이한 명강의
● 3인 이상이면 지방 출장 가능
백도현 구성학
011-9735-1742(서울)

천도재, 사찰행사, 불공, 전통의식 여법하게 집전
(밀양 강정사 음성공양회)
055)391-3274
011-869-8560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	수	각	사	바	경
	도				라	
안	재	육	시		나	
	49				비	
식	재	재	식	물	춤	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눈 눈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빨빨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각 사암 등록 신청 및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스님
- 스님이 되고자 하는 행자 (남, 녀)
- 동자모집 (가정이 어려운 환경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448번지 황룡사
행정실 054)972-3174
문의 011-502-3966

철야기도 ◆ 대불정능엄신주 독송기도
각종 경전독송 효과적인 방법지도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 지장경을 드립니다
김종길 · 임명선 · 김광미 · 김경록 · 김선희 · 김민경
필요하신분 011-801-4355 전화환영
상담환영
대학입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립
노후에 회향을 잘 하실 분
적정액의 조상영가천도 상담하십시오
6월6일 현충일 국립묘지에서 영가천도 책을 보시합니다
동참하실 분 연락바람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포교활동하실 분
스님동참환영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맨발등산

산삼과 비교되는 신비의 명약 봉삼 잔병이 많고, 고혈압, 당뇨, 막힌 혈관에 최고 꼭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043)733-1239
010-2243-9776

법력 20년이상된 부전스님과 총무스님으로 20년이상 근무하신 스님 모십니다
종무원 및 사무원(女)구합니다 (각1명) (절에서 3년이상 근무하신분, 숙소제공 가능)
사찰 백련사
031)559-0892

평생 사찰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전세도 드릴 수 있습니다 (55세-65세)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포교당도 하실 수 있습니다
018-427-2256

산사에서 함께 생활하실 불자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011-9571-6479

사찰女사무원 (45세이하)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41)673-1888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울산지역
052)243-3881

화주보살님모십니다
활동력있는 사무장 구함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기도정진하는 젊은 비구입니다
기도스님필요하신 사찰이나 포교당 소중한 인연기다립니다
010-2243-9776

화주보살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
010-9479-8316

고찰인 조계종 지장보궁인 내원암에서 평생 관리할 비구니 스님 40~50대의 정진할 인연있는 스님을 구함.
그리고 후원을 오랫동안 돌볼 인연있는 공양주 40~50대를 구함
경북 소백산 내원암
054)653-118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북 예천
011-336-4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조그만 암자입니다
평생을 같이 지내실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경북 청도군 대각사
054)373-0383
010-4528-9807

공양주 보살, 법당(기와)보살님 모십니다
55세 이하. 전북 고창
063)564-286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절에 기도하며 계실 분)
054)654-4925
011-758-1819

행자모집
(남녀불문,50세미만)
출가에 뜻이 있는 분 모십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종정큰스님 주석사찰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대인사
전화055)375-2076/7
011-565-6643

유황 법제를 전수합니다
054)751-8225

동방전통침술강좌안내
모든 질병은 자율신경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가 됩니다. 동방침술로 자율신경을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비법을 배우십시오(3개월과정)
※ 14경락의 체계적인 습득과 완벽한 취혈, 사암침술법, 오행처방법, 기초맥진법, 침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법, 병증에 따를 즉효 침술요법, 내 몸의 병을 스스로 고치는 침술자가치료법
● 개강 : 5월15일 (월, 회반, 수,목반, 야간반)
● 위치 : 종로구 숭인동 지하철 1,6호선 동묘역 5번출구
● 문의 : 018-312-7110 동방전통침술학회

척추,목,어깨,짝다리, 원인불명통증,체형교정, 탈골
빙의(신들림), 기공, 최면, 전생, 급방 천도, 사주, 작명, 풍수지리
무료상담
02)835-2399 / 011-817-3387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경력 10년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07 김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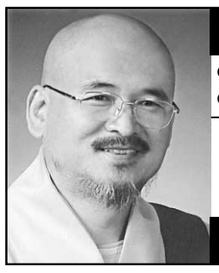
경전독송기도특강(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초중급합반
●기도와 회향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지방분 환영 ● 포교활동 하실분 ● 스님동참환영 ● 통신교육 가능
★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립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 노사갈등 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대학입시합격기도 책임지도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 사법,행정고시 및 각종 취업기도 책임지도, 조상천도, 각종 기도불공, 생일불공
● 술,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경찰서 법당/ 교도소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회향을 잘하고 복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서울739-5008 부산635-7008 마산245-2662 상담은 중요합니다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지장보살(도자기)
"고급" 1자 지장보살(청자 · 백자) 1,000불 저렴하게 드립니다
※ 한정판매 300불 이상 선착순
● 높이: (좌대포함) 약 34cm ● 넓이: (가로) 약 14cm
● 가격: 1불당 12,000원
● 요장: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 판매 연락처: 042)282-2334
016-606-5658

28숙 특별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반,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행자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학인(염불)스님. 행자승 모집
재(齋)의식, 염불(각단불공)을 배우고자 하시는 스님, 전법사, 천도재의식, 상단불공. 관음불공. 지장불공. 신중불공. 조왕. 산신불공. 용왕불공. 칠성불공. 삼재풀이불공. 시식. 목탁. 법고. 태징. 사물 다루는법을 성심 성의껏 기초부터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특히 스님이 되고싶어 출가를 결심하고 망설이고 계시는분 환영합니다. 문의 하십시요!
(원하시면 득도후 행자 기간을 거쳐 순천 선암사 강원이나 동방불교대학에 입학하여 드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경보사 주지 석경보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문의전화 051)364-4889 / 0502)364-4889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핸드폰 : 010-8392-2557

사주통달책임지도 (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충재)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안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기획PR

달마의 氣, 이제 몸에 지니고 다닌다



(주)S · H상사에서 지안스님의 달마도를 형상화한 장신구 개발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달마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 신비로운 장신구로 폭발적인 인기

예로부터 액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준다는 달마도,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지혜와 복덕을 갖추게 하고 삼독(三毒. 탐욕, 화냄,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게 하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중국 선종(禪宗)의 창시자이자 대승불교의 승려로서 유명한 소림권을 창시한 달마, 그런 탓에 사람들은 달마의 그림을 액운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기(氣)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달마의 그림은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나 사업운을 불러오는 기원의 상징으로 회자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달마의 의미와 상징을 금번 (주)S · H상사에서 목걸이, 귀고리, 휴대폰줄 등의 장신구로 개발해 생산, 공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독특한 디자인과 신비로운 효능을 갖춘 '달마의 氣'라는 작품이 그것. 이는 달마의 달인으로 널리 알려진 지안스님의 달마 작품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미 해외에서 먼저 각광받고 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오랫동안 달마를 그려 오신 지안스님의 그림을 파동금속이라는 특수재질을 이용해 장신구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예술적 미와 기능적 효과를 겸비해 액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인천광역시의 품질우수 추천제품으로 지정될 만큼 중년이후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건강과 행복의 징표로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주)S · H상사의 설명처럼 달마의 氣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14K 금장으로 달마를 형상화한 예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수맥과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능은 물론 한국 원적외선 응용평가연구원의 FI 품질보증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SGS 검증을 얻어 기능성 장신구로서 호평을 받고 있다.

"새로 이사를 하시는 분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 사업 번창을 기원하시는 분, 집안에 수험생이 있으신 분,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신 집, 수맥파로 인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취업, 각종진급 시험을 앞두신 분, 재물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 소망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지안스님의 달마의 기 작품을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종교가 없더라도 예술적 미와 기능적 효능을 갖춘 신비로운 달마의 氣는 장신구의 계절, 여름을 앞두고 더욱 호평을 얻으며 입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해외의 멋쟁이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새로운 장신구로 인정받고 있는 달마의 氣. 새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액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행복의 징표로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 (주)S · H상사
1588-3278
www.shmall.net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사찰 터 -

●위치 : 부산	●위치 : 포항	●위치 : 경남사천
●법당 : 25평	●법당 : 20평	●총평수 : 16000평 ●가액 : 4억1천
●요사 : 50평	●요사 : 25평	●위치 : 경북포항
●부지 : 80평	●부지 : 760평	●총평수 : 700평 ●가액 : 3천만원
●가액 : 2억5천	●가액 : 6억	●위치 : 경남사천
		●총평수 : 7000평 ●가액 : 1억6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남한강사찰 1000평-3억
2.서울종로산중사찰-30억
3.경기광주현대식사찰-12억
4.퇴촌절터27000평-5억4천
5.여주사찰120평-전세2억
6.수유포교당15평-월40만원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시내요지
● 대지 230평
법당25평
요사2채, 방4칸
주차장
● 가액 : 7억(절충가능)
018-554-6198

포교당 구합니다

● 위치: 경북 경주 지역
● 평수: 30평 이상
011-269-4168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약 40평(인법당)
● 법당: 18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만원
02)918-1215
016-237-3006

사찰,토굴 급히 구함

양도하실분은 지금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당안내

● 위치: 부천시 오정구청옆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일체시설완벽, 부처님 5불, 아미타불, 호신불 300불, 불단 옥탑에 산신각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즉시법회가능
010-6244-9111
032)684-3894

사 찰 안 내

● 위치: 동김해 아파트 상가 밀집 최요지
● 평수 : 4층 45평
● 시설 : 집기완벽. 주차A급
● 즉시법회가능
● 가액:보증금2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명리,대체의학 최적합
055)332-6738
010-6840-85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에서 위치 최고
● 총평수 : 47평
5층 중 4층
● 가액 : 보증금 2천
월6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9235-9318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총평수 : 2,312평
잔디각 5평, 대웅전 22평, 요사채 30평, 행랑채, 차고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3억5천만원(융자8천) (전세는 1억에 가능)
● 산세수려하고 솟을 용궁
033)562-7053
011-9793-7052

● 위치 : 서울
● 종교부지 : 약 1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9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경기
● 대지 : 약 24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가액 : 11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밀양 사찰(급)안내

● 대지 500평, 건물 약 100평
● 위치 : 대구 부산 신 고속도로 밀양 IC 8분 거리
● 가액 : 3억 5천(은행 대출 2억 가능)
현금가액 : 3억2천 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5572-1501

암자안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5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1-584-4418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토굴안내

● 위치: 충남 홍성
● 대지: 200평
건평 50평
전 300평
● 가액: 2억2천만원
010-6428-1129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예천군 감천면 감천면사무소 앞
(예천읍 20분거리 영주역 20분거리)
● 법당, 요사채 마당, 텃밭 - 80평
요사채 (큰방2개, 작은방1개, 주방, 욕실, 화장실 2개, 창고) 도배, 장판, 페인트 욕실 모두 새로 했음
● 가액: 5천 3백만원
054)655-4565
010-9596-12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0평
● 가옥: 신축황토기와집 55평
● 가액: 5억5천(대출가능)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에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주인직접 살고 관리해옴
016-367-211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 시설일체 완비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2천7백만원에 월 35만원
010-8419-8004

포교원안내

● 위치: 강서구 화곡1동 2호선 5호선 2분거리
● 8층건물 중 7층
실내평수 50평
● 도시가스와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 시설비 2400만원
02)2699-9358
011-622-4299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3억 5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표 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산천군 시천면 (지리산 방면)
● 건물: 대웅전, 산신각(목조), 용왕각, 나한전, 요사채
● 가액: 5억
011-863-0622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보령시 주고면 신대천리
● 건물: 611평 2층건물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27평
● 가액: 2억5천만원
041)932-0533
016-236-0073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 건물: 53평
4층건물에 4층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010-4601-1255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호시장앞
● 건물: 평수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월 45만원.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시설완비
※ 돔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55)232-7151
011-599-8476

임야안내

● 위치: 마산 내서읍 원계리 산
내서읍에서 5분거리 위치
● 평수: 15790평
● 무학 산줄기
산세 수려한 임야
● 가액: 4,500만원
011-570-1317

포교원임대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 건물: 4층건물에 2층, 법당 25평, 요사채 13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900만원
016-9599-0108 소원사

사찰안내

● 위치: 부산
● 건물: 대웅전 25평, 종각 2평, 산신각 5평, 용왕전 3평
요사방 6개, 주방 10평
● 실평수 900평정도, 사용평수 2000평
● 주차 30대, 사찰연혁 70년
● 가액: 5억
010-4877-5900

아름다운 사찰부지

● 위치: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청평IC)5분거리
● 672평 중 대지 350평
● 건평:1층50평,주방한옥15평
2층25평(서재)
정원:야생화축제장, 텃밭250평
● 가액 : 4억2500만원
017-313-2161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화성군
● 특징: 산세수려하고 양쪽으로 계곡이 흐르며 큰 호수 있음
● 평수: 1200평
● 임법당, 요사채, 차고, 창고 있음
● 주지스님 건강 상태로 매우급함
● 가액: 1억2천만원(가격절충)
010-4604-9255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89-235호
● 3층 건물중 2,3층
2층법당 34평 3층 공양간 방 3개 부엌있음 30평
● 가액: 보증금 11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없음
(현재 법당이 비어있음)
● 포교당 최적지
010-5710-1732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시내
● 가액: 전세 2천만원
● 조계종 스님에 한함
011-456-7101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 유성시청 앞
● 평수: 47평 2층
● 시설 1년 완됨,냉난방 완비 몸만 오세요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7만원
시설비: 1800만원
042)825-3020

컨테이너 안내

● 위치: 경기도 여주 컨테이너 3×9m, 3×6m
● 합계금액 : 260만원(깨끗함)
● 소파2쌍,침대더블,싱크대, 식탁,의자포함,가스통, 전기밥통,가스렌지, 책상무료드림
031)885-1966
010-6349-1966

칠갑산줄기 사찰터

● 방향 : 서, 남향(연화부수형)
● 위치: 부여군 은산면 오버리 산 2-4 산세좋고 공기 맑음
● 면적:15485평(관리지역) 평 3만원
● 특징: 산앞 냇가 흐름 (서쪽에서 동쪽으로)
● 도로현존(공부상현존) 2차선에서 350m진입, 훤히보임 고속도로 I.C 에서 4.5km 전방
011-433-1744
(주인 직거래, 답사 환영)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 4층건물 2층, 30평
● 법당, 접견실, 공양간, 시설 고급형 사존불 및 각 단 후불탱화, 지장단, 영가단 에어컨, 엠프시설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시설비: 950만원
016-318-0269

암자 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 근처
● 영월에서 20분거리, 제천시에서 20분거리 산세좋고 공기 맑음
● 임야 3700평 대지 270평
● 건물 : 1층 23평, 2층 20평, 법당 12평(신축예정), 요사채(통나무집) 산신각 2평(신축예정)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 꼭 사실분 전화 요망
011-792-8969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1.2층)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6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대구 도심 포교원

● 위치 : 서구 평리동 , 6차선 대로변 2층
● 평수 : 45평
● 내부구조 : 법당 25평, 친견실, 침실, 공양간
● 보증금 : 1천만원
시설비 : 초기투자 시설비는 3천만원이었으나 법을 펴시는 스님께는 대부분 보시할 예정임
053-754-4962/010-9511-4963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토굴안내

● 위치: 충북 옥천IC 5분거리 대전역20분
● 대지: 250평중 100평대지
법당: 25평 산신각5평(목조)
부속건물18평 11평 주차장
● 가액: 1억2천. 시설및 집기완비
043)733-8186
011-9405-8186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2,100만원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사찰 안내

● 위치:경남사천읍 구암3동
● 평수:1,000평 ● 조립식건물 2동
● 심야보일러, 130m 암반수
● 가액: 시가1억 5천만원
016-9559-8889 / 055)854-3408

사찰안내

● 위치: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252번지
● 대지: 문화재급 목조건물 대웅전 36평 요사채 30평
● 삼성각 6평, 종 누각 2층 10평
● 미륵부처님, 부처님 다 모셔져있음
● 물좋고 산세 수려함 기도도량으로 최적
● 가액: 15억
031)674-1117
011-250-7279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연신내우체국옆 3, 6호 연신내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4층건물중 2층 약40평, 방2칸, 부엌1칸 삼존불 등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4천만 월 50만
시설비, 보증금 답사후 좋은조건 의논
016-542-1055

토굴안내

비구니스님 적지
● 위치: 전남 여수 돌산
● 대지 420평, 법당 30평, 산신각, 큰방2, 창고1, 입불2.5m 한분
● 가액 : 5천만원
● 마당까지 주차가능, 시내버스 종점에서 약 200m
061)684-3494
061) 684-2399
010-3114-3494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삼존불, 돌탑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2억1천만원
033)766-0057 /011-471-1996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 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 험 사 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마음! 부처님마음!



성북구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호암 정수

성북구 불교사암연합회
회원일동

■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411 TEL 02)927-1232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봉국사

주지 월서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 2동 637
TEL 02)919-0211~2 / FAX 02)919-0216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보림사

회주 묵산
주지 보관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산 1-1
TEL 02)914-6187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내원사

주지 호암 정수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산 1
TEL 02)941-2012 / FAX 02)909-1366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경국사

사부대중 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75-3 TEL 02)914-5447,2828 / FAX 02)914-4326

대한불교조계종

정 각 사

주 지 광 우
신도회장 서승만행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02)742-1231

염불만일회

삼각산 정토사

회주 박설산
주지 박응천

신도회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523-61
TEL 02)379-5502 / FAX 02)396-3405

대한불교조계종

안암산 개운사

회 주 종 범
주 지 공 운
총 무 운 공
교 무 혜 각
재 무 각 연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안암 5가 157
TEL 02)926-4069



재단법인 선학원

삼각산 정법사

회주 석 산
주지 법 진

신도회일동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30-76 TEL 02)762-0774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소림사

주지 혜 윤

내곡동 어린이집 운영

신도회일동

■ 서울 종로구 홍지동 80-1
TEL 02)394-2145

도심속의 아름다운 절

삼각산형제봉 심곡암

주지 원 경

신도일동

www.simgokam.org

■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TEL 02)914-8860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삼각산 혜림사

주지 혜 광

신도회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293-44호
TEL 02)379-7196



대한불교조계종

문수도량 삼각산 문수사

주 지 허혜정
신도회장 강일석

사부대중일동

www.munsusa.or.kr

■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 2번지 TEL 02)391-2062 / FAX 02)392-2063

노원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선 혜
수석부회장 호 현
총 무 호 연
기 획 대 은
재 무 성 지
문 화 현 암

회 원 일 동

■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1-4 인정빌딩 8층
TEL 02)973-7334

대한불교조계종

정 혜 선 원

주지 호 연

신도회일동

■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1-4 인정빌딩 8층
TEL 02)971-4426 / FAX 02)971-2572

부처님 품안 건강한 가정 이루소서

奉 부처님 오신날 祝

(재)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이사장 심정구 희주 세 민 주지 현 호

■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 삼영빌딩 7층
TEL 031)444-5935~6 / FAX 031)444-5655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적 조 사



주 지 자 제

학월당 경산스님 조사전
건립 1000일 기도

신도회 일동

■ 서울 성북구 돈암 2동 593번지 TEL 02)924-5362 / FAX 02)924-5463

사단법인 조계정토불교총원

우 주 정 사

주 지 법 현

기적의손 부처님의 기를 전달하여
디스크환자, 팔 다리 마비환자, 신경통 관절염환자를
치료하는 기적의 손을 가진 스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38-2
전화 031)251-2871~2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간격이 심화되는 양극화. 상위계층은 점점 형편이 좋아지는 반면 하위계층은 먹고살기조차 힘들어지는 양극화 현상은 경제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퍼져 있다. 특히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는 분배 불균형과 소외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저소득층의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현대불교'는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문가 기고와 좌담을 통해 양극화에 대한 불교적 진단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양극화 극복을 위해 땀 흘리는 불자들을 찾아갔다.

인간의 보편적 고통과 욕망의 악순환



중도와 화쟁에 길 있으니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사회 현안 포괄적으로 표현한 용어 '양극화'

최근 한국 사회의 화두는 '양극화'이다. 소득격차에 따른 빈부 계층의 양극화에서부터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연령대의 양극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양극화이다.

포괄적인 만큼 그 의미하는 바도 다의적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경제적 지표 혹은 사회적 지표에 대한 분포도가 양쪽에 치우쳐 중간이 없는 상황을 양극화라고 한다.

또한, 대립적 두 의견이나 이념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대립적 상태로 있는 경우도 우리는 양극화라고 한다. 편의상 전자의 경우를 '사회적 양극화'라 하고 후자를 '사상적 양극화'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원전 5~6세기 당시 인도 사회도 그 정도는 다르지만 양극화가 진행 중이었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철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농업부문에서 비약적으로 생산이 증대 되었다.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기 위한 시장이 갠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 되면서 자연히 도시가 형성되고 있었다.

잉여 생산물의 축적, 시장 그리고 도시의 형성은 곧 경제적 재화를 독점하는 계층의 등장을 의미했고 이에 따라 사회는 급박하게 재편되고 있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당시 16개를 헤아리는 군소 국가들은 마가다 등 몇몇 큰 나라로 흡수 통합되는 과정에 있었다. 시장경제가 들어서면서 부의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도 한 원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철기를 이용한 무기의 등장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를 더욱 더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동족인 석가족이 멸망한 것도 이러한 과정에서였다.

종교적으로도 급박한 변화가 진행됐다.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브라흐만의 종교적 권위는 흔들리고 있었고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은 집을 떠나 숲에서 수행을 하였다. 이른바 사문의 등장이었다.

'추구하는 자'를 뜻하는 사문들은 일종의 자유사상가로서 기존의 브라흐마니즘에 안주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수행과 해탈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수행 방식은 일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추로 고행을 통한 해탈의 추구였다. 종교적으로 볼 때 브라흐만과 사문은 또 다른 양극화 현상이었다. 재가자로 집에 머물면서 제사 행위를 통해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한 끝 이라면 다른 한 끝은 육체적 고행을 통한 정신적 해탈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다.

사회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그 시기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양극화의 혼란 속에서 무엇이 불교적 해법인가를 찾는 우리들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부처님은 정치적 혹은 제도적 개혁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춘추전국 시대에 제자백가들의 주 관심이 정치적 제도적 개혁이었다는 점과 대조된다. 일종의 정치적 무관심이라 할 수 있는 부처님의 이러한 대처방식은 이 후 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교의 원천적 제약이며 한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보편적 구원을 지향하는 불교적 특징이자 장점이 된다.

있는자 없는자 모두 '고통받는 중생'

부처님의 관심은 인간의 고통과 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그리고 고통의 근원을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제도적 모순에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에서 찾았다.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최초로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할 당시 모두 60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 중 50명은 바로 야사와 그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장자'의 아들들로서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이었다.

야사가 부처님께 귀의할 당시를 보면 야사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 빈곤으로 번민하고 있었고 부처님을 만나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교단에는 소위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이라 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있는 자를 특별히 더 가까이 했거나, 반대로 없는 자이기 때문에 더 보살피는 경우는 없었다. 있는 자든 없는 자이든 왕이든 백성이든 부처님에게는 모두 '고통 받는 중생', 그야말로 평등한 존재들이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양극화의 고통을 주로 계층간의 갈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양극화에 대한 검토와 그 해법의 과정이 계층간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과정이어서는 안 된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불교적 해답은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점은 불교의 한계이다. 하지만 불교적 메시지는 있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 고통, 그리고 욕망의 악순환 구조에 대한 이해이다. 인간의 보편적 고통과 욕망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떠한 사회경제적 해법, 제도적 보완도 또 다른 악순환의 시작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불교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회현상적인 문제보다는 '우리의 관점'과 '생각하는 방식'에 관해서이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한 사회의 이념적 혹은 사상적 양극화 해소에 어떤 종교 사상보다 장점이 크다.

불교의 중도와 화쟁 사상은 이러한 사상적 이념적 양극화 해소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중도와 화쟁은 둘 다 공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철학적 뉘앙스와 지향점에 차이가 있다.

중도가 부정을 통한 두 대립적 관점의 해소에 그 지향점이 있다면 화쟁은 개시개비(皆是皆非)의 양긍정과 양부정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려는데 지향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화쟁은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현대사회의 문제에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중도란 두 대립적 관점이 결국 '상대성'에 기초해 있음을 이해하는 인식론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락중도(苦樂中道), 단상중도(斷常中道)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통용되던 이론들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제 3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존 이론 뛰어넘어 새 길 여는 것이 중도

기존의 이론이나 주장들을 적당히 조합하여 혹은 절충하여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자하는 것이 바로 중도이다.

그래서 중도는 어떤 고정된 견해가 아니라 자기 부정을 포함하는 끊임없는 부정을 통해 바른 길에 도달하고자하는 모색의 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화쟁은 '장님 코끼리만지기'의 예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시개비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본다.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옳다는 긍정과, 다른 사람도 틀렸지만 나도 틀렸다는 부정을 통해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진리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남북문제 등등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며 온갖 주장들과 함께 사안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이합집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이념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과 화쟁 정신의 실천이 절실하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할 중요한 점은 중도와 화쟁은 그 자체가 어떤 해결의 결론이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요 전략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중도와 화쟁은 가장 불교적인 사상이면서 동시에 범종교적인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와 같은 사회 일반의 사안이나 다종교적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 경전에서는…

▶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 네 가지 계급(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으로 그 사람의 우열을 규정할 수 없다.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다. 무릇 네 종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비구가 되고 아라한이 되어 모든 번뇌가 없어진 사람을 가장 뛰어난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함경〉*

▶ 좋은 벗이란 고락을 함께 하고 이익을 분배하고 상대방에게 직업을 갖게 하고 늘 어진 생각을 함이다. *〈선생자경〉*

▶ 어떤 것이 고인가? 이른 바 빈궁이다. 어떤 고가 가장 중한가? 이른 바 빈궁고이다. 사고(死苦)와 빈고(貧苦)는 다름이 없나니, 차라리 사고를 받을지언정 빈궁고는 벗어나야 한다. *〈금색왕경〉*

▶ 온갖 중생의 평등이 온갖 존재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온갖 사물의 평등이 온갖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화엄경〉*

▶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다. 나는 천상에서나 인간에서나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더 훌륭한 베품을 보지 못했다. *〈증일아함경〉*

▶ 나라에 외로운 이나 늙은 노인이 있거든 물건을 주어 구제하고, 가난하고 곤궁한 자가 와서 구걸하거든 거절하지 말라. 정법으로만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치우치거나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장아함경〉*

▶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애들을 양육하며, 금수 · 벌레 · 천인(賤人)중 살려 주기를 바라는 자를 보았을 때에는 언제나 가엾이 여겨 뜻대로 먹어 편안함을 얻게 해야 한다. *〈아난사사경〉*

▶ 베품은 중생을 위한 복의 그릇이요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 누구라도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거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내라. 베품은 널리 평등하게 골고루 하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아야만 베푸는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구제받는 인연을 맺으리라. *〈증일아함경〉*

▶ 온갖 존재는 실체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안팎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상경〉*

▶ 배고프고 궁핍한 중생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중생들에게 의식(衣食)에 대한 궁핍을 없게 하겠다는 서원을 일으키는 것이 보시바라밀을 닦는 마음이다. *〈대품반야바라밀경〉*

▶ 지도자가 법답지 못하면 아래 사람들도 모두 법답지 못하게 된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왕의 법이 옳지 못한 때문이니라. 소떼가 강물을 건너갈 때 길잡이 소가 길을 바로 가지 못하면 뒤따르는 소들이 물에 빠지는 것처럼. *〈증일아함경〉*

▶ 아난아, 나에게 평등한 대비(大悲)가 없다고 말할지언정 우바리를 천하다고는 말하지 말라. 그가 비록 천민 계급에서 나오기는 했어도 호법(護法) · 지율(持律)에는 제1인자이니, 천히 여길 것이 아니라 존경해야 하느니라. *〈대방편불보은경〉*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봉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소서 축

불기2550년 부처님오신날

大韓佛敎一鵬禪敎宗

종 정 봉암
원로의원 동명 청곡 원정 현공 법달 법묘
총무원장 법우 법제원장 도현

부 원 장 혜관
총무부장 무원 규정부장 초혜 교무부장 청암 사회부장 법현
재무부장 동월 포교부장 덕암 기획실장 송광 교무국장 정법
사회국장 왕련 포교국장 산디마 기획과장 오문식 총무과장 이상민

비상회의
의 장 봉암
부 의 장 법철 도현

의 원 법우 초혜 정암 혜도 본자 정법 정안 무원 혜광 진공 청암 법교 법현 현각 운광

일붕선원 법우 영암사 혜삼 천간사 정법 대윤사 정각
관음사 동명 오성암 관무 은혜사 청곡 봉은사 혜도
옹포포교당 연종 보타사 보덕 정명사 법철 인왕사 도응
삼봉사 무원 대덕사 정법 은혜정사 청암 선광정사 금오
승호사 덕암 관정사 효봉 다보정사 원각 보현사 덕산
구복암 동월 정토사 보하 부처님의집 혜관 고당암 도명
소원사 선철 자비원 대성 죽림사 법도 월림사 선철
면암사 면암 천왕암 도성 달마사 몽룡 정혜선원 보광
다보정사 원각 백암사 지관 천비룡사 일선 홍지사 보덕행
폭포암 현각 신혼사 도철 연화사 월연 오마산사 도인나
광명사 법광 민정사 민정 봉환사 성공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서울 종로구 신영동 93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02)394-9468-9 전송 02)395-9468

좌 담

양극화에 대한 불교적 진단과 해결책 모색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 사회 양극화 현상은 계층 간의 갈등을 초래하면서 우리 사회를 양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처님이 오늘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푸실까.

'현대불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양극화에 대한 불교적 진단과 해결책 모색'을 주제로 좌담을 실시했다. 좌담은 4월 12일 현대불교신문사 법당에서 진행됐다.

참석자

현 각 스님 (원주 성불원 원장)
정천구 교수 (영산대 정치학)
김종욱 교수 (동국대 불교학)
조승헌 소장 (생명과 평화를 위한 환경연구소)

소극적 경제정책 중산층 와해 불러와



좌담에는 정치 · 경제 · 사회 · 불교 등 각 분야의 폭넓은 견해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실감각이 뛰어난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현각 스님은 원주시립복지원과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운영하는 등 복지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불교계의 '사회전문가'이고, 정천구 교수는 영산대 총장을 지낸 정치학 박사로서 사회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다. 김종욱 교수는 사회문제와 불교를 연계시켜 볼 수 있는 응용불교학자이고, 조승헌 소장은 사회 양극화와 행복과의 관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제전문가다.
사진 왼쪽부터 조승헌 소장, 정천구 교수, 현각 스님, 김종욱 교수.
사진=고영배 기자

소득불균형 심화 양극화로 단정하기엔 무리
가족해체 · 청소년 범죄 등 사회문제 야기

빈곤층 생계 해결할 사회 안전망 개도국 수준
고용창출과 양질의 교육으로 해법 찾아야

양극화 현상이란?

김종욱 과거에 양극화는 상위층과 중간층 간의 빈부 격차의 심화로 정의되고 논의됐습니다. 이 문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부터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경제적인 용어와 관련해서 양극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실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강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정천구 양극화는 여러 집단이 두 개의 집단으로 분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냉전시대 좌우 대립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소득과 이념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즉 중간층이 없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특성상 같은 집단에서는 동질성이, 다른 집단에서는 이질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체제와 세계화 이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는 있지만 양극화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조승헌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어요. 현대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경제 소득 변화에 따른 파동이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이 문제의 접근은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처방적인 측면에서 옳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주류가 중산층이고, 소득의 분배 측면에서도 중산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의 소득 수준이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등에 대한 분석해 보면 분명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조짐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각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양극화를 뚜렷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의 차이를 말합니다. IMF 이전에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층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심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심리적 위기'도 양극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천구 하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구분돼야 할 것입니다. 양극화가 없는 사회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김종욱 어떤 사회든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이것이 극단화되면 바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를 진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심리적 요인이 강하고 정치적 관계도 고려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산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산층의 와해냐, 상류층의 독주냐에 따라 양극화 처방은 달라져요. 전자의 경우, 중산층을 양성하면 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상류층을 견제하면 됩니다. 지금 상황은 후자 쪽 논의가 강하다고 판단되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어요. 중산층 형성이 보다 중요합니다.

현각 양극화는 정치적 측면을 떠나 사회 현상적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용실을 예로 들면, 요즘 미용실은 대형화 또는 고급화되거나 아니면 최저가 형태로 운영되는 형태를 띕니다. 중간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실례들은 양극화의 좋은 사례입니다.

왜 문제인가

정천구 최근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양극화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요. 베네수엘라의 경우 차베스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양극화란 용어가 등장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장 양극화가 심한 국가가 바로 베네수엘라예요. 그래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득불균형과 정치심리적 문제가 동반되는 것이 바로 양극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승헌 양극화를 체감하는 생활현장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산층은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에, 중산층의 양과 질적인 변화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몰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각 스스로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고 있는 고통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빈곤층은 삶의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사회문제들도 발생합니다.

김종욱 더 심각한 것은 소득 · 경제 · 교육의 양극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올바로 국민들에게 주지시켜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거 등을 의식해서 이 문제의 당위성만을 부각시키는 방법은 더더욱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창출에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화 사회를 지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천구 맞습니다. 20세기가 계급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네트워크의 시대입니다. 과거와 같이 계급으로 나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죠.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계층 간의 충돌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승헌 그렇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이 중요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는 중간층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느냐, 체감 소득이 감소하느냐 하는 식의 논의는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상처만 더 안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객관적 접근과 해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각 과거 우리 전통사회에서도 마을마다 가난한 집은 있었어요. 이런 경우 마을 자체적으로 가난한 집을 도우며 살았는데, 지금 우리사회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발생 원인

정천구 여기저기서 심각성과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양극화 발생 요인을 짚어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각 양극화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사회에서는 일자리가 많았고,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들이 늘었어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사회 흐름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관건은 김 교수께서 지적한대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조승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화폐 가치를 높이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극화 해소와는 거리가 멉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1만~1만5000달러가 되면 경제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화폐 정책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것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복지 인프라 등의 사회적 자본도 강화돼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현재 과도기로써 통과의례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위기를 잘 넘기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정천구 조 소장의 말씀대로 정부를 보면 답답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 정보네트워크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는 근시안적인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와 맞물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유교적 이데올로기 성향에 젖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명분과 심리적 평등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분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체감은 더욱 커 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각 우리사회의 변화속도는 엄청 빠른데 우리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가피하게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

☞A23면으로 계속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非營利宗教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원로원장 대허 부원장 수인
원로위원 대월 지성 수암
연수원장 지성 부원장 다연
감찰원장 성덕 부원장 수안
포교원장 혜조 부원장 무각
호법원장 도암 부원장 대광
중앙종회의장 지성 부의장 혜도
불교예술원원장 도연 수석부원장 도영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사무처장 현도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 학장 신풍 부학장 정법 대광

총무원장 신풍 총무부장 현도 규정부장 법기
교육부장 정법 포교부장 정보 사회부장 일연
홍보부장 법교 기획실장 대각 재무부장 대광

중앙종회의원 정법 대광 정보 연아 태화 혜조 법경 혜인 백주 수안 혜연 법정 혜도 혜성 수안 수암 일연 혜정 백경 연아 연제각오 다연
종정사서실장 도영
종정큰스님 시봉 연아

서울교구 종무원장 법경 경북교구 종무원장 혜조 대구교구 종무원장 혜연 경남서부교구 종무원장 법정 경남동부교구 종무원장 영암
경남거제시 종무원장 백주 부산교구 종무원장 정법 포항교구 종무원장 혜도 울산교구 종무원장 혜성 전남광주교구 종무원장 자연
경기교구 종무원장 일연 창녕밀양교구 종무원장 정보 김해교구 종무원장 대광 부산경남 법사단장 백경 마산창원 법사단장 법교
부산동래 법사단장 연희 강원교구 종무원장 각오 경기교구 종무원장 일연

-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환영합니다. - 행자승 모집 합니다 (무료숙식 제공)
- 납골당, 양로원 역학(철학), 대원신풍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함
-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우 621-870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 20 대한불교 대원종 총무원장 총본산 신풍사 / 한국역술철학 협회 회장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총무원 전화 055)346-2910 팩스 055)346-2909 / 무료전화 080-3030-5959 / 큰스님 直 055)346-2908 휴대폰 011-869-8608 평생전화 1577-0408 / 한글 홈페이지 대원종 또는 http://www.sinpungsa.org / e-mail:asp8990@hanmail.net

상호신뢰 바탕한 네트워크 사회 구축돼야

☞A22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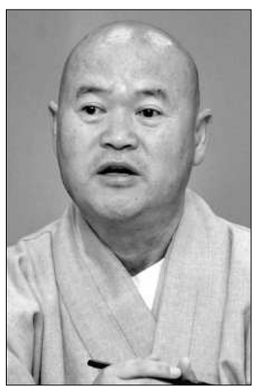
서 심리적으로 뒤쳐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종욱 사회변화 못지않게 양극화는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남발되는 양극화와 관련한 공약 때문에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종교는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와는 다른 근본적인 대안을 종교계가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천구 <금강경>에 개에게 돌을 던지면 개는 돌을 쫓아가지만 사자에게 돌을 던지면 사자는 돌을 던진 사람을 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처럼 이 문제를 원인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양극화의 허상과 실상을 구별해서 원인과 결과를 올바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현각 스님


정천구 교수


김종욱 교수


조승헌 소장

현각 스님 — 자기확신 · 희망 갖고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정천구 교수 — 실상과 허상 구별해 원인 · 결과 보는 지혜 필요

김종욱 교수 — 선거공약 남발이 문제 … 종교가 대안 제시해야

조승헌 소장 — 사회 갈등 조정역할 불교계가 적극 나설때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현각 양극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며,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잠재적 빈곤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계층은 우리사회가 도움을 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조승헌 그런 점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객관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사회변화의 커다란 흐름을 점검하고 대안을 내놓은 작업이 중요하고, 현재의 논의들에 대한 비판과 방향 재설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욱 양극화 현상의 바로미터는 통계수치입니다. 정부는 2005년도 강남구 소재 고등학생 1천 명 당 25.4명이 서울대에 합격했고, 마포구는 1천 명당 2.8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교육 양극화 통계자료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강남구 출신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 14%대에서 12%대로 떨어졌다며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과 의도에 따라 문제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현실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천구 한 나라의 소득분배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지니 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니 계수가 0 이면 완전 평등분배, 1 이면 한 사람이 모든 걸 독차지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입니다. 2004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0~1997년 우리나라의 지니 계수는 0.28이고 1998~2003년은 0.315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그리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2004년 세계은행 보고에 따르면 127개국 중 지니 계수 순위가 27위에요. 이정도면 괜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보면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은 하나의 '상(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김종욱 동감합니다. 분명히 소득에 대한 분배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문제는 국내 상황으로만 보면 분명히 소득재분배에 대한 수치가 높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는 아닌 셈입니다.

조승헌 엄격히 말하자면 중산층의 소득 변동을 알아볼 때 지니 계수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양극화지수를 측정한 적이 있는데, 이 학자는 양극화가 1993년경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정천구 2004년도 한국은행이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양극화는 세 가지 원인에 의해 기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제가 계속 발전단계 선상에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무역 확대 중심적 산업구조라는 점, 셋째는 정보와 IT 산업의 고수익성 산업이 발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불교적 해결방안은?

현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앙적 측면에서 자기 확신을 갖고 살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현재의 삶이 과거와 미래와 관련돼 있습니다. 장기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욱 불교적 가르침인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극단적 사고는 피해야 합니다.

불교적 가르침에서 볼 때 흔히 말하는 탐진치는 치(어리석음)-탐(탐욕)-진(분노)의 순서로 발생하는데, 우리는 분노를 먼저 합니다. (정부가)분노를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지혜롭지 않은 이런 방식은 갈등만 초래할 뿐 해결책은 내놓을 수 없게 됩니다.

조승헌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한계가 있어요.

양극화 현상이 (어떤 의도가 있는)해석의 문제라면 왜곡과정을 밝혀주는 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천구 불교가 깨끗해야 사회적 해법 제시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불교는 항상 지도적 역할을 해왔는데, 불교가 사회문제에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양극화 개념 자체를 타파하고 해법도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합니다. 사회가 분열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회적 호소도 중요한 문제고요.

현각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들었을 당시 대한민국은 '성철 스님 붐'이 일었을 정도로 대단한 불교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현상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훨씬히 부처님 제자의 길을 행한 스님의 원력 때문일 것입니다. 불교가 양극화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불교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직 ·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과 자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종욱 정부정책이 변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이 변하도록 유도하고, 연기론적 세계관으로 사회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기란 상호의존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네트워크 사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양극화가 단순히 물질적 문제만이 아닌 정신적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 사회 구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찾아야 합니다.

현각 동감합니다. 종교지도자들이 내면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상을 없애고 연기론적 사고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승헌 사회갈등 조정도 중요하며, 불교계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불교적 가르침은 많다고 봅니다.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키워드가 바로 불교에 있고, 또 한국적 정서에도 맞기 때문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소극적이고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현각 불교계가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유연성이 있어요. 때문에 좋은 정책과 대안에 대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종교 · 정치 · 경제 · 학계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이 문제의 당위성과 해법을 각인시켜주는 일에 앞장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욱 양극화의 일반론적인 해법은 고용창출과 교육의 질적인 변화에 있다고 봅니다. 이 중 교육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불교계는 학교법인 증설로 불교적 세계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 내용 속에 불교적 세계관을 담아 교육한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승헌 양극화라고 하는 사회적 화두를 불교계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학교교육 외에 사회교육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정천구 교육 차원의 접근 외에 고용창출 문제를 정부와 종교계가 공동 프로젝트를 구성해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중산층 양성도 하나의 과제라고 볼 때 이 역시 종교계와 정부가 협력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해결하기 힘들다면 종교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하면 국민통합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리=한명우 · 노병철 · 유철주 기자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봉 法 대한불교 법성종 축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원로원장 춘광 법주
중앙종회의장 일허 혜승

교육원장 설허 만원
포교원장 상허 재령

문화원장 락허 혜운
규정원장 조허 혜윤

총무원부원장 도원
중앙종회부의장 설봉 성인

교육원부원장 법정
포교원부원장 보안 현철

포교부장 보현 조보현
재무부장 옥천 류옥순
총무부장 백봉 성관

교육부장 일초
문화부장 문순재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14 TEL 02)747-2202, 02)762-2459

현장을 뛰는 사람들

함께 나누고 돕는 우리는 '한 몸'

의료지원단 '반갑다 연우야!' 출범 앞장 (주)자연과 사람 구자선 회장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의기투합해 만든 불교계 최초의 무료진료시스템 '반갑다 연우야!'가 공식 발족한 4월 12일 송현클럽의 행사장에는 어누 누구보다 이를 감격스럽게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조계사 신도회의 고문을 맡고 있는 (주)자연과 사람 구자선 회장(70·덕암)이다.

'반갑다 연우야!'는 의료소외계층인 산간오지 지역의 주민은 물론 스님과 불자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출범한 의료지원단으로 대형버스에 첨단 의료장비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구자선 회장(오른쪽)이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에게 '반갑다 연우야!' 발족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구 회장은 '반갑다 연우야!' 출범의 결정적 공로자다. 2억 3000만원에 달하는 소요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1억원을 구 회장이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 회장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며 겸연쩍어 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불자들을 만나면서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팔을 걷어 붙인 구 회장은 그동안 조계사 신도회와 함께 종로지역 불우 가정 지원을 꾸준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구 회장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택회사를 운영하던 1996년에는 동국대에 학술세미나실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또 종로구 관내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공부방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 사업에도 적지않은 후원금을 내놓기도 했다.

구회장은 "회사 운영을 돕고 있는 자식들도 소외계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작은 바람을 나타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구례 농민회와 자매결연한 화엄사

공동 경작하며 농촌 어려움 나눠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농촌. 굳이 양극화를 말하지 않아도 오래 전부터 농촌사람들의 얼굴엔 가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정책적으로, 또는 지역민들이 합심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찾기 어려운 농촌의 활로.

4월 30일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 스님과 신도들은 엄사 인근 상사마을에서 농민들과 함께 못자리를 만들며 구슬땀을 흘렸다. 스님들이 못자리를 만드는 모습은 그리 흔치 않은 일.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몰라도.

화엄사 스님들이 스스로 '농사꾼'이기를 자처하고 나선 지는 불과 한 달여 전. 구례 농민회가 화엄사 초청으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농민들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갈수록 열악해져가는 농촌 실정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가 사중에서 형성되면서 구례 농민을 살리자는데 뜻이 모아졌다.

화엄사는 곧바로 구례 농민회와 자매결연하고 4월 8일 구례농민회 영농 발대식에 참석한데 이어, 이날 못자리 만들기에도 동참하면서 '공동경작'에 나섰다. 공동경작은 화엄사-구례농민회-광주 기아자동차 노조 3자가 함께 하는 형태로, 상사마을 150마지기의 논을 경작한다.

이뿐만 아니다. 자매결연 직후 화엄사는 광주와 순천에서 사왔던 공양미와 부식을 구례 농민들이 생산한 쌀로 바꾸었다. 구례 농산물의 단가가 다소 높아 지출이 늘긴 했지만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일이기에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조만간 주말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한다는 계획도 적극 추진중이다.


화엄사 부주지 종홍 스님과 농민회원들이 벼 종자를 담고 있다.

이렇게 공동경작을 하면서 서로 간의 믿음이 깊어졌고, 화엄사와 구례 농민들 사이에서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우리 농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부산 '보현의집' 석정옥 복지사

노숙자들이야말로 도움이 절실합니다

"외부에서 노숙자라고 하면 범죄자 취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도움이 절실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노숙자 쉼터인 부산 보현의집(원장 이기표)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석정옥(35) 사회복지사는 "자활의지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사회의 관심이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산 보현의집은 노숙자의 자활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시설로 정평 나 있다. 보현의집에 입소하려면 취업을 원칙으로 하며, 논·밭 5000평을 가꿔 농사를 짓는 휴경지 경작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한다.

"하루 종일 비지땀을 흘려가며 농사를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을에 수확물을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전달할 땐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행복해하시죠. 그걸 보면서 저도 보람을 느끼죠."

석 복지사가 보현의집에서 함께 생활한지 2년 6개월 남짓 흐르면서 입소자들과도 마음의 벽을 많이 허물었다. 그러나 힘든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폭발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하는 입소자를 대할 때, 인간적인 한계를 느낀다. 그때마다 불경을 읽으면 마음을 다잡는다.

석 복지사는 따뜻한 상담자인 동시에 잔소리꾼이다. '1인 1통장 갖기'와 '한 달에 1번 이상 집에 연락하기'는 석복지사가 입소자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다.


석정옥 복지사가 한 노숙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석 복지사는 "누구나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풀어가야 하는 것이니 내가 나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으로 그 분들과 함께 희망을 가꾸고 싶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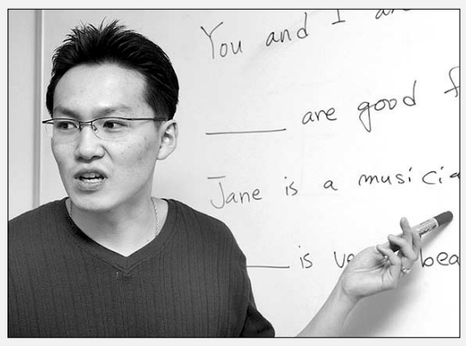
8년째 야학교사 활동해 온 이원호씨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합니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면, 그럴만한 환경이 못 돼서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이원호씨(28). 그는 8년 동안 충무로에 있는 중부청소년학교에서 하루 4시간씩 역사·영어·수학·컴퓨터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야학계의 '젊은 오빠'로 통한다.

취업대란인 요즘 취업 준비에 눈 코 뜰 새 없는 여느 대학생들과 달리 야학교사를 겸직하며 8년 동안 야학교편을 잡을 수 있었던 힘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살겠다는 소신에서 비롯됐다.



야학교사 이원호씨의 소망은 화이트보드에 채워지는 글씨처럼 야학생들의 꿈도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 백만원을 호가하는 고액과외도 많이 했지만 배움의 때를 놓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지식을 담아주는 이 일이 제겐 훨씬 보람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씨가 가르친 학생을 숫자로 헤아리면 100여 명이 훌쩍 넘는다. 이씨가 배출한 제자들은 형설지공으로 역경을 딛고 교육대학교에 편입한 학생을 비롯해 영어학원 강사 등 사회 각계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2003년 공고를 졸업한 서재덕(22·서울시 중구)씨다. 당시 서씨는 대학 진학에 뜻은 있었지만 여건이 어려워 야학에 진학했다. 이씨는 그런 서씨를 위해 수능시험 한 달 전까지 합숙을 해 가며 모든 열정을 다 바쳤고 마침내 서씨는 서울대 체육학과에 입학했다.

이씨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우고 싶다'는 학구열에 불타는 신규학생들이 속속 입학할 때와 야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의 당당한 역군으로 거듭날 때"라고 말한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한국불교 여래종

종 정 석인왕
승정원장 석무공
원로원장 석일흥

종회의장 석법수 종찰원장 석명안
총무원장 석혜안 호법원장 석법룡
총무부장 혜 수 호법부장 송 운
교무부장 도 혜 호계부장 송 화
재무부장 성 광
사회부장 해 인 교육원장 석보당
교화부장 해 광 포교부장 전 혜
교무국장 묘 수 교육부장 법 혜
섭외부장 정 암 연수부장 상 원
사서부장 묘 선 학술부장 보 성
전국비구니회장 석해광 전국전법사회장 석보현

전 종도 일동

종립정법대학 행자교육원 행자(남·여) 모집

총무원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2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계소 앞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한국불교 여래종

기도성취도량
부처님동산 본산 약사사

회주 석인왕
주지 석혜안
신도회장 복평수
지장회장 서영자
합창단장 최정례
봉사단장 신정순
전교사장 세영 오경선
허명순 조정식
해외봉사단 신춘만 황윤의
학생지도 정해성

신도회 일동

www.yaksasa.com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산7-2 남한산성 전화 031)734-3205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조계종
감 천 사
정기법회: 매월 음력1일
전화 053)982-0562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후원계좌 : 대구은행 179-04-153377-001
(예금주: 감천복지재단)
전화 053)986-7700~1
www.gamchun.com

대한불교조계종
삼 보 사
주지 경 원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436-3
전화 054)246-2171

대한불교천태종
황 해 사
주 지 용 암
신도회장 최병렬
신도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산20
전화 054)277-3611/팩스 054)277-3644

대한불교조계종
안 일 사
주 지 혜 정
신도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9동 산225
전화 053)655-0220
반야유치원 전화 053)655-0223

대한불교조계종
금 강 사
주 지 이정우
신도회장 이 보리심外
신도일동
■ 경북 구미시 원남동 100-25
전화 054)452-0845

삼천불 조성불사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봉 은 사
주지 도 성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702-6
팩스 053)476-3302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말사
천년고찰 선석사
주 지 선 문
신도일동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2리 217
전화 054)933-9800/팩스 054)933-9916

보국불교염불종
정 운 사
주지 월 명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2리 176
전화 054)872-2372

대한불교조계종
장 암 사
주지 도 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83
전화 053)762-3800

대한불교조계종
성 화 사
주지 진 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521
전화 053)625-9030

월 인 사
주지 혜 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605
전화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남지장사
주 지 성 공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륵2리 865
전화 053)768-9920

한국불교태고종
청 룡 사
대중일동
● 복지불사안내
· 매월 독거노인 지원 · 어르신 무료관광
· 매주 노숙자 무료급식
· 매년 경로위안 문화예술제 봉행
· 독거노인, 장애인 목욕봉사
· 영안실 염불기도 봉사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41-16
전화 053)656-5266

대한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한불교구화종 총본산
구 화 사
회 주 석구화
주 지 석덕산
원 주 석대희
백용암 주지 석지후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산92
전화 054)977-6454/핸드폰 010-4816-6454

금 화 사
주지 진 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19
전화 053)616-9396

대한불교조계종
원 각 사
주 지 석대혜
간병봉사회, 교정법회 후원회,
원림회, 유적답사반
신도일동
(양력 초하루 법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9
전화 054)481-2363

대한불교조계종
법광사부설 달마선원
선원장 효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2동 660번지(어린이 회관 옆)
전화 053)761-6943/팩스 053)766-6943

대한불교
영천보현산 등명사
주 지 석혜명
신도일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603-2
전화 054)337-4572(등명사)
054)281-7712, 7719(포항자명선원)

한국불교태고종
법 진 정 사
주지 법 진
■ 경북 경산시 산내면 일부리 장첩73
전화 054)751-7736

대한불교
팔공산 달마사
주지 지 산
■ 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757
포교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169-12
전화 053)981-8117(본사)053)791-8117(포교원)

해동불교정토원
대명산 지장사
주 지 법 운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563-183
(대명시장 입구 대명약국 100m거리)
전화 053)622-1592/팩스 053)653-1511

대한불교조계종
금 곡 사
주지 고 경
■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274
전화 054)971-7561

대한불교조계종
운 흥 사
주지 종 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151
전화 053)768-3882

대한불교조계종
독도수호 약사여래대불
포항 옥천사 부설
울릉도 성불사
주지 혜 주
■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98(옥천사)
전화 054)272-4633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포교원
청룡산 마하사
주 지 재 원
신도회장 김수월화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564
전화 053)637-2331

대한불교조계종
극 락 사
주 지 원 일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11
전화 054)972-1275

DCI(디씨아이)
대표 김상진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포항 철강4단지 3B/7L
전화 054)276-1072(열처리),
054)276-1167
팩스 054)276-1168
휴대폰 011-503-9196

경전출판, 각종인쇄 및 불사용품, 불상조성, 개금
법종 · 탱화 · 불서 · 불구 · 인등 · 초파일등 · 달력제작
적선사불교서점 출판사
대표 이영근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1-5
<반월당 보현사 포교당 입구>
전화 (주)053)255-8875
053)257-8844
(야)053)472-5313
팩스 053)254-4700

정 우 조 경
조경 · 설계 · 시공
대표 이정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24-10
전화 053)762-3952
핸드폰 011-513-6807

오아시스 인터뷰티
(상가 · 주택 · 사찰 · 아파트 리모델링)
대표 예병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23-5
전화 053)768-8558
핸드폰 011-527-1678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 931-7777,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천사
주지 덕 현
신도회,반야회,구도회
대중일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송광사 대구분원
관 음 사
주지 元 明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가 26
TEL 053)421-3700
FAX 053)427-1889

대한불교조계종
금 용 사
금용복지회관
주지 혜 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 1동 172
TEL 053)628-5404

대한불교원효종
매봉산 고성사
회주 서 응
주지 고 성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755
TEL 054)977-0962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 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원만사 부설 유치원
주지 법 홍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 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주지 도 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404
TEL 053)614-3087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 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 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적멸보궁
팔공산 반야사
주지 도 오
대웅전 불사에 공덕 지읍시다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813
TEL 053)983-6421

대한민국 군포교 사찰
정 토 원
주지 장고봉
신묘장군대다라니 주력 기도 도량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561
TEL 053)984-0409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 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주지 설 정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골 굴 사
(사)세계선무도협회 大金剛門
주지 이사장 적 운
골굴사 신도
선무도 대금강문 문도 합장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304
TEL 054)744-1689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주지 석 지형
큰보살님 조 분연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58-1
TEL 052)298-5865 · 6623

운 주 사
주지 약 천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74-9
TEL 053)951-0002~3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광 덕 사
주지 덕 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237
TEL 053)587-3885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암
주지 선 진
사부대중일동
(보현다도회 하루헌카페 회원모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대한불교조계종선학원
청 수 사
주지 종 열
청수어린이집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117-36
TEL 053)741-2562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 종무원
종무원장 법 운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629-21
TEL 053)622-3702

대한불교 부처님세계
수 참 사
관세음보살 천불 봉안 수행기도 도량
주지 영 암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40-5
TEL 053)561-3129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 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FAX 053)983-1698

대한불교조계종
고 방 사
주지 성 현
■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485
TEL 054)431-6822, 6823

대한불교조계종
지 장 사
주지 지 형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36-10
TEL 053)755-9817

동성한약방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3가 47
TEL 053)252-6411
053)255-0008

권기형 미용실
유럽 참피온 타이틀 획득
대한 미용사 중앙회 기술강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시장 입구
TEL 053) 762-6282

델 타 석 유
보일러 실내등유 할인 판매
(신속공급)
대 표 보경(박성일)
■ 휴대폰 016-531-5006

다기류일절
홍 백 원
"진솔한 향기가 있는 곳"
대 표 이화숙(법률행)
■ 전시장/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76-1
TEL 053)256-5847/ FAX 053)253-0903

(양초 · 고급향)
연 꽃 양 초
대 표 김 동 호 합장
■ 공 장 : 053) 811-5331
휴대폰 : 011-517-5978

(株)玖峰 · 鍍金 · 精工
ISO 9000:2000인증업체 / QS 2000-1998인증업체
代表理事 金明錫
구봉정공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 053) 351-0009, 4856 /FAX : 053) 352-1717
(주)구 봉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 053) 582-0156 / FAX : 053) 582-0157
구봉도금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 053) 581-0009, 8907 / FAX : 053) 582-4173
Hom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net.net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행자원 및 납골당 운영

최대 유치원 건립

대구큰절
경산법당
칠곡법당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301-20
전화 053)474-8228
팩스 053)472-6268
http://www.tvbuddha.co.kr

대한불교조계종

용 연 사

회 주 지성
주 지 상원

신도일동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 후
손창수 한의원 원장님 직접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 실시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전화 053)616-8846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구교구종무원

종무원장 석담
총무국장 진송
재무국장 지현
홍보국장 고봉
재무국장 지현
감 사 도정
대구교구종회의장 지언

회원종도 일동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249-11
전화 053)854-1417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 울산포교원

연 화 사
호계불교대학

주 지 덕륜

호계불교대학
재학생 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8-6
전화 052)293-5550
팩스 052)293-5540

대한불교조계종

황룡사(금강선원)
직지불교대학

제8교구본사 직지사

대구수성포교원

주 지 도일

대중일동

초파일 봉축기도는 황룡사
신축법당에서 봉행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65-1
전화 053)784-8620
팩스 053)784-8633

대한불교 원효종 대구교구종무원

정 현 사

종무원장 서응(불은사)
총무국장 고성(고성사)
교무국장 보현(미륵암)
재무국장 진율(정현사)
사회국장 자안(석수암)
사무국장 법혜(불광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342-7
전화 053)586-4700
팩스 053)586-0078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

은 적 사

주 지 虛 韻
신도회장 하 보타월
봉사단장 문 청량심
합창단장 권 정행성
문사수법회회장 최 선해심

은적사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 장 조 대선행
外 교직원 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3동 1572
전화 053)653-1572
www.eunjeoksa.or.kr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 · 대원불교대학

조계종 신도전문 교육기관

주 지 정 우
신도회장 대원행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선재어린이집

경북 안동시 목성동 57-1번지
TEL 054)858-2630(대원사)
054)855-6033(어린이집)
054)859-7230(불교대학)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대중일동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
어린이천자문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사)대한불교선각종

종 정 영담 정업
총무원장 봉운 정암

전국 교구본사
종도일동

총무원: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
선각총림 옴천사
종무소 TEL 061)433-2233
FAX 061)433-2425

대한불교천태종

울릉 해도사

주 지 정비룡
신도회장 최영해

남양 성인사

신도회장 정수석 外
신도일동

태하 삼도사

신도회장 김곤 外
신도일동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직무대행 이보광
부 전 김원재
신도회장 김정길

●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

운 문 사
운문 승가대학
운문 승가대학원

회 주 명 성
주 지 흥 륜

대중일동

www.unmunsa.or.kr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TEL 054)372-8800, 370-7100
FAX 054)370-7101

지산치과의원

원 장 송준기

「가족같은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 지산치과의원 원장
- 치의학 박사
(인프란트, 보철학 전공)
- 단국치대 임상교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2동 1188-2
TEL 053)782-0022
FAX 053)782-2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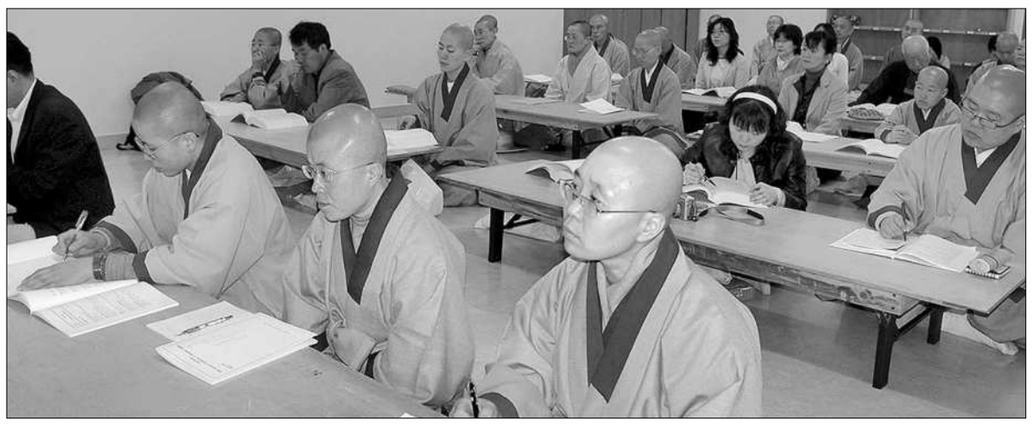
高靈 기와
(주) 高靈청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만을
만듭니다.)
KS 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代表理事 金段東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TEL 054) 954-8000(代)
FAX 054) 954-5335
www.rooftile.co.kr
e-mail : gr@rooftile.co.kr

심리 · 치료 · 생명 · 생태 연구 주목



'자비수관의 한 측면인 심신치료' '치료자의 덕목으로서 사무량심' 등 총 10여편의 논문이 소개된 제12분과 심리 · 치료 발표장 모습.

외국 학자 논문 60편 등 총 130여편 발표
학제간 연구로 응용 불교학 외연 확장

'세계 불교학자들의 축제' '승가와 재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무차대회'라는 수식어가 붙는 2006 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림 · 이하 결집대회)가 4월 23일 한국불교학회장 이평래 교수를 차기 대회장으로 선출하고 이틀간(4월 22~23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불교의 문화 · 교리 · 역사 수호와 현대적 창조'라는 대전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외 학자130여명이 논문을 발표했고 이중 외국 불교학자들의 논문도 60여 편에 달했다. 참가 국가는 7개국으로 일본이 3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0여명(홍콩 포함), 미국, 캐나다, 인도, 태국, 스리랑카에서 온 학자들도 20여명이 참가했다.

13개 분과별 논문발표 주제를 살펴보면 △승가교육 △실천수행 △초기 · 부파 △중국불교 △일본불교 △티베트불교 △화엄 · 천태 △남아시아 불교 △인도 대승불교 △한국불교 △선불교 △불교문화 △서지 · 어문 △생명 · 생태 △심리 · 치료 등 불교와 관련된 거의 전 분야를 다뤘다.

결집대회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교학 및 관련 연구자의 거의 절반이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현재 한국 불교학계의 연구자 분포 현황과 연구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동일시와 동체자비의 유사성

그렇다면 이번 결집대회에서는 어떤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됐으며 가장 큰 반향과 관심이 쏠렸던 분과는 어떤 분야였을까?

1회 대회 때는 원효 사상이 하나의 분과로 발표되고 2회 대회에서는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연구와 한 · 일 불교 교류사에 대한 논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응용불교(심리 · 치료, 생명 · 생태 분과)에 대한 논문이 늘어났다. 이는 불교학이 학제간연구로 외연을 넓히고, 학문적 연구대상이 아니었던 분야가 학문 영역에 포함되는 경향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생명 · 생태를 주제로 한 제13분과 발표장에서 순천대 안옥선 교수는 네스의 심층생태학에서의 동일시와 불교의 동체자비의 유사성을 △전일론적 존재론과 연기론 △자리이타의 원리 등을 근거로 연구한 논문 '심층생태학의 동일시와 동체자비'를 발표했다.



안옥선 교수



우희종 교수



가스코마쯔모토 교수



김재성 교수

안 교수는 "심층생태학에서의 자아실현과 불교에서의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동일시와 동체자비의 실천을 떠나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며 "동일시와 동체자비를 통해서 전일론적 존재론과 연기라는 존재실상에 합치되는 삶을 구현함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최고의 선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과학 총체적 접근 필요성 제기

이어진 발표에서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과학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생명조작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과학적 지식에 대해 불교적 지혜가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우 교수는 논문을 통해 형질 전환으로 만들어진 돼지 장기가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되었을 경우 사람 체내에 이식된 돼지 장기에 자연 감염될 수 있는 돼지 고유의 치명적 병원체는 미생물 특유의 환경적응력을 바탕으로 사람에게 적응해 전혀 새로운 질병 병원체로 변이해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또 우 교수는 "전 생명체의 관계를 인드라망으로 비유하면서 모든 것이 상의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이야 말로 환원론에 바탕을 둔 현대과학에 대하여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과 더불어 앞으로 과학의 연구방향 설정까지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리치료로서의 불교'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김재성 교수는 '현대심리치료법과 불교의 1인칭적인 접근법'을 통해 계 · 정 · 혜 삼학을 닦는 자기치유법을 제시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덧붙여 김 교수는 "불교심리학의 한계인 관계문제와 자기치유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 및 치료는 현대심리치료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상담가나 의사들은 불교심리학의 지혜를 통해서 자애와 근본적인 지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성-스킨십 접목한 노인 심리치료

일본 무사시노대학 가스코 마쯔모토 교수는 '불교의 성(性)에서 본 노년기의 성과 그 존재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대승장엄경론>의 '종성품'의 내용을 인용해 불교에서 금기시하는 성적 욕망과 심리학에서의 스킨십을 접목시킨 고령기 심리치료법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했다.

가스코 교수는 "예를 들어 고령의 노인과 투병중인 노인, 치매노인의 경우 손을 잡아주거나 얼굴을 어루만져주는 행위 등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듯이 인간의 성을 그 사람의 본질의 일부로 가정할 경우, 성적 행위 등을 통해서도 노년기에 겪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운문사 중강 명법 스님의 '북송시대 문의 부활과 과제'와 일본 동경대 마애가와 켄이치 연구원의 '설화로 본 명혜 스님의 연구' 홍콩대 랑가마 찬다위나말라 연구원의 '고대 스리랑카 테라바다 종파에 대한 연구' 등의 신진 불교학자들의 논문도 관심을 끌었다.

글 · 사진/해인사=노병철 기자

• 대회 이모저모 •

논문 번역 · 통역 제대로 안돼

○… 이번 결집대회에 참가한 발표자들은 운영적인 측면과 논문 자료집 번역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외국인 학자들에게 숙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사전에 전달되지 않아 불편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

캐나다 위니팩대학의 알버트 웰터 교수는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논문 내용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주제를 잡아 총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웰터 교수는 "논문 번역은 물론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표 자체가 무의미했던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배아줄기세포 개념놓고 설전

○…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관심과 집중이 모아진 분야는 역시 응용불교분야였다. 때문에 제12분과인 심리 · 치료와 제13분과인 생태 · 생명 발표장에서는 스님과 대학원생, 일반인들의 참여와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

특히 생명 · 생태에 관한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생명 조작에 관한 연기적 관점'이란 논문 발표가 있었던 제13분과에는 스님 및 학자, 일반인 30여 명이 몰려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간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우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을 놓고 참여자들 사이에 열띤 설전(舌戰)이 오가기도 했다. 대학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최재성씨(30 · 전북 전주시)는 "우희종 교수의 논문 발표와 이번 토론을 들으며 생명공학에 대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학자들 한국문화체험

○… 결집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학자 60여명은 2박 3일 간 해인사에 머물며 한국의 불교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전야제 때 공연된 승무와 판소리 공연, 아침 예불 참석, 공양,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관광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입을 모았다.

결집대회 전야제에 참석한 일본 하나조나대학 부총장 오키모토 가쯔미 교수는 "한국 전통 악기인 아쟁과 가야금 연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꼭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화제의 인물



"세계 각국에 한국불교 알릴 터"

셈 베미쉬

계명대 초빙교수

"'느낌과 감명'이 있는 포교로 벨기에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한국불교를 알리고 싶습니다."

불교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벨기에 출신으로 계명대에서 한국선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셈 베미쉬 교수.

베미쉬 교수가 한국불교에 심취하게 된 계기는 15년 전 중국 구화산을 여행하면서 '중생을 제도한 뒤에야 보살도를 이루고 지옥이 비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으리'라는 지장대원에 큰 감명을 받고 한국불교에 심취하게 됐다.

그 후 그는 런던대학과 보스턴대학에서 '고려시대 불교'를 전공했고 '고려시대 불교제도와 사상'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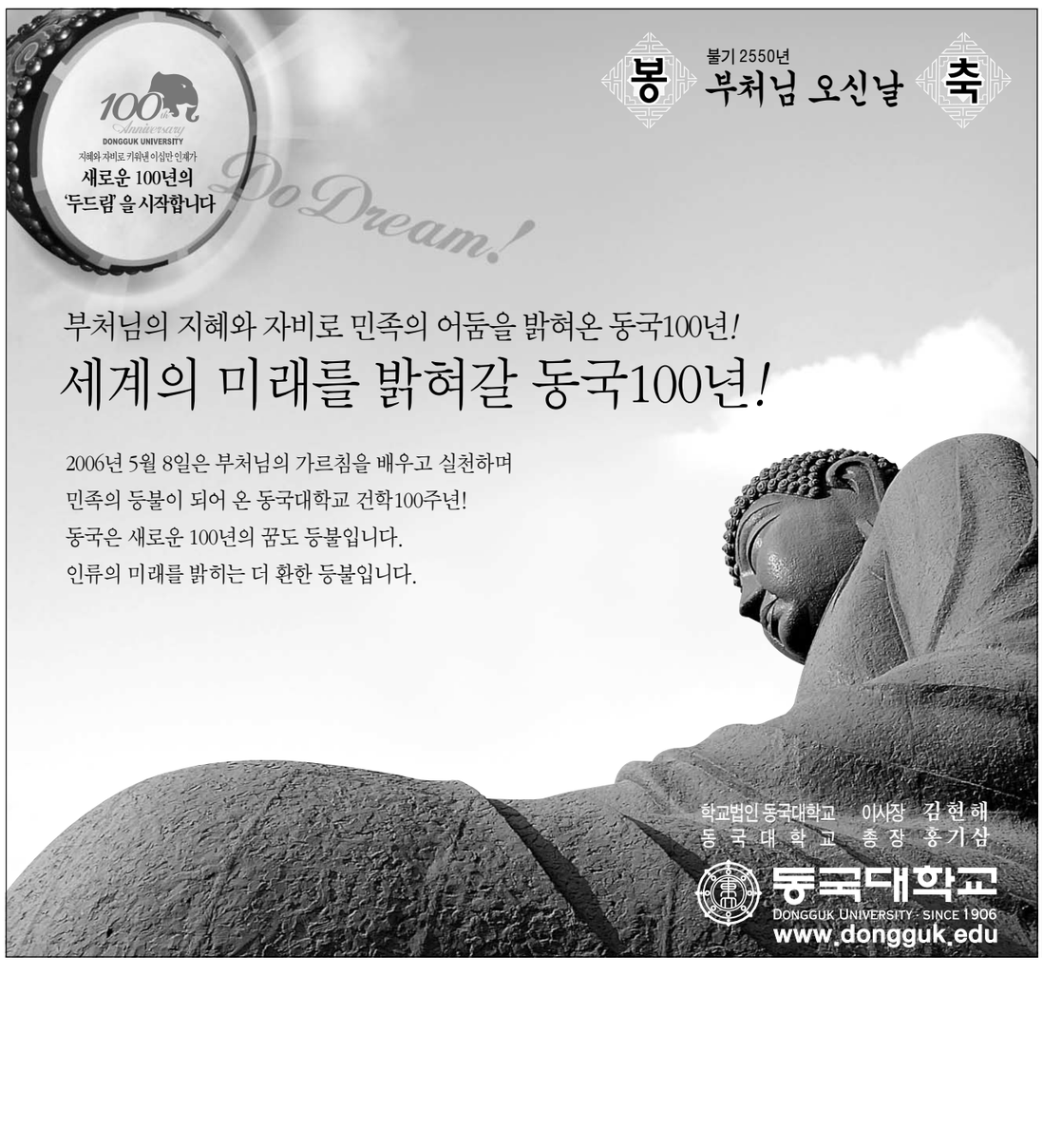
"미술과 체육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불교미술과 선수행을 통해 지구촌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는데 평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계명대에서 한국선불교와 한국문화, 문화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의 꿈은 한국불교를 많은 외국인에게 알리는 것. 이런 일환으로 그는 현재 위빠사나와 탱화 배우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도반인 캐나다 위니팩대학 알버트 웰터 교수의 강력한 추천으로 2006 한국불교학결집대회에 참가한 베미쉬 교수는 '고려시대 불교의 재고찰'이란 논문을 발표해 외국 불교학자들에게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베미쉬 교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불교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세계 불교학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大韓佛教 曹溪宗 第四教區
雉岳山 龜龍寺
原州佛教大學
住持 慈光(遠行)
■ 우220-83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
TEL 033)732-4800~5
FAX 033)732-1211

재단법인선학원
인 과 선 원
주지 정덕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 4동 657-2
TEL 02)907-3706

대한불교조계종
석 남 사
주지 정무
신도일동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
TEL 031)676-1444

대한불교조계종
근심없는동산 무우사
회주 월주
주지 일화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405
TEL 031)352-7346
FAX 031)352-3419

정법도량 청소년수련원
대한불교 조계종 **신 흥 사**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삼성산 사자암
주지 도각
사부대중 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3동 280
TEL 02)825-1046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박종하
신도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 FAX 02)597-3510

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봉안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각 원 사**
주지 신법인
총무 서대원
신도일동
www.gakwonsa.or.kr
■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98-83
TEL 041)561-3545
FAX 041)556-1425

대한불교조계종
내 소 사
회주 우암
주지 진원
사부대중일동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TEL 063)583-3030

대한불교조계종
현 불 사
주지 법우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 보유자
신도일동
■ 대전 동구 구도동 150-11
TEL 042)271-3395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종상
주 지 성행
신도회장 김무량화
사부대중일동
부설 :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FAX 031)426-3666

미타연화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일화
사부대중 일동
■ 대전광역시 서구 옥수동 548
TEL 042)581-4001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호국 범음사
주 지 호택
신도회장 임용태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106-34
TEL 031)832-0912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민
신도일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사적 259호
대한불교 조계종 **강화선원사**
사부대중일동
선원사한증막 기와황토불한증막(운영)
TEL 032)933-8985
면요리전문점 좋은연(蓮)
TEL 032)934-1944
연잎차 연금차 연냉면 연칼국수
연소면 판매합니다
www.seonwonsa.com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5
TEL 032)933-8234 / 8834

약사여래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불 토 사**
사부대중 일동
황토약초방 운영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TEL 033)343-0103

대한불교조계종
덕룡산 미륵사
주지 원일
사부대중 일동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124
TEL 061)331-3436

대한불교조계종
길 상 사
주지 현도
사부대중 일동
■ 경기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산 70-2
TEL 031)969-9852

재단법인 선학원
팔 달 선 원
선원장 효일 범행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16
TEL 031)256-7990

대한불교원융종
대 덕 사
주 지 성 인
신도회장 수덕화 윤정식
총 무 법성화 이상님
부천남부경찰서
법우회 일동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25-35
TEL 032)664-5545

한국불교태고종
향 림 사
주지 법공
사부대중 일동
www.hyanglimsa.com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77-215
TEL 032)662-9596 / FAX 032)657-5388

한국불교태고종
덕 수 사
주지 혜성
사부대중 일동
■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766-1
TEL 031)862-6686

한국불교태고종
약 수 암
주지 혜각
거북마을(노인요양시설)
영탑추모공원(납골당)
홈페이지 www.youngtop.or.kr
■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3리 347-1
TEL 031)952-4801

전통불교(傳統佛敎)조계종
지 장 암
주지 무경 감조
대중일동
www.haesuwon.net
■ 부산 수영구 광안 2동 162-23
TEL 051)757-3334

안양 수리산 도광사
주지 의천 도광
신도일동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산103-142
TEL 031)449-0898

양평불교사암연합회
회원일동
■ 사암련사무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1리
238번지 법림정사內
TEL 031)774-0215

불교 지성인의 전당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학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반 야 회**
회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대중일동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재웅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131-80
TEL 02)742-0172

무 애 원
원장 설봉
전통문화 도예 연수원
신도일동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548-1
TEL 032)932-5087~8

사단법인 21세기
한국불교사회봉사회
이사장 이설산
백련자비원(무료급식소)
임직원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321-3
TEL 02)303-0024~5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조계종
노 적 사
주지 박종후
신도회 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북한산성 내)
TEL 02)353-5016, 4924
FAX 02)386-4198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용 화 사
주 지 덕 문
신도회장 정보문행
사부대중일동
www.yonghwa.org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27
TEL 031)452-1603

대한불교조계종
미 타 사
주지 원 호
사부대중 일동
■ 서울 성북구 보문동 3가 51
TEL 02)923-0492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지 진 관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02)359-8410

대한불교조계종
전 등 사
주지 장 윤
사부대중일동
www.jeondeungsa.org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TEL 032)937-0125 / FAX 032)937-5450

대한불교조계종
등명낙가사
주 지 이청우
신도회장 정문교
가섭회장 최종명
금강회회장 이상숙
신도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1리
TEL 033)644-5337

대한불교조계종
무 량 사
주지 금 담
사부대중일동
■ 경기 남양주시 입석3리 441-1
TEL 031)594-7970

대한불교조계종
장 안 사
주지 성 화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 건영상가 3층
TEL 031)703-7766

대한불교조계종
참선도량 백운사
(무위선원)
조 실 가산 지관
회 주 도봉 종성
주 지 본우
신 도 일 동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210번지
TEL 033)763-1514 / FAX 033)763-1528

대한불교조계종
염 불 암
주지 성 직
신도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17
TEL 031)471-2300

운봉산 광운사 서울포교원
광 운 정 사
주지 청 운
부 설 광운불교대학
광운사 033)433-910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0
TEL 02)381-8966

대한불교조계종
백 화 사
주지 일 법
사부대중일동
■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199-2
TEL 02)381-9103~4 / FAX02)381-9105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대 각 사
화순 호산마을
(장애인 복지시설)
조 실 도산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587
TEL 062)672-4384

대한불교조계종
대 광 사
주지 혜 원
사부대중일동
■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157-6
TEL 031)559-1231

대한불교조계종
화 성 사
주지 현 문
사부대중일동
■ 서울 동작구 흑석3동 67번지 191
TEL 02)815-6025

중원제일기도도량 천년고찰
대한불교 조계종
정 방 사
주지 석 구
사부대중일동
■ 충북 제천시 수산면 강가리 산52
TEL 043)647-7399, 8807

대한불교조계종
법 림 사
주지 현 성
사부대중일동
■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14-60
TEL 032)832-8881

대한불교조계종 염불기도도량
도봉산 호암사
주지 진 산
신도일동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27번지
TEL 031)873-1386

대한불교조계종
청 련 암
주지 도 문
부설 연화유치원
사부대중일동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74-1
TEL 031)255-1020, 243-0130

대한불교천태종
인천 황룡사
주 지 김무원
신도일동
■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 71-2
TEL 032)567-2533

禪의 일상화, 대중화, 세계화
社團法人 牛谷禪院
부설 牛谷심성개발교육원
■ 부설:牛谷 서울선원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62-7 보전B/D
Tel 02)2055-3111 / www.zenkorea.org
■ 牛谷 부산선원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오션타워 1930
Tel 051)740-6288 / www.zenkorea.org
■ 牛谷심성개발연구원
(www.wookok.org)

대한불교일승종
약 천 사
주지 자 운
사부대중일동
■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TEL 02)3391-8523

부루나포교원(法明寺)
주지 선 일
부설기관 인천불교대학
부루나 양노원 · 부루나 청소년회관
부루나 청소년 쉼터 · 부루나 복지회
■ 인천시 서구 가좌 3동 83-6
TEL 032)576-9741
FAX 032)579-0736

재단법인 관음종
천보산[빡빡산] 불암사
주지 양종명
(의정부사암연합회장)
신도일동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 5번지
TEL 031)842-7684

청 운 사
주지 도 원
(무형문화재 27호 탱화장)
하소백련 축제 6월 25일 오후 2시
■ 전북 김제시 청하산 청운사
TEL 063)543-1248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금강산 약수암
주지 보 해
대중일동
약사여래영험기도 및 방생 도량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34-1
TEL 033)682-1933 / FAX 033)682-1707

한국불교태고종 전통사찰95호
갈마산 동도사
주 지 도원 혜성
신도회장 연화선
사부대중일동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99-2
TEL 031)333-7747, 7417

최초 [법문가요] 보급사찰
대한불교 법화종
법 만 사
주 지 법만 합장
신도회 · 법연회
■ 서울시 중랑구 중화1동 274-63
TEL 02)433-6591~2

지장기도도량
연 화 사
주지 도 명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산 63-1
TEL 063)563-1683

"인격을 불격으로 중생을 부처로"
호남최초 전북불교대학
www.koreabuddha.com
학 장 한광수
학인일동
봉축법회 5월5일 3시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48-5 완산불교회관 3층
TEL 063)226-7878,7879
FAX 063)226-7879

이렇게 들었다 일탈

사람이 생존 중에 아무리 많이 외우고 널리 배운다 하더라도,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의(文議), 구의(句義)를 또 이해하지 못한다면, 애만 썼을 뿐 아무 소용도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이해를 했다하더라도 좋은 지식을 참되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배움의 의미가 없다. 〈출요경〉

정창영 연세대 총장이 4월 26일 "구시대적이며 반지성적인 학생운동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 대학 총학생회를 공개 비판했다. 그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총학생회가 지성의 산실인 대학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준엄하게 질책했다.

사건의 발단은 연세대 총학생회의 '재단이사회 난입 사건'이다. 총학생회 임원 20여명은 4월 25일 대학 재단이사들의 오찬장에 들이닥쳐 이사회 참관 허용을 요구했다. 이를 학교 측이 거부하자 학생회는 농성에 들어갔고 이사회는 무산됐다. 학교 업무 행정이 마비되자 학교 측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학생들의 폭력과 불법을 엄하게 다루려는 움직임은 다른 대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려대는 최근 교수를 감금한 학생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출교(黜校) 조치'를 내렸다. 동덕여대도 총학생회가 선거인 명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나오자 '총학생회 불(不)인정'을 선언했다.

이 세 학교만 봐도 학생운동의 반지성적 행태와 타락상이 심각한 위험수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성의 산실인 대학에서 이런 행태를 벌이는 학생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일까.

대학이 운동권의 눈치를 보며 이들의 일탈(逸脫)에 눈감던 때는 지났다. 순수한 학생활동은 장려하되 폭력과 불법은 용납하지 않는 대학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대학생들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성인의 본분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김주일(취재부 기자)

교회 나가겠다는 자녀? "우선은 설득을…"

붓다뉴스 독자설문서 '압도적' … "자녀 판단 존중"도 26%

만약 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는 이같은 질문으로 4월 12~ 25일까지 2주간 독자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총 117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교의 강점을 설명해 자녀가 절에 다니도록 설득한다'는 응답자가 61%인 71명으로 가장 많았다. 14%인 16명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답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편 토론에는 불교계가 더욱 포교에 매진해야 함을 강조한 댓글도 이어졌다. '선정화'라는 닉네임의 독자는 "사찰에 가도 혼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며 "아이들에게 맞는 다양한 포교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익순 기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조사 결과

① 종교는 자유이므로 자녀의 선택에 맡긴다	18명(15%)
② 교회에 가려는 이유가 합당하면 가도록 허락한다	11명(9%)
③ 불교의 강점을 설명해 자녀가 절에 다니도록 설득한다	71명(61%)
④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교회에는 가지 못하게 한다	16명(14 %)
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명(1%)



봉축 칼럼

조 용 헌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교수

귀로 해조음 듣고 마음으로 성품보기

3대 관음도량 모두 바닷가 위치
'이근원통'과 '반문문성' 위한 것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다시한번 '불교는 무엇인가'하고 질문해 본다. 시간만 나면 자문자답해 보는 문제이다.

20대에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였다.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시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30대가 되니까 약간 변하였다. '자유를 얻는 종교'라고 생각하였다. 약간 구체화된 것이다.

40대가 되니까 다시 변한다. '불교는 번뇌를 없애주는 종교'라는 생각이 든다. 살다보니까 번뇌가 자꾸 쌓인다.

40대 중반이 되니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여 있던 번뇌가 삶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번뇌의 무게를 실감하는 연령대가 40대인 모양이다.

어떻게 하면 번뇌를 없앨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이 오신 이유는 중생의 번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이근원통(耳根圓通)'이다.

차돌같이 단단한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능엄경(楞嚴經)〉의 설명에 의하면 관음보살이 수행했던 방법이라고 되어 있다. 관음보살의 수행방법은 귀로 소리를 듣는다. 즉 이근(耳根)을 사용해야만 원통(圓通)이 된다는 것이다. 원통전(圓通殿)에 관음보살이 모셔진 이유는 이 때문이다.

6개의 감각기관 가운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이근이다. 소리는 동서남북 사방과 위 아래에서도 귀에 들린다. 그래서 집중하기가 쉽다.

그렇다면 어떤 소리를 듣는가? 아무 소리나 들어도 되는가? 물론 아니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보면 4가지 소리를 이야기한다. 묘음(妙音), 관세음(觀世音), 범음(梵音), 해조음(海潮音)이 그것이다. 〈능엄경〉에서도 역시 이 4가지 소리를 언급하고 있다. 이 4가지 소리 중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소리는 바로 '해조음'이다. 해조음이란 바다의 조수(潮水) 소리 내지는 파도소리를 가리킨다.

간단히 말하면 이근원통이란 이 해조음 소리에 집중하는 수행법이다. 해조음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입지조건이 중요하다. 도량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조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근원통을 강조하는 유명한 관음도량들은 공통적으로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다.

중국 제일의 관음도량으로 알려진 보타도(普陀島)의 '불긍거관음원(不肯去觀音院)'이 파도치는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다. 이 불긍거관음원 입구의 석벽에는 붉은 글씨로 '조음동(潮音洞)'이라고 크게 새겨져 있음을 필자가 직접 확인한바 있다. 이 글씨는 강희황제의 친필로서, 1699년에 새겼다고 한다. 조음동이라는 암각글씨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해조음을 듣는 도량이라는 의미에서이다.

파도가 치면 U자 형태로 생긴 동굴로 '구르릉' 소리를 내면서 파도가 들어오는 구조이다. 불긍거관음원에 앉아 있으면 항상 이 '구르릉' 하면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치 서라운드 스피커처럼 소리가 난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3대 관음도량도 모두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파도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동해안의 유명한 관음도량이 바로 낙산사의 홍련암(紅蓮庵)이다.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진 홍련암은 동해바다가 보이고, 바닷가의 절벽 동굴위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암자이다.

남해안의 관음도량은 남해 금산의 보리암(菩提庵)이다. 보리암 역시 바닷가이다.

서해는 어떤가. 서해안의 유명한 관음도량은 강화도에서 조금 더 들어간 석모도(釋母島)의 보문사(普門寺)이다. 보문사 역시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인 것이다. 한국의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음도량이 모두 바닷가에 있다. 이 점이 우연이겠는가? 필자는 그 이유를 바로 〈법화경〉과 〈능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근원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근원통은 첫 단계는 밤낮으로 해조음을 듣는 단계이다. 점차 집중이 되면 꿈속에서도 해조음을 듣는다. 모든 의식이 해조음에 집중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반문문성(反問聞性)'의 단계로 진입한다고 되어 있다. 반문문성은 '듣는 성품을 다시 돌이켜 보는 것'이다.

원통의 시작은 해조음이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해조음은 인간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특수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본대학의 호타겐지(堀田健治) 교수의 주장은 이렇다. 인간은 눈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귀로 듣는 청각을 통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받아 들인다. 따라서 청각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분 좋음과 불쾌함을 조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감각기관이다.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는 당연히 여기에 관계된다. 그 소리중에서 파도가 치면서 만들어지는 초음파가 사람 뇌 속의 α파를 활성화한다.

파도가 파도끼리, 또는 파도가 해안가에 부딪치면서 가청영역에서 들을수 없는 초음파까지 여러 가지 음파를 만들어 내고, 그 중 초음파가 사람의 두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겐지 교수에 의하면 '해안가에 서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한다. 파도소리가 α파를 만들어 내어 긴장을 풀어주는 탓이다.

낙산사 홍련암에 가면 마루로 된 법당에 사각형의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 대략 가로 세로 10㎝ 정도 되는 크기이다. 예날부터 이 구멍이 있었다고 한다. 60년대만 해도 이 구멍이 30㎝ 정도 크기였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오면 위험하다고 해서 법당을 신축하면서 크기가 줄었다.

그렇다면 홍렴암 법당의 이 구멍은 왜 만들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다. 필자는 그 이유를 이근원통의 해조음을 청취하기 위한 용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련암은 관음도량이고, 바닷가에 있으므로 이근원통의 경전적 근거와 무관할 수 없다. 법당의 구멍은 해조음을 듣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다.

부처님이 오신 이유는 중생들의 번뇌를 없애주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능엄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바닷가의 해조음을 많이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어린이날과 겹치는 5월 5일이다.

동심(童心)은 불심(佛心)에 가장 가까운 마음이다. 순수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침도 순백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자는 뜻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순수인가? 순수를 어리석음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순수는 어리석음과는 전혀 다르다. 순수는 선(善)이지만 어리석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죄업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순수의 세계로 돌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천상천하유아독존'의 선언이다. 이 선언은 존재의 주인이 누구이며, 존재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대각을 통해 얻은 예지는 인류사에 등장한 많은 고등종교들과도 사뭇 달랐다.

불심과 동심으로 돌아가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존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존재 사이의 관계는 서로의 생명력을 중히 여기는 것만이 진리적 삶이라는 것이 이 선언이 던지는 메세지다. 그러나 인류사의 흐름을 볼 때 아직도 사람들은 이를 각성하지 못한 채 계속 무지와 독선, 분쟁과 파멸의 길을 치닫고 있다.

오늘날에는 산사에도 순수가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느낌이다. 한국불교는 지금 배금주의, 그리고 무교(巫敎)와 점교(占敎)에 의해 너무 많은 영역이 점령당했다. 부처님오신날이 오면 절로 달려가 연등을 달면서도 수많은 불자들이 그 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어리석음을 좇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은 우리 불자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날이지만, 그에 앞서 우리들은 먼저 이 날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참회와 자성의 날로 삼아야 한다.

결국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떤 이념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다. 순수(純粹)의 고향인 불심과 동심을 일구어 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역행해 가느냐도 바로 이 땅의 주인인 사람들의 몫이다.

이를 가르치기 위해 부처님은 우리 곁에 오신 것이다.

■ 도수(정업도량 회주)

'현대' 만평 심 민 섭



綜合出版 光文閣 유익하고 알찬 정보의 보고! www.kwangmoonkag.co.kr
구입문의 02-713-2122 | FAX 02-713-2125

"불교가 어렵다는 편견을 여지없이 깨뜨린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부처님의 위대한 십대 제자의 삶과 깨달음을 한국 최초로 한 권의 책에 알뜰하게 담았다.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다 길에서 떠난,
'길은 가리키는 사람' 답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씀으로
만고불변의 자비와 지혜를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
부처님의 곁에는 늘 함께 수행 정진하는 천이백오십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십대 제자로 일컬어지는 열 분은 부처님의 분신이자 그림자였다.
그 십대 제자들의 극적인 삶을 통해 크고 작은 '차이'를 조화의 근본으로,
잘나고 못난 '차별'이 없는 '절대 평등'을 이상으로 삼는 불교의 세계를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부처님의 십대 제자

성각스님 편저 | 신국판 400쪽 | 값 14,700원 |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처님 되는 씨를 마음에 심자!"

BBS 부산불교방송과 광주불교방송에서 수년간 절찬리에 방송되었던 '금종스님의 참 나를 찾아서' 책으로 집대성!



"아아앵! 아이고 아파!"
우룡큰스님과 나란히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나의 허벅지를 사정없이 꼬집었다.
"어디서 나오는 소리냐?"
"입에서 나왔십니더."
"입은 어디서 나왔느냐?"
"목구멍에서 나왔십니더."
"목구멍은 어디서 나왔느냐?"
"뱃속에서 나왔십니더."
"뱃속은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부처님 되는 씨를 심었느니라!"
–본문중에서

화제집중 감동만점

천은사 금종스님 수행일기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금종스님 지음 | 신국판 296쪽 | 값 10,000원 |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당신은 홀로그램을 가졌는가?
HYUNDAI
MOBIS
HYUNDAI MOBIS
MOBIS
차 안에서 당신을 지켜주며, 차 밖에서 당신의 차를 빛나게 해 주는 것.
수만번의 안전테스트와 사후책임, 보증수리를 약속하는 것.
당신의 부품에는 순정부품 홀로그램 마크가 있습니까?
확인하십시오! 순정부품 홀로그램 마크
HYUNDAI
MOBIS
Inside your car

봉축 특집 | 불교의 경쟁력 진단

1+1=3이 되는 효과 불교 안에 있다



불교에도 경쟁력이 있을까? 아니 불교에도 경쟁력이 필요할까? 불교의 경쟁력은 타종교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나와의 경쟁, 즉 보다 더 발전하려고 하는 불교와 나태해져 가는 불교의 경쟁 구도로 이해하면 한결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과거에는 정부가 개인과 기업 위에 군림했지만 요즘은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으로부터 배우겠다고 발벗고 나선다. 기업경영에서 불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아보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의 CEO를 불교식으로 바꾸면 사찰의 주지스님으로 보면 될 것이다. 기업의 상품은 교리와 사상으로, 소비자는 신자로, 영업사원은 포교사로, 사규는 계율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얼마든지 상호 유사한 점을 대비시켜 나갈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시스템, CEO, 고객이 그것이다.

전문화될 때 성장 가능하다

기업이 대량 생산체제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혁명 이후 기계시스템과 기업의 조직, 제도, 시스템 덕분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1+1=2가 되는 수학적 구조가 아니라 1+1=1인듯 하지만 그 효과는 3이상이 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각각의 부분을 결합하는 것이 시스템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힘이 곧 시너지효과이다.

오늘날 불교가 갖춰야 할 첫번째 요건이 시스템이다. 물론 불교 안에도 스님들간 역할이 있고 교육시스템과 제도시스템이 있다.

그런데 문서화되지 않았거나, 문서화돼 있더라도 대충 얼개만 있지 정교하지 않아 해석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적용해 엉뚱한 결과를 낳는 수가 많다.

스님들도 불교의 교리와 수행은 기본적으로 하되 요즘같은 분업화되고 다양화한 현대사회에서는 수행자, 행정승, 포교승 등 그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스님과 신도의 역할 분담, 각 사찰의 역할 분담 또한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포교는 그 대상에 따라 방편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문학, 공예, 음악, 심지어 기술까지 전공을 가지고 포교에 나선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주지스님도 CEO 마인드 필요

신도들도 사찰 내에서 각자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주지스님 뜻에만 의지하지 말고 제도나 규칙 즉 시스템에 의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면 훨씬 더 참여의식을 가지게 된다.

기업이라는 시스템을 미션, 비전,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CEO이다. CEO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불교란 무엇인가. 사람을 아는 것이고 특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데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기업의 CEO에 해당하는 주지스님은 불교의 교리나 수행법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찰을 어떤 모습으로 키울 것인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부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역할을 나누어 주어야 참여의식이 높아진다. 특히 CEO가 유의할 것은 공과 사를 구별하는 일이다. 주머니돈과 회사돈을 구별하는 것이 기업회계의 기본이듯이 사찰에서 투명경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이다.

신도들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기업에서 아무리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외면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기업은 항상 고객을 염두에 둔다.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객이 왜 싫어하는지 끝없이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력의 원천이다.

불교에서 소비자는 예비신자로 한두번 절에 오는 신도는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볼 수 있다. 번창하는 사찰은 그렇지 않지만 신도가 모이지 않는 사찰은 "너 왔냐?, 너 가느냐"고 고개도 돌려보지 않는다.

고객을 잡 모시기 위해 기업에서 영업을 강화하듯 불교에서도 포교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포교사는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자질 있는 신도들 중에서 선발해 위촉할 수도 있다.

절에서 최고 어른은 당연히 스님이지만 고객인 신도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신도들의 절에 가는 발길이 차차 줄어들지도 모른다. 내 것을 팔기만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문을 닫듯이 내 것이 옳다고만 강조하지 말고 신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는 '지속가능 경영'이다. 기업이 개인보다 급성장하긴 하는데 단명하다는 게 문제이다. 30년을 넘기기가 어렵고 100년 된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불교는 2천년을 넘기고 있다. 그 비법은 무엇일까? 경영학계에선 혁신을 부르짖기도 하고 환경경영 투명경영 윤리경영 등을 말하기도 한다.

지속가능 경영해법 불교에

불교에 제행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이 있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다. 지속가능경영의 비법은 자기가 쌓아올린 걸작을 스스로 허물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제법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불교는 깨우치고 있다. 역사는 정반합의 변증법으로 발전한다. 모래성이긴 하지만 더 오래가는 더 높은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는 정상을 끌어내려 바닥을 넓혀야 한다. 스스로 쌓은 것을 본인이 갖지 않고 바닥에게 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불교에선 그것을 '회향'이라고 하지 않는가. 기업이 아무리 성장해 간다하더라도 독식하려고 하면 무너진다. 기업이 성장하게 된 것은 자신의 공도 있지만 아무 도움을 준 것 같지 않은 우주 삼라만상의 밑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불교의 위대성은 바로 이것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철저한 자기인식에서 출발하지만 제법무아 제행무상을 재인식하며 모든 공덕을 우주 삼라만상으로 돌리는 회향을 한다. 오늘날 대기업들이 스스로 겸손해지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며 바닥을 더 넓히는 '대회향'을 하면 더욱 크고 오래가는 지속가능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곤 (한국경제신문 한경아카데미원장)
사진=박재완 기자

TIBETAN MUSEUM 대원사티벳박물관

석가모니불 · 10대제자 등 '사리 세계순례 전시회'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들의 사리 1천과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옵니다. 2001년 3월부터 북미 유럽등 세계 100여개 도시를 순례하고 마침내 대원사 티벳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 사리 전시회는 부처님과 가섭 · 사리불 · 목련 · 아난다 등 부처님 10대 제자, 그리고 나가르주나(용수보살), 예세쵸겔 등 불교 성인들의 사리 1,000여과가 선보입니다. 이 사리 세계순례는 인도 쿠시나가르 미륵불상 조성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 계속되며, 불상안 심장부위에 안치됩니다.

● 전시기간 : 4월 24일 ~ 5월 15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장소 :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


부처님과 10대 제자 등 불교성인들의 사리


2008년 사리가 봉안될 152m 미륵불상

■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티베트 '대승불교전통보존회' 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트레야 프로젝트는 세계 불교의 구심점으로 부처님의 열반지인 인도 쿠시나가르에 152m의 세계 최대 미륵불상을 조성하고 주변에 불교유물 전시관, 도서관, 박물관, 시청각 극장, 공원 등의 부대시설 건립한다는 계획이며, 50층 높이에 이르는 불상 안에는 대웅전, 선방 등 수행공간이 마련됩니다.

■ 교통편 예약안내

서울 : 용진관광 02)2279-1191~3
1인당 3만원(20명이상 예약시 운행)

부산 : 금강정진회 051)632-0383 / 011-833-0383
1인당 25,000원(20명이상 예약시 운행)



■ 사리전시회 개막행사 : 4월 27일 오후 1시 (사리 전시회는 개막행사 이전인 24일부터 시작됩니다) ■ 연락처 : 대원사 061)852-1755 / 티벳박물관 061)852-3038

사회 ·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보자

참가자

진명 스님(소불선원 주지)
이미령(동국대 역경위원)
이종만(풍경소리 실장)
김영일(농협중앙회 차장)
진행=김대곤(한경아카데미 원장)

▶ 한국 불교 10대 과제

1. 전국단위 자원봉사 체계 구축
2. 사부대중의 평등과 상호존중
3. 불교 예술과 문화를 통한 포교
4. 전통자원의 현대화 · 콘텐츠화
5. 명망 높은 불교리더 키우기
6. 경전과 교리의 현대적 개발
7. 도-농간 사찰 간 네트워크 강화
8. 사찰의 경영마인드 기법 도입
9. 청소년 포교프로그램 개발
10. 사원공동체 운영기법 개발

▶ SER-M 분석이란?

Subject(리더십), Environment(내 · 외적 환경), Resource(자원활용), Mechanism(성공적 구조)의 이니셜을 딴 분석법으로 리더십, 경영환경, 자원활용, 메커니즘 등을 종합 분석해 미래 경영전략을 짜 나가는 경영분석 프로세스. 이 이론은 '경영주체(Subject)가 환경(Environment) 속에서 자원(Resources)을 활용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지속적 성장을 필요로 하는 조직(기업)에서는 필수적인 경영분석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독특한 자원을 중심으로 전략을 도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개별 조직의 메커니즘 특성을 파악하면 그 조직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까지 알 수 있다.

'SER-M' 분석으로 본 불교의 경쟁력은

현대불교신문은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불교의 경쟁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불교계 최초로 경영 분석기법을 응용한 'SER-M' 분석을 시도했다. 불교계에 내재된 경쟁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힘을 면밀히 추출해내기 위해서다.

이번 분석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김대곤 한경아카데미 원장의 진행으로 4월 11일 한국경제신문 3층 한경아카데미 세미나실에서 진명 스님(소불선원 주지), 이미령(동국대 역경위원), 김영일(농협중앙회 여신부 차장), 이종만(풍경소리 실장)씨 등 4명의 불교계 인사가 패널로 참석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3시간여에 걸쳐 강도높게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국불교가 갖고 있는 장점, 긍정적인 요소 등에 관한 수십 가지의 '키워드'를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배치한 뒤 다시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했다. 참가자들은 분석과정에서 '불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 '타종교에서 배워야 할 것' '한국불교의 강점'을 차례로 나열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SER-M' 분석 결과 △Subject는 재가 기업인, 과학자, 스포츠 스타, 문화예술인을, △Environment는 상생 · 화합, 마음의 평화=참선 · 명상, 환경운동 · 생명존중사상을, △Resource는 경전, 불교문화재, 수행법, 사찰음식, 부동산, 연등축제 등을 불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꼽았다.

이를 다시 종합한 분석결과 △Mechanism에서는 템플스테이, 사찰여행, 음악회, 불교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계층별 포교전략의 극대화가 한국불교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 'SER-M' 분석을 통해 우리가 미처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국불교의 경쟁력은 무엇이고 10대 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본다.



▶ 참가자들이 말하는 '불교의 경쟁력'

진명 스님 - 출가자 위한 경영 교육 필요

참선을 비롯한 수행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마음 닦는일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증거다. 조계종 위주의 간화선은 불자들에게 너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때다.

한방에 10명이 앉아 있으면서 모두가 '이뭣고' 화두를 들 수는 없다. 지도법을 좀더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각자의 근기에 맞게 단계를 구분해 지도해줘야 한다. 각 사찰마다 참선을 지도할 수 있는 시설 확보도 필수적이다.

불교에 경영마인드 도입도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사찰도 이제는 경영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 · 재가의 의식전환부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출가자들의 기본교육 과정에 경영관련 교과목을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권이라 할 수 있는 각 종단의 총무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출가자들을 위한 경영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신도시의 불사는 출가자 개인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택지지구의 계획 단계부터 총무원이 직접 나서 포교당이나 사찰을 세우기 위한 종교부지를 확보하고 교세를 확장시킬 수 있는 투자 마인드도 절실하다.

이미령 - 경전속에 리더십 원리 있다

팔만대장경 같은 경전의 재해석과 응용이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법회의 가장 큰 문제는 법사스님들이 출가자 위주의 법문을 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남자신도들이 절에서 법문을 들으면 자신들은 더없이 속되고 부정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갖게 만든다.

우선 경전 해석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가자에게는 세속을 뛰어넘는 설법을, 재가자에게는 재가자에게 필요한 대기설법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한번도 재가자들에게 돈이나 재물을 모으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권하기까지 했다. 불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가자 중심의 법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스님들이 포교를 위해서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을 인정하고 긍정적이면서 진취적인 삶을 불자들에게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전속 등장 인물들의 말씀과 행적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현 시대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리더십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 경쟁력을 가르칠 수 있는 행동요령을 경전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김영일 - 인재육성 체계적인 준비 시급

우리사회에는 타종교에 비해 재가불자 리더가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사들을 불교인재화 하는 방법도 불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불교는 지금까지 체계적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불교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우선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면 지역, 직장, 직능 단위별 네트워크가 확대돼야 한다. 사회 곳곳에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재가불자들을 발굴해야 한다.

이종만 - 단계별 신도교육 정착돼야

개인적으로 신행생활은 어머님을 따라 절에 다니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이 다였다. 그러던중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경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신심도 더 깊어졌다고 생각한다.

불교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불자들에게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전국 어느 사찰을 가더라도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네트워크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불기2550년 부처님 오신 날!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 부산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5-14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051)583-0993. 0994 / FAX (051)583-0999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 미국 뉴욕 : 001-1-212-343-0809
www.ahnkookzen.org



문화 · 역사 자체가 경쟁력… 효율적 활용이 관건



S-Subject 리더십

'사람'이 최고의 재산… 인재 연결망 구축을

참가자들은 출가와 재가의 구분 없이 불교계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춘 인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이를 하나로 묶을 불교지도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즉,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것.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불교 인재를 발굴하고, 살아있는 연결망으로 결집해 불교의 현대화 · 사회화에 필요한 원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출가자 위주의 불교로는 그 한계가 분명한 만큼, 재가불자의 리더십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추진 중인 '불교인재개발원' 같은 곳의 역할도 기대된다.

환경운동에 앞장섰던 지율 스님, 서정적 글쓰기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법정 스님, 미국 명문대 출신의 특이한 이력과 대중을 사로잡는 강렬한 선법문의 현각 스님은 어떤 선지식보다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소위, 시대와 대중이 원하는 코드를 갖춘 불교적 자산이다.

동국대 경제학과 임배근 교수는 "각 분야의 지도층들이 다양한 교육 및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적 삶을 살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나아가 불교와 사회 발전에 회향 할 수 있는 인물을 조직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Environment 환경

상생 · 생명 · 웰빙 등 불교 트렌드 전문화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0일 저녁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해 "화합과 상생의 불교정신이야말로 경쟁과 연대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외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 시대에 상생과 화합, 화해의 욕구만큼 절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키워드는 없을 것이다.

이번 브레인스토밍 참가자들도 현 시대에 불교가 타종교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화합을 중요시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정치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법문이나 활자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굳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참선과 명상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생명존중과 환경운동을 사찰 생활에서 벤치마킹하려고 산사를 찾는 이들도 많다.

윤세원 인천전문대 교수는 "상생과, 생명존중, 웰빙 등 불교만의 트랜드를 전문화시키고 해당분야의 코칭멘토(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를 집중 육성시킨다면 불교는 종교로서 뿐 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다방면에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Resource 자원활용

풍부한 자원 활용 위한 시스템 · 매뉴얼 급선무

한국불교 경쟁력 진단에서 문화재, 사찰음식, 삼보일배 등을 꼽은 자원 분야가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선불교를 비롯해 지정문화재의 60%에 해당하는 불교문화재, 유 · 무형의 불교문화,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사찰부동산 등 한국불교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은 급격한 변화를 거쳐 온 우리 사회에서 불교가 현재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 자원을 한국불교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인 것이다.

불교미술, 방생, 수행법 등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현대에 맞는 활용법을 개발해내지 못한 탓이다. 정토회의 빈그릇 운동으로 각색된 발우공양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축양식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장점으로 꼽히는 사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제까지는 수행과 신앙, 포교의 기능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교육과 문화, 육아, 지역공동체 등의 기능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조계종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사찰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적절한 대안으로 꼽힌다.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 불교환경운동 등을 통해 사찰과 불자들의 사회참여가 늘고 있는 최근의 추세는 경쟁력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 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과 활동매뉴얼을 갖춤으로써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전통적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일은 불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 역할과 기능이 다른 산중사찰과 도심사찰의 차별화는 좋은 대안이다. 건축양식에 있어서 산중사찰은 전통을 유지하고, 도심사찰은 실용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현대적 건축양식의 수용이 절실하다.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은 "물질문명주의가 팽배해있는 현대사회의 대안사상으로 불교가 각광받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선조가 이루어놓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사회를 선도하는 종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M-Mechanism 성공적 구조

현대인들에 쉼터 안식처 역할 충실해야

'불교는 시대를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메카니즘이 풍부한 종교다.'

불교가 작금의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템플스테이' '산사음악회' '산사여행' 등과 같은 행사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게 참가자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불교계 내부의 수요자들에게 정착을 시키는데 까지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반인들을 불교계나 사찰로 불러들이기 까지는 아직까지도 2% 부족하다는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다수의 산사음악회를 기획한 경험이 있는 이종만 풍경소리 실장은 "이제는 산사음악회가 찬불가나 트로트, 클래식 등 각 사찰 특성에 맞는 장르로 전문화 되거나 미술 전시회, 시낭송 발표회 등과 같은 이벤트를 함께 기획하는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사람들이 몰린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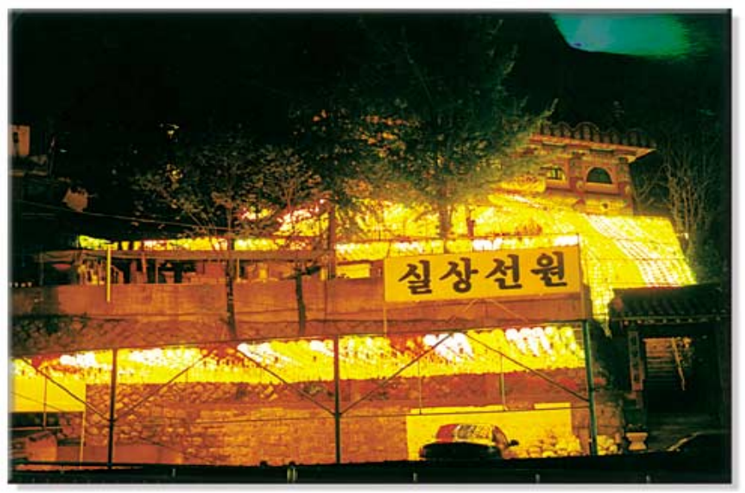
또 발우공양, 새벽예불, 참선, 다도 등 비슷한 프로그램만으로 운영돼오던 템플스테이도 최근들어 마곡사를 중심으로 테마별로 나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경쟁력을 높이려는 좋은 예로 꼽는다.

사찰여행도 차별화를 위해서는 지역사암연합회 차원으로 향토사학자를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 해설사를 집중 육성해야 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산사를 찾는 이들에게 쉽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도우미들을 있다면 그만큼 불교를 알리기가 쉽다는 계산에서다.

수많은 직장인들에게도 불교가 쉼터와 안식처 역할을 한다면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참가자들은 힘주어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에서라도 범종단적으로 1사찰 1직장직능단체 자매결연 운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일상에 지쳐 있는 직장인들이 편안히 경전독서모임도 갖고 법회도 볼 수 있는 공간과 지도법사 파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며, 꼭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의도에서다.

김주일 · 박봉영 · 조용수 기자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서울 실상선원 1000日 영가 천도법회 봉행
◆순국선열 천도대제 봉행

현재접수중

약사 제일 영험도량 실상선원
봉사와 무료복지관이 있는 천축사
기도성취도량 용암사

선원장 성환
주 지 정각 정윤 무타
총 무 곽동훈

대중일동

■실상선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93번지 02)745-8503
■천 축 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041)734-2680
■용 암 사 경북 청송군 현동면 월마리 산 49-3 054)873-3607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9>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참선 공부에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스승과 화두에 대한 가르침에 큰 믿음을 일으키는 것, 둘째는 화두를 꼭 타파하겠다는 큰 원력을 지니는 것, 셋째는 화두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하는 큰 의심이다. 이런 요건을 갖추려면 먼저 훌륭한 스승을 만나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선행 조건이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세 가지 요건은 저절로 갖추어진다. 믿음과 원력과 의심이란 올바른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야 제대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 여건이 주어지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모두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가슴을 적셔주는 '살아 있는 말'이 될 것이다. 이를 활구(活句)라고 한다.

'살아 있는 말'로써 화두를 활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선가귀감> 17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此事 如蚊子上鐵牛 更不問如何若何 下嘴不得處 棄命一攢 和身透入

화두를 공부하는 일은 마치 작고 연약한 모기가 무쇠 소에 올라타서 다시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주둥이를 댈 수도 없는 곳에다가 죽을 각오로 무쇠를 단숨에 뚫어서, 자신의 몸뚱이조차 그 무쇠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화두를 타파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곳은 어떤 문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영역이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도 가르칠 수 없는 교외별전(敎外別傳) 영역이라고 하였다. 이 부처님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중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비분별을 다 떨쳐버려야 한다고 했다. 간화선에서는 이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 화두를 참구한다. 작고 연약한 모기가 무쇠 몸을 뚫는다는 것이 보통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듯, 늘 시비분별을 일삼고 살아가는 중생이 모든 생각을 끊고 화두에 몰입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불가사의한 일을 해내려면 고도의 정신집중이 필요하다. 시비 갈등으로 흐트러진 마음이 하나로만 모아진다면 어떤 일인들 이루지 못할 것인가? 화두란 그런 것이다. 스승을 믿고 그 가르침을 철저히 믿는다면, 화두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화두 속으로 들어가 화두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르침 믿어야 화두와 하나돼
마음 길 끊어질 때 깨달음 얻어

화두를 타파하려는 원력이 있다면 자신의 목숨조차 돌볼 겨를이 없이 공부에 매진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할 일을 마친 대장부가 되지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중생이다. 그에 관해 고봉 스님은 <선요>에서 이렇게 말한다.

"화두 공부하는 일을 논하자면 마치 작고 연약한 모기가 무쇠 소에 올라타서 다시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주둥이를 댈 수 없는 무쇠 소의 몸을 죽을 각오로써 바로 단숨에 뚫어, 자신의 몸뚱이조차 무쇠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바로 이러한 때가 백천만억 향수해(香水海)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서, 온갖 보물을 취해도 다 가질 수 없고 그 보물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었더라도 다 쓸 수가 없다. 뜻이 견고하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공부가 늘어지거나 쓸데없이 바쁘기만 하면, 설사 날아서 비상비비상천(非想非非想天)에 도달하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하나의 굶주린 모기일 뿐이다."

서산 스님은 이 단락을 "앞에서 말하고 있는 뜻을 거듭 거듭 다져 '활구(活句)'를 참구하는 사람들이 굳건한 원력으로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몽산 스님의 말을 <몽산법어> 첫머리에서 인용하였다.

參禪須透祖師關 妙悟要窮心路絶
祖關不透 心路不絶 盡是依草附木精靈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할 것이요 오묘한 깨달음은 마음 길이 끊어져야 할 것이니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하고 마음 길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 모두가 풀과 나무에 붙어 사는 허깨비에 지나지 않는다.

옛 스님은 "생사를 해탈하려면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한다"라고 했다. 무엇이 조사의 관문인가? 수산성념(首山省念) 스님은 "죽비라 해도 경계에 걸리고 죽비라 하지 않아도 틀렸다"라고 하니, 이 자리에서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다.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작고 연약한 모기가 무쇠 소 몸을 뚫듯, 이 관문을 타파해 바른 안목을 얻고 천하의 기운이 통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관문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떠한 법도 통하지 않을 것이 없다.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드러나 나와 남의 경계가 털끝만큼도 틈이 없고, 흐르는 시간의 처음과 끝이 현재의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관문이 돈오(頓悟) 경계이다.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요체는 '무(無)'자 화두를 타파하는 데 있다. 이 관문을 뚫기 위해서는 마음 가는 길이 끊어져서 오묘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 조사의 관문을 뚫었다면 역대 조사와 손을 맞잡고서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행복동 사람들

믿음의 대상

배종훈 (bjh4372@hanmail.net)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관불(灌佛)은 왜 하나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거리 곳곳에 연등이 넘실대고, 절 집은 불자들과 일반인들로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봉축일은 어린이날과 겹쳐 남다른 의미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기 부처님을 모셔놓고 머리 위에 물을 부어서 목욕시키는 의식인 '관불(灌佛)'을 소개할까 합니다.

관불의식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제석천이 하늘에서 내려와 향수로써 몸을 깨끗이 씻어 드렸다는 설화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매년 부처님의 탄생을 경축하기 위해 아름다운 꽃들로 꾸민 정자나 법당 한 가운데 아기 부처님을 모신 뒤 향수를 뿌립니다.

사실 이런 의식은 반드시 부처님 오신 날에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 불교권에서는 평소에도 매일같이 관불의식을 하고 있지요. 이런 관불의식은 1990년대까지 한국불교계에서 그렇게 성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대중적인 축제의 장이 되면서 관불의식은 일반인들에게조차 낯설지 않은 행사가 됐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9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제2부 40강 혜능의 설명, 왜 여래는 없다 하는가

여래는 오지 않고, '이미' 여기에

혜능은 육안으로는 여래를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1. "수보리, 어의운하, 가이신상, 견여래부. 불야 세존. 불가이신상득견여래"(須菩提, 於意云何. 可以身相, 見如來不. 不也, 世尊. 不可以身相得見如來.) 밑에 혜능은 이런 설명을 붙여 두었다.

色身卽有相, 法身卽無相. 色身者四大和合, 父母所生, 肉眼所見. 法身者無有形段, 非有 靑黃赤白, 無一切相貌, 非肉眼能見, 慧眼乃能見之. 凡夫但見色身如來, 不見法身如來. 法身量等虛空. 是故佛問須菩提, 可以身相見如來不. 須菩提知凡夫但見色身如來, 不見法身如來, 故言不也世尊, 不可以身相得見如來.

"색신(色身)은 상(相)이 있고, 법신은 그게 없다. 색신은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의 화합이고, 부모가 만든 것이며,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비해 법신은 물질이 아니고, 청황적백의 색깔도 없으며, 형체라고는 없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오직 혜안, 지혜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범부는 다만 색신으로 된 여래만 볼 뿐, 법신의 여래는 보지 못한다. 법신의 몸피(量)는 허공과 같다.

그래서 부처께서는 수보리에게, '신상(身相), 즉 몸의 형태나 흔적으로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수보리는 범부들이 다만 색신여래만 볼 뿐, 법신여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는 몸의 형태나 흔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원효가 관음을 친견치 못한 이유

몇 마디 덧붙인다.

– 우리네 범부들은 여래가 사람의 몸을 하고, 특정한 '얼굴'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룩하고' '원만한' 얼굴을 소상(塑像)으로 새겨 불당에 안치해 놓았다.

그러나 붓다는 그런 인간적 표징을 하고 있지 않다. 내가 보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투영이고, 그것은 다만 내 그림자이지 여래의 본 모습은 아니다! 만해의 <님의 침묵> 서문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여래께서는 그런 '의지'와 '표상'밖에 서 계신다. 그러니 육안으로는 잡힐 리 없다. 보려고 하는 의지가 눈을 만들었으니, 삼계유식(三界唯識),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여여(如如)하게 비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있는 그대로'이신 여래는 인간의 이목구비를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32상 80종호의 신비한 표징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원효가 낙산에서 관음을 못 만난 것은 바로, 그 분의 '몸'을 찾고, '얼굴'을 더듬고 자해서이다. 그분은 금빛 광명을 발하는 얼굴로 오시지 않고, 개울가에서 멘스로 더러워진 월경대를 세탁하고 있었다. 이것을 모르고, 그분을 낙산의 '동굴'에서 보려고 용을 썼지만, 그때마다 '파도'가 들이쳐서 그를 보지 못했다 한다.

여기 '동굴'은 자아 혹은 아상(我相)의 감옥을, 그리고 '파도'는 자신의 분별심, 그 오랜 심리적 장애물을 상징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 관자재(觀自在), 자유롭게 사물을 보게 될 때, 여래와 관음의 얼굴이 떠오를 것이다.

역시 얼굴이나 옷이 아니고 마음이다

2. "하이고, 여래소설신상, 즉비신상"(何以故, 如來所說身相, 卽非身相)에 대해 혜능은 이렇게 말한다.

六祖: 色身是相, 法身是性. 一切善惡盡由法身, 不由色身. 法身若作惡, 色身不生善處, 法身作

善, 色身不墮惡處. 凡夫唯見色身, 不見法身. 不能行無住相布施, 不能於一切處行平等行. 不能普敬一切衆生. 見法身者卽能行無住相布施, 卽能普敬一切衆生, 卽能脩般若波羅蜜行, 方信一切 衆生同一眞性, 本來淸淨, 無有垢穢, 具足恆沙妙用.

"색신은 상(相)이고 법신은 성(性)이다. 일체의 선악은 다름 아닌 법신에서 말미암지, 색신이 짓는 것이 아니다. 법신이 악을 저지르면 색신은 좋은 곳에 못 나고, 법신이 선을 지으면 색신은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범부는 다만 색신만 볼 뿐, 법신을 보지 못해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치 못하고, 일체처(一切處)에 평등행(平等行)을 행치 못하며, 일체 중생을 널리 공경하지 못한다.

" '법신을 보는 자'는, 무주상보시를 행하고, 즉 일체 중생을 널리 경배하며 능히 반야바라밀을 닦는다. 마침내 그는 믿게 된다. 일체중생이 같은 참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본래 청정하여 때 하나 묻지 않았고, 그리고 항하사와 같은 묘용(妙用), 신비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 "여래는 몸으로 오지 않고, 법신에 얼굴이 없다"는 말에, 낙담하기는 이르다. 얼굴이 없다는 것이 존재가 없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다. 혜능은 분명히 짚어준다. "법신은 얼굴이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의 미추는 얼굴을 따지지 않는다. 신분이나 재력, 명예나 직위도 모른다. 법신, 즉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더도 덜도 없이, 공평 평등하게 있다! 이 마음 하나 잘 쓰면 다음 생에도 천상을 보장받지만, 마음 하나 엉터리로 쓰면 살아서 힘든 지옥을 견뎌야 한다.

법신을 본 자, 자기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비밀을 본 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비전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전혀 다른 태도를 키워갈 것이다.

그것은 성취와 실패, 이익과 손해 등의 도구적 속물적 삶을 누그러뜨리고, 존재의 부름에, 삶의 의미에, 교감과 배려에 근거를 둔 삶이다. 이를 혜능은 한 마디로 '무주상보시'라고 총지(摠持)했다.

"아상 없이 아낌 없이 주는 삶을 살라…. 가까이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라. 그 실천의 삶이 반야바라밀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보살이고, 여래이다."

혜능의 설명은 이어진다. "그 삶의 걸음에서 그는 알게 된다. 진짜로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세속의 그 다단한 차이와 차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을 가졌으며, 그 바탕은 누구나 청정무구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성의 빛은 언제나 환하고, 또한 무한한 신비의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것을…. 그 빛을 다만 우리의 무지(無明)로 하여 보지 못했고, 오랜 윤회와 습기의 장애로 하여, 그 공능을 스스로 마비시켜왔을 뿐이라는 것을…."

야부의 노래

"여래는 없지만, 그러나 있다." "여래는 또한 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른다." 그 분은 '이미' 와 있었고, 그리고 어디에나 있다! 그분은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고 있거나, 직장에서 나랑 성과와 업무스타일을 두고 다투고 있으며, 또 무엇보다 늘 보는 가족의 울고 웃는 얼굴 속에 계시다.

이 역설을 야부의 송은 한꺼번에 읊고 있다.

冶父: 山是山, 水是水, 佛在甚?處. 有相有求俱是妄, 無形無見墮偏枯. 堂堂密密何曾間, 一道寒光爍太虛.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부처는 어디 있는가. 이미지(相)에 붙들려 있거나, '지금 여기' 너머를 추구(求)하는 것은 허망한 시도라네. 그렇다고 여래는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은 절망의 구렁텅이! 보라, 저기 뚜렷하고, 촘촘해서 한치 틈도 없는 것. 차가운 빛 하나가 태허(太虛)를 싸그리 태워버렸네."

■한국학중앙연구원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마음! 부처님마음!

미래를 선도하는 대승교화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丙戌年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은 전 종도가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불사를 성공적으로
회향하고 전통 대승교화종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자리이타의 신행원력을 실천하는 종단,
국민과 불자에게 희망을 주는 종단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9-16 태고빌딩
홈페이지 www.taego.org / TEL 02-382-7361~3 / FAX 02-382-9852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천태종

종 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 무 원 장 주정산
총 무 부 장 이문덕
교 무 부 장 김유정
재 무 부 장 남궁도재
교 육 부 장 김용암
사 회 부 장 김무원
규 정 부 장 조진덕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원로원
원 로 원 장 윤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장도정
종의회부의장 김도산
종의회부의장 박노승

감사원
감 사 원 장 변춘광
감 사 위 원 정비룡
감 사 위 원 이월장

참 의 원 원 장 권무원 금강불교대학 학장 이재창 종전연구원장 김영태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번지
TEL 043)423-7100~8 / FAX 043)420-7399

清心淨土

2550 BUDDHA'S BIRTHDAY

즉신성불 현세정화

한국밀교 진각종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總 印 慧 一

統理院長 悔 淨 宗議會議長 惠 印
敎育院長 敬 淨 查監院長 惠 明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봉 총기35년(불기255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축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앞에 나타난 밀교! -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합니다.
만다라의 금강법계궁 총지도량의 진언세계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종 령 효강
통리원장 우승
총무부장 선도원 재무부장 시정 사회부장 환수원 교정부장 지회심
사감원장 지성
서울경인 교구장 연등원 부산경남 교구장 대원
충청전라 교구장 밀공정 대구경북 교구장 지광

불교 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TEL 02)552-1080~3 / FAX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奉 우리도 부처님 같이 祝

(재)대한불교관음종

종정 남천 죽산
사서실장 이효천

총무원장 이홍파
부원장 황법명

총무부장 김대홍 총무국장 신성법
교무부장 권종일 교무국장 신도중
재무부장 박지열 재무국장 박지성
사회부장 조법호 사회국장 이도각
감찰부장 이의선 감찰국장 임현묵
종무위원 장법능 종무위원 박명진

종회의장 정법륜
부의장 김경철 부의장 강백제
호법원장 김경철
교육원장 김동령
수교부장 이효천 역경부장 이대광
역경국장 한진각
포교원장 김지섭
포교부장 황혜광 조직부장 임법경
포교국장 김법경 조직국장 정도명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02)763-0054 팩스 (02) 763-5851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영산 일공 부종정 유념 법신
원로원장 송산
원로위원 선명 승정원장 체운
총무원장 법륜 총무부원장 선진
중앙비구니회장 대월 중앙비구니부회장 선덕
문화원장 체관 문화부원장 법원
총무부장 진호 문화부장 성해 교육부장 진허 재무부장 대월
사회부장 체법 사회국장 도각 사업부장 홍재 복지부장 보연
국제포교부장 보현 일본국제포교부장 체상 미국국제포교부장 도우
중앙종의회의장 체의 중앙종의회부의장 천호 지관
중앙종의회의원 체선 체명 체각 보선 송운 풍원 법민 경산 해송
경북종무원장 불선 경남종무원장 은혜 부산종무원장 대천 인천종무원장 보연
충청종무원장 체두 강원종무원장 대광 경기종무원장 성인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전화 02)853-0531~2 / 전송 02)853-0533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지은 정해 혜운 법해 지산**
교육원장 **보산** 호법원장 **보운** 문화원장 **오현** 포교원장 **종선**

중앙종의회
종회의장 **보경** 부의장 법우 부의장 보원 사무국장 보성

총무원
총무부장 성우 사회부장 보담 총무국장 보원 재무국장 보혜
교무부장 보우 재무부장 보광 교무국장 원정 사회국장 보정
규정부장 지명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정심 규정국장 보연
호법부장 지담

무량선무도 도총사 보인

총무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TEL 055)883-7771. 7790 FAX 055)883-7796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재단이사장 **현경원** 종 정 **현붕해** 총무원장 **엄지공**

명예이사장 붕해 장로의장 금봉 종회의장 화엄 호계원장 용암 총무부원장 혜천 서울교구 총무원직할
상임이사 혜광 장로부의장 명종 종회부의장 경원 교육원장 원각 총무부장 영명 부산교구 대우
이사 혜운 장로위원 수암 사무처장 도안 감사원장 법성 교육부장 법해 대전교구 도안
이사 지공 원경 종회의원 덕봉 포교원장 정수 재무부장 유정 인천교구 유정
이사 동암 청송 법재 용주 사서실장 혜천 교무부장 지언 울산교구 도현
이사 도기 송은 인오 법안 사회부장 원덕 대구교구 석담
이사 화엄 원각 지운 지언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규정부장 지성 강원동북 보해
이사 일명 혜운 법정 삼주 포교부장 혜공 강원서북 동청
이사 법광 진송 덕산 초심호계부장 일응 홍보부장 대호 경기남부 법해
이사 담화 고시위원장 청송 남혜 보광 호계초심위원 영명 경기북부 도혜
감사 혜천 법상 법경 용주 경남교구 정수
감사 혜원 대호 호암 도혜 경북교구 해동
청표 성각 지성 전남교구 혜성
동청 충남교구 영명
영우 충북교구 총무원직할
제주 경운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440-27 / 엄지빌딩 4층
전화 02)998-8161, 2 전송 02)998-8384

(재)한국불교법륜종

종 정 영산 정각

사 정 원 장 혜안

사정원부원장 성진 연수원장 지월 선관위원장 보명
사정위원 선종 교육원장 회광 법규위원장 원봉
도원 고시위원장 혜안

총무원장 고산 부원장 현오. 일정

총무부장 지월 규정부장 지엄 문사국장 수연
총무국장 도원 규정1국장 도일 교무부장 청혜
재무부장 지현 규정2국장 지원 교무국장 지광
재무국장 성초 문사부장 선문 사회부장 법일

사부대중 일동

총무원 :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67번지 **전화** 041)734-5371~2

한국대승불교 조계종

종 정 **김봉진** 사서실장 **성운고**
총무원장 **김부경**

종회의장 황관능 서울종무원장 석지성
원로원장 석무변 부산종무원장 성운고
대구종무원장 왕상인
포교원장 김대공 광주종무원장 김법장
기획원장 강법성 진주종무원장 윤화봉
사정원장 이경담 경주종무원장 지일장
동부경남종무원장 허 준
문화원장 한혜봉 서부경남종무원장 황약산
선교육원장 금봉 비구니총무 용 주

- **불교인 지식향상 경전해설강의(한문경전)** - 태극선원 051)722-7926 / 법성스님 011-856-8899
- **禪산림법회** - 육조단경, 생활좌선 강좌 매주 토,일 상시운영 · 초심자교리 행자모집
  미타산 백화사 금봉스님 055)574-0455

총본산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TEL 055)521-1236, 1286 / 사서국 051)852-3707 / FAX 051)853-5622

대한불교 총화종

종정 이동광

부종정 주인현 최혜산 총무원장 전남정

종회의장 최만재 호계원장 최도명 종회부의장 기혜성 재무부장 박지산
교육원장 조고담 문화원장 신도명 종회부의장 김화명 교무부장 강설오
감찰원장 이만오 선원장 박청해 총무부장 박현오 조직부장 이법오
포교원장 김형민 선관위원장 이정송 사회부장 윤대암 호법부장 신법광

서울(북)제1교구종무원장 이혜인 경기(남,동)제3교구종무원장 정법연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김만월
서울(북)제2교구종무원장 박현오 경기(서)제2교구종무원장 김혜암 경남중부교구종무원장 김문곡
서울(남)제1교구종무원장 김혜각 경기(서)제3교구종무원장 김해관 울산교구종무원장 백만우
서울(남)제2교구종무원장 엄자혜 강원제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부산교구종무원장 최만재
서울(남)제4교구종무원장 이내역 강원제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전북교구종무원장 권덕산
경기(북)제1교구종무원장 최도명 충청교구종무원장 신법광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김현산
경기(북)제2교구종무원장 유법경 대전교구종무원장 윤법전 제주교구종무원장 김청해
경기(북)제3교구종무원장 이법오 경북교구종무원장 손반공
경기(남,동)제1교구종무원장 기혜성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김만법

총무원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
홈페이지 : http://www.chonghwajong.org
전화 031)592-8891 / 팩스 031)592-8892

비영리공익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부종정 석정관 원로원 원장 석화담
종의회 의장 무송

호법원 원장 대원 교육원 원장 구진
포교원 원장 보광 연수원 원장 도명
총무원 원장 도법

● **서울 총무원**
총무부장 일두 교육부장 무초 문화부장 도심 연수부장 성운 포교부장 지광 비구니부장 혜광

※ **각부국장**
문화국장 시행 연수국장 지우 비구니국장 영암 의전국장 원명

● **포교사단**
서울포교국장 보현 부산포교국장 용정 대구포교국장 혜원 경기포교국장 자운

● **포교자문위원**
청암스님 성안스님 원각스님 법정스님 청강스님 진광스님

● **각시 도 종무원 원장**
경북종무원 원장 태룡 제주종무원 원장 의공
충남종무원 원장 수암 충북종무원 원장(대행) 선학
경남종무원 원장 원타 대구종무원 원장 성진
대전종무원 원장 혜각 경기종무원 원장 진공
사서실국장 성보 수행국장 보각
수행특보 성덕 성수

총무원 : 서울서대문구 홍제3동 266-76(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2)391-8583

경남법사단종무원

법사승단종무원 원장 도혜 대법사

종무원.총국장 혜명법사
종무 1국장 목암법사
수진법사
혜진법사

- **부산지부종무소**
  지국장 혜성법사
  부산지부 051)865-7975
- **충남지부종무소**
  지국장 성각법사
  충남지부 041)547-1442
- **강원지부종무소**
  지국장 덕경법사
  강원지부 033)553-6653
- **포교사단**
  태성법사 법정법사 혜경법사
  혜연법사 개안법사 자은법사
  혜정법사 덕운법사 혜담법사
  법성법사 혜운법사 해진법사

사무실 : 경남 마산시 오동동 55-36(2층)
대표전화 055)241-0253

간절히 원하면 기도하세요



기도 틱낫한 지음 | 김은희 옮김 | 명진출판 | 9000원



틱낫한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마지막 희망이다. 그래서 기도는 내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믿음은 의문으로 바뀌고 대상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게 된다.

삶도 마찬가지이다. 삶에 대한 의문부호들이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행복을 놓치게 된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틱낫한 스님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까?.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 출간된 화제작 <기도>에는 틱낫한 스님이 기도의 의미를 성찰하며 우리 삶이 고통받고, 우리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와 종교와 인간, 깨어있는 삶에 대한 아름다운 성찰로 가득하다.



책을 펴자마자 틱낫한 스님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한다면 주저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당신 자신이 우주 안의 모든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하라"고 말한다.

불교도뿐 아니라 가톨릭 또는 개신교 신자를 만났을 때도 항상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해온 스님은 "기도는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주가 인간에게 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누구나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왔다"며 "형태와 표현은 다르지만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무언가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는데 있다"고 밝힌다.

그렇다면 기도의 효과는? 스님은 이제까지 미소만 지을 뿐 이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을 한적이 없다.

스님은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대답을 이 책에 담았다.

가장 궁금해하는 기도의 효과에 대해 스님은 "과거의 결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켜주고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한다. 즉 기도로 새로운 에너지를 내면 그 에너지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장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스님은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이끌고, 좋은 변화를 불러온다. 기도는 그 과정에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주는 선순환의 도구"라고 설명한다.

스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전화기를 사용할 때 전기와 전화선이 필요하듯 기도를 할 때도 믿음과 자비등 사랑의 에너지가 전력구실을 한다는 것. 그러한 전력없이 기도를 한다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전화기에 대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스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지혜로워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것 저것 해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과 변화 불러와
"기도는 그 과정에서
좋은 변화 이끄는 선순환의 도구"

주기를 바란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에 대해 스님의 대답은 단호하다.

스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자체만의 의미를 지니고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없다. 하나의 사건은 수많은 부분들로 이뤄져 있으며, 또한 그와 반대되는 요소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님은 "진정한 기도란 상대성을 넘어선, 더 높은 곳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이기심을 담은 어리석음이나 탐욕의 표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틱낫한 스님은 기도의 의미를 성찰하기 위해 불교안에서만 지혜를 구하지 않고 가톨릭과 개신교를 넘나든다. 또 부록으로 틱낫한 스님의 주기도문 해설을 실어 불교와 기독교가 외형적으로는 매우 다르게 보이나 가르침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어린이날, 불교출판문화협회 추천 어린이 불서

5월 5일은 부처님오신날이자 어린이날이다. 우연이지만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이 어린이날과 겹쳐 있다. 한국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가 어린이날 읽을 만한 6권의 불서를 추천했다. 어린이날 다른 선물보다도 어린이들에게 불서 한권을 선물한다면 어떨까. 잘 고른 불서 한 권이 새싹 불자들의 종교관과 인생관을 좌우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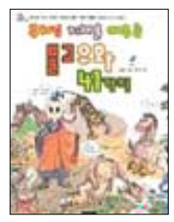
사람답게 살려면 나눠야지



▶ **법정 스님이 들려주는 참 좋은 이야기**(법정 스님 지음, 동쪽나라)= <무소유>에서 보여준 법정 스님의 따뜻한 이야기를 이제 어린이들도 함께 느껴볼 수 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짧은 이야기들이 깔끔한 그림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누어 가질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스님은 "이웃은 내 분신과 마찬가지"라며 "늘 이웃을 서로 아끼고 나누고 위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는 사랑과 평화, 나눔의 정신을 일깨워 주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7500원

'백유경' 서 가려뽑은 불교우화



▶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가지**(정수일 글, 운주사)= <백유경>에서 가려뽑은 이야기들을 어린이와 어른 모두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각색한 만화. <백유경>은 여러 경전 가운데서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수행생활이나 일상생활 속에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묶어 엮은 경전이다.

내용은 일종의 우화 모음집인 만큼 주로 희극적이거나 해학적인 내용의 설화와 비유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교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하는 경전이자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8500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소중하단다



▶ **옛날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김종상 글, 파랑새어린이)= 옛날 스님들은 생명을 귀중히 여겨 새 그리고 벌레와 나눠 먹으려 씨앗을 세 개씩 심고, 깨진 바가지도 나무뿌리로 잇고, 옷깃에 달라붙은 풀씨까지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스님의 남다르지 않은 하루 일과를 찬찬한 시선으로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켜지고 어스름한 저녁나절의 암자의 모습이 보이고, 처마 밑의 고즈넉한 풍경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 책은 스님들이 암송하는 짧은 사구로 된 게송중에서 고르고 가려내 뽑은 좋은 구절들을 담은 것이다. 6160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할까



▶ **꼬마 돌부처**(하오 광차이 글, 예림당)= 꼬마 돌부처는 더위에 지친 사람에게는 입김을 불어 시원하게 해주고, 누군가 산 길에서 콩 넘어지려고 하면 다치지 않게 붙잡아 주기도 한다. 꼬마 돌부처의 이야기는 살아가는 데 지혜로운 이야기로 가득하다.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행복할까?' '무엇을 하면 기쁜 일이 될까?'등 몸에 익혀야 할 곧은 심성과 올바른 도덕심에 대해 자연스레 생각하게 해준다.

또 꼬마 부처님은 '남을 돕는 일이 커다란 행복'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지혜와 교훈을 일깨워준다. 5600원

명찰에 얽힌 재미있는 옛이야기



▶ **절마다 이야기 구구절절**(이슬기 지음, 해와 나무)= 이 책은 보문사, 신륵사, 상언사, 낙산사, 부석사, 불국사, 관음사, 내소사 등 우리 나라의 유명한 절 여덟 개를 골라 그 절에 전해 오는 재미있는 옛이야기를 담았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유서 깊은 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한 뒤, 절에 얽힌 재미있는 옛이야기를 읽게 된다.

또한 이야기를 읽은 후에는 절에 남아 있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와 절이 위치한 고장의 또 다른 문화 유적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7200원

만화로 보는 세계 최초 동화집



▶ **석가모니 지혜동화**(허순봉 글, 은하수미디어)= <자카타(본생경)>라고 하는 경전은 547편의 동화를 담고 있는 세계 최초의 동화집이다. 이 동화집은 기원전 4세기 경에 만들어져 세계 여러나라로 전해지면서 '이솝이야기' '아라비안 나이트' 등과 우리나라 '토끼전', '두껍전', '고려장이야기'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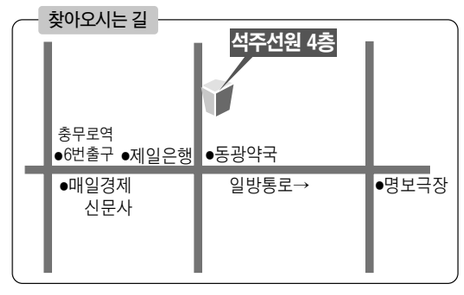
이 책은 자카타와 다른 경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것이다. 어린이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칼라 만화로 엮어 재미와 지혜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800원



"달마도는 이런 것입니다"

매매하지 않고 보시로 일관한 석주 달마도를 서울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KBS 뉴스광장 - 250m 달마도 완성
MBC 금요일의 선택 - APEC 성공기원 달마도
SBS 나이트 라인 - 백살 사는법과 함께하는 달마도
스포츠 조선 - '달마야 광화문 가자' (황수철 기자)
동아일보 - 야노히데끼 〈가보로 보관〉 (이호갑 기자)
중앙일보 - 대입수험생 용기와 희망을 (김방현 기자)
한겨레신문 - 수험생합격 기원 무병장수 기원 (김광수 기자)
한국일보 - 달마대사의 기운으로 고통으로부터 해방 (이동렬 기자)



석주 달마선원 개원법회 2006년 5월 4일 (음, 4월7일) / 달마도 전수생(스님) 약간명 문의 바랍니다

석주 달마선원 | 서울 중구 충무로3가 30-5 전화 02)2263-3035 / 011-420-7173

전통 선사상 완벽하게 연출… '깊은 믿음' 강조

특강-한암대종사의 선사상

무여 스님(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은 4월21일 열린 '한암 대종사의 선사상' 강의에서 '화두 참구에는 '적당히'와 '알맞게'라는 말에 온갖 지혜가 함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암 대종사님은 전통 선사상을 완벽하게 연출했다." 4월 21일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 여섯 번째 주제인 '한암 대종사의 선사상' 강의에 나선 무여 스님(봉화 축서사 선원장)은 대종사의 선사상을 이렇게 요약하며 "여러 선원의 조실로 납자를 제접하고, 조계종 종정으로 종단 내외의 존경을 받다가 좌탈입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여 스님은 또 "조사선 사상을 완벽하게 계승했다"며 "대종사님께서는 본래성불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무여 스님은 이 외에도 "선교를 겸수했다"며 "방선의 여가를 이용해 선어록과 소의경전 전반을 특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안거 중에 〈금강경〉을 독송하게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무여 스님은 "따라서 대종사의 선사상은 오늘 한국의 선풍토(禪風土)와 같은 곳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무여 스님의 강의를 요약한 것이다.

자신이 부처임을 철저히 믿어라

오늘 강의는 승가오칙(僧伽五則)과 선원규례(禪院規例, 선문답(禪問答) 21, 참선곡, 화두 드는 법 등을 중심으로 실참실구(實參實究)면에서 대종사님의 선사상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참선을 하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대종사님은 선문답에서 "맨 처음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신의 마음이 법(法)이고 도(道)인 줄 알고, 구경에도 다름없음을 철저하게 믿어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만일 이와 같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비록 만겁 동안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진정한 대도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진실한 참구가 됩니까? 선문답 등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발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깊은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화두를 참구하되 다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그 가운데 오묘함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면 집착에 가깝고 망각하면 무명에 떨어지게 됩니다.

천 갈래 만 갈래 의심덩어리는 다만 하나의 의심으로 고양이가 쥐를 잡듯, 암탉이 알을 품듯, 배고플 때 음식을 생각하고 목마를 때 물을 생각하듯, 사량(思量)과 지해(知解)를 모두 놓아버리어(念起念滅 無氣忍) 한 포기의 풀도 돋아나지 않고 한 티끌도 두지 않고서 다만 범정(凡情)을 다하고 특별히 성해(聖解)도 없이 성성영영(惺惺靈靈)하고 면밀하고 면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두 참구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사량분별(思量分別)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구절씩 설명하겠습니다.

발심은 발보리심(發菩提心)의 준말입니다. 보리를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확고하고 철저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입니다.

흔히 화두가 안 된다, 참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발심자라면 어찌 화두 안 되는 것을 고심할 것이며, 어찌 깨치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며, 어찌 생사문제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발심을 하려면 인생 무상(無常)을 깊게 느껴야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나기가 어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원력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앉은 자리를 바로 보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이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 자리는 한 생각 돌려서 발심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발심하지 않고 자기를 찾으려는 것은 스스로 눈을 가리고 무엇을 찾으려는 것과 같고, 손에 금덩어리를 쥐고 금광맥을 찾으려고 헤매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암 스님께서는 "원력을 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력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기대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참선자는 꿈과 희망이 충천해야 하고, 자기 목표를 향해 한결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경책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모든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도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만 불법의 대해(大海)를 건널 수 있습니다. 대신심(大信心)은 대의심(大疑心), 대분심(大忿心)과 더불어 화두 참구의 삼대 요체로 보기도 합니다. 참선자는 불성(佛性), 불법(佛法), 화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화두는 어떻게 참구할 것인가? 대종사님께서는 '화두 드는 법'에서 화두 참구 요령을 간단명료하게 함축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그 가운데 오묘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화두를 급하고 강하게 들면 마음이 불안하고, 들뜨고, 동요가 일어나기 쉽고, 집중이 잘 안되고, 진실한 의심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화두 참구에는 '적당히'와 '알맞게'라는 말이 아주 긴요합니다. '적당히'와 '알맞게'라는 말에 온갖 지혜가 함축돼 있습니다.

화두 참구는 부처님 말씀처럼 거문고줄을 타듯이 해야 합니다. 거문고 소리를 곱게 하려면 거문고줄을 되게 조이지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며 적당히 맞추어야 합니다. 뜯는 것도 아주 알맞게 뜯어야 묘음(妙音)이 납니다.

그렇듯이 화두 참구도 알맞게 적당히 의심을 일으켜야 진의가 돈발하기 쉽고 선정에 들기 쉽습니다.

또 대종사님께서는 화두 참구는 "부지런히 하면 집착에 가깝고, 망각하면 무명(無明)에 떨어지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화두는 부지런히 하되 집착은 말아야 하고, 그러면서 놓치지 않고 성성(惺惺)하게 들어야 합니다. 화두를 망각하면 무명에 떨어져 어두워집니다.

화두의 생명은 의정(疑情)입니다. 화두는 삼세제불과 역대 조사스님의 진수(眞髓)가 드러난 법문 중의 법문이지만, 참선자에게는 오직 의정을 일으켜 타파하는 데 본뜻이 있습니다.

의정을 일으키되 의정이 크면 크게 깨칠 수 있고, 의심이 없으면 깨칠 수 없습니다.

화두 들땐 다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또 스님께서는 "고양이가 쥐 잡듯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하라고 법문했습니다. 화두 참구는 쥐를 잡으려는 고양이처럼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쥐 구멍만 노려보듯이, 마음과 눈을 화두 한 곳에 매어두고 또렷또렷하게, 생기 있는 정신으로 공부를 지어가야 하고, 살아있는 의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화두는 단기간에 깨치겠다는 생각도 말고, 급히 해마치겠다는 생각도 말고, 밝이 알을 품듯이 한결같이 꾸준히 들어가면 시절인연이 도래해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나듯 타파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화두 드는 법에서 "사량과 지해를 모두 놓아버리어, 한 치의 풀포기도 돋아나지 않고, 한 티끌도 두지 않고서"라고 했습니다. 사량이란 생각하는 것, 지해란 알음알이를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치고 나서 제 일성(一聲)으로 "아! 기특하구나, 일체중생이 부처님과 꼭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었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본래는 부처, 본래 이미 성불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가 되지 못하는가? 바로 번뇌망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번뇌망상과 번뇌망상으로 일어나는 알음알이를 모두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지식으로 중무장합니다. 이 지식도 마음공부에서는 번뇌망상입니다. 인간이 지식 덕분에 편리하고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지식 때문에 점점 왜소해지고 더 불행해지고 괴로워지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현대인일수록 더 수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수행은 해야 되는데 비우지 못하니 부득이 방편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화두 참선이요, 요즘 유행하는 수행법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경계할 것이 알음알이입니다. 요즘 선에 관한 책들이 범람해 실참실구는 안하고 알음알이로 해 마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안은 깨쳐야지, 지식이나 이론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번뇌망상과 알음알이 놓아라

"특별히 성해도 없이 성성영영하고 면밀하고 면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해도 없이"란 특별한 마음도 없이, 어떤 마음도 갖지 않고란 뜻입니다. 화두는 성성영영하게, 즉 분명하게 또렷또렷하게 들어야 합니다.

성성영영은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견처(見處) 경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쥐 잡듯이' 하라는 것이 바로 성성영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면밀하고 면밀해야' 합니다. 작가가 작품을 만들 듯이, 귀중한 금속으로 귀중품을 만들 듯이 빈틈없이, 짬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극하게 간절하게 하면 어찌 공부가 안 될 것이며, 어찌 생사 문제를 걱정할 것이며, 어찌 견성못할까 걱정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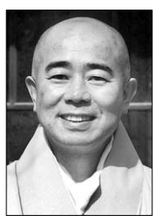
평창 월정사/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한암 스님에 대한 관심 확산 … 내년엔 좀 더 밀도있게"

interview

수행학림 회향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대중적 관심은 널리 확산됐지만 실제 참여한 대중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여한 사람들은 매우 의미 있고 좋은 수행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세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이자 조계종 초대 종정이었던 한암 스님을 배우는 6주간의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을 회향한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사진)은 이번 행사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

프로그램 내용은 좋았지만 한암 스님 사상에 대한 강의와 〈화엄경〉을 각 품별로 나눠 법문한 화엄산림, 철야정진 등이 포함된 실참 프로그램 등 2박 3일간의 일정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다소 버겁게 느껴진 것 같다고.

"내년 3기 수행학림부터는 전체 일정을 1박 2일로 줄이는 대신 내용을 좀 더 밀도있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스님은 한암 스님에 대한 강의나 화엄산림도 현대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조명할 뿐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할 계획이다.

"한암-탄허 스님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오대산의 가풍을 한국불교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정념 스님은 "화엄은 원융적 무애사상으로 미래사회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 주 사
주 지 정호
부주지 성직
총무국장 영명
기획국장 성호
교무국장 성무
재무국장 응진
포교국장 덕본
호법국장 원오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TEL 031)234-0040
FAX 031)2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 주 사
주 지 도공
부주지 무상
총무국장 원장
교무국장 장원
사회국장 도연
포교국장 각우
사부대중일동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사무실 043)543-3615, 8655,
원주실 043)543-4755
팩 스 043)5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銀 海 寺
주 지 중화 법타
부주지 선광
연수원장 혜해
총 무 하종
기 획 보명
교 무 본명
재 무 연암
호 법 선조
사 회 적연
종립 은해사승가대학원
원장 요산지안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054)335-3318~9 팩스(054)335-0293
홈페이지 www.eunha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 운 사
회주 현봉 근일
주지 송암 혜승
총무 호성
기획 지현
교무 성공
재무 노현
사회 현봉
포교 해각
호법 정우
의성노인복지회관 관장 탄하
영주장애인복지관 관장 도륜
사부대중일동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
TEL 054)833-2324
www.gounsa.net

화엄산림-제6강 (39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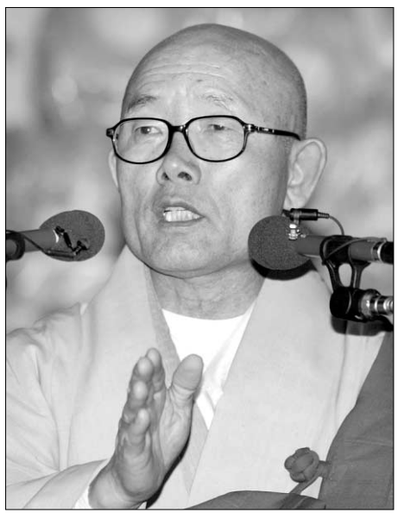
혜남 스님(통도사 전계사)

"우리도 10종 대원 세우고 실천해야"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은 4월 22일 열린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중 '화엄산림'에서 〈화엄경〉 39품을 보현보살의 10종 대원(大願)을 중심으로 법문했다. 혜남 스님은 〈화엄경〉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눈 뒤 신해행증(信解行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공양은 옷 향 등 과일 공양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경전에 설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참선수행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근기에 따라서 염불할 사람은 염불하고, 주력할 사람은 주력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훌륭한 수행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혜남 스님의 법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보현보살의 10종 대원

①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기
② 부처님 찬탄하기
③ 널리 공양하기
④ 업장 참회하기
⑤ 남의 공덕 기뻐하기
⑥ 설법 청하기
⑦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길 청하기
⑧ 항상 부처님따라 배우기
⑨ 중생을 수순하기
⑩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하기



4월 22일 열린 '화엄산림'에서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은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을 중심으로 법문하며 "우리도 뜻을 세우고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화엄경을 전체 네 단락으로 나누면 신해행증(信解行證)입니다. 신(信)이란 바른 믿음, 믿음이야 말로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법, 스님을 믿는다. 귀의한다고 그럽니다. 이 삼귀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이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안다면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만 그럴듯하면 안 됩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바로 믿고 알고 실천하면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화엄경〉의 주인공은 문수와 보현입니다. 문수는 지혜고 보현은 실천입니다. 이 문수와 보현을 합치면 바로 부처님입니다. 〈화엄경〉을 설하는 부처님은 39품 가운데 2품만 하고 다른 것은 다 보살이 설합니다. 그 대표보살이 보현과 문수입니다. 입법계품의 주인공은 문수보살입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정말 보배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발하는 것,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보배입니다.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를 보시하더라도 경전 한 구절을 수지독송한 것만 못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때문에 지혜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재는 재물을 다 버리고 구도의 행을 갔습니다.

출가에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같이 출가하는 것이 진짜 출가입니다.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출가하지 못하면 가짜 스님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은 몸은 출가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출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스님 이상으로 존경받는 인도의 유마거사, 승만부인, 중국 방거사 등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몸도 마음도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속세에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륵부처님도 53선지식에 들어갑니다. 미륵부처님이 선재를 만나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선재동자가 미륵누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륵누각을 구경하는 사이 신비한 종교체험을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법문 들은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발심시킨 문수보살에게 다시 가라고 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초등학교부터 다시 갔다 오라는 격입니다. 그러나 선재동자는 낙담하지 않고 다시 문수보살을 친견하려고 하니 그때 문수보살이 감동해 좋은 가르침을 주고 마지막으로 소개한 사람이 보현보살입니다. 이 보현보살이 〈화엄경〉 법회 마지막 법문을 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천행입니다. 보현행을 실천해야 부처님의 지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경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예배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래출현품은 여래가 세상에 출현한 것입니다. 이 여래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비유컨대 한 티끌을 파괴시켜 그 속에서 삼천대천세계 경전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의 허망한 한 생각 그것을 깨트리면 그 속에 여래의 무량한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중생의 허망한 생각을 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여래입니다. 여래를 칭찬하라. 부처님을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의 좋은 점만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널리 공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공양은 옷 향 등 과일 공양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경전에 설한 그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경전에 말씀하기를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를 공양올리더라도 경전 한 구절을 제대로 읽고 알고 수행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또 목숨을 바치더라도 미진수겁을 지날 때까지 경전 사구게 하나를 수지 독송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참선수행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근기에 따라서 참선할 사람은 참선하고, 염불할 사람은 염불하고, 주력할 사람은 주력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경을 읽는 것도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네 번째는 업장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을 때 참회하면 새롭게 됩니다. 사람 몸을 받은 사람이 착한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수희공덕(隨喜功德)입니다. 남 잘되는 것 보고 덩달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덕 지은 사람에 버금가는 공덕이 됩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아픈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법륜(法輪) 굴리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항시 법문 들을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법문들을 때는 마음을 텅 비우고 초심을 가져야 합니다. 법문 들을 때는 백천 갈래의 물길이 태양빛을 그대로 물속에 비추듯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들으면 어려운 법문도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또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부처님, 보살, 선지식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스승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한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대로 행동하게끔 발원해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굴러가지만 본래 불성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사나워도 바다 밑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마음이 경계를 따라 흘러가더라도 본래 마음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 본성을 알게 되면 기뻐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게 됩니다.

고통 받는 중생들을 보고 연민심을 일으켜 '중생을 건져야 한다'는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보리심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중생으로 인해서 연민심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보리심 일으키고, 보리심으로 인해 무상정각을 이룹니다.

사홍서원만은 항상 지켜야 합니다. 성불할 때까지 변함없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과거 모든 부처님도 사홍서원에 의해서 성불했고 미래의 부처님들도 이를 통해 성불할 것입니다. 현재 수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는 것을 회향이라고 하는데 본래 회향의 뜻은 지금까지 하던 것을 딴 곳으로 방향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첫째 중생회향입니다. 지금까지 나 혼자만 잘되려고 했지만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리회향입니다. 지금까지는 욕심 부리기 위해 했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한 쪽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회향과 발원은 비슷한 말입니다. 불국토를 발원하는 것이나 개인에 집착하던 것을 대중의 지혜쪽으로 회향하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선재동자와 같이 열 가지 모두 원력을 세우고 실천해 봅시다.

평창 월정사/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수행학림 회향 세미나 요약

"선사상의 핵심 '단박에 깨달아 본성 봐라'"

4월 24일 월정사에서 열린 '한암대종사의 사상과 그 영향' 세미나에서 발표에 나선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선사의 선지는 '단박에 깨달아 본성 보기(頓悟見性)', 선풍은 '항상 닦아도 닦지 않는 것처럼 닦기(無念淨行)'에 있다"고 강조했다.

종범 스님은 이어 〈한암일발록(漢巖一鉢錄)〉에 수록된 법어 '일진화(一塵話)'의 구절을 예로 들며, "한암 선사는 홀연히 깨달으면 본래 생긴 자신 부처의 천진한 모습이 절묘하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천만가지 생각은 용광로의 한 점 눈발같이 사라지고 광대한 지혜의 광명은 곳에 따라 나타난다"며 "선사는 달마남종선의 종지인 돈오견성을 선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선과 염불, 둘 아님 강조
종정 위상 내외에 확실히 세워

논평에 나선 성본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도 "돈오견성의 선지를 펼쳤다는 점에서 한암 선사상의 근본이 된다"며 "번뇌 망념의 중생심을 자각, 불심으로 전환해 무애자재한 깨달음의 삶을 보살도의 원력과 이타행의 삶으로 회향했다"고 말했다.

한암 선사의 참선과 염불관에 대한 주제도 발표됐다. '〈바가바드기타〉와 관련해서 본 한암의 염불참선무이론'을 발제한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한암 선사는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믿고 깨닫자는 것이 선의 핵심이라 했다"며 "선사의 이 논리를 우리의 환경에 확대시켜 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곧바로 극락정토가 되기에 참선과 염불이 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한암과 조계종단'을 주제로 발표한 김광식 교수(부천대)는 "일제 말과 패망까지 종정을 4차례 역임한 한암 스님은 근대불교와 현대불교의 가교 역할을 한 선사였다"며 "근 · 현대 불교사 및 조계종단의 역사와 흐름을 검토할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스님"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자로 나선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이와 관련 "1929년 조선불교 선교양종 교정 전형위원회가 선출한 7인의 '공동 교정'이 과연 현재의 '1인 종정'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며 "오히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으로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고영섭 교수는 이어 "종정 역임 횟수와 상관없이 한암 스님은 불교집안을 넘어 종정 위상의 자리매김을 분명하게 한 선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一生敗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일생패궐〉은 한암 선사가 24세부터 37세까지의 구도과정과 생애 선사상, 4차례 걸친 오도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솔직 담백한 자전적 구도기"라며 "한암의 선사상 고찰에 귀중한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패궐'이란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패궐'을 '실패'의 이미지로 보아 겸양의 표현으로 볼 것인지 '수행자의 가풍'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철우 기자

봉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축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淞潭 지음

대한불교조계종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을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로다"(감탄하시였다)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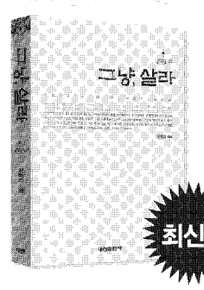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봄이 그냥 오듯 꽃도 그냥 핀다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야.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큰스님 44인이 들려주는 나를 깨우는 소리

법정 무비 성수 혜국 우룡 일오 원담 명정 인환 혜성 지종 대효 고산 지안 금산 대원 혜정 범룡 각성 정광 암도 지유 지관 수안 현산 혜남 명성 월운 고우 지웅 정천 묘엄 성타 묵산 월주 지환 천운 상룰 혜산 진철 혜거 정무 천룡 보성

장영섭 기자가 발로 뛰며 쓴 글은 불자들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 문외한이 읽어보아도 능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이 글을 통해 불교의 요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평이한 장기자의 글을 읽다보면 어느새 불교의 전문가가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특히 생활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고뇌와 번뇌를 날려버릴 지혜가 구절마다 들어 있어 모든 분들에게 권합니다.
-원택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정토스님 시봉이야기 저자)



그냥, 살라

장영섭 지음/336쪽/15,000원

최신간

www.ssdp.co.kr TEL:(02)3443-7233~4 FAX:(02)3443-2683 대산출판사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광종
총본산 일광사

주 지 보 혜 부주지 혜 명 총무 원 호

신도회장	김 청정심(김옥빈)	자비회 회장	고 무량화(고우정)
부 회 장	김 대정혜(김영애)	부 회 장	현 금강심(현란순)
교 무	김 일진심(김영자)	관음회회장	박 보현심(박인순)
재 무	김정필	부 회 장	박 반야심(박미례)
기 획	박수일	봉사부장	어 자행심(어윤희)
포 교	김 법보화(김영희)	일광회회장	김 일진심(김영자)
총 무	원호스님	일광회총무	조 수진성(조희분)

서울시 중랑구 망우 2동 468-18호
총무원 02)2207-7198 / 종무소 02)438-3088 FAX 02)433-1666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
사단법인 해 동 자 비 원

원로원원장 석봉
원로원위원 백담. 승전. 법성. 법준. 정화. 원심

종 정 혜봉 종정사서실장 도은

총무원장 송산 중앙사정원장 청운 중앙포교원장 정화
부원장 대원 도현 부원장 수산 부원장 보담
총무겸사회부장 옥용 사정부장 혜공 국내포교부장 진아
재무부장 덕광 국제포교부장 법인
교무부장 무연

중앙교육원장 송현 중앙포교사 수월

중앙종회의장 보장 국제교화연구원장 공덕
부의장 수원
중앙종회의원 청산 삼자 연각 수월 원광 혜봉 지선 금복

중앙복지봉사원장 백담
복지봉사부장 현법

서울교구종무원장 명기 경기교구종무원장 운담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남교구종무원장 혜광
대구교구종무원장 대원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춘열
경북교구종무원장 혜봉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392-5
TEL 031)262-1577. 263-1353 FAX 031)265-8386

中國臨濟宗 七塔法派 韓國佛教 臨濟禪學院

宗 丈 慧泰 竹山
宗務總理 釋 摩 定
理事長 釋 解 愚
副理事長 釋 解 釋
事務總長 釋 摩 祖

中華民國 臺北 臨濟宗 光德寺 方丈 釋 淨心
中國佛教 臨濟宗 本山 七塔寺 方丈 釋 可祥

臨濟宗 七塔法派 國際 法子聯誼會	會長	釋 心	茂
臨濟宗 七塔法派 韓國 法子聯誼會	會長	釋 解	愚
臨濟宗 七塔法派 싱가폴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寂
臨濟宗 七塔法派 인도네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行
臨濟宗 七塔法派 홍콩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因
臨濟宗 七塔法派 말레이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湧
臨濟宗 七塔法派 인디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生
臨濟宗 七塔法派 자카르타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願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120-7
전화 02)496-3951~3 팩스 496-3950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진경 대종사 부종정 각 암 대종사

원로원장 청 산 대종사
원로의원 성봉 호암 범아 효담 무량 무안 혜일 향운 정관

총무원장	능인	사정원장	귀천	총무부장	도진	호법부장	무성
중앙종회의장	무원	포교원장	정도	재무부장	도안	규정부장	혜명
중앙선원장	혜일	중앙연수원장	월봉	교육부장	혜조	문화부장	도성
호계원장	자광	교육원장	성전	사회부장	혜송	사서실장	덕산

시·도별 교구종무원

서울교구 종무원	무성	경기교구 종무원	혜오	경남교구 종무원	월암	경북교구 종무원	도천
강원교구 종무원	영암	충북교구 종무원	성전	울산교구 종무원	원당	부산교구 종무원	혜천
충남교구 종무원	해광	대구교구 종무원	향운	전북교구 종무원	성봉	제주교구 종무원	현암

※ 전국 사암등록 및 행자모집 하고 있습니다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488번지 **황룡사** / 전화 054)972-3174 팩스 054)973-4722

大韓佛教 佛入宗

宗正 鏡照

總務院長 鏡岩
護法院長 萬昊
布敎院長 惠鏡
宗會議長 石庵
釜山 慶南 宗務院長 法輪

總務部長 惠輪 監察部長 智學
社會部長 蕙觀 修敎部長 知雲
譯經部長 慧光 組織部長 相雲
護法部長 法眞 布敎部長 印修

●總本山 : 忠北 報恩郡 三升面 元南里 389 華光寺
TEL 043)542-6664 / FAX 043)543-8887
●總務院 : 忠北 堤川市 靑田洞 86-4 松華寺
TEL 043)653-4800.0999 / FAX 043)642-6660

세계불교 일붕법왕종

사부대중 일동

총본산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원흥리 494-1 원흥사
TEL 031)585-2090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마음! 부처님마음!

봉 축

부처님 탄신을 봉축합니다
2천만 불자가정에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회암

■고 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조직위원장	대선불교 조계종 종회의장 산수
■고 문	대한불교 현수종 총무원장 무송	■복지위원장	대한불교 선화종 총무원장 법천
■고 문	대한불교 불이종 종회의장 예원	■의전위원장	대한불교 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총 재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사정위원장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종회의장 구화
■부 총 재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	■호법위원장	한국불교 원각종 종회의장 덕진
■부 총 재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장 혜안	■재무위원장	대한불교 천지종 총무원장 대명
■부 회 장	한국불교 임제선학원 종무총리 마정	■고시위원장	대선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융호
■부 회 장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운영위원장	대한불교 해동종 종회의장 혜공
■부 회 장	대한불교수미산문 조동정종 총무원장 정림	■홍보위원장	세계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정산
■부 회 장	대한불교 불이종 총무원장 학운	■선관위원장	대승불교 연화종 총무원장 혜공
■감사위원장	세계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지암	■간사위원장	세계불교 법사종 종회의장 지고
■종무위원장	한국불교 원각종 총무원장 법인	■법규위원장	대한불교 묘법 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포교위원장	국제불교 선덕종 총무원장 법성	■외교위원장	해동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문화위원장	세계불교 법사종 총무원장 향운	■감 사	대한불교 현수종 종회의장 대광

사무총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승가종 총무원장 법봉

본 회 : 서울 광진구 광장동 110 학산건물 **전화** 02)3436-0797 /팩스 02)2201-0796
행정사무처 :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 667-1 **전화** 051)335-2210 /팩스051)331-6210

한국불교 정토종

종 정 덕흥사 **지 산**
총무원장 연화사 **회 암**

부 원 장	광 음 사	**성 일**	포교부장 금강문포교원	**현 공**	법사부단장 신 도 암 **도 암**
종회의장	지 암 사	**법 보**	조직부장	보 광 사 **성 은**	법사부단장 세 광 암 **대 암**
원로원장	일승정사	**혜 원**	호법부장	천 도 사 **혜 안**	법사단총무 천 음 사 **담 화**
원로부원장	청 룡 사	**지 연**	교육부장	성 현 사 **원 행**	법사단총무 삼 정 사 **현 정**
감찰사정원장	여 래 사	**무 여**	국제포교부장	만 수 사 **효 현**	종회의원 용 담 사 **용 담**
선 원 장	동국선원	**육 허**	서울 교구장	보 광 사 **성 은**	종회의원 법 주 사 **제 묵**
호법원장	광 덕 사	**보 덕**	인천 교구장	구 월 사 **불 광**	종회의원 보 원 사 **법 성**
선관위원장	천 황 사	**혜 산**	충남 교구장	금 이 암 **향 림**	종회의원 상봉정사 **능 인**
총무부장	용 운 사	**봉 운**	동해 교구장	경 불 사 **석 범**	종회의원 향 원 사 **진 묵**
교무부장	도 선 사	**자 은**	전남 교구장	용 화 사 **정 조**	종회의원 도 광 사 **법 륜**
사회부장	원효정사	**혜 심**	감찰국장	천 왕 사 **석 산**	종회의원 경 덕 사 **경 덕**
규정부장	덕 수 사	**설 정**	교구포교국장	경 덕 사 **경 덕**	종회의원 봉 황 사 **혜 은**
재무부장	여 래 사	**성 담**	교구포교국장	구인정사 **도 경**	
감찰부장	금 이 암	**향 림**	법사단장	대 원 사 **대 원**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25-10 석목 법조빌딩 701호 / TEL 032)543-2693-5

봉 축

"부처님 오신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세"

대한불교 三寶 조계종

종 정 석가산 대종사
부종정 석승훈 대선사
원로위원 일동
총무원장 석법장 종사
중앙위원 일동
종회의원 일동
종무위원 일동
각 교구원장 전종도 일동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번지
대한불교 三寶 조계종 총무원 055)338-0089
사회복지 불교법인 룸비니동산 055)338-0050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종 정 서허 석법수
총 무 원 장 박일초
대본산연화사주지 석문수

산 하 단 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해국악관현악단

http:www.samgyeoijong.org 한글인터넷: 삼계종
http:www.bumpae.org 한글인터넷: 범패

총무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12-4호
TEL 032) 529-5191 FAX 032) 529-6709 **문화원** TEL 032) 529-6708
대본산 연화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1리 산 9-2호
TEL 031) 988-3531 FAX 031) 988-1876

(사) 대한불교 금강종 입종 안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승려. 법사. 포교사. 재가 불자로서 정법을 수호하며 본 종단 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애종심(愛宗心)을 갖고 계신 분의 입종을 환영 합니다.

1.입종자격 : 사찰을 운영하시는 승려. 법사. 포교사. 불교 발전을 위해서 포교 활동을 하실 분
2.구비서류 : 사진 3매(반명함판) 주민등록등본 1통, 입종원서1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입종 문의처

- 총본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94-4(일성사) 전 화 : 042)935-2279. 524-2149 총무부장 (학성스님) 016-422-3232
-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산294 (죽림사) 전 화 : 042)274-2578.9
- 총무원장 사 서 실 장 (학산스님) 011-9338-7477 총무원장 특별 보좌관 (법현총장) 010-4269-3113

(사) 대한불교 금강종 총무원장 법산 영봉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조계종
보 륜 사
주 지 상 인
신도회장 대광명
사부대중 일동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297
전화 043)732-6545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회 주 미룡당 월탄
주 지 각의
사부대중 일동
충북 불교대학 부학장 원적
교학처 직원일동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216-1
전화 043)274-2159 팩스 043)273-4059

믿음과 신뢰의 40년 전통
보문불교서점
사장 정 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27-7(홍명상가 제일은행뒤)
전화 042)253-6446 011-403-0161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현 진
사부대중일동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산14-1
전화 043)256-6254, 257-0565

한국불교 재단법인 선학원
충북교구본사
풍 주 선 원
주지 범 추
원주 덕 일
사부대중일동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산14-1
전화 043)256-6254, 257-0565

대한불교조계종
구 암 사
주지 북 천
사부대중일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93-1 계룡산
전화 042)822-2377

수맥차단 달마
김완규 화백
■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89-38
전화 042)623-6064, 011-406-9007

한국불교태고종
정 심 사
주지 원 해
사부대중일동
■ 충북 충주시 단월동 51
전화 043)848-2072

대한불교조계종
혜 은 사
주지 덕 산
사부대중일동
■ 충북 청원군 남일면 송암리377
전화 043)297-5115, 297-7483

대한불교천태종
명 장 사
주지 화 산
사부대중일동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205-1
전화 043)223-0322

대한불교조계종
갑 사
주지 장 곡
사부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52
전화 041)857-8981~2 팩스 041)857-9753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종
총본산 일성사(日星寺)
총무원장 법산 영봉
사부대중일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94-4
전화 042)524-2149, 935-2279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대림선원
주지 지 원
사부대중일동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648
전화 043)732-1655

대한불교조계종
천마산 중화사
주지 현 구
사부대중일동
■ 충북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28-1
전화 043)742-2057

대한불교조계종
창 룡 사
주지 정 도
사부대중일동
■ 충북 충주시 직동 산336
전화 043)847-2702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지 성 원
사부대중일동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30
전화 043)421-4700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주지 덕 운
사부대중일동
■ 충남 연기군 금남면 축산리 273-1
전화 041)866-7572

(재)선학원 충북불교문화회관
광명선원
주지 현 문
사부대중일동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46
전화 043)293-1554~5

제천불교 총연합회
회장 황 도
사부대중일동
4월25일 중앙공원점등식 오후7시
부모사랑 효도잔치 4월27일 청전공원 10시30분
고승 유묵전 5월1일 시민회관 고승유묵전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1번지
전화 043)642-0815

대한불교본원종 중앙종회 부의장 주석 사찰
성 불 사
주지 혜 원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서구 신평1동 294-7
TEL 051)292-6818,294-1800

불법승 참된삶 실천운동
석문사(자비원)
주 지 혜 전
사부대중일동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103-2
전화 043)264-3008, 011-9607-2199

원동승복사
대 표 정옥화
스님옷 일절 맞춤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60-1
전화 042)253-0525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주 지 영 진
사부대중일동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641-18
전화 042)541-1505

청주청원사암연합회
◆주요행사◆
- 봉축탑점등식
- 봉축대법회
- 연등축제시가행진
- 연등축제문화공연
- 부루나합창단연주회
- 교도소위문공연
- 휘호.그리기대회
- 봉축 독경대회
- 봉축사진전
- 연꽃등 나눠주기
- 봉축 노래자랑

대한불교조계종
천태산 영국사
주 지 청 원
사부대중일동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1379
전화 043)743-8843

얘들아~ 맛있게 먹고 쑥쑥 크렴

사찰음식전문가 박상혜씨에게 배우는 간식만들기

결혼 적령기를 앞둔 사람을 만나면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바로 "아이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다. 아이의 건강은 당연히 부모로부터 이어지는데, 이미 엄마 아빠의 몸이 유해색소나 식품첨가물로 오염되어 있다면 아이의 건강 또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신 6개월 전부터 음식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다.

10여 년 전 내가 병원에 근무할 때만 해도 '아토피'라는 질병이 이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진 않았다. 최근엔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좋다는 처방은 다 써보지만 결국 치료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도 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민만이 최선의 선택일까?

나는 아이들 먹을거리의 해법을 사찰음식에서 찾고자 한다. 자연의 섭리를 거슬렀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5백(白), 즉 흰쌀과 흰 설탕, 흰 소금, 흰 조미료, 흰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음식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정제된 재료는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 미네랄 등을 빼앗아가는 것은 물론 면역기능도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이런 다섯 가지 '달콤함 유혹'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해내야 한다. 트랜스지방과 높은 열량, 색소 등으로 버무려진 패스트푸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부모다. 유해한 식품들 사이에서 올바른 먹을거리를 선택하는 일도 쉽지 않고, 직접 만들어주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리법도 간편하고 자연의 재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사찰음식 조리법으로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 아이를 먹을거리 공포에서 구해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못난이 콩떡



재료 찹쌀가루 1컵, 멥쌀가루 2컵, 죽염 약간, 삶은 검정콩 1컵, 백년초 가루 1작은술, 단호박가루 1작은술, 참기름 약간

① 찹쌀가루와 멥쌀가루는 볼에 넣어 손으로 골고루 섞은 다음 죽염을 넣어 고운 채에 한 번 내린다.

② 찹쌀가루와 멥쌀가루를 따끈한 물로 익반죽한 후 백년초와 단호박 가루를 각각 넣어 반죽한다.

③ 반죽된 각각의 재료는 손으로 많이 치댄다.

④ 한 입 크기로 반죽을 떼 후 삶은 검정콩을 섞어 동그랗고 길쭉한 모양으로 빚는다.

⑤ 김이 오른 찜 솥에 살짝 쪄 준 후 참기름을 발라서 완성한다.

맛내기 포인트

인공색소가 아닌 천연 재료를 이용해 색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찹쌀과 멥쌀가루를 익반죽을 해야 쪄낸 후 쫄깃쫄깃하다. 아이와 함께 떡을 빚으면 창의성도 길러지고 정서적 안정감도 느끼게 된다.

호두 파이



재료 머핀 가루 300g, 녹차기름 50ml, 깐 호두 3큰술, 채수 70ml

① 반죽그릇에 양파, 무 등을 넣고 끓인 채수를 넣고 거품기로 알갱이가 없도록 가볍게 한 방향으로 가루를 풀어준다.

② 녹차기름을 넣고 다시 저어준다.

③ 호두를 넣어서 주걱으로 섞는다.

④ 일반 머핀 컵이나 주물 냄비 등을 이용해 190℃로 예열된 오븐에서 20분정도 굽는다.

맛내기 포인트

머핀 가루를 반죽할 때는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를, 식용유 대신 녹차기름을 사용한다. 계란은 넣지 않는 것이 좋다. 호두는 두뇌발달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 간식으로 적합하다.

떡볶이 그라탕



재료 떡볶이 떡 12개, 모짜렐라 치즈 1컵, 고추장 1/2작은술, 토마토케첩 3큰술, 양송이 2개, 청색피망 1/2개, 빨강피망 1/4개, 황설탕 1작은술, 다진 대파 1작은술, 녹차기름 약간

① 떡볶이 떡은 따뜻한 물에 불려서 물기를 뺀 다음 녹차기름에 살짝 볶아준다.

② 양송이는 다진 다음 다진 대파와 함께 녹차기름에 볶아준 다음 고추장과 토마토케첩에 황설탕을 넣어 볶아 소스를 만든다.

③ 청색 피망과 빨강 피망은 네모난 모양으로 자른다.

④ 볶은 떡볶이를 소스에 버무려준다.

⑤ 그라탕 용기에 버무린 떡볶이를 담고 모짜렐라 치즈를 골고루 뿌려준 다음 두 가지 색 피망으로 장식한다.

⑥ 200℃로 예열된 오븐에서 7분 정도 가열하면 노릇하게 구워진다.

맛내기 포인트

피자를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간식이다. 백년초, 단호박, 녹차, 잡곡 가루 등으로 반죽한 떡볶이 떡을 준비한다면 좀 더 색다른 떡볶이가 된다.

야채튀김



재료 빨강·노랑 파프리카 1개씩, 청피망 1개, 쑥갓 3줄기, 깻잎 2장, 콜리플라워 약간, 빵가루 1컵, 녹말물 1/2컵, 유기농 밀가루 약간, 포도씨유 5컵, 소스(겨자 1작은술, 식초 2큰술, 배즙 1큰술, 설탕 1/2작은술, 다진 대파 약간)

① 파프리카와 피망은 원형으로, 콜리프라워는 줄기로 자른다. 쑥갓 깻잎은 씻어 물기를 뺀다.

② 야채를 밀가루, 녹말물, 빵가루 순으로 옷을 입힌다.

③ 160~180℃ 정도의 포도씨유에 빠르게 튀겨낸다.

④ 소스 재료를 섞어 소스를 만들고, 튀김을 담아 함께 낸다.

맛내기 포인트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재료를 넣으면 기름의 온도가 내려가 바삭해지지 않으므로 재료를 여러 번에 나누어 튀긴다.

오미자 수박화채



재료 수박 1/4통, 오미자 2큰술, 배 1개, 꿀 3큰술, 타임허브 잎 2개, 황설탕 1큰술, 생수 8컵

① 오미자를 깨끗이 씻어 생수에 하루 정도 담가둔다.

② 오미자를 건져내고 물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③ 숟가락이나 스쿠퍼(과일을 동그랗게 퍼내는 조리기구)로 수박을 먹기 좋게 파낸다.

④ 배는 나박썰기한 후 설탕물에 담가둔다.

⑤ 오미자 우린 잎에 수박과 배, 꿀을 넣고 타임허브 잎을 띄워 마무리한다.

맛내기 포인트

오미자는 생수를 넣어 우려야 떫은맛이 없어진다. 꿀은 기호에 따라 첨가하고 허브 잎을 띄우면 청량감을 높일 수 있다.

오렌지 병조림



재료 오렌지 5개, 식용장미 3송이, 레몬 1/2개, 화이트와인 1컵, 사이다 1컵, 황설탕 1작은술, 진공병1개

① 화이트와인과 사이다 그리고 설탕을 넣어서 설탕이 녹을 때가지 끓여준다.

②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레몬을 듬성듬성 썰어 넣어주고 식용장미 잎을 떼어 넣어 냉장고에서 충분히 식혀 로즈워터를 만들어 준다.

③ 오렌지는 원형으로 껍질을 제거한 후 편으로 3~4조각 잘라준다.

④ 진공병을 뜨거운 물에 세척해 물기를 완전히 뺀다.

⑤ 로즈워터가 식으면 레몬과 장미꽃잎을 건져내고 준비된 병에 자른 오렌지를 넣고 만들어진 로즈워터를 부어 뚜껑을 닫으면 완성된다.

맛내기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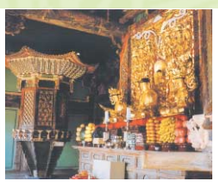
화이트와인은 불에서 가열할 때 알코올이 날아가므로 아이들 간식 재료로도 적합하다. 오렌지 대신 복숭아나 딸기 등 신선한 과일이라면 무엇이든 통조림으로 만들 수 있다.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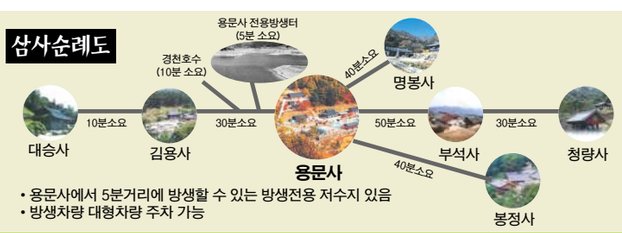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 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

마음의 평화·행복찾기 열풍

사회의 물질화 기계화가 가속되고 급변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기 위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2003년 8월호 <타임>지는 '명상'을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미국의 명상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한국도 최근 수년간 템플스테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국의 시민선원에서는 참선 수행을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은 특히 종교적 차원의 불교보다 실존적 차원에서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는 내면의 과학으로서의 선(명상)이 현대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불교신문과 한별심리분석연구소는 이러한 참선(명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흐름에 맞춰 이에 대한 현상을 진단해 보는 정담회를 4월 18일 서울 목동 한별심리분석연구소(소장 최훈동)에서 열었다. 선(禪)과 명상(瞑想)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해 '인간의 행복 추구' 측면에서 명상과 정신과학의 지향점과 상호발전방향을 모색해 본 이날 정담의 내용을 소개한다.

참가자

미산 스님	최훈동 원장	권준수 교수
(중앙승가대 교수)	(한별정신병원)	(서울대 의과대학)

공동주최 : 한별심리분석연구소 · 현대불교신문



'마음의 고통과 안정을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치료하지 않고 마음을 직접 다스리는 선(명상)에서 자기치유과정법 찾기'란 내용을 담은 정담회 모습. 이날 정담자 모두 "실존적 차원에서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는 내면의 과학으로서의 불교명상이 현대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훈동 일반인들은 흔히 선(禪)과 명상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산 스님께서 명상 또는 선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주십시오.

미산 명상(meditation)은 어느 초점에 몰입해 깊이 사유한다는 의미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육조 스님은 선(禪)이란 밖의 대상을 향하는 마음을 떠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향하는 마음 빛을 돌이켜 오감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에 집착하지 않고 순간순간 바로 자성청정심을 드러내는 것이 '선'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원래 선이란 말은 '선나'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참선(參禪)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참선이란 선에 참입(參入)한다, 혹은 선을 참구(參究)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출판되는 불교관련 서적들을 보면 'meditation'을 명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안락한 상태나 몸의 건강을 추구하는 통속적인 수련법을 명상이라고 하고 이것을 최상승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는 참선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명상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명상과 선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우선돼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상과 선은 이미 많은 현대문헌에서 혼용해 쓰고 있고 명상이란 말은 정신수련이나 수행을 나타내는 일반화된 말입니다.

언어는 사회성을 지니고 있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명상이라는 말은 이미 현대인들의 생활문화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불교인들은 이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바른 의미를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이 명상과 혼용되어 변질되고 오염될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명상의 의미를 깊이있게 심화시키고 명상의 방법을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불교에서 지향하는 선의 세계를 표현하고 새로운 수행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수용하고 소화하여 새로운 선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선의 현대화일 것입니다. 구분하고 배제하는 것보다 쓰면서 명상의 의미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최훈동 선과 명상은 본질 그 자체가 일치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정담회에서는 선(禪)의 개념을 포괄해 '명상'으로 통일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과 명상 본질 일치, 상호 수용 통해 새로운 선문화 이론 뒷받침해야

요즘 <선과 두뇌(Zen and Brain)>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명상에 대한 연구가 상당 수준 진척되어온 걸로 아는데, 명상에 대한 현대의학의 연구는 어떻게 진행돼 왔고 연구 결과는 어느 정도인지요?

권준수 명상에 대한 연구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인도 요기의 소위 신비한 능력을 생체신호를 통해 확인하려고 했던 1950~60년대의 초창기, 1970~80년대 명상의 신체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던 시기 그리고 90년대 잠시 소강상태를 가지다가 최근 뇌영상 방법론의 발전과 더불어 명상을 신경과학적 입장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최근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명상이 심혈관계나 면역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입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신경계에도 앞선 연구에서 보듯이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도쿄대학교의 가사마쯔와 히라이는, 48명의 선승들과 명상수행을 해본 경험이 없는 22명의 대조군의 뇌파를 비교해 선승들이 가장 깊은 명상의 단계를 경험할 때 베타파가 아닌 고진폭의 알파파와 세타파를 뇌파에서 보인다는 내용의 실험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수행한 다른 실험에서 딸깍거리는 소리(click sound)를 연속적으로 들려 주었을 때 일반인들은 뇌파에서 알파파의 중단이 관찰되다가 나중에는 습관화(habituation)가 일어나 더 이상 알파파의 중단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선승들은 계속해서 소리에 의한 알파파의 중단이 관찰되었고 이는 선승들이 선 수행동안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명료한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으로 매우 다양한 인지, 감정, 신체적 증상 등의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 이들 하나하나를 모두 객관화하기란 사실상 힘든 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명상에는 전통적인 선불교 이외에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인도의 요가, 중국의 태극권이나 기공, 서구의 초월 명상 등 방법상으로 다른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상의 깊이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 연구를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를 통해 과학자와 수행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다 보면 이런 모든 문제도 하나씩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상과 과학의 공통점은?

최훈동 명상의 목표에 대해 불교에서 지향하는 것과 정신과학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는 다른 것 같은 데 삶의 고통을 치유하는 목표라는 점에서 과연 다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산 정신과학의 최종 목표는 고통의 해결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안심입명(安心立命)의 목표, 즉 해탈이라는 큰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두 분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나름대로의 도구와 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불교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불교는 행복이라는 목표를 수행을 통해 성취해 가지만 과학은 연구자가 경험을 하지 않아도 객관화해서 연구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수행은 스스로 수행하지 않으면 질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과학과 불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경우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수행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학자가 실제 수행을 통해 자기의 경험을 객관화시켜는 경우는 다르겠죠. <젠 앤 브레인(Zen And Brain)>을 쓴 오스틴이 자기의 경험세계를 객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교 경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인데, 바로 자비를 통해 확산됩니다. 또 자비는 깊은 사유와 삼매를 통해 얻은 지혜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분야가 비슷하지만 실제 체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두 분야가 가진 공통의 분모는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명상, 심혈관계 면역계에 긍정적 효과 주관적 체험 객관화 시키기가 한계

최훈동 명상 또는 선이 현대인들에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상이 현대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산 사실 1990년대 이후 외국의 새로운 수행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빠사나, 티베트 명상법 등입니다. 외국의 수행법이 소개되면서 우리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 수행도 적지 않게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조계종단 차원에서 수행체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간화선과 정신의학

그 결과물이 바로 최근에 나온 <간화선>이라는 책입니다. 대중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간화선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직도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간화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화선 입문>을 또 출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가신도들을 대상으로 봉은사와 함께 간화선 수행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간화선이 보편화되고 재가신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종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인의 호응이 좋으면 계층별로 세분화해서 후속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 보급할 방침입니다. 이런 간화선 프로그램이 정신의학과 결합되면 훨씬 과학적인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훈동 정신의학에서 이룩한 뇌 연구로 말미암아 신경전달물질들을 조절하는 약제들을 개발하여 각종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 한계는 무엇인지 앞으로

☞B15면으로 계속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공익법인 韓國六壬學會
www.taotemple.net



총재 효사 外 2,000명 회원 一同

역학문화를 선도하는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한민족의 근원적 사상인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철학사상을 담고 있다.
천지인동근(天地人同根)이요
천지인 일체(天地人 一體) 즉,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임과 함께
육임가(六壬家)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주체임을 나타내고 있다.
원형은 하늘,정사각형은 땅(지구), 가운데 직선은 인간(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을
나타내며 예언자로서의 복(卜)과 예언을 청하는 뜻의 점(占)이 어우러져 있다.

☎ 02)993-8680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 효사 활인천역집 Ⅲ 프로그램CD (육임 · 사주 · 성명 · 월영도 · 주역 등 18술 종합)
- 육임대계전서(전60권)
- 효사 육임 강의록(학습서)
- 각일 각시 분만비법(활용서)
- 육임풍수(활용서)

불기2550년 부처님 오신 날!

원각사로 오세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

공연 1 얼~쑤 잘한다... 원각사 마당놀이 "뺑파전"
<출연진:광주연극협회 마당놀이 전문 배우 10여명>
공연 2 꼬두메공연-7080세대 포크음악, 트로트
공연 3 봉축기념 신도 노래자랑 <사회:교통방송 인기MC 김태균>
공연 4 퓨전콘서트 - 원각사선우회 주관. 전통가락과 현대음률의 만남

※ 제등행진 - 사부대중 모두가 동참하여 원각사 주변을
청년회 풍물패를 앞세워 촛불을 들고 행진





송광사광주포교당 원각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51
TEL 062-223-3168 / FAX 062-232-7544

과학적 연구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B14면에서 계속

어떤 연구가 진행될지 그 전망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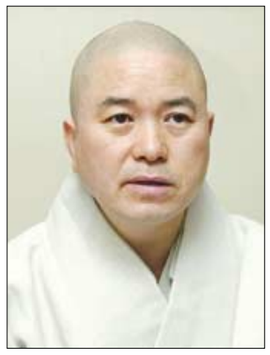
권준수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정신질환 치료 약물들은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를 일으켜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작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보고는 명상을 하게 되면 선조체(striatum) 부위에서 도파민 방출이 60~70%정도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는 데, 이 연구는 시냅스 수준에서 명상에 의한 변화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뇌에서 단일 신경계가 단독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연구 결과들은 평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 실험을 통하여 약물을 실험하고 이를 다시 인간에 적용하는 이유는 인간과 동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자기가 할 수 있고 자신이 치료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명상은 심장질환, 암, 불임, 우울증, 과잉행동, 주의력결핍장애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치유하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훈동 명상과 심리치료와의 관계 또 명상이 뇌를 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뇌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미산 스님** 인도 뿌나대학에서 석사,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바드대 세계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지냈으며 조계종 사회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다.

◀**최훈동 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초빙교수로 한별정신병원과 심리분석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 경전 〈니까야〉 연구와 남방 불교 수행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명상지도를 하고 있다.

▶**권준수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정신과학 교수로 하바드 의대에서 뇌영상을 중심으로 뇌와 정신의 상관관계를 집중연구하고 있는 생물정신의학의 권위자.





▮미산 스님

수행자 · 정신과학자 공동 연구할 때

▮최훈동 원장

신체적 장애보다 마음의 고통 더 중요

▮권준수 교수

명상치료는 '자기의 참여'가 큰 장점

"명상이 뇌를 바꾼다" 행복의 조건에 대한 자각 계기

수 없고, 서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단순히 신경전달물질의 증 · 감으로만 복잡한 정신활동이나 마음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신경세포들의 조합이나 연결, 즉 물질이 그 원인이 되어 전혀 새로운 차원인 정신이라는 현상을 나타내는냐는 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나 수용체 등등의 변화에 의해 복잡한 정신현상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뇌파 · 호흡 그리고 수행

최훈동 현대 정신의학이 봉착하는 한계에 명상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또 정신의학계에서 명상치료에 기대하는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준수 지금까지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은 뇌 영상 연구뿐만 아니라 약물 연구들도 포함하여 인간 한명 한명을 유일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집단으로 본 균형잡힌 상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삼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매에 들어서도 망념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삼매와 선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균형잡힌 상태가 바로 삼매이자 선정인 것이죠. 선정의 기본 요소는 희열감과 행복감인데, 초기불교나 부파불교쪽에서는 희열감이나 행복감 등이 있어야 선정의 상태라고 여겼습니다.

대승불교에서도 삼매를 백천삼매(百千三昧)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삼매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뇌파가 잘못 나왔다고 해서 삼매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과학계와 함께 하는 공동연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준수 뇌파는 제일 빠르게 요동치는 감마파로부터 가장 느린 델타파까지 그 진동수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뇌파는 인간의 각성 상태 혹은 집중도, 인지기능 등에 따라 다른 진동수의 뇌파가 어떤 부위에서는 더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부위에서는 적게 나오고 하는 것으로 어떤 진동수가 정확히 어떤 상태다고 규정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대부분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명상 중에는 알파파(8~13㎐)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타파와 관련해서는 오랜 명상수행자가 명상 중에 평화롭고 쾌적한 경험을 하는 동안에는 특징적인 세타파형이 전두엽에서 주로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산 불교 수행체계를 보면 사선(四禪)에 들어가면 호흡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호흡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일선 이선 삼선 호흡이 깊어질수록 호흡이 잦아든다고 합니다.

일단 선정과 삼매에 들었을 때는 마음이 여러 가지 뇌파와 지관(止觀)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지(止)는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마음이 몰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觀)은 집중된 상태에서 힘을 이용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지(止)와 관(觀)은 항상 함께 하죠. 수행방법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같이 가야 합니다.

베타파는 각성상태이고 알파파는 깊은 마음 상태라고 하는데, 선정의 상태에서 성성하게 깨어 있는 상태를 사티(sati)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물과 대상에 끊임없이 마음을 경주하는 것이죠.

사티의 힘으로 성성하게 깨어있는 상태는 아주 명료한 것인데 이때 아마 감마파의 상태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뇌파의 실험은 호흡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 남방수행의 경우 자연호흡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해진 호흡을 알아차리려면 강한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는 념(念)과 삼매와 혜가 동반돼야 가능합니다.

신경과학의 진보와 종교

최훈동 명상자의 뇌파는 특히 좌전전두엽과 변연계가 활성화되고 전두엽과 두정엽 등이 비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권준수 아직까지 뇌파연구를 제외하고는 명상 수행자의 뇌를 찍은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으로 명상자의 뇌파를 찍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은 어떤 인지기능을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를 볼 때 유용한데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인지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양전자 방출단층촬영이 시공간적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이를 이용한 것들입니다. 이들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교적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두정엽의 비활성화 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활성도가 떨어진 전두엽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는 외부의 감각을 처리하는 기능의 완화가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고, 두정엽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시간이 언제고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 지에 대한 시공간 개념을 담당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활성화 감소는 우리에게 시공간적인 분별을 벗어나 소위 우주와 하나되는 느낌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최훈동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시작해볼 수 있고 학제 간 협력으로 특히 불교의 협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세계적 연구의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권준수 신경과학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달라이 라마의 등장은 매우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이 지금까지의 과학이 가지고 있는 협소한 틀을 버리고 좀 더 과감한 도약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각종 뇌영상술이나 분자생물학적 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명상 연구에도 활발히 적용되어 좋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이러한 결과가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데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이런 연구에 관해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전통이 있고, 또 명상연구만을 볼 때에도 훌륭하신 선수행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로 수행의 깊이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훌륭한 선수행자들의 이러한 연구에 대한 참여와 관심,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비 조성 등이 된다면 한국의 불교 선 수행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 우뚝서는 한국 불교의 미래가 그려집니다.

가톨릭에서 성체줄기세포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참고한다면, 불교계에서는 명상 연구에 좀 더 과감하고 확실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상연구에 좀더 과감한 투자를

최훈동 명상이 뇌를 바꾼다는 사실이 현대 과학에 의해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인간의 행복이 물질의 풍요에 의해 얻어질 수 없다는 현대인들의 자각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나는 대화를 통해서 난치병에 대한 줄기세포 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체적 장애보다 마음의 고통을 더 중시한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 오신 참뜻인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현대인들에게 안겨 줄 수 있는 선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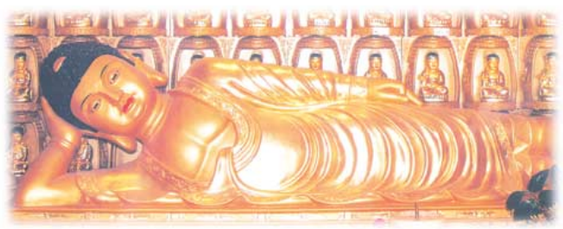
그러나 불교계의 연구 지원 노력이나 관심은 아직 미미한 듯 하여 안타깝습니다. 한국 불교의 세계적 선양을 위해서도 수행자와 의학자가 함께 연구하는 명상의 과학적 연구는 불교의 현대화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눈을 돌려야 할 21세기의 주요 과제라 하겠습니다.

정리=노병철 · 유철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법비오는곳 동해사에 기도오세요

※ 세계최대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중 ※





▶낙산사 10분 거리
휴휴암 15분 거리
불탑사 10분 거리

매년 양력 10월12일~11월20일까지 밤,낮없이 부처님 사리탑 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충만해 있는곳. 어떤 소원도 다 들어주시는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성취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주지스님이 직접 지도 및 축원발원)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예약전화 : 033)672-2900
법비오는 곳 동해사 주지 혜명 합장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등불로전하는자비광명

찬덕연등

임직원 일동 합장

ChanDuk Lotus Lamp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031)792-6288, 794-4055 팩스: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천운 스님은 팔순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한달의 절반 이상을 전국의 사찰과 신행단체에서 법문을 한다. 광주 향림사 경내에서 포행을 하고 있는 천운 스님.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르면 포교도 못해”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천운 스님 (대흥사 조실)



유치원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천운 스님.



천운 스님이 화순 기원정사 대웅전 부처님의 복장물을 봉안하고 있다.

3년전, 광주 주재기자로 부임받아 호남불교 현장을 누비는데 유독 노스님 한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노스님은 항상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고, 불교행사장에서 늘 뵐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행사장에 노스님이 계시지 않으면 허전했다. 노스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증명법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 노스님이 바로 광주 향림사에 주석하고 있는 천운상원(天雲尙遠, 대흥사 조실) 스님이다. 물론 원로의원인 스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광주에 와서 취재차 곳곳을 다니다보니 포교를 위한 노스님의 활동이 경이로웠다.

향림사는 종무소를 지나면 바로 천운 스님이 거처하는 방이 있다. 신도들이 종무소에 들르면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듯하다. 스님 방에 들어서면 사방을 에워싼 책이 방문객의 기를 죽인다.

“대승불교가 뭡니까. 상구보리 하화중생 아닙니까. 참선도 하고, 독경도 하고, 포교를 위해 책도 봐야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말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천운 스님은 ‘광주불교의 신화’로 불린다.

37년 전, 광주의 어느 사찰에서 천운 스님에게 법문을 요청했다. 그날 받은 거마비로 변두리에 터를 잡았다. 오늘의 향림사다. 스님에게 포교는 곧 수행이었다. 한문경전을 한글화했고, 불교의식을 현대화했다. 또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있는대로 꺼내어 주었다.

그때는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런 아이들을 거두어 부처님 법당을 줄여 아이들 방을 만들어 함께 살았다. 이렇게 향림사를 거쳐간 아이들이 200여명에 이른다. 모두들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중에는 출가 사문만 20여명이나 된다. 얼마 전 출판기념으로 문중을 정리해 보니 상좌가 70여명, 유발상좌가 100여명 가까이 됐다. 그래서 천운 스님은 한때 ‘중 만드는 공장장’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향림사 내에 있는 복지법인 향림원에는 노인과 장애인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요즘은 부모가 없거나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을 건립중이다.

37년 전 광주에 뿌리내린 후 오갈데 없는 아이들 거두고 유치원 · 대학 설립 등 교육불사 하루 멀다하고 전국 돌며 법문

불교 불모지 호남불교를 살리기 위해 스님은 교육불사에 주력했다. 승속을 떠나 배우겠다고 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불교 유치원과 광주불교대학을 설립해 포교와 정법세우기에 혼신을 기울였다.

연로해지면서 스님은 산책삼아 유치원 아이들을 찾곤 한다.

친구들과 놀던 아이 하나가 스님을 붙잡고 묻는다.

“스님! 스님은 왜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야 스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스님은 왜 절에서 살아요?” “스님은 어째 옷이 똑같아요?”

여기저기 아이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대답해주는 노스님 모습이 정겹다.

“아이들 마음이 바로 부처 마음입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중생의 업이 나타나요. 업이 녹여지면 본래 부처자리가 드러납니다. 수행으로 업을 녹여야 해요”

스님은 여기 저기서 들어오는 법문요청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수 팔순이 가까운 노장이건만 여전히 현역이다. 한달이면 보름가량을 전국의 사찰과 신행단체에서 법을 설한다.

수행과 포교를 향한 마르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스님은 새벽예불이 끝나면 <금강경> 독송을 빠트리지 않는다. 은사 지암 스님이 그러했다. 하루 4독을 하시는 은사스님은 출타시에도 경을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다니며 장소를 불문하고 독송했다. 독송하는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간절하던지 그대로가 부처님 모습이었다. 은사스님을 따라 스님도 평생을 두고 <금강경> 독송을 생활화하고 있다. 이제는 향림사 가풍이 되어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하루 전날 평창 월정사에서 열린 한암 스님 추모 다례재에 참석차 먼길을 다녀온 스님은 또 점심 무렵 여장을 챙긴다. 화순에 건립되는 절에서 부처님 복장의 식을 청해왔던 것이다.

“스님, 힘들지 않으세요?”

“신심으로 사는데 어렵고 힘든 생각이 어디에 붙어요.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혜는 끝없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신심으로 일하세요.”

글=이준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 등 여러차례 賞 수상

천운 스님은 1929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으나 한의사였던 부친이 3년 늦게 출생신고를 했다. 할아버지의 엄명으로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던 중,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이 부러워 중학교에 가고자 집을 나왔다. 1946년 내장사에서 박한영 스님을 만나 시봉을 하고 월정사에서 지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선운사 대교과를 수료하고 제방선원에서 수선정진했다. 화엄사, 대흥사 등 교구본사 주지와 총무원 교무부장을 역임했다. 교화활동을 인정받아 조계종 포교대상을 두차례나 수상하는 등 각종 포교관련 상을 받았다. 2001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되었으며 현재 해남 대흥사와 광주 향림사 조실, 정광중 · 고교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 <봐서 행 하는길> <알고가는 길> <끝없는 행원> <더불의 사는 삶> 등 다수가 있다.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상표등록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25/1, 12/1의 절약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안전장치를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운용과 안전에 더욱 경제적입니다.

▣ 한국전력공사 저압전력 사용량별 요금표

사용량 (kWh)	요금(원)	사용량 (kWh)	요금(원)
50	2,310	260	32,260
60	3,200	270	34,130
70	4,100	280	36,020
80	4,990	290	37,900
90	5,880	300	39,780
100	6,780	310	44,720
110	8,590	320	47,440
120	9,890	330	50,150
130	11,190	340	52,870
140	12,500	350	55,580
150	13,800	360	58,300
160	15,090	370	61,020
170	16,390	380	63,730
180	17,690	390	66,450
190	19,000	400	69,710
200	20,300	500	112,430
210	22,850	600	188,460
220	24,730	700	258,510
230	26,610	800	328,580
240	28,500	900	398,640
250	30,370	1000	468,690
		1250	

전자전구 사용 전력
1/25 배 절약
일반전구 사용 전력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유사품에 주의 하십시오.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 · 9996 · 8872

전화 031)792-8867~8 팩스 031)791-8871

항상 진실과 희망만을 말하세요

천운 스님의 가르침

올해도 어김없이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습니다.

금년이 불기(佛紀) 2550년이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불기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해를 기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80년을 사셨으니 부처님 오신지 어언 2630년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도에서 태어나신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 전해진 것은 여러나라와 중국을 거쳐 오게 되었고,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중국을 거쳐 전해지기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도 부처님 가르침이 전래되었습니다.

본래 인도 왕족이었던 허 황후가 서기 48년 불상을 모시고 뱃길로 가야에 온 것은 학계에서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승려였던 마라난타 존자가 384년 법성포로 들어와 포교를 시작했고, 이로써 화려했던 백제불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에는 한라산 영실에 존자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세 시 제자였던 발타라 존자가 한라산에서 수행했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부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1600년 전 중국을 거쳐 고구려(372년 소수림왕 2년)에 전해진 것이 아니라, 2600년 전 부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불교는 부처님 열반이후 부처님 제자가 그의 제자에게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는 진인(眞人)불교였습니다.

> 공부 했나 안 했나
> 화내는 것 보면 알아
> 스스로 마음 다스리며
> 자비 실천하세요

고구려 이전, 이 땅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한문으로 쓰여진 경전에 의존하기보다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인 진인불교였을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맞이하는 초파일에 진인불교를 생각해봅니다. 문자에 갇혀있는 불교가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불교를 말합니다.

36년 전, 광주에 향림사를 창건할 당시 주위에서 모두들 말렸습니다. 나무 하나 없이 민가와 함께 있는 절에 누가 오겠냐고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산속에 계시지 않았고,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가르침을 펴셨고 길에서 가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속세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바꾸었고, 뜻 모르는 경전을 읽기보다 찬불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참선만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돌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향림사에는 오래전부터 오갈 데 없는 노인과 장애인, 고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절과 복지시설에서 먹고 자는 대중이 150여명에 이릅니다. 신도들의 보시와 봉사로 이제껏 한번도 굶지 않았고, 누구에게 비굴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불교 역사에서 조선시대는 참으로 곤혹스런 시대였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선지식들의 간절한 수행과 포교로 불교의 맥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힘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흔히들 치마불교라고 하지만 어머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불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선을 한다고 앉지도 못했고, 글을 모르기에 경전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들의 입에서는 한시도 염불과 주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나무아미타불' 하며 숟가락하나 더 놓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인불교입니다.



천운 스님은 "모든 허물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선, 염불, 주력, 포교, 가람수호는 오늘의 불자들이 행해야할 5대수행입니다. 불자라면 이 가운데 하나라도 선택해 간절히 해 나가야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짓는 구업(口業)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제를 살펴보면 입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천수경> 십악참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하는데 망어(妄語), 기어(綺語), 양설(兩舌), 악구(惡口) 등 4가지가 바로 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업을 막는 방법으로 염불과 주력이 최고입니다.

공부를 했고 안했고는 화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보려면 얼마나 화를 내지 않는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내고 보면 모든 허물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남을 원망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입으로 진실된 말을 하고, 자비실천을 수행하면 성내는 마음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은 초파일과 어린이날이 겹쳤습니다. 어린이는 마음에 때가 없이 순수합니다.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이 싸우거나, 못살겠다며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맑은 마음의 거울에 비쳐져서 언젠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파일을 맞아 진인불교를 한마디로 요약한 부처님의 가르침(七佛通偈)을 소개합니다.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 :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의 시제불교(自淨其意 是諸佛敎 :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 이것이 곧 불교다)

정리=이준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3>



부처님이 보낸 편지

나는 고타마 붓다, 세상 사람들이 석가모니 불세존이라 부르는 이요.

며칠 전 당신은 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하다는 편지를 보내왔소. 나의 하루 일과는 너무나 단조로워서 그리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인데 내가 무얼 말해주면 좋을까 잠시 고민하였소.

나는 대체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눈을 뜨오. 그리고 밤사이 충분한 휴식으로 맑아진 눈을 들어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오. 세상에는 단 한 순간도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소. 이른 아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그날 꼭 내가 달려가야 할 곳을 찾아내는 것이 내 하루의 첫 번째 일과요.

그냥 내버려두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사람에게는 내가 서둘러 달려가오. 사람을 1000명 가까이나 죽이고 제 어머니에게마저 칼을 휘두르려던 앙굴리마라가 바로 그런 예요. 또는 자기가 너무 보잘 것 없어 차마 내게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역시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오. 그러지 않고는 그들과는 절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이요.

"많은 이들이 나의 하루 일과 떠올리며 자신 돌아보는 시간 갖고 성불하기를"

하지만 평소 착하게 살아왔고 그 마음이 유순하고 열려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내게 찾아오도록 기다리기도 하오. 나의 가장 독실한 재가신자였던 급고독장자나 수행에 엄격하였던 가섭 비구 같은 이는 이른 새벽 인적이 뜸한 공동묘지에서 만나 마음을 주고받았던 이들이오.

전날 아침공양 약속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나의 탁발은 내가 그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방향이 정해지오. 나는 언제나 맨발로 다니고 있소. 나와 만날 사람을 떠올리며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아침의 대지에 맨발을 내딛을 때의 그 기쁨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느낄 수 없을 것이오.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발우에 넣든 나는 개의치 않소. 그 자리는 나와 사람들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음식에 신경을 쓸 수가 없소. 절에 돌아와 천천히 음식을 먹은 뒤에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면 이것으로 나의 오전 일과는 대체로 끝이 나오.

어떨 때는 낮에 아주 잠깐 휴식을 취하기도 하오. 그리고 개운해진 마음으로 이번에는 출가제자들 중에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없는지를 관찰하오. 탁발을 하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여자들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애를 먹는 아난에게 도움을 준 경우가 바로 이때요.

그렇게 뜨거운 한 낮이 지나면 하루 일과를 마친 재가신자들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 되오. 고된 노동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을 만나면 내 가슴은 우정으로 넘쳐나오. 나는 대체로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꿀 것, 그리고 오계를 항상 기억하고 지킬 것, 쌀 한 톨이라도 이웃과 나눌 것, 선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나되 이런 일들은 다 지혜를 키우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내용의 법문을 재가신자들에게 들려주오.

재미있는 비유이야기도 들려주는데 그러면 법문을 어렵게 느끼던 사람들도 내 말 뜻을 금방 알아채곤 하오. 그리하여 마음이 크게 열리고 지혜가 향상되는 이들이 나오면 나는 그때를 기다려서 괴로움, 집기, 멸함, 괴로움을 멸하는 길의 사성제를 들려주오.

어느 덧 오후 6시 쯤 되면 이제 전적으로 출가수행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오. 그들은 종일 명상과 깊은 사색을 통해 자신들이 나아간 경지를 내게 보고하거나 궁금한 내용을 묻기도 하오. 고요한 가운데 법의 대화가 오가는 그 정경은 정말 진지하고 거룩하기 그지없소.

밤10시가 되어 다들 자기 처소로 돌아가면 이제 나는 조용히 선정에 잠기는데 이때는 하늘의 신들이 내게 다가와 법문을 듣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이오.

내가 언제 잠드는지 궁금하오? 보통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가 나의 취침시간이기는 하지만 당신들처럼 잠꼬대를 하거나 악몽에 시달리지 않소. 나는 생각을 고요히 한군데 모아 선정 속에서 깊은 휴식을 취하고 있소.

나의 하루는 오로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 채워지고 있소. 나는 이 일을 80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쉬지 않았소.

올해 5월5일 내 생일에는 예년과 다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연등을 밝힐 것이오. 그날 사람들이 나의 하루 일과를 떠올리며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랄 뿐이오. 그리하여 내가 부처 되었듯 그들도 속히 부처되기를….

◆이 글은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안양규 지음, 여시아문) 중 '9. 붓다의 하루일과'를 전적으로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달마 관음 지장

뒷면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 30×40cm
달마 4호-그림: 40×50cm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정찬주 지음/신국판 /303쪽/값 12,000원
마음향기 02)744-7246

암자는 내게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나를 찾는 암자 여행

"정찬주의 암자여행 신작, 10년 완결판"

암자란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산길을 가다가 기웃거려보고 싶은 곳이다. 불교만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쉬어가고 싶은 보통명사인 것이다.

처음으로 소개하는 전국 32곳 암자의 사계속에서 나를 사색한다.

「나를 찾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암자 여행」

밀리언셀러 《화》의 저자 틱낫한 스님의 2006년 신작

prayer 기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

기도는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도는 우주가 인간에게 선사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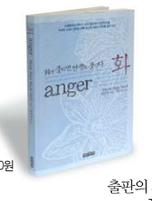


틱낫한 지음 | 김은희 옮김 | 9,000원
출판의 名家 명진출판 TEL 02)326-0026

100만 독자가 선택한 부동의 베스트셀러

anger 화

세월이 흐를수록,
화가 날 때마다
다시 꺼내 읽게 되는 책!



틱낫한 지음 | 최수민 옮김 | 8,900원
출판의 名家 명진출판 TEL 02)326-0026

2003년 한국 방문 기념으로 세계 최초 출간된 화제의 책

power 힘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의 발견



틱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8,900원
출판의 名家 명진출판 TEL 02)326-0026

봉 부처님 오신날 축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전화 **02)3672-7181~5**
팩스 **02)3672-7186**

본 연합광고의 서적은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전국 불교서점,
온라인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02-2004-8220) 및
일반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국판 / 416쪽 / 값 12,000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편
무우수

금강교양총서 1
불교의 이해

-붓다의 가르침과 수행법-

교리와 수행법으로 불교학의 윤곽을 그려 주는 새로운 개론서!

인도, 중국, 한국, 일본, 티벳의 북방불교와 더불어 남방불교의 역사와 교리를 아우르고, 초기의 전통을 비롯해 종파별로 세워 놓은 수행의 이론체계를 별도로 기술하여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집필진 : 권탄준 / 김재성 / 성본 / 안성두 / 임승택 / 최기표 / 최연식 / 최종석

전화 02)544-5267 / 팩스 02-544-5268 / 이메일 mwsbook@empal.com



윤청광 지음/신국판 양장/296쪽/값10,000원
문예출판사 02)393-5681

큰스님 큰 가르침

경허 스님에서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큰스님 열아홉 분의 감동적인 일화!

이런 큰 가르침이 널리 읽혀 무기력하고 나약한 현대인들에게 삶에 대한 의욕과 지혜가 새롭게 움텄으면 하는 바람이다.

– 법정 스님 '추천의 글' 중에서

선방의 죽비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가르침! 경허 한암 만공 한영 효봉 고암 청담 춘성 경봉 동산 만암 고봉 구산 성철 스님 등 기라성 같은 근대의 고승들의 업적과 인격을 생생한 실화를 통해 한눈에 보여주는 책!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전화 **02)3672-7181~5**
팩스 **02)3672-7186**

본 연합광고의 서적은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전국 불교서점,
온라인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02-2004-8220) 및
일반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연스님 지음/신국판/293쪽/값8,800원
문학동네 031)955-8888
munhak.com

방랑시작

성(聖)과 속(俗)의 경계를 훌훌 뛰어넘는 수행자 재연 스님이 밝혀놓은, 연등처럼 환한 삶의 이야기

이 책에는 더러는 눈물이 나올 만큼 애처로운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배꼽을 잡고 웃지 않으면 배기지 못할 재미난 이야기도 부지기수다. 그리고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면서 쓴 글들은 또다른 시각에서 불교에 접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스님의 이야기 보따리는 넓고도 깊다. 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삶의 속내를 또렷하게 짚어내고 있다. 재연스님은 살아온 세월만큼 다양한 경험적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다. 그걸 나에게도 좀 나눠달라고, 스님께 괜히 어리광을 부려보고 싶어진다. 안도현(시인)

숭산 큰스님의 가르침

'오직 모를 뿐'인 마음으로 '오직 할 뿐'



오직 모를 뿐

숭산 큰스님이 삶의 고민을 묻는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았다.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큰스님의 명쾌한 가르침에 읽는 이의 마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해진다.

• 현각 엮음 | 신국판 | 328쪽 | 값 8,500원

오직 할 뿐

통쾌하고 거침없는 숭산 큰스님과의 만남과 일화를 제자들이 글로 엮었다. 허공처럼 맑은 마음을 찾아주는 큰스님의 생생한 웃소리가 지팡이처럼 머리를 때린다.

• 무량 · 무심 외 | 신국판 | 316쪽 | 값 8,500원

물병자리 Tel. 02)735-8160 www.mbage.com



전등록 전30권을 5권으로 완간!

전강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의 번역. 기존의 학술적 번역과 달리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른 법을 밝게 밝혀주는 < 바로보인 전등록 >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禪) 법문 안내 >
서울선원 금강경 법회 : 5월 7일 일요일 오전 11시
광주선원 : 5월 21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 5월 28일 오후 3시



송담(凇憺)지음/신국판 /319쪽/값10,000원
바보새
법보화사 02)2226-3358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로다"
– 남양주 봉선사 월운 스님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참 향기로운 이야기 · 참 지혜로운 이야기

마음의 향기가 되는, 삶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는 이야기들!

마음속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처럼, 삶이 힘들 때마다 꺼내어 풀어보고 싶은 지혜보따리처럼, 항상 곁에 두고 마음의 밑거름으로 삼을 만한 팔만대장경에서 가려 뽑은 이야기들.

진현종 엮음 / 최병용 그림 / 각권 9,000원



바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있는 나무
전화02-714-2163, 팩스02-714-2165
E-mail : baumbook@hanmail.net



금강경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꿈과 같고 환과 같음을 즉각 알아차려 일상에서 깨어 있어야 함을 금강경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다.

정화 풀어씀/신국판 양장 /336쪽/값15,000원



반야심경

'가자, 가자, 깨달음으로. 함께 사는 아름다움으로, 아, 찬연한 빈 삶이여!' 반야심경을 시와 강설로 풀어냈다.

정화 풀어씀/신국판 양장 /228쪽/값12,000원

도서출판 법공양 02)764-0206



운서 주굉 지음/ 연관 옮김/신국판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www.buddhagaya.co.kr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말씀」

부처님 닮아가는 참다운 행복의 길

원고를 펼쳐보니 혜총스님의 자비로움과 지혜가 느껴진다. 길지 않은 글 편편에는 중생계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온갖 갈애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씻겨주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가산 지관 伽山智冠



월호 지음/ 신국변형판 /180쪽 / 값9,800원
이치 02)994-0583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영화로 불교를 만났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마음대로 숟가락을 휘었다 폈다 하는 동자승은 말한다.
"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대신에 진실만을 인식해요."
"무슨 진실?" "숟가락이 없다는 진실요"
"숟가락이 없다고?"
"그러면 숟가락이 아닌 나 자신이 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영화를 보는 스님의 안목에 깜짝 놀랐고, 영화 속의 다양한 내러티브를 통해삶의 진리에 접근해가는 스님의 수행방법에 무릎을 쳤다. 이 책은 대중들의 관심권 안에 있는 영화들을 통해서 삶을 성찰하고 올바른 나를 찾아가는 불교 이야기를 벼락같이 들려준다

– 영화평론가 하재봉



무비스님 지음/4×6판 /224쪽/값 9,000원
불광출판부 02)420-3200

진흙소가 물위를 걸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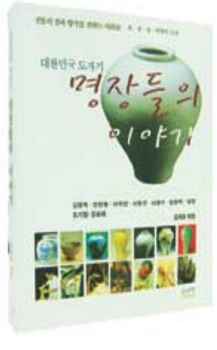
무비 스님이 가려뽑은 명구 100선 ❶

한생각 미혹하면 넓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서 위는 밝으나 아래는 어둡다.
한 생각 깨달으면 바람이 어두운 구름을 쓸어 상하가 훤칠하게 밝아진다.
더러움과 청정함이 일어나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으며, 범부와 성인이 지어지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 금강경오가해 중

이 책은 팔만 사천 법문의 요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권할 만하다. 스님은 "이 작은 책을 거울 삼아 혼탁한 마음을 비춰본다면 어느새 지혜와 해탈, 대자유, 대평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음을 자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도자기 명장들의 이야기

전통의 멋과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
흙 물 불 바람의 소리
김정옥 천한봉 이학천 서동규 서광수 임항택/
명장 조기정/문화재

등잔밑의 어둠에 가려 빛을 잃었던 문화를 다시 찾아 복원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작업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고 고귀하다. 천한봉 선행의 70년 도예의 생애가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 이어령(전 문화부 장관)

김재광 엮음/신국판/384쪽/값 25,000원
솔과학 02)725-8655



십대의 고민을 자체롭게 풀어가는 방법

배낭속의 부처

당신의 책가방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배낭속의 부처>는 십대를 대상으로 불교를 적용해 자신들의 삶을 좀더 지혜롭고 건강하고 풍요하게 사는 법을 안내해 줍니다. 또한 사랑과 성, 술과 마약까지 십대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조언 줌으로써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프랜츠 맷캐프 지음/진우기 옮김
신국판 / 273쪽 / 값9,800원
솔바람 02)720-0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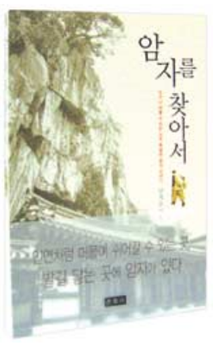
마음 탓 이다

홀로 깨치고 더불어 나누는 지수 스님의 마음공부

당신 안의 행복을 일깨워주는 책!
마음속 화는 태워버리고 마음속
미움은 흘려보내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눈 멀지 말고, 진정 오늘을 살아라. 아, 그대 마음이여.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건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항상 더불어 사는 이 불생불멸의 마음, 마음, 마음이여, 마음 탓이로다.....

지수 스님 지음/신국판 /258쪽/값9,500원
시공사 02)588-0833



암자를 찾아서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암자 이야기

인연처럼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곳, 발길 닿는 곳에 암자가 있다.

왜 암자를 찾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마음의 휴식을 찾고 싶어서'라고 답한다. 산새소리에 일어나고, 풍경소리를 들으며 사찰을 청소하고, 인적이 끊어진 곳에 조용히 있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란다. 혹자는 현대를 속도의 시대로 비유한다. 그런데 암자는 느리다.
아직도 기와지붕을 고집하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 물을 끓인다. 느리게 가는 시간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이는 사회를 살아가는데 단단한 밑거름이 된다.

안직수 지음/국판/304쪽/값11,000원
운주사 02)926-8361

봉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축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마음부자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라

마음 마음을 다스리는 113가지 고요한 이야기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듯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 하지만 사실은 부유하다.

부자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자원 스님 지음/신국판/239쪽/값8,500원
운주사 02)926-8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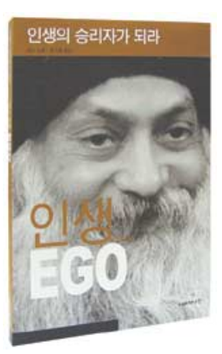


인간학 불교

"인간학 불교란 불교를 인간학으로 규정한다는 뜻이며, 그 목적은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불교에서 찾는 것

인간학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불교의 전체 역사에서 전개된 교리와 사상을 모두 끌어낼 필요는 없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교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향하여 일상 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불교 입문이 될 것이다.

정승석 지음/4×6판 양장/238쪽/값8,000원
정우서적
02)765-2920 www.jbp.co.kr



인생 E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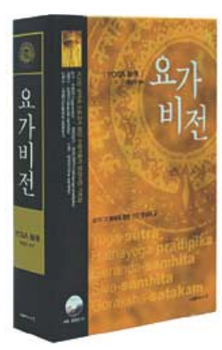
인생의 승리자가 되라

있는 그대로,
본연의 나를 찾는 인생의 지침서!

에고는 드러난 빙산이다. 에고를 녹이라. 깊은 사랑으로 녹이라. 그러면 에고는 사라지고 그대는 바다와 하나 될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라. 자신을 편하게 하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병이요, 존재는 건강이다.

그대는 몸을 세차게 흔들고 존재의 순수성 속으로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 에고와 같은 어리석은 게임에 삶을 낭비하기에는 그대의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러므로 깨어나라! 지금 바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라.

오쇼지음 윤구용 옮김/신국판/
334쪽/값12,000원
지혜의나무 02)730-2211



요가비전 (YOGA 秘傳)

요가 ! 그 불멸을 향한 인간 완성의 길
지고한 영역에 오르고자 했던 수행자들의
영감어린 가르침

이 책은 요가의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카이발야다마(Kaivalydhama)요가 연구소에서산스크리트(Sanskrit) 원본(原本)의 기록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정리하여 완성한 것으로서 영역(英譯)으로 출판된 자료들을 모아 한국어로 엮은 고전요가 경전(經典)이다.

육체(肉體)는 흙으로 만들어 굽지 않은 그릇과 같으니, 요가의 불로 소성(燒性)함으로써 그 완전함을 얻을 수 있다.

배해수 편역 / 신국판 양장본 /
687쪽 / 값 35,000원
지혜의나무 02)730-2211



숫타니파타

불교라는 종교적 테두리를 넘어선 인류의 위대한 영혼의 양식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원형
부처님의 原音 가르침

이 숫타니파타는 체계화되기 이전의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 이 경전이 전개하는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가르침은 새로운 지평의 조화로운 윤리적 삶을 제시하고 있다.

전재성 역주/신국판 /564쪽/값30,000원

금 강 경

번개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

최초 인도 티벳 원전 완역본
梵·藏·漢·英·佛·獨 대조 수록

범어 원문에서 우리말로 바로 번역하여 더 쉽게 이해되는 이 금강경을 통해 진정으로 수행자다운 삶을 위해 참다운 수행이자 희망의 길임을 함께 새겨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도법스님의 발간사 중에서

전재성역주 /신국판 /496쪽/값2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02)2631-1381
www.kptsoc.org



간화정로 (看話正路)

간화선을 말한다

미래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른 선禪, 그 선의 정수이며 최고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이다.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인 월암스님이 간화선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수행을 내용으로 간화선의 지침서를 출간하였다.

간화선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실참을 지향하는수행자의 삶이 선수행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

글 월암 月庵 /신국판 양장본 /
512쪽 / 값18,000원
현대북스 02)2198-5151
051)244-1251



구제프

파란만장한 구도자의 젊은 날, 구제프

이 책은 <서양의 붓다>로 칭송되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신비주의자로 잘 알려진 구제프가 구도자의 길을 가던 중 만나게 되는 여러 인물들과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둘러싼 마치 장엄하고 웅장한 스케일의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구도자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젊은 구도자의 여정과 모험을 엿볼 수 있다.

구제프, 그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신성한 사람이며 동시에 가장 역동적인 인물이다.왜냐면 그는 성자와 동시에 쇼맨쉽을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다.

– 앨런 왓츠

박은구 편저 / 신국판 / 280쪽 / 값 10,000원
하남출판사 02)720-031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나 불세존은 가섭과 아난이 남섬부주 대한민국 땅에 왔음을 선포하노라... (서문중에서)
윤회안과 윤회밖 해탈의 세계를 보다 깊이 갈파한 경전과 같은 보고서. 이 시대를 사는 불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붓다의 메시지

중생들의 네개의 영체에 대한 법설, 빛의 존재, 붓다는 무아속 절대 세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사자후, 그리고 붓다는 어떤 어른 인가를 깊이 언급하고, 바가바드 기타를 능가한 완벽한 생사관의 정립.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보살 붓다로의 위계설정, 지옥이 있고 극락세계도 있다는 등 불교사의 미증유한 법문!

자재만현지음/신국판 양장/
300쪽/값15,000원
현지궁현지사 033)243-1795



이지누의 절터 톺아보기 1권 : 강원도 경상도 편

절터, 그 아름다운 만행

폐사지를 향한 아주 특별한 연정

지은이가 20년 남짓 폐사지를 다니면서 불교사와 미술사에 대해서 공부해 온 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지난 500일 동안 전국의 절터를 만행하면서 거둔 것을 서정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사진과 철학적 사유가 넘치는 글로 정리한 폐사지 만행기이다. 강원도와 경상도에 흩어져 있는 절터 25곳을 담았다.

사진 218점은 절터 한곳 한곳을 계절을 달리하며 찾은 걸음과 오랜 기다림 끝에 포착해 낸 사진들이라 귀하기 이를 데 없고, 그 곳의 문화유산에 대한 미술사적인 해설도 따로 곁들였다. 책의 말미에는 폐사지를 답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길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길라잡이도 마련해 놓았다.

이지누 글 사진 / 크라운판
428쪽/값24,000원
호미 02)322-5084



원각경 강의

소천선사 著

원각경은 석존이 문수 보현 등 12보살들과의 문답을 통하여 대원각의 묘한 이치와 깨달음의 관행을 설한 경전이다.

소천선사가 1968년 72세 때 발행한 것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새롭게 제작하였다.

소천선사 저/ 신국판 고급양장 /
497쪽 /25,000원
전국총판 02)3672-7181~4 운주사

弘法院 02)734-7614



도화집(道話集)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서문을 대신한 간결한 글귀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

팝 가수 바비 맥퍼린도 노래에서 "Don't worry, be happy!"라고 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그 한 마디만으로도 숭산 스님을 절절히 추억하게 된다.
도화집은 화두(話頭) 100가지를 골라 공부하는 수행자들로 하여금 구도심과 깨달음을 일으키게 하는 선서(禪書)라고 할 수 있다.

숭산행원 지음/신국판 최고급 양장/
434쪽/ 값 20,000원
전국총판 02)3672-7181~4 운주사

弘法院 02)734-7614

●연꽃
메모꽃이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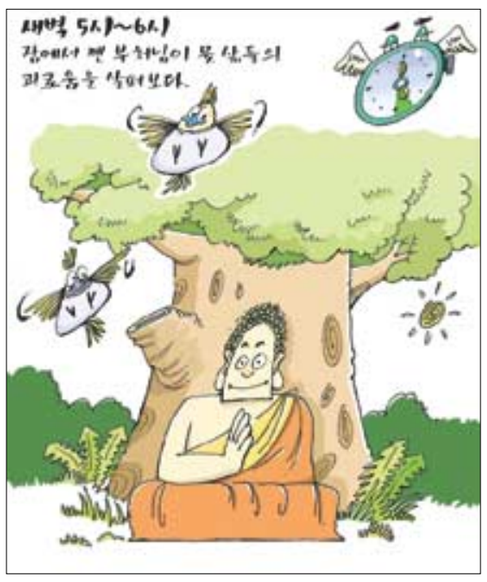
2600여년전 석가모니부처님의 하루 일과는 어떠했을까. 수행은 언제 하고 잠은 몇시간을 주무셨을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루하루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하다.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하루를 추적해봤다. 단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들어있는 〈쌍윳따니까야〉. '주제에 따라 함께 엮은 가르침 또는 경전들의 모임'이란 뜻을 지닌 빠알리 초기불교 경전 〈쌍윳따니까야〉를 토대로 부처님의 하루를 그림으로 구성해 봤다.

한역 〈아함경〉 중 〈잡아함경〉에 해당되는 2천8백89경의 〈쌍윳따니까야〉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하루 일과가 이렇게 묘사돼 있다.

"새벽 5시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눈을 뜨고…. 온 종일 제자들과 재가자들을 만나 법을 전하고…. 잠은 아라한의 경지에서 1시간정도 자고…."

고단하지만 고단하지 않았던 부처님의 하루 24시간을 들여다본다.

관련 칼럼 B1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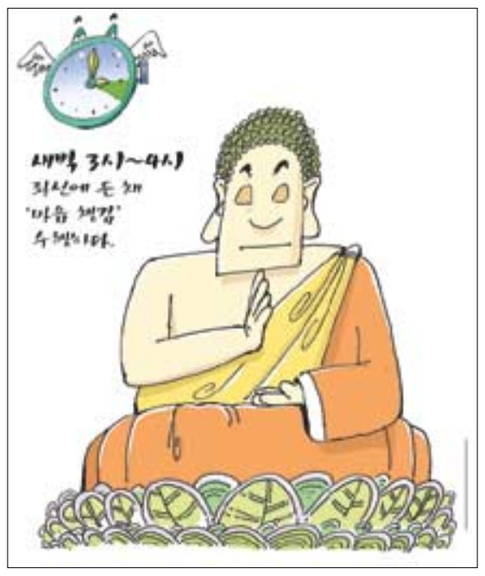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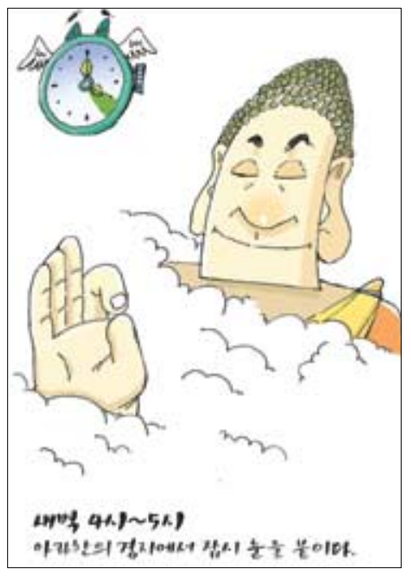












성 명 서

승가란 화합대중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출현하시어 크나 큰 진리를 깨달으시고 교법을 펴시며 교단을 이끄실 때 가장 중요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대중 화합이였으며, 이것은 또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영축총림 통도사는 방장 월하대종사 원적 후 화합된 승가 분위기가 깨어지고 분열과 시기 반목으로 문중간의 불신이 만연되어 상하간의 위계질서가 무너져 안타까운 마음과 참회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통도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방장을 추대하여 안정을 취하는 것이지만, 오늘의 통도사는 주지직무대행 현문스님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일처리와 각 문중간의 견해차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2005년 8월 산중총회에서 방장을 추대하였으나 중앙종회에서 인준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통도사 18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만들었으나, 결론적으로 '대책위'는 대중의 뜻과 상관없이 주지직무대행 현문스님의 거수기 노릇으로 그 역할을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형성된 '통도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통도사 양대문중의 어른 각 15인과 통도사 종회의원 5인 등 도합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추대한 방장이 주지직무대행의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방장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현 '비대위'는 더 이상 통도사의 일에 방관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통도사의 현사태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비대위' 또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통도사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한,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현문스님은 개인적인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필요할때면 '비대위'를 옹호하고, 지금은 필요없다고 '비대위'를 불순집단 내지 대중분열집단으로 매도하는 그러한 작태는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 문제의 본질은 '비대위'의 정체성이 아니라 대중의 뜻을 져버리고, 개인의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방장 사퇴를 발표하는 등 영축총림 통도사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주지직무대행 현문스님은 통도사 전대중을 더 이상 기만하고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통도사를 몇몇 스님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비승가적이고 비대중적인 작태에 대하여 통도사 승가 대중은 더 이상 묵과하거나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1. 현문스님은 통도사의 모든 문제가 본인의 개인적 욕망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즉각 주지직무대행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1. 「비대위」는 더 이상 통도사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중적 공의를 모아 빠른 시일 안에 통도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1. 조계종 총무원은 통도사의 문제를 대함에 있어 정치적 이해득실의 논리를 떠나 통도사가 통도사 대중의 합의에 의해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도사 승가 연합회

● 상임운영위원 : 만오, 신본, 문수, 수연, 희문, 혜원, 정암, 수운, 각현, 현덕, 인오, 영수, 지묵, 해중석, 정도, 동진, 정법, 도류, 지광, 덕진. 혜인. 서상 ● 간 사 : 명본, 진범, 묘경, 신공, 진각, 보광. 대안

통도사 승가 연합회원 158명 일동

‘상징성’ 통해 수행숨결 생생히

16000여년 한국불교 역사 곳곳에서 ‘깨달음의 기둥’이 됐던 역대 고승들. 이들의 탄생설화는 어떨까? 룸비니 동산에서 당차게 깨달음의 선언을 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이야기처럼, 오늘날을 사는 불자들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줄까? 역대 고승의 탄생이야기에는 어머니의 태몽이 있다. 하지만 그 태몽은 여느 태몽과 다르다. 중생을 제도할 성인의 탄생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나라 고승들의 탄생이야기와, 그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자.



▶부모님의 범상치 않은 태몽

한국 고승의 탄생설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모친의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다. 덕숭문중의 큰 산맥 금오 선사(金烏:1896~1968)의 어머니는 자신의 태몽이 범상치 않음을 예감하고 일찌감치 아들의 출가를 예견했다.

꿈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품고 있던 그릇을 내어주면서 “열지 말고 가지고 가라”고 했다. 이후 돌아와 그릇 뚜껑을 열어보니 하얀 학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학이 갑자기 날더니 오색이 반짝이는 영롱한 짐승으로 변해 기어들어 왔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놀라 꿈에서 깨어났고 그 후 금오 선사를 낳았다.

아버지의 사랑도 있다. 자장 율사(慈藏:?~?)의 아버지 무림(茂林)은 늦도록 아들이 없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상 앞에 나아가 “만약 아들을 낳으면 바쳐서 진리의 바다로 갈 수 있는 나루 또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하겠다”며 자식 낳기를 축원했다. 이후, 별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어머니가 임신했고, 부처님오신날 자장을 낳았다.

▶꿈에서 스님 만나 탄생한 고승들

고승들의 탄생설화에서 기인(奇人)이 많이 나온다. 특히 스님들이 주로 등장한다. 진감 국사(眞鑑:774~850)의 탄생 이야기에서는 인도스님이 나온다. 하루는 인도스님이 찾아와 “당신의 자식이 되겠습니다”하며 유리병을 주고 갔다. 그리고 진감 국사를 잉태했다고 전한다.

지증 국사(智證:824~882)의 탄생설화에는 거인이 나온다. 어머니의 꿈에 거인이 와서 “나는 부처님으로서 말법 세상에 스님이 되었는데, 성냄으로 인해 용의 과보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과보가 끝나 다시 스님이 되어야 하겠기에 좋은 인연에 의탁, 자비로운 가르침을 크게 펴기를 원합니다”고 말한다. 그 뒤로 아이를 배어 거의 4백일이 되었는데도 낳지 못하다가 부처님오신 날 아침에야 지증 국사를 출산했다고 한다. 또 독립운동가 용성 선사(龍城:1846~1940)도 어머니 손씨가 어느 한 스님이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용성 스님을 낳았다고 전한다.

▶성스러운 상징물도 등장

탄생설화에 등장하는 상징물에서도 고승이 탄생할 것이라는 암시가 주어진다. 별, 해, 달, 새, 오색 구름 등이 주로 나온다.

먼저 ‘별’의 경우, 원효 스님(元曉:617~686)의 탄생설화가 유명하다. 신라 원효 스님의 어머니는 별이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 뒤, 태기를 느꼈고 해산할 무렵 다섯 가지 색의 구름이 땅을 덮는 가운데 아이를 낳았다고 전한다.

‘해’와 ‘달’이 언급되는 사례도 있다. 신라에 불교를 처음 알린 아도 화상(阿度:357~?)의 설화에서는 어머니 고씨가 4월 초파일에 해와 달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아도를 잉태했다고 전한다. 또 태고 왕사(太古:1301~1382)도 어머니 정씨가 둥글고 밝은 달이 품 안으로 날아드는 꿈을 꾸고 태고 왕사를 잉태했다.

황금 빛 또는 푸른 빛 새들도 등장하는 탄생설화도 있다. 나옹 왕사(懶翁:1320~1376)의 어머니는 꿈에 황금빛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머리를 쪼며 알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품 안을 들어오는 것을 본 뒤로 태기가 있었다고 전한다. 이외 어머니가 우물 속의 오이를 먹고 태어났다는 도선 국사(道詵:827~898)와, 고향인 전남 불거촌에 3년간 가뭄이 들자,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드문 인물이 탄생했다’는 말을 들으며 태어나 이적을 많이 행한 진묵 조사(震默:1562~1633) 탄생설화도 흥미롭다. 김철우 기자

탄생설화, 그 의미는?

“수행자 삶 읽어내는 정보의 보고”

고승들의 탄생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 우선 이들의 탄생설화는 출가 전 가정사, 고승들의 출가 동기, 일생 동안 걸어온 구도역정 등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치열한 자기 수행의 첫 출발을 탄생설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탄생설화 자체가 고승의 삶과 사상을 풀이해낼 ‘암호문’이 되는 셈이다.

지난 1980년부터 한국 역대고승 24명의 행장을 소설로 쓴 <고승열전>의 저자 윤청광 작가는 “고승들의 탄생설화는 언뜻 보기에 황당하고 미신적인 부분이 적지 않지만, 설화가 제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잘 짚어내면 한 수행자의 삶을 읽어내는 정보의 보고(寶庫)가 된다”며 “재가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탄생설화를 통해 역대 고승들의 숨겨진 수행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동국대 고영섭 불교학과 교수는 “고승 탄생설화는 추상적인 모습의 부처님이 아닌 구체적으로 고승이란 수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부처님을 대신하는 역할로 고승의 탄생설화가 강조된 만큼, 설화 내용을 단순히 글귀 뜻풀이에 그치지 말라”고 당부한다.

고 교수는 특히 “각박한 현대사회를 사는 재가불자들이 고승들의 탄생설화를 통해 선지식에 대한 ‘살아있는 존경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설화의 상징성이 시공을 초월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한다.

싯다르타와 윤회



호진 스님 (경주 기림사)

부처되면 생사 문제 해결

모든 존재(衆生)는 죽으면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에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나게 되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그곳이나 다른 세상에 태어난다. 죽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태어남은 죽음을 말한다. 중생은 여러 세계(3계 6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수없는 삶과 죽음을 되풀이 한다. 이것이 윤회다.

윤회의 원리는 간단하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짓는 모든 업(業)은 틀림없이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업은 한 생 뿐만 아니라 여러 생에 작용한다. 전생에 지은 업은 현생을 만들고, 현생에서 짓고 있는 업은 다음 생을 결정한다. 업이 남아있는 동안 윤회는 계속된다. 업은 과보를 초래하면서 소멸도 되지만, 다시 지은 업이 보태지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업은 계속되고 윤회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法)를 깨달아 부처가 되면, 그 때부터 업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윤회의 바퀴는 멈추게 된다. 더 이상 태어남이 없게 되고, 태어남이 없으므로 죽음도 없게 된다.

죽음은 태어남, 태어남은 죽음을 사는 동안 지은 업 여러 생에 걸쳐 작용
싯다르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안내

고타마 싯다르타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었다. 그는 셀 수조차 없는 오랜 세월 전에 선혜(善慧)라는 수행자였다. 연등(燃燈)이라는 부처님을 만나 자신도 언젠가 부처가 될 것을 서원했다. 선혜는 한량없는 세월동안 온갖 수행을 다 하면서 성불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도솔천에 태어났다. 그 때의 이름은 호명(護明). 지금으로부터 2630년 전, 호명 보살은 카필라마스투국 왕비 마야부인의 몸을 통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싯다르타였다. 그가 태어나자 곧 아시타 선인(仙人)이 그의 관상을 보고 “이 아기는 장성하면 출가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고 예언했다.

싯다르타는 왕자의 몸으로 궁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풍요와 안락한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죽고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다시 죽어야 한다는 상황 앞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는 없었다. 살아간다는 것은 괴로움이었고, 이 괴로움은 끝없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싯다르타는 뒷날, 이 당시의 사정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과거에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혼자 고요한 곳에서 명상(禪思)하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괴로움에 빠져있다. 그런데 모든 중생들은 생로병사와 그것이 의지하는 바를 참답게 알지 못 한다’라고.” <상응부경전;잡아함 285경>

끝내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가운데, 머리를 삭발하고 가사를 입고” 출가 수행의 길을 떠났다<중부경전, 26경>.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정각(正覺)을 이루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냈던 것이다.

정각을 한 순간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梵行)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해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중부경전, 36>. 그리고는 기쁨에 차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나는 이 집(육체)을 짓는 자를 찾으려고 여러 생(生)을 보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그동안 자꾸 되풀이 하였다. 이제 집을 짓는 자(慾望), 너를 찾았다. 너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제 모든 서까래(煩惱)는 부서졌고, 대들보(無明)는 산산 조각이 났다.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모든 욕망은 소멸되어 버렸다” <법구경, 153~154 게송>

싯다르타는 이처럼 윤회의 원인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원인을 제거하면 윤회의 바퀴가 멈추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싯다르타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발견한 진리와 수행방법을 널리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의 목표를 ‘성불하는 것’ ‘열반을 얻는 것’ ‘해탈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싯다르타는 우리를 윤회에서 벗어나게 인도해주는 안내자, 즉 ‘도사(導師)’가 된 것이다.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조계종 화 방 사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
- 화방동산무료노인요양원(120명)
- 자비의 도시락 제공(250세대)
- 가정봉사원파견 서비스(94세대)
- 안전지킴이 베지밀 제공(504세대)
- 남해자활후견기관(참여자90명)
- 하동청소년수련원(연4만명 이용)
- 이동목욕 서비스(52세대)

대한불교조계종 화방사 사부대중 일동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 임직원 일동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448번지(화방사)
전화 055)863-5011~3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152-1(화방복지원)
전화 055)863-2286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
大本山 藥師寺
회 주 화 담
주 지 화 응
부주지 대 휴
신 도 일 동
財團法人 華嚴僧伽奬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奬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3동 산 21
대표전화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위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08 금강빌딩 301호
전화 : 02)730-0798~9 FAX : 02)722-3205

팔공산 동화사
비로암 하안거 대중모집
모집대상
신심있는불자 선착순 10명
모집기간
불기 2550년 5월 10일(음 4월 13일)
출입자 재도 결제 받습니다.
문 의 처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비로암)
TEL : 053)982-0223
053)983-2248
제9교구본사 동 화 사 비 로 암
감원 수련 합장

한국산 6년근 인삼 9증 9포한
약 왕 사
名品紅蔘
(명 품 홍 삼)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홍삼액기스 판매”
“자 죽염판매”
약왕사 주지 정명 합장
■ 제조원 : 약왕사 (왕솔농산)
전 화 054)371-6665
팩 스 054)371-6675
휴대폰 010-2513-6665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약왕사)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골 卍지장선원
卍지장암

(영가천도/구병시식)
휴양, 장기간 기도하실 분
환영합니다

주지 혜봉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489
TEL 054)383-8553

대한불교조계종
법륜사

주지 법성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1리 171
TEL 054)734-1258

박속의 천년고찰
대한불교조계종 대비사

주지 대륜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794
TEL 054)372-3876
FAX 054)373-8505

대한불교 진각종 포항교구청
보정심인당

교구청장 혜명

■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6-4
TEL 054)247-2649, 246-2231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 임대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TEL 054)247-2729(팩스 겸용)

대한불교법화종 포항 종무원
도암사

종무원장 성타 성엽
사부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장기면 정천 1구 676
TEL 054)293-0474
FAX 054)293-0473

대한불교조계종
도봉사

주지 서운
신도일동

■ 경북 칠곡군 석적면 성곡리901
TEL 054)973-6455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대둔산 관음사

주지 도현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236번지
전화 051)253-7957(주지실)

지장기도도량
덕대산 극락사

주지 김법륜
신도일동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전화 055)352-7224
휴대폰 011-584-5515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운용산 용정사

주지 석혜봉
신도회장 서광명장

■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산 213번지
전화 055)353-1196
팩스 055)356-1346

대한불교조계종
장복산 삼밀사

회주 동하
신도일동

■ 경남 진해시 대백동 산 75번지
종무소 055)544-5962
주지실 055)543-2931

부용불교사

대표 김태선 합장
(불교용품 농악용품일절 각종서적일체)

■ 경남 밀양시 내이동 689-5(내이동 진마트앞)
전화 055)352-3756
휴대폰 011-859-3756

대양청과

대표 정해석 합장
(각종 청과 위탁 도산매)

■ 경남 밀양시 내일동 378-4
전화 055)352-3001
휴대폰 011-877-5201

송원화랑표구사

대표 박봉규 합장
(병충 액자 족자 고서화 동양화 상설전시판매)

■ 경남 밀양시 내일동 139-3
전화 055)352-5878, 355-2698
휴대폰 010-3068-5878

송림가든

대표 윤태자 합장

■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전화 055)354-9416
355-4893

대한불교조계종
소백산 비로사

주지 성공
사부대중일동
저서) 인도와 네팔의 불교성지를 돌아보다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TEL 054)638-5033

대한불교조계종
서악사

주지 도일
사부대중일동
룸비니유치원 운영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13
TEL 054)655-1001

대한불교조계종
초암사

주지 용운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524
TEL 054)633-2322

대한불교조계종
대승사 대승선원

주지 탄공
사부대중일동
tour.mg21.go.kr

■ 경북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8번지
TEL 054)552-7105

재단법인선학원
관음사

주지 도기
사부대중일동
관음유치원운영 군포교 재소자 포교활동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
TEL 054)633-1138

계명암

주지 선재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345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대운산 내원암

주지 종선
신도회장 허 함 육성호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울산광역시 남구노인복지회관
울산광역시 노인학대예방센터
도솔천 노인전문요양원
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남사

주지 성본

■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118번지
TEL 052)211-3340

동국유치원 TEL 052)211-0003
수자타의 집(무료급식)
후원금:수자타의집(우리은행)
038-262299-02-501

삼천불 봉안 불사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정토불교대학
무료급식소 : 밝은세상
주지 산하덕진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화엄산 도솔암

-포교원-

주지 혜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전화 052)265-2286

대한불교조계종
신선산 보탑사

사부대중일동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4-1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중앙종회의장
법무부 교정 교화위원
화엄정사

주지 김광옥(화엄)
사부대중일동

■ 총무원: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40-27
TEL 02)998-8161
■ 화엄정사: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295-11
TEL 052)268-5565 / 휴대폰 011-875-5562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월봉사

주지 오심
룸비니 유치원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산60
TEL 052)251-4602 / FAX 052)235-4602
홈페이지 www.wolbongsa.org
울산광역시 시립 요양원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성산2지구 37B 3N
TEL 052)246-8061 / FAX 052)246-8063

차잎이야기

녹차 중국차 다구 소품 / 도 소매
전은숙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661-9
(울산불교교육대학 옆)
TEL 052)267-9341
휴대폰 011-9341-0189

연암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 전현석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35
TEL 052)288-6600
휴대폰 011-850-7713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조계종

축 서 사

주 지 무여

사부대중일동

축서사 불교 교양대학운영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TEL 054)672-7579
www.chooksersa.org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 지 근일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TEL 054)633-3464
www.buseoksa.org

대한불교조계종

천등산 봉정사

주지 문인

사부대중일동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TEL 054)853-4181
www.bongieo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김 룡 사

주지 중원

사부대중일동

경북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410
TEL 054)552-7006
www.yeongnam.co.kr

대한불교관음종

소백산 안정포교원

원장 강백재 합장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주시 안정면 일원리 208번지
TEL 054)638-0408
인간고뇌에 쌓여 있는 상담을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지장기도도량

성 불 사

이승을 떠나는 령(靈)가의 영원한 안식처!

극락왕생 령보탑(靈保塔)



우리 불자들을 위해 성불사에 세워지는 가족 동참탑, 성불사 령보탑은 불자들이 현세를 떠나신 후 생전에 부처님 자비도량, 지장도량인 곳에서 주지스님의 극락왕생 기도속에 편히 쉴 수 있도록 영구보존되며 영혼의 안식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극락왕생 령보탑은 옥합성 대리석으로 건립되며 탑속의 옥돌에 옻칠을 한 최고급 옥함에 령가를 모십니다. 주지스님이 직접 반혼재를 올려 드립니다. 령보탑 입주분행 문의는 성불사 종무소나 주지스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옻칠 순옥 령존함(靈存函)
옻칠 순옥 령존함은 습기, 부패, 변질, 냄새, 해충등의 완전한 차단으로 영혼의 안식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주 지 혜각 지성
사부대중일동

영주시 상망동 산 37-33
TEL 054)634-7918~9 / 016-519-0100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농법인 풍기정품인삼제조창

진실한 마음으로
정품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 품 목
- 풍기정품홍삼액(골드) 100g 60포, 30포
- 홍삼음료(액기스)
- 홍삼원액
- 홍삼
- 인삼
- 절편삼
- 인삼사탕, 인삼제리
- 홍삼 청국장(환,분말)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421번지
TEL 054)636-2174

※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insammaket.com 이나
네이버에서 인삼마켓을 쳐보세요.

생명체에 이로운 물질만 농축되여 있는

함 초

비구니스님이 **함초**를 복용하여
죽음의 고통에서 살아나 이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수있기에
함초를 드셔보세요

먹기좋게 손으로 직접 환으로 만듬
약값은 절을 짓는 불사에 쓰여집니다

함초구입문의 054)638-4796
휴대폰 010-4591-4796
백련스님

동율산사암연합회

원 로 원각사 월타
고 문 법륜사 눌암
회 장 대원사 동파
사무총장 대각사 초우

관음사 현수
관음사 혜원
자광사 향공
정각사 해승
동축사 문성
등용사 본명
반야사 노암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동 대원사내
TEL 052)233-7176, 281-0134

상원건설주식회사

회 장 조동환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토목공사업

본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40-9
전화 052)260-9950 (代)
팩스 052)260-9952

한국대승불교조계종 부산교구 종무원장 주석사찰

운 고 사

부산교구종무원장·주지 성운고

신도회장 이정희 원로회장 우정순

부회장 임미경 총 무 김옥춘
감 사 곽혜순 정정순 재 무 박정순
고 문 임대규 김금연 김군자 임정숙 정경숙
시순희 김영애 임향란 황보 길수

포교회장 박 행 환경원장 장현자 법우회장 정덕자 홍보부장 김선애
포교부회장 김정옥 환경부원장 이미옥 사회원장 박경선 예술원장 무 림
지장계회장 김명숙 화엄계회장 박나영 관음계회장 이희점
지장계부회장 류혜숙 화엄계부회장 박금선 관음계부회장 김경숙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산183
전화 051)852-3707, 853-5622

대한불교조계종

내설악산 백 담 사

주 지 일 문

산내암자 봉 정 암
오 세 암

사부대중 일동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0 내설악산
전화 033)462-6969 / 팩스 033)462-3224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한국불교태고종

무 량 사

주지 무공

태고종 중앙포교원장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
(태고)연구원 이사장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584-14 12호
TEL 02)904-0016, 0081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 문 사

주 지 변춘광 스님
총 무 방경혜 스님
재 무 지설혜 스님
부 전 이성진 스님
신도회장 권영철

신도일동

서울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TEL 02)3460-5300
www.gwanmunsa.co.kr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운향당

주지 능혜

사부대중일동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
TEL 054)933-6371~3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수 원 포 교 당

주 지 성관 스님
부주지 성보 스님
총 무 정명 스님
교무스님 달설 스님
포교국장 혜광 스님
기획국장 지효 스님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2-1
TEL 031)245-9670/2
www.suwondharma.or.kr

-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 선재원/청주 청수사
- 청주북부종합사회복지관
- 수원서호노인복지회관

대한불교조계종

자 재 암

주지 법해

사부대중일동

경기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
TEL 031)865-4045

(사)대한불교무량종 인천지원

비 룡 정 사

주지 박보산

신도일동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7
TEL 032)763-1237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 륵 정 토 사

사부대중 일동



키다리 미륵부처님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389번지
TEL 041)855-3566~7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염불선 수행 정진 도량

성 원 사

주지 석주경

- 포교당 및 유치원
  성정사(포교당) 033)642-0142
  성원유치원 033)642-0143
  강원 강릉시 회산동 4-5

사부대중일동

www.sungwonsa.org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810-1
TEL 033)661-5736

대한불교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원연합회

고 문 목산 눌암 지용
회 장 정각
감 사 문성 본명
상임부회장 덕진
부 회 장 도각
총무부장 종선
교무부장 현담
사회부장 남곡
재무부장 혜안
합창단장 종현

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성수빌딩 6층 616-6
TEL 052)266-3318~9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회 장 황경환
부회장 조종래 박권식
오세길 오순돌
이재필 김영득
노동식 윤건우
박복선 서복선
고석열 손경숙
사무총장 김영득
사무국장 추인교

이사 회원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성수빌딩 6층 616-6
TEL 052)271-1310 / FAX 052)258-1370

대한불교조계종

삼성산 삼 막 사

주 지 성 운

사 부 대 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241-54
전화 031)471-5978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 화 사

회 주 송월주

사 부 대 중 일 동

영화불교대학

부설(관인)영화유치원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9번지
전화 02)444-4321, 444-7215 / 팩스 02)454-8177



각자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진짜 믿어야

이렇게 정신계의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니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지만 모두 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혼자 못 산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모두가 인연에 따라서 그것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발전도 하고 창조도 하고, 창조력을 기르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죠. 내가 왜 꼬집어서 이런 말만 하느냐 하면, 최초의 근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돌아가는 것이 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는 여러분 각자가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기 때문에 인연 소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를 바로 진리라고 하죠. 그 진리가 끝간 데 없이 '나'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각자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 있는고?" 하고 물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있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로 발전도 할 수 있고…, 이 생활이 그대로 과학입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우주의 근본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끌어내려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법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있다." "어떤 것이 참선인가?" "생활 참선!" 여러 마디 거론되는 말을 쑥 빼고 지금 얘깁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근원에서 들이고 내는 생활 속에서 '나의 주인공(主人空)이다.' 할 때 주인(主人)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공(空)은 여러분이 활용할 때에 돌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찰나찰나로 변해서 돌아가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되놓아라. 되놓고 침착하게 관찰하라.' 합니다. 그냥 일하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서 있으면서도, 누워 있으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참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되는 것을 '이것이 슬기롭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여기다.' 하고 봤을 때에 그게 돌려놓는 겁니다. 됐을 땐 감사하게 놓고, 그리고 진짜 나를, 진실한 나를 구할 때는 '참나가 있다는 증명도 거기서만이 해 줄 수 있다.' 하고 놓고 관(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놓을 때 바로 '관해 본다' 그러죠? 그것을 '관찰'이라고 합시다. 관찰! 그러고서 또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진짜로 무조건 믿고 물러서지 않는 도리에 놓고, 그렇게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틀고 앉아 있는 것이 참선이 아닙니다. 즉,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고, 진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큰 것에서부터 조그만 것까지 내 앞에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놓고 관찰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게 뭣고?' 하고 열네 날 있어도 뭐는 뭡니까? 그냥 뭐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에 선지식들께서 표현하시기를 "수박을 놓고 이게 뭐냐고 아무리 돌려 가면서 봐도 맛은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내가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고 내가 체험을 해 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참선입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하나 행하는 것을 좌선 · 입선 · 와선 · 행선이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다 한꺼번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생활 참선이라고 합니다.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자, 이 세상 돌아가는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공안(公案)이 될 수 있고, 만물만생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도량이 될 수 있고, 내 앉은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디로 찾아다닌다, 또는 모르는 게 있으면 경전을 들춰 본다고 해서 그 진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든 알든, 못났든 잘났든 내가 길을 가다가 엎드러졌으면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죠.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리 절름발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는 50% 무(無)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절름발입니다. 그래서 다리 한 짝을 마저 일으켜 세우는 도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눈은 애꾸입니다. 눈 한 짝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한 짝을 마저 뜨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에서만이 일체 만법이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실험하면서 체험을 안 한다면 그건 참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모든 것을 습득을 해서 모든 관습을 놓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고 보면 상당히 쉬운 일인데도 자기를 자기가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고 뭘 그렇게 알아야 하고 따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배웠고 잘났고, 똑똑하고 못났고, 못하고 못 배웠고 이런 거를 몽땅 다 놓는 겁니다. 놓는 거라고 하니까 놓는 거에 또 걸리지 마십시오. 내 육체를 나라고 하거나, 내가 했다고 하거나, 내가 가졌다고 하거나, 모든 걸 나라고 일으켜 세운다면 모두들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로 보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가 연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업이 녹질 않아요. 과거에 입력된 것이 살살 나오는 위에다 또 자꾸 업을 지어서 미래에 나오게끔 입력하는 겁니다. 지금 입력되는 거는 미래에 가지고 나올 것을 미리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 아닌 저장이죠. 여러분이 그 업을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각자 자신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은 육을 끌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 내 신을 두고 남의 신을 찾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자신(自神)을 두고! 자신은 정신계에 속하고, 육은 현실계에 속하는 겁니다. 항상 육은 끌려다닙니다, 마음의 주인한테. 그러니 잘못 돌아가는 거는 거기다 되놓고 잘 돌아가게 해서 서로가, 누가 더 높고 얕음이 없이 상통하면서 같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래는 같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유심(有心)에서는 도저히 정신계와 물질계가 한데 작용을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새삼스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그렇게 가고 있으니 그걸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뭣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저렇게 되는 거지! 이게 틀리지, 이게 옳지!' 이런다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믿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따져야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따지는 겁니다. 아무리 따져 봤자죠. 그러니 '이렇게 해야 맞지, 저렇게 해야 맞지!' 하고 자꾸 잔소리가 심하고 이론이 많아지고 그런다면 전자와 전자가 어떻게 마주 붙어서 불이 들어옵니까? 네? 자기한테 자기가 따지려고 드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여러분은 진짜로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믿고, 자기 주먹만을 믿고 주먹에서 나오는 거 주먹에다가 도로 놓는 마음! 이 세상을 다 지닌 한자리, 그 주먹 아닙니까? 허허허….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고
진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내 앞에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놓고 관찰하는 것이 참선!

▲질문자1(남): 먼저, 매월 첫째 일요일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법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 주시고 좋은 법문을 해 주시는 큰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질문을 여쭈고자 합니다. 이 지구상에 마음공부 하시는 분이 또 있으리라고 전제하고 여쭤 보겠습니다. 가령 인도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중동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다고 할 때, 세계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그분들은 다 함께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봄에 걸프전이나 엊그제의 L.A.폭동 사건 등을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인이 동시에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동시에 마음을 낼 것이고 특히 깨달으신 분들은 더욱이나 빨리 평화로운 상태가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분들이 마음을 내셨기에 더 크게 일이 번질 것이 그쯤에서 끝난 것인지, 그렇게 보아도 되는 것인지, 또 인연도리로써 마음을 내시지 않고 그냥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일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아이구, 질문이 장장이군요, 아주. 하하하…. 그러나 잘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마음을 낸다, 안 낸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이렇게 말했죠? 우주와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다고요. 우리 각자 개개인이 자가발전소라면, 종합된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불바퀴라고 합니다. 법바퀴라고도 하죠. 그럼 또 이런 말을 한마디 더 해야겠습니다. 깨달은 분이 수가 없이 많다 하더라도 한 불바퀴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날날의 물방울이 (물을 컵 뚜껑에 조금 부어 보이시며) 수천수만이라고 하더라도 물방울이 여기 다 들어가면 한 그릇입니다. (뚜껑에 있는 물을 컵에 다시 부으시며) 한 그릇! 진리라는 게 자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일이 생겨서 퍼뜩 알았다 할 때, 모두 불바퀴에 본래 직결이 돼 있으니까 한 찰나에 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마음을 내면 스위치가 올려지는 격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한 찰나에 회의가 벌어지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이것도 자동적입니다. 회의가 벌어졌다가 그 모든 응신(應身)들이 거기에서부터 다, 가설이 된 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전력이 나오듯이 이렇게…. 이거 이해가 갑니까?

▲질문자1(남): 말씀하시는 의도는 짐작이 갑니다.

▲큰스님: 짐작이 가라고 하는 건데 그럼, 허허허…. 발전소에서 발전소로 하달이 돼 가지고, 그 때는 그냥 그대로 전력을 뽑아 쓰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또 마음을 낸다, 안 낸다 할 것도 없죠. 보고 들었으면 그대로 감지가 돼서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자동적으로 가는 사이 없이 오르고 내려서 오른다 내린다 하는 언어도 붙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직결이 돼 있는 것도 모르고, 가설이 돼 있는 것도 모르죠. 위로는 직결이 돼 있고 아래로는 가설이 돼 있으니까 그냥 자기의 그 한자리에, 가설이 돼 있는 자리에 놓았으면 될 텐데, 그 가운데 스위치만 올리면 될 거를, 그거를 몰라서 자기한테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서나 뭐 이런 데서 방송이 되면, 할 것은 하고 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딱 한데 놓고 한생각 하면 컴퓨터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한생각만 넣으면 그냥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모든 거를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한다면 생산돼 나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다 놔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뜻도 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하면 벌써 태양계로 은하계로 다 통하게 돼 있고 그것은 뭐…. 그래서 대천세계, 소천세계가 한데 합쳐져서 중천세계입니다, 우리 사는 데가. 이러니 모두가 종합돼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에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같이 마음을 내 주는지 어쩌는지 하는데, 같이 마음을 내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찰나가 됩니까? 그리고 같이 어떻게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마음 내는 것은 사량적입니다. 인간 이전에 '참', '참 진(眞)'이 거기 한데 모여서, 직결되고 가설이 돼서 모두 그렇게 마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불바퀴에 모든 것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딱 스위치만 올리면 거기에서 응신들이 출발을 해서 이 사바세계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즉 말하자면 그 나쁜 마음속에 전부 응신이 돼서 들어갑니다. 응신이 돼서 들어갔다가 한 찰나에 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들이 다 바꾸어집니다. 그러니까 몸, 활동도 바꾸어지죠, 마음이 바꾸어지니까.

여러분 몸뚱이 속에 수십억의 그 중생들이, 만약에 이런 공부를 각자 하신다면 천백억의 화신(化身)으로 화(化)한단 말입니다. 그 중생들이, 업식이 그냥 화해서 화신이 돼 버려요. 화한다고 그래서 '화신'인 겁니다, 바꿔진다고 해서. 그런데 또 상대방한테 들어가서…, 돼지가 만약에 응해 달라고 하면 돼지한테로 들어가야죠? 돼지가 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신이라고 합니다. 법신(法身), 응신(應身), 보신(報身) 이럽니다. 그것은 한 찰나에 들고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스님! 이러이러합니다. 지금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또 중국에서 "어이구, 이거 피가 멈추질 않아서 오질 못합니다." 그럴 땐 응신이 아니고는 아니 되죠. 가고 옴이 없이 한 찰나에 들어야죠? 한 찰나가 아니라면 그거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건지는 데는, 돼지가 사람을 보면 돌로 보지만 돼지가 돼지를 볼 때는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저항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돼지뿐이 아닙니다. 꽃이나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짐승들이나 나는 짐승들이나 또 곤충이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접근을 하면 의심을 하고 돌아가죠?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제깍 접근이 되죠.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접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신이자 응신입니다. 그와 같이 그 모든 일은 그렇게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직결돼 있는 데는 모든 자가발전소가 한데 합쳐진 자가발전소요,

☞B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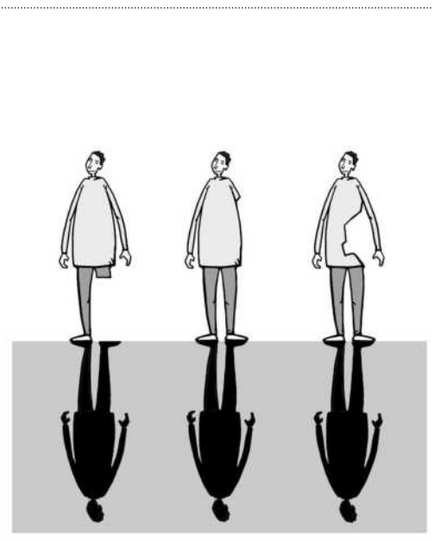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을 내면의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라!

☞B25면에서 계속

지금 가설이 된 데는 현재 세상이란 말입니다.

▲질문자1(남):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시 돌 아닌 도리를 되새기고자 애쓰면서 무언의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특히 '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면 그것도 내 속에서 나온 습인 줄 알고 슬며시 놓아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격한 감정이 솟구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자신도 모르게 저 잘난 소리를 마구 늘어놓다가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이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늘 되입력하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먼저 입력된 것이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는, 말하자면 습이 워낙 중한 까닭인지요? 아니면 되입력하는 마음의 힘이 약한 때문인지요? 놓고 또 놓는다고 하면서 되나오고 되나오니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그건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되나오고 그렇죠. 그것이 말입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자꾸 따지는 버릇을 갖는다면 습입니다, 그게. 자기한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따지죠, 일일이. 그게 왜냐하면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속에 자기가 다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몸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거기서 솔솔, 그저 이때 한 거는 이때 나오고 저때 한 거는 저때 나오고, 그냥 입력된 대로 순서대로 착착 나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착착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의식들이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식들이 입력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자꾸 거기서 나오는 대로 나오는 그것만 알지, 그것이 잘되고 잘못되는 거를 모르는 중생들입니다. 이게 업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로, 그놈도 거기서 나온 거, 그놈도 거기서 나온 거, 그놈도 거기서 나온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느 수좌가 동짓날 팥죽을 큰 솥에다 쑤는데 팥죽이 부글부글 끓어서 팥죽 방울이 수없이 나오거든요. 수없이 나오니까 퍼뜩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팥죽 방울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방울대로 따로따로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아이구, 한 팥죽 솥에서 나오는구나!' 하고요. 이제 아시겠죠? 한 팥죽 솥에서 방울이 나오는 거지 팥죽 솥이 따로 있어서 방울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자기 법이란 얘기죠. 법신! "요것도 법신! 요것도 법신!" 하고는 주걱으로 때렸단 말입니다. "이것도 문수! 저것도 문수!" 하고 그저 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스스로 익는다면 벌써 팥죽은 다 익었으니까, 열기가 더 오르지도 않고 더 내리지도 않고 아주 평상시처럼 따뜻하게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팥죽 방울이 올라오지 않죠. 모두가 하나가 돼 버렸으니까, 그냥 모두가 팥죽이 돼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을, 거기서 어떠한 뽈따구가 나오든지, 또 자기에게 누가 되게끔 생각이 나오든지, 또 집안 식구들한테 짜증이 나든지, 또 자식이 잘못해서 속이 상하든지, 모든 것을 거기다가 그냥…,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 자식의 일이든지 뭐든지 다 거기다가 맡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 걸 거기다가 맡겨 놓을 때, 동시에 '흥,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돌아서 잘 나오게도 할 수 있잖아!' 하는 생각이 아주 필연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되게 할 수 있는 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 하고 돌려 놓는 겁니다.

속에서 이렇게 뽈따구가 날 때 '아니, 불이 일어나게끔 나올 때 불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도 바로 거기 아닌가?' 이럴 때는 아주 선선하게 이 마음이 곧바로 화해 가지고는 아주 좋게 나옵니다. 즐겁게 나옵니다. 웃음도 깔깔대고 웃다가 '아이고, 이거 안됐잖아?' 하는 생각을 하면 웃음이 뚝 멎죠? 허허허…. 그렇게만 하신다면 모든 게 아주 더함도 덜함도 없는 잘 익은 팥죽이 돼서 맛있게 맛을 볼 것입니다.

▲질문자1(남): 고맙습니다. 여기 모이신 법형제들의 가슴에 그 좋은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약이 되고 덕이 되고 모든 공부하는 데….

▲큰스님: 그냥, 공덕이라고만 하세요. 허허허….

▲질문자1(남): 예, 공덕이 돼 가지고 모든 공부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자2(남): 정말 이 세상에 마(魔)가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이거 봐요. 악과 선이 어찌 없겠소? 동시에 모두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란 놈이 도둑질도 시키고 좋은 일도 시키죠. 그러니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짓 하는 사람이 악한 짓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타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찰나찰나 화해서, 착하던 사람도 앞에 딱 닥치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딱 닥치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좋은 일 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 이것을 참선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니까 말입니다. 어떤 것을 나쁘다고 하고 어떤 것을 좋다고 하겠느냐. 마음을 바로 쓸 때는 이렇게 되고, 또 나쁜 상황이 앞에 딱 닥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한 강도가 어느 수풀 속을 지나가는데 어느 여인이 어린애를 안고 업고 걸리면서 "엉엉" 울고 가더랍니다. 밥도 못 먹였는지 "엄마, 밥 줘! 밥 줘!" 하고 울고 가는데, 참혹해서 볼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강도가 아닌 척 하고선 "어린애가 배고프다 그러는데 먹을 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먹을 것도 없거니와 남편도 붙잡혀 가서 영 오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집도 오막살이 있던 것을 뺏기고 어디로 갈 데도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서 전대를 해 가지고 있던 것과 먹을 것을 좀 훔쳐 뒀던 것을, 전대 돈은 가서 오막살이라도 하나 장만해서 먹고 살라고 주고, 자기 먹으려고 집어 온 거는 그 애들을 주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허허허…." 웃으면서 "도둑질을 하는 놈 위에 또 나는 놈이 있구나." (대중 웃음) 아니, 얼마나 그것이 기가 막힌 말입니까?

또 한 가지 요거, 잠깐만 얘기하죠. 우리 신도가 집이 없어서 남이 금방 지어 놓은 집을 빌려서, "팔릴 때까지 들어가 살아라." 그래서 들어갔답니다. 집은 좋지만 그냥 자기는 보따리 보따리 해서 다락에다 넣고선, 내일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에 먹일 것도 없고 차비 줄 것도 없어서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부글부글 속을 끓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집이 좋으니까 도둑이 들어왔더랍니다. 하하하…, 뛰어넘어와 가지곤 다락을 통해서 방에 들어오려고 다락에 뛰어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따리 보따리만 있고 속을 풀어 보니까 헌 누더기, 뭐 이불 나부랭이 살림 나부랭이 뭐 이런 거거든요. 다락에서 도둑이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안에서 "아이, 내일 아침에 애들 밥은 어떡하며, 차비는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 타령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주인공, 당신만이 이 애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고 당신만이 먹일 수 있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들을 때에 '주인공은 뭐고?' 허허허…, 주인공은 뭔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 당장 어린애를 보내지를 못하고 먹이지 못한다는 소리에 그만 이 도둑이 가슴이 좀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첫 번째, 두 번째 해 가지고 와서 세 번째 들렀는데, 그 도둑질해 온 거를 다락문을 가만히 열고는 거기다가 내놓고서는 다락문을 또 타고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구 참, 기가 막혀! 이것은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되뺏기고 가네!" 이러더랍니다. (대중 웃음) 그러니 도둑놈이 어찌 도둑놈만이겠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이튿날 아침에 와서 깔깔 웃으면서 "스님! 주인공이 이렇게도 살리는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도둑이 도둑질한 걸 갖다 줘서 애를 무난히 학교에 보내고 쌀 한 가마니 사고 또 연탄 사고 애들 등록금도 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러게 도둑놈을 도둑놈으로 보지 마라. 모두가, 그저 죄가 뭐가 죄겠어? 다 모르는 게 죄고 순간순간 나오는 대로, 업식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환경에 닥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외려 더 불쌍하지. 뭐가 나쁘고 좋고가 따로따로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선은 없습니다. 허허허….

▲사회자: (법회를 마친 후 대중들에게) 감사합니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합장하시며) '성불이다' 이런 생각, 이름을 붙이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공덕이 있으시길 빌면서….

※위 법문은 1992년 5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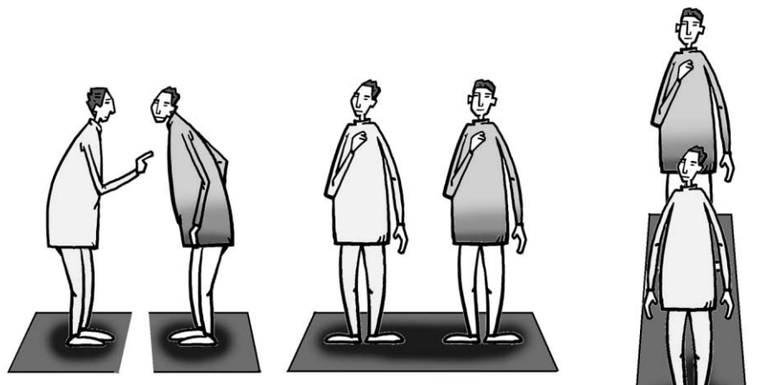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찰나찰나 바뀌니 악과 선을 따지지 말아야

일허스님의 장애우 휠체어 보시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불제자의 인연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정진함에 있어, 항상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납의 작은 재주로 장애우들께서 조금 편한함을 얻을 수있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장애우 휠체어 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어 그 뜻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마도 보급에 동참하여 주시는 고마운 뜻과 장애우들에게 전달되는 내역을 지면을 통해 빠짐없이 공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암 주지 일허 합장

▷ 일허스님
· 부산에서 출생. 사미계수지. 송광사에서 구족계. 운곡,강장원 선생 사사
· 2001년 중앙승가대학 졸업
· 2002년 제1회 개인전, 달마-선화의 세계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 2003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2005년 한성대학교 박사 과정 재학중
·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지(現)
· 재적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달마도란?
달마도라 함은 운필이 거침없이 힘차고 간결하며, 먹의 쓰임 역시 깨끗하여 탈속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평온해지는 불가사의한 그림이다.





달마도 大 / 10만원
달마도 小 / 5만원

직접 그리는 관계로 조금씩 작품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우 휠체어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에
동참하실 사찰이나, 스님께서 연락주시면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주 관 : 영천암 신도회. 수창정진회
• 후 원 : 연꽃마을. 진각복지재단. 인천 청학사
• 후원계좌 : 농협 811091-52-133201 (예금주: 김영철)

대한불교조계종 영 천 암 주 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산 200번지 / 전 화 : 055)356-2040, 011-867-4747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황령선원
홍제사

선원장 혜국
사부대중일동

• 매월(음) 초하루 ~초사흘 신중기도
• 매월(음) 보름 - 24일 자비도량참법기도<10일간>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3동 산 51-2
전화 051)802-0130

대한불교조계종
영주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 영주암어린이집

회주 불국정관
주지 범산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950
종무소 051)754-2210 유치원 051)754-6120
어린이 집 051)755-2888 수련관 051)868-0750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경남포교사단

단장 박근호(덕인)
외 단원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1동 849-12 2층1202호
전화 051)633-3011 팩스 051)633-3012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주지 송구산
부주지 용 일
재무 정 안
사무국장 안종명
신도회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4동 843번지
전화 051)467-3316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주 지 대성(범어사 주지)
담임법사 무관
전문분야(주,야) 금강경 (야간)
육조단경(주간) 서장(야간)법화경(주간)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393-15 불교회관5층503호
전화 051)806-7277,864-7290
www.beomeosa.org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정사

(부설: 해인경전대학)

주지 수진
관음예불회원 일동
신도회 일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1063-56
전화 051)202-4933

백옥부처님천불기도도량
소원을 이루는 우리절
봉화산 길상사

주지 자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8번지
전화 051)973-5224
팩스 051)973-3076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문수불교문화원

회주 법 흥
주지 지 원
신도회장 김철윤 김진실행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51-8
전화 051) 624-3754, 623-3648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주지 운암(석현엽)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445
전화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마산중앙포교당 정법사

주지 호암 지태
신도회일동

<부설> 대자유치원,도솔유치원,영축불교대학

경남 마산시 추산동 65-2
전화 055)245-6544

재단법인
보현장학회

이사장 정 여
상임이사 각 우
이 사 정현 심금윤월 백대일심
감 사 여현 정만
사무국장 이욱태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57
전화 051)403-7096 / 팩스 051)403-9801

부산불교실업인회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박수복
상임부회장 박수관
부 회 장 조길제 김종태 이근철 박영근 배영호 임정웅
총무부회장 이달수 재정부회장 한기승
사업부회장 지호경 감 사 안인성 이수환
특별회원 설동근 안석태 강동균 이영채
총무이사 신병호 재정이사 이학성
사업이사 이환길 부총무이사 이규인
재정자문위원 김정웅

마야부인회 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회관3층
전화 051)818-9911 / 팩스 051)818-9916

부산여성불자회

자문위원 이영숙 박성빈 백명숙
회 장 왕선자
부회장 이윤목 김현숙 이정순
총 무 하영조 김희란
재 무 김종순 홍정숙
감 사 이경월 이소연
교 화 양외금 이복선 우영자
운 영 이미춘 보승장 서화영
봉 사 김경자 박순천 이길선 김연자
장학위원장 홍말연

이사 및 각구 지회장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393-12(불교회관 5층)
전화 051)852-4166 / 팩스 051)864-7290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선암사

주 지 원 범
신도회장 설동근

원효봉사회, 원효불교대학,
원효거사회, 원효합창단,
선암청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3동 628
전화 051)803-7573
051)803-7522
팩스 051)803-7521

대한불교조계종 신창농장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한나래문화재단

주 지 深 山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HOMEPAGE :
www.busanbuddhism.com
E-mail: 5080345@hanmail.net

지장불교근본도량
공덕원

주 지 혜월(효선)
신도회, 지장회, 대원회, 연화합창단,
대원청년회, 어린이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전화 051)625-2253
팩스 051)623-3946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송광사부산분원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9-2 전화 051)294-9300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다정한어린이집 노인주간보호센터
부산사하두송자활후견기관
전화 051)265-9471 www.dusong.or.kr

행동하는 청년전법단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 장 손정현
부회장 박상언 오세희 조명희
김형석 지은아 이정섭
김진희 박기진 이동현
최우진 전진호
사무처장 박경수 사무차장 강나빈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974 소림불교회관
전화 051)467-5241
cafe.daum.net/kybabs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로사

감로사 불교대학

기초, 경전과정
조실 지관 회주 법희
주지 혜총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동 33
☏ 051)809-0926
팩스 051)803-0188

불교의 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설 : 용호재가복지봉사센터,용호치매노인주간주말보호센터
용호어린이집,용호가정봉사원파견센터
양정노인주간보호센터, 부산시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무료급식(매일300명), 노인대학(매일200명)

관장 혜 총
전화 051)628-6737 / 팩스 051)628-6562

대한불교조계종
묘봉산혜원정사

시회복지법인 혜원

조실 고 산
주지 원 허

고산장학회 / 선지식회 / 자비회 /
만불회 / 지장회 / 관음회 /
연꽃부부회 /자원봉사단 / 선원대중 /
혜원합창단 / 청년회 / 대학생회 /
중 · 고등학생회 / 어린이회 /
사회복지법인 혜원 부설 선재어린이집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산1113-1
전화 051)866-7771
팩스 051)866-7777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정사

주지 정련

● 석암장학회 051)243-0692
● 내원정사 유치원 051)244-0691
● 사회복지법인 내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051)264-0691
내원어린이집051)264-9031
부산서구노인인력지원기관051)244-67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반야원055)632-1854
부산사하자활후원기관051)263-6697
●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051)405-5223
합천군 청소년 수련관055)932-5662
중구문화의집051)247-8425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3-2번지
전화 051)242-0691
팩스 051)248-0691

부산불교사회복지 · 청소년기관협의회

후원 및 자원봉사는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본 협의회 기관을 통해 해주십시오

회 장 혜총 스님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혜문스님/부장 채종현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명현스님/부장 박신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여스님/부관장 정순화/부장 조수경
■금정청소년수련관 관장 정만스님/과장 홍석환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임광수/부장 배의식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현스님/부관장 김맹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현스님/부관장 서봉스님/부장 김민아
■부산광역시청소년쉼터 소장 지장스님/부장 정현숙
■부산시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소장 김영곤
■부산시노인복지시설인력지원센터 대표 혜총스님/ 소장 윤기혁
■사단법인 선양복지원 이사장 김수현/사무장 노상희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정여스님/사무국장 정득보
■사회복지법인 혜 원 이사장 원허스님/사무국장 이명숙
■사회복지시설 컴넷하우스 원장 윤숙자/사무국장 채인숙
■실버요양원 향락정 실버빌 원장 정관스님/사무국장 윤기혁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관장 박용하/소장 김영곤
■양정청소년수련관 관장 범산스님/부장 장문숙
■영도구노인복지관 관장 선공스님/과장 박경란
■영주암어린이집 원장 범산스님/원감 양금선
■용당어린이집 원장 배지미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혜총스님/부관장 이춘성/부장 서은해
■조계종복지재단 부산보현의집 원장 이기표/총무 이영숙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유정스님/부장 한승미

사무국장 이 춘 성
간 사 김 영 곤, 서 은 해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설>부산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회 장 공병수
직전회장 류진수
상임부회장 김성림
부 회 장 황진옥 배태순
이상률 조문환 권승렬
감 사 김창석 서병흔 이대원성
사무총장 이욱태
재무총장 황국근
기획실장 홍정표
연수원장 곽만연
재정사업분과위원장 박형주
홍보문화분과위원장 권용달
포교교육분과위원장 이숙희
복지환경분과위원장 김영기
조직분과위원장 송귀종
예술분과위원장 김귀련
청년분과위원장 류상영
자원봉사단장 박성미

이사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157-1 불교회관5층
전화 051)853-2021 팩스 051)853-2036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조계종 제 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 어 사

조 실 지 유
주 지 대 성
부주지 계 전

유 나	인각	재 무	원범
강 주	무비	사 회	지선
율원장	지오	포 교	무관
박불관장·총무	경선	호 법	안도
기 획	정산	연 수	혜수
교 무	성중	신도회장	박정현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TEL 051)508-3122 / www.beomeosa.co.kr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주 지 이산현문

총무국장	태봉	기획국장	양현
교무국장	보화	재무국장	지수
사회국장	정무	포교국장	매물
호법국장	무영	원 주	범철

총림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055)382-7182 / 팩스 055)382-7196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韓國禪佛敎曹溪宗

종 정 圓覺 知祐
총무원장 鶴川 唯松

감사원장	무하 법장	포교원장	대광 혜암
종회의장	원공 반노	교육원장	인월 혜산
선교원장	화담 혜인		
규정부장,충북교구원장	다보	포교부장.부산교구원장	수진
경기교구원장	법지 서안	대구교구원장	지인
서울교구원장	용덕 수국	전북교구원장	보경
강원교구원장	근법 동행	부산남교구원장	원각

※상시 입종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면 덕심리 산55번지
총무원 보현사 016-574-04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승가종

종 정 습득 월인
총무원장 탄 성 법 봉

승가종 전국 202개 사암주지 일동

(사)승가종 범음대학
학장 수보 법수(011-584-5588)

(사)승가종 법사대학
위원장 수불 강종식
학 장 무위 김양원

※행자교육원 상시 운영

■총무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2동113-1
TEL 051)552-8551,4 051)556-0278 / FAX 051)553-5921

'도심 속 문화와 신앙의 대가람'



주 지 김영제

총 무	엄행주
교 무	윤갈웅
재 무	김효성
부 전	강청호
신도회장	김형대

사부대중일동합장

大韓佛敎 天台宗 釜山 三光寺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 051)808-7111~5 / FAX 051)803-1332 / www.samkwangsa.or.kr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 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여여정사

(부설) 신행학교

선원장 정 여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신도회, 동문회, 거사림회, 청년회, 어린이회, 복지회, 합창단,
다도회, 선림회, 여진부, 참선부, 수림회, 금빛모임, 교무위원

■ 여여선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TEL 051)853-5486~7 / FAX 051)863-6422
■ 여여정사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TEL 055)355-9290~1



부처님오신날 특집방송

방송국	프로그램	방송시간
KBS1TV	KBS스페셜 '인연'	5월4일 오후 7:30
	특집 다큐 '날마다 관음을 만나다'	5월5일 오전 11:30
	자연 다큐 '봉암사의 숲'	5월5일 오후 1:35
KBS2TV	놀라운 아시아 부처님오신날 특집	5월5일 오후 7:10
	토요명화 '삼사라'	5월6일 밤
MBC	특집 다큐 '출가'	5월3일 오후 3:00
	'봉축법요식'	5월5일 오전 10:00
	영화 '달마야 서울 가자'	5월6일 밤 12:55
	MBC스페셜 '선(禪)수행 7일, 나를 깨치다'	5월7일 밤 11:30
평화방송TV	최호영 신부와 함께 하는 교회음악콘서트 '영산재 공연'	5월 5일 오후 1:00

방송국	프로그램	방송시간
불교방송	'우리도 부처님 같이'	5월1~5일 오후 5:10
	'도법 스님, 우리시대의 생명평화를 말하다'	5월4일 오전 9:05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5월5일 오전 10:00
	'오늘은 좋은 날-팔상도의 의미'	4월28일~5월 5일 오전 6:20
	'거룩한 만남-용인 청소년의 집'	5월5일 오전 9:05
불교TV	'특별생방송 연등축제 1·2·3부'	4월30일 오후 4:20
	'달라이 라마, 지혜를 말하다'	5월1일 오후 12:00
	오대산 월정사의 '출가' 2부작	5월1·2일 오후 1:00, 10:00
	'불교의 땅 히말라야' 2부작	5월2·3일 오전 9:20
	'영산재'	5월 3일 오후 8:50
	'조계종 종정께 듣는다'	5월 4일 오전 8:10,오후10:00
	'특별생방송 봉축법요식'	5월 5일 오전 9:55
	'천태종 신임총무원장 정산 스님께 듣는다'	5월 5일 오전 7:30, 6일 오후

동국대 불교학과 문인들 100주년 기념 사화집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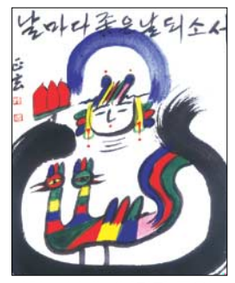
만해 스님의 시에서부터 소설, 희곡, 동화, 시나리오, 평론까지 동국대 불교학과 문인들의 작품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졌다.

불교학과 출신 문인 40명이 꾸미는 사화집 <우리 고향 중의 고향이여>는 만해 스님 외에도 김달진, 서정주, 조지훈, 이원섭, 이형기 시인 등의 시와 우봉규씨의 소설, 정동건씨의 희곡, 방귀희씨의 동화, 최금동씨의 시나리오, 정태용·김운학씨의 평론 등이 실렸다.

한편 동국대는 교수 동문 등의 작품을 200여점을 선보이는 건학 100주년 시화전을 4월 26일~5월 9일 서울 인사동 공평아트센터(02-733-9512)에서 개최한다.

강지연 기자

정현 스님 선화展 '염화미소'



정현 스님 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부처님 말씀을 그림으로 만난다. 선화가 정현 스님이 '염화미소'를 주제로 불일미술관 초대전을 개최한다. 5월 3~9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여는 전시회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스며있는 삶 속에서 불교적인 요소를 덧붙여 그림으로 보여준다.

소, 봉황, 오방색, 불고기 등 우리 민화와 전통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요소들을 차용해 새해 안녕을 기원하면서 나누었던 세화(歲畵)나 전통 민화 같은 느낌을 전달한다. 스님이 직접 그린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작품을 전시회 관람객 전원에게 나누어줄 예정이다.(02)733-5322

강지연 기자

우리는 선우 제천지회, '한국고승유물전'


성철 스님 作 '일원상'.

'김생, 영파, 만공, 만해, 동산, 청담, 성철, 서옹…' 한국고승 44명의 수행 정취를 한 눈에 접할 수 있는 유묵전이 열린다.

(사)우리는선우 제천지회(공동 대표 이위순, 김연호)는 '크신 발자취 천년 묵 향기 안고 오시네'를 주제로 5월 1일 제천시민회관 제1·2 전시관 및 광장무대에서 한국불교 1600년을 대표하는 역대 고승들이 남긴 글씨와 그림, 행장 등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라말 서예가 행기 선사의 '봉림사진경대사탑비문'을 비롯해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영파 선사의 '통도사감세존유적', 만해 스님의 붓글씨, 동산 스님의 편지글 등 그간 보기 힘들었던 유묵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운다.(043)647-6100

김철우 기자

瑞榮普洱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홍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통도사 신도회의 바램

거룩하신 부처님!
지혜의 빛을 드리우사,
영축산 자락에 서려 있는 먹구름을 걷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몇 년간 무명에 가리어 욕심내고
어리석음으로 지어 온 무지함을 일심으로 참회하옵니다.
월하 큰스님께서 홀연히 떠나신 이후 몇 해 동안 저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어둠 속에서 헤메었나이다.
인욕의 갑옷을 입으시고 지혜의 검을 들어 마군을 항복 받으시는 부처님!
저희들은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며 정법을 수호하는 보살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근간에 저희들의 신행도량인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통도사가 비상사태라고 하여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 단체가 구성되었고, 신문지상에서 성명전을 전개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들이 평소 존경하며 믿고 따랐던 스님들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2550년 부처님 오신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스님들이시여,
한번만 더 생각하고 생각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그리하여 저희들을 바른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픈 가슴으로 하루 빨리 통도사의 화합과 안정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서원을 부처님전에 발원하옵니다.

1. 방장스님께서 하루빨리 추대되어 통도사가 안정되기를 원하옵니다.
2. 또 다른 갈등이 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시고 우리 신도들이 원만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3. 통도사의 종무행정의 안정과 지속성을 위하여 현 주지직무대행을 현문스님께서 계속해서 맡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4. 통도사의 현안은 산중공의에 입각한 산중총회에서 논의되어 결정되기를 원하옵니다.
5. 종단의 수반이신 총무원장스님께서는 하루빨리 통도사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신도회
관음회 지장회 합창단 불교대학 철야참선법회
봉사반 불교청년회 선다회 수련회총동문회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마음! 부처님마음!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종 정 운허연화 대종사
원로원장 연봉
총무원장 송정
중앙종회의장 지은

사회복지법인 미륵원

이 사장 윤 송정

■ 총 무 원 :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1 전화 02)351-3679
■ 법인사무실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번지
전화 055)345-4741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

의 장 지은
수석부의장 도신
부 의 장 혜법
사무처장겸총무 영묵
운영위원장 해산
감사위원장 법일
종법위원장 해일
호계위원장 청화
사무처재무 성혜

■ 경남 창원시 신월동 68-1번지 전화 055)263-6565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비구니회

비구니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300-60번지
전화 051)531-0478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미륵산악회

고 문 송정
회 장 보성
총 무 혜연

外 미륵산악회원 일동

■ 경남 진해시 충무동 25-11번지 전화 055)547-3469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옥선사 신도회 육법공양단

단 장 하순자 (연화심)
지장회장 조옥란 (법화심)
지장회총무 김영순 (원행심)
신도회부회장 구봉임 (대법심)
신도회총무
남명주(청정심)
박양순(원명화)
정이숙(관음심)
민정분(자비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300-60번지 옥선사
전화 051)531-0478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종정예하 주석사찰
부처님 진신사리 보궁도량
대 인 사

조 실 운허연화 대종사
신도회장 이금용 (수덕)
총 무 이다향심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659번지
전화 055)375-2076/7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의장 주석사찰
문 복 정 사

조 실 지은

신도회 일동

■ 경남 창원시 신월동
68-1번지 토월상가 421호
전화 055)263-6565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관 음 정 사

조 실 송정

신도회 일동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번지
전화 055)345-4741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미륵산악회장
약 사 암

주 지 보성

신도회 일동

■ 경남 진해시 충무동
25-11번지
전화 055)547-3469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비구니회장
옥 선 사

주 지 동성
신도회장 정숙자 (반야행)
관음회장 송순분 (공덕화)

신도회 일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300-60번지
전화 051)531-0478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서울교구 종무원장
붓 다 마 을

주 지 영탄

신도회 일동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233-22번지 충호빌딩 7층
전화 02)953-8780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경기교구 종무원장
천 도 사

주 지 천명

신도회 일동

■ 경기 구리시 수택동 527-37
전화 031)565-4620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마음! 부처님마음!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충청교구 종무원장
목 련 사

주 지 혜 초

신도회 일동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138번지
전화 043)832-5164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울산교구 종무원장
성 불 암

주 지 도 신

신도회 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93-1
전화 052)295-2986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구 민 정 사

주 지 혜 문

신도회 일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123번지
전화 051)941-0295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경북교구 종무원장
도 성 사

주 지 도 성

신도회 일동

■ 경북 경산시 삼북동 1882번지
전화 010-9163-0998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의원
천 복 사

주 지 영 성

신도회 일동

■ 경북 구미시 원평2동 8-66
전화 054)443-7318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종법위원장
천 도 암

조 실 해 일

주 지 혜 화

신도회 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242
전화 011-9556-8413(조실)
011-352-8413 (주지)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아름다운절 · 병풍바위절
기도영험도량
성주산 성봉사

주 지 혜 연

신도회장 박무림 재 무 김의태
방생회장 엄봉석 원로여신도회장 조용순
운영위원장 조주현 교리부장 김상두
재비봉사회장 박정민 총 무 김갑주
여신도회장 이영숙 신도부회장 최용주

■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1064-2
전화 054)775-2976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해광사 포교원

주 지 마 하

신도회 일동

■ 경남 창원시 팔룡동 193-6 2층
전화 055)299-3536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금 오 암

(현대불교신문 서부경남지사)

주 지 영 민

신도회 일동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월산리 151번지
전화 055)355-7472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불 연 사

주 지 법 천

신도회 일동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05-2번지
전화 043-232-5447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운영위원장
봉 선 사

주 지 해 산

신도회 일동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월산리 151번지
전화 041)556-0450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의원
현 통 암

주 지 혜 도

신도회 일동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죽월리 440번지
전화 055)356-7879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대 원 사
대원금화사

주 지 영 묵

신도회 일동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513번지
전화 055)335-6683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 사회부장
보 은 암

주 지 영 운

신도회 일동

■ 경남 마산시 합포구 신월동 34-6번지
전화 010-9114-8826/055)243-4136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 문화부장
극 락 정 사

주 지 혜 인

신도회 일동

■ 경남 밀양시 상동면 매화리 300번지
전화 010-3329-5478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의원
용 정 암

주 지 지 산

신도회 일동

■ 경남 통영시 동호동 118번지
전화 055)643-0563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대 명 암

주 지 감로심

신도회 일동

■ 경남 창원시 대원동 성원아파트 2동 505호
전화 055)273-7139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약 등 사

주 지 보 행

신도회 일동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567-16호
전화 02)837-9693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도 명 암

주 지 묘 각

신도회 일동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211-11번지
전화 02)351-3679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의원
불 곡 사

주 지 혜 연

미륵회 일동

■ 경남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822번지
전화 055)636-2414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용 화 정 사

주 지 시 경

신도회 일동

■ 경기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216번지
전화 031)768-0076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의원
불 동 암

주 지 행 인

신도회 일동

■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1458번지
전화 055)746-9286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심 복 사

주 지 혜 종

신도회 일동

■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 807번지
전화 02)577-0007

www.hallaapt.co.kr



행복을 연주하는 공간

한라 비발디

사계절을 테마로 조경부문을 특화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선사하는 한라비발디 –
만나보세요. 늘 머물고 싶고 살수록 돋보이는 아파트!
행복을 연주하는 공간, 한라비발디

vivaldi
한라비발디

한라건설